

2015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

성북동

이야기 자원 모음집



성북문화원
깊은맛·나눔·즐김

성북동 이야기자원 모음집

기획 | 강성봉(성북문화원 사무국장)

집필진 | 박수진(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팀장)

백외준(성북문화원 향토사연구원)

남기현(성균관대 동아시아역사연구소 연구원)

한봉석(역사문제연구소 연구원)

김보라(성북구립미술관 관장)

김지은(성북구청 학예사)

자료조사 | 차현주(한성대학교 사학과 석사과정 수료)

발행인 | 조태권(성북문화원장)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발행처 |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Tel 02-765-1611

Fax 02-765-1619

디자인 | 권이지

펴낸곳 | 학연문화사

비매품

© 2015 성북문화원

본 도서의 저작권 및 법적권리는 성북문화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와 문서상 합의 없이 무단전재 및 복제를 금합니다.

※ 이 책자는 2015 서울 속 마을여행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비매품

겉표지 사진 : 인왕산 꼭대기에서 바라본 한양도성

2015 서울 속 마을여행
성북동 이야기자원 모음집

No.	제 목
조선시대(1392~1910)의 성북동	
1-1	한양도성의 축조
1-2	한양도성의 수축(1)
1-3	한양도성의 수축(2)
1-4	한양도성의 수축(3)
1-5	한양도성의 축조와 수축(태조~세종)
1-6	한양도성의 수축(4)
1-7	한양도성의 수축(5)
1-8	수성절목(守城節目)
1-9	한양도성의 수축(6)
1-10	혜화문(1)
1-11	혜화문(2)
1-12	혜화문(3)
1-13	혜화문(4)
1-14	숙정문(1)
1-15	숙정문(2)
1-16	선잠단과 선잠제(정종~태종)
1-17	선잠단과 선잠제(세종-1)
1-18	선잠단과 선잠제(세종-2)
1-19	선잠단과 선잠제(세종-3)
1-20	선잠단과 선잠제(세종-4)
1-21	선잠단과 선잠제(세종-5)
1-22	선잠단과 선잠제(세조~성종)
1-23	선잠단과 선잠제(성종-1)
1-24	선잠단과 선잠제(성종-2)
1-25	선잠단과 선잠제(성종-3)
1-26	선잠단과 선잠제(성종~연산군)
1-27	선잠단과 선잠제(중종)
1-28	선잠단과 선잠제(명종)
1-29	선잠단과 선잠제(광해군~영조)
1-30	선잠단과 선잠제(영조-1)
1-31	선잠단과 선잠제(영조-2)
1-32	선잠단과 선잠제(영조-3)
1-33	선잠단과 선잠제(영조~순종)
1-34	성북둔 설치 배경
1-35	영의정 홍봉한의 성북둔 설치 건의
1-36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

1-37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2)
1-38	성북동 한시(1)
1-39	성북동 한시(2)
1-40	성북동 한시(3)
1-41	성북동 한시(4)
1-42	성북동 한시(5)
1-43	성북동 한시(6)
1-44	성북동 한시(7)
1-45	유북저동기(遊北渚洞記)
일제강점기(1910~1945)의 성북동	
2-1	삼산의숙 운동회
2-2	삼산의숙 창설 취지
2-3	성북동의 촛불, 봉시 황연수의 아름다운 일
2-4	교육가의 열성, 삼산의숙의 원족회
2-5	경향의 자선가
2-6	삼산학교 설립자 황수연 별세
2-7	삼산의숙의 장래-세탁공전으로 유지
2-8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
2-9	삼산학교 부형회
2-10	삼산학교와 송인면 부호(富豪)
2-11	백인기(白寅基)군과 동척감사
2-12	성북구락부 가맹
2-13	경기의 수군이오 경선의 번병
2-14	성북야학원 설립
2-15	성북소년회 야학부
2-16	교실에 난로 없어 200생도 고생
2-17	삼산교에 서광
2-18	이원우 씨의 독지
2-19	성왕히 거행할 경성 어린이날
2-20	성북의 향기 (一)
2-21	성북의 향기 (二)
2-22	성북의 향기 (三) - 1
2-23	성북의 향기 (三) - 2
2-24	삼산학교 대운동회
2-25	하운실씨가 지난 20일에 삼산교장으로 취임
2-26	삼산학교를 보통학교로 승격 노력 중
2-27	성북 국유지 1만8천평 불하
2-28	성북동민 단오위안회(端午慰安會)
2-29	성북유치원 설립

2-30	성북동의 문인촌
2-31	삼산학교 운동회
2-32	삼산학교 학예회
2-33	성북유치원에 내는 의견금
2-34	성북동 동명의 유래
2-35	전차구역제를 철폐하라
2-36	학령초과아동 위해 영명학교 신설
2-37	고심 20여년 거자(巨資)도 희생(犧牲)
2-38	조선사서지사항
2-39	김경중의 『조선사』
2-40	내년 주민의 숙원이던 성북정 하천 개수
2-41	버스 운전시간 연장을 진정
2-42	성북정 산불
2-43	송인, 창신정 사무는 동부출장소에서 취급
2-44	성북정 요정춘화에 주민이 쫓기진정
2-45	경성부내 수도선(水道線) 확장
2-46	경성부 풍치지구 20개소 지정
2-47	전염병원설립중지를 경영자에게 교섭
2-48	성북정민, 요양원 설치 중지 최후권고
2-49	폐병원의 설치반대, 성북정민 재진정
2-50	부호의 별장지대 풍경, 성북동 일대
2-51	백만장자의 제2세 행장기
2-52	음벽정
2-53	삼산학교당국담
2-54	삼산학교 승격문제로 후원회측에서 쫓기
2-55	삼산학교 교주 姜振九 氏 책임경영 성명
2-56	재건의 삼산학교
2-57	음벽정 화재, 별실 1동 전소
2-58	삼산학교 동창회
2-59	음벽정의 철야영업
2-60	삼산학교 이사장, 경성부 의원 입후보
2-61	성북정 순사 파출소, 9월말에 준공
2-62	교외 산재한 요정에 철야영업을 경고
2-63	구인회는 ‘무의지파’가 아니다
2-64	1934년과 조선문단 - 반동의 시대
2-65	구인회 주최 “시와 소설의 밤”
2-66	구인회는 어디로?
2-67	내가 문단에 데뷔하던 때 - 박금청 회고담
2-68	구인회-조용만 회고담
2-69	李無影 씨 10주기 맞아 - 백철
2-70	30년대 전반의 문인들 - 김병익

2-71	찬란한 1930년대 조선문단
2-72	유진오의 구인회회고
2-73	월북문인작품의 규제완화
2-74	이상(李箱)의 일화
2-75	월북 작가 이태준 작품 출간
2-76	30년대 구인회 조용만 씨 소설 출간
2-77	노시산방기
2-78	동일(冬日)에 제하여
2-79	육장후기
2-80	김환기와의 결혼
2-81	산방기
2-82	남풍
2-83	편편상(片片像)-김환기의수필
2-84	근원의 글을 읽다
2-85	첫 만남
2-86	두 번째 만남
2-87	서울대 미술학부 창립
2-88	근원의 미술교육
2-89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2-90	노시산방, 반야초당, 경운동 집
2-91	근원 선생과 나
2-92	국대안 반대 운동
2-93	『근원수필』과 『조선미술대요』
2-94	미술문화의 사회교육자
2-95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현대(1945~)의 성북동

3-1	성북동회, 동회를 이끈 인물들
3-2	해방공간 좌우의 소용돌이
3-3	한국전쟁의 상처
3-4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1)
3-5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2)
3-6	‘풍치지구’를벗어나북악스카이웨이시대로
3-7	‘성북동 비둘기’의 추방
3-8	소설에 나타난 1959년의 성북동 풍경
3-9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조성과정
3-10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회적 위상
3-11	1997년 길상사의 개원
3-12	1996년 성북문화원의 개원
3-13	성북로(1)
3-14	성북로(2)

3-15	선잠로의 문화공간
3-16	청룡암과 삼청각
3-17	북정마을 순환로
3-18	성북동의 순성길
3-19	‘성·아·들’과 ‘성북동천’
3-20	대한교육보험, 외국인주택건설
3-21	‘동베를린사건’과 작곡가 윤이상
3-22	명수학교의 개교
3-23	성북동 무허가주택 철거의 진통
3-24	조지훈 시인 별세(1)
3-25	조지훈 시인 별세(2)
3-26	보화각에서 국보급 고서 발견
3-27	시인 천상병이 살아 있다
3-28	말뼌인 호화주택 증과세
3-29	검도복 차림 일본 대학생 성북동 활보
3-30	홍익북초등학교의 폐교 결정
3-31	성북동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난
3-32	화가 박래현 별세
3-33	서울성곽의 복원에 따른 주택철거
3-34	서울성곽 안팎 2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3-35	주한 서독대사관저 준공
3-36	숙정문의 복원
3-37	김광섭 시인 별세
3-38	성북천변 모운숙의 집(박화성회고담)
3-39	성북동 성곽 주변 102채 건물 철거 방침
3-40	성북동 도로포장공사 준공
3-41	오일용 씨(오세창의 3남) 정년퇴직
3-42	형제강도 수배
3-43	고 박정희 전 대통령 4주기 제사
3-44	채동선음악상 제정한 이소란 여사
3-45	김광균 시인,신작시 발표
3-46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지정
3-47	불교 태고종 새청사 건립 예정
3-48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 별세
3-49	성북천 복개공사장 사고
3-50	불교 태고종 「중앙회관」 낙성식
3-51	간송미술관 추사 탄생 200돌 기념특별전
3-52	성북1동 가압장 시설 확장공사
3-53	선잠단 정비
3-54	독립유공자 백매수 옹 별세
3-55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 별세

3-56	요정 三清閣, 혼례식장 변신
3-57	한국화가 서세옥의 집
3-58	근海 일대기 연극으로 본다
3-59	매듭장 김은영 여사 인터뷰
3-60	성북동에 고급빌라 속속 들어서
3-61	성북동 財界총수들 지역문화원 설립 나서
3-62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 인터뷰
3-63	성북동 ‘대원각’ 도심속 山寺로 탈바꿈
3-64	만해 한용운 심우장 정비 후 개방
3-65	김수환 추기경 길상사 개원법회 참석
3-66	법정스님 명동성당서 강연
3-67	성북동 배경의 연극 ‘혈맥’ 공연
3-68	간송미술관 설립 60주년
3-69	97년 강도 침입 최순영 회장 집 5억 털려
3-70	전 대원각 주인 김영한 씨 별세
3-71	운보 김기창의 삶과 작품세계
3-72	요정정치 산실 삼청각 문화공간 탈바꿈
3-73	한국 최초 카톨릭 순교자상 발견
3-74	최순우옛집에서열린전시회
3-75	노조원 30여 명 이웅렬 회장 집 점거 농성
3-76	‘한국판 비벌리힐스’ 성북동 24시
3-77	화가 서도호의 성북동 집
3-78	‘바람의 화원’ 전시장을 휘감다
3-79	국내 최초 외교관 사택단지
3-80	법정스님 입적
3-81	전 대선 후보 사돈 집에 도둑
3-82	195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
3-83	196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1)
3-84	196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2)
3-85	197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1)
3-86	197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2)
3-87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1)
3-88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2)
3-89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3)
3-90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4)
3-91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5)
3-92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6)

조선시대(1392~1910)의 성북동

No.	1-1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축조	키워드	태조, 정도전, 백성 징발
이야기 자원	처음으로 도성 조축 도감(都城造築都監)을 두어 판사·부판사·사(使)·부사(副使)·판관·녹사 등을 임명하고, 판삼사사 정도전에게 명하여 성터를 정하게 하였다. - 태조실록 8권, 태조 4년 윤9월 13일 갑술 1번째기사 1395년 경상·전라·강원도와 서북면의 안주(安州) 이남과 동북면의 함주(咸州) 이남의 민정(民丁) 11만 8천 70여 명을 징발하여 처음으로 도성을 쌓게 했다. 이미 성터를 측량하여 자호(字號)를 나누어 정하였는데, 백악(白岳)의 동쪽에서 천자(天字)로 시작하여 백악의 서쪽으로 조자(弔字)에서 그치게 하였다. 서쪽 산 돌재[石嶺]까지 합해서 땅의 척수가 무릇 5만 9천 5백 척(尺)이요, 6백 척마다 한 자호(字號)를 붙였으니, 모두 97자(字)이며, 한 글자마다 6호(號)로 나누고, 두자(字)마다 감역(監役)을 두고, 판사(判事)·부판사(副判事)는 각 1원(員)을 두고,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은 12원(員)을 두었다. 각도 주군(州郡)의 민호(民戶)의 많고 적음을 헤아려, 천자(天字)로부터 일자(日字)까지는 동북면이, 월자(月字)에서 한자(寒字)까지는 강원도가, 내자(來字)에서 진자(珍字)까지는 경상도가, 이자(李字)에서 용자(龍字)까지는 전라도가, 사자(師字)에서 조자(弔字)까지는 서북면이 맡게 하였다.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이 낮이나 밤을 가리지 않고 시키니, 임금이 날씨가 심히 춥다고 하여 밤의 역사는 못하게 하였다. -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1월 9일 무진 1번째기사 1396년 도성(都城)의 기초를 열었으므로, 백악(白岳)과 5방(方)의 신(神)에게 치제(致祭)하였다. - 태조실록 9권, 태조 5년 1월 9일 무진 2번째기사 1396년 명하여 경기(京畿) 안의 백성을 징발하여 도성(都城)을 수축하게 하였다. - 태조실록 12권, 태조 6년 8월 14일 계사 4번째기사 1397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수축(1)	키워드	태종대 수축
이야기 자원	하윤 등이 아뢰기를, “도성(都城)은 나라의 근본이 되므로 의리상 완고(完固)하게 해야 마땅하니, 청컨대, 수리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경성 수보 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하여, 성산 부원군(星山府院君) 이직(李穰)·의령 부원군(宜寧府院君) 남재(南在)를 도제조(都提調)로 삼고, 중군 도총제(中軍都總制) 김한로(金漢老)·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 박자청(朴子靑)·여칭(呂稱)·여천군(驪川君) 민여익(閔汝翼)·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심온(沈溫)·좌군 총제(左軍總制) 우희열(禹希烈)·인녕부 윤(人寧府尹) 안노생(安魯生)·전 도관찰사 이귀산(李貴山)을 제조(提調)로 삼았다. 정부에서 아뢰기를, “수축군(修築軍)은 경기에서 1만 2천 명, 충청도에서 2만 2천 명, 경상도에서 2만 7천 명, 전라도에서 2만 4천 명, 강원도에서 5천 명, 풍海道(豐海道)에서 1만 명, 아울러 10만 명을 조발(調發)하여 속히 부역하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6권, 태종 13년 8월 1일 정미 1번째기사 1413년 도성 수축 도감(都城修築都監)을 설치하였다. - 태종실록 32권, 태종 16년 10월 13일 신미 1번째기사 1416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수축(2)	키워드	태상왕 태종
이야기 자원	도성 수축도감(都城修築都監)이 계(啓)하기를, “여러 도의 군정(軍丁) 속에서 갑사 별패(甲士別牌)·시위패(侍衛牌)·수군(水軍)·진군(鎭軍)·수성군(守城軍)·익정군(翼正軍)·첨발(簽發)·봉족(奉足) 및 잡색군(雜色軍)을 제외하고서 성을 쌓게 되는데, 토성(土城)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2만 5천 5백 35척인데, 매 척당 각 15명씩으로 쌓게 되니, 계가 38만 3천 25명이고, 석성(石城)으로 된 곳이 허물어진 데가 3천 9백 46척인데, 매 척당 각 5명씩으로 쌓게 되니, 계가 1만 9천 7백 30명이고, 서전문(西箭門)과 웅성(甕城)이 1천 명이니, 합계 40만 3천 7백 55명이다. 매 명당 40일 식량을 싸 가지고 와서 맡은 지역을 나누어 공사에 착수하게 하였는데, 경기는 백악산 동쪽 천(天) 자(字)로부터 진(辰) 자에 이르는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3백 97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천 5백 45척이고, 함길도는 숙(宿)자로부터 열(列) 자에 이르러,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백 44척이고, 토성으로 허물어진 데가 3백 86척이고, 강원도는 열(列)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내(來)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백 10척,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1천 7백 30척이며, 충청도는 내(來)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세(歲)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8백 67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4천 3백 89척이며, 전라도는 세(歲)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여(麗)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5백 70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3천 9백 2척이며, 경상도는 여(麗)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해(海)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2백 60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7천 94척이며, 평안도는 해(海)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상(翔)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6백 26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3천 3백 91척이니, 서전문(西箭門)과 웅성(甕城)이며, 황해도는 상(翔) 자의 끝나는 데로부터 조(弔) 자에 이르기까지, 석성(石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9백 78척이고, 토성(土城)으로 허물어진 데가 2천 98척이다. 각도의 관찰사가 도내의 수륙 방어의 긴급하고 긴급하지 않은 것과, 호구의 많고 적은 것을 작량하여 뽑아 보냈는데, 40일 안에 필역하면 바로 돌려 보내 줄 것이나, 단단하게 쌓지 아니한 자는 감독(監督)과 제조(提調)와 수령(守令) 및 총패(摠牌)와 두목(頭目)이 모두 중죄를 더할 것이며, 만일 고쳐 쌓은 뒤에 무너지게 되면, 처음에 쌓던 관원을 시켜 다시 쌓도록 하소서.” 하니, 태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13권, 세종 3년 10월 29일 무오 6번째기사 1421년 도성 수축 도감에서 계하기를, “성을 쌓는 군사가 도망하는 자는, 처음 범하면 곤장 1백 대를 치게 하고, 두 번 범하면 참형(斬刑)에 처하게 하소서.” 하니, 태상왕이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14권, 세종 3년 12월 24일 계축 3번째기사 1421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4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수축(3)	키워드	태상왕 태종, 세종
이야기 자원	태상왕이 병조에 묻기를, “일기가 이와 같이 추우니, 도성(都城)을 수축하는 여러 도(道)의 군인들이 오는 도중에 얼어 죽는 사람이 없겠느냐.”고 하니, 대답하기를, “여러 도에서 각기 수령(守令)을 보내어 전적으로 맡겨 거느리고 오게 했으므로, 반드시 얼어 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태상왕이 말하기를, “비록 성을 쌓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어찌 백성들을 얼어 죽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였다. 이에 명하여 지인(知印)을 여러 도에 나누어 보내어 군인을 거느리고 오는 수령에게 타이르기를, “도착할 기일만 생각하지 말고 일기가 춥거든 머물러 유숙하고 땀나무를 준비 하며, 일기가 따뜻하거든 그제야 길을 떠날 것이며, 백성 한 사람도 얼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만약 얼어 죽는 사람이 있거든 상세히 기록하여 아뢰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5일 계해 3번째기사 1422년 도성(都城)을 수축하는 일로써 목멱산(木覓山)과 백악(白岳)의 산신(山神)에게 제사 지내어 알렸다.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4일 임신 5번째기사 1422년 선지하기를, “도성을 수축한 후에 혹시 돌 한 개라도 무너져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즉시 그 방면의 감독관으로 하여금 수보(修補)하게 하고, 모두 논죄(論罪)할 것이다.”하였다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1월 17일 을해 3번째기사 1422년 임금이 신궁에 문안하여 군정(軍丁)이 많이 사망한 일을 태상왕에게 아뢰니, 태상왕이 노하여 조말생·이명덕에게 이르기를, “도성을 수축한 군사 중 죽은 자가 매우 많은데, 경들은 어찌서 아뢰지 않았는가. 지금 다행히 주상의 말로 인하여 이제야 이를 알게 되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면 이를 알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어찌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 것과 다름이 있으랴.”고 하니, 말생 등이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하였다. 태상왕이 즉시 병조에 명하여 의원(醫員)을 거느리고 성 밑으로 돌아다니면서 병들고 굶주린 사람과 죽어서 매장되지 않은 사람을 두루 찾게 하고, 또 한성부로 하여금 성밖 10리 안에서 찾도록 하였다.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2월 26일 계축 2번째기사 1422년 선지하기를, “도성을 수축할 때에, 각도의 군인들 중에 길에서 죽은 사람은 다른 예(例)에 의거하여 호역(戶役)을 면제하고 부물(賻物)을 줄 것이다.”라고 하였다. - 세종실록 15권, 세종 4년 3월 20일 정축 2번째기사 1422년 성문 도감(城門都監)이 계하기를, “함길도 북청부(北靑府)에서 맡아 쌓은 부분인 도성(都城)이 무너졌으니, 청컨대 당초의 북청 감역관(監役官)과 두목(頭目)·총패(摠牌)에게 명령하여 기한 안에 서울에 와서 수축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25권, 세종 6년 8월 5일 정미 3번째기사 142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5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축조와 수축(태조~세종)	키워드	세종실록 지리지
이야기 자원	도성(都城)의 둘레가 9천 9백 75보(步)인데, 북쪽 백악사(白嶽祠)로부터 남쪽 목멱사(木覓祠)에 이르는 지름이 6천 63보요, 동쪽 흥인문(興仁門)으로부터 서쪽 돈의문(敦義門)003)에 이르는 지름이 4천 3백 86보가 되며, 정동(正東)을 흥인문, 정서(正西)를 돈의문, 정북(正北)을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을 홍화문(弘化門) 【곧 동소문(東小門)】, 동남(東南)을 광희문(光熙門) 【곧 수구문(水口門)】, 서남(西南)을 숭례문(崇禮門) 【곧 남대문】, 소북(小北)을 소덕문(昭德門) 【곧 서소문(西小門)】, 서북(西北)을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 【태조(太祖) 5년 병자 봄에 각도의 민정(民丁) 11만 8천 76명을 모아 도성을 쌓기 시작하였는데,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니, 번와(燔瓦) 및 석회군(石灰軍)이 또 1천 7백 59명이었다. 가을에 이르러 또 민정 7만 9천 4백 31명을 모아서 8월 13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9월 그믐날에 역사를 파하였으며, 금상(今上) 4년 임인에 태종의 명으로 성을 수축하여 토성(土城)을 모두 돌로 바꾸었는데, 8도의 군사 총 32만 2천 4백 명을 모아, 정월 15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월에 마쳤다. 성 동쪽에, 처음에 수문(水門) 3을 열었는데, 장마를 만나면 〈문이〉 막히는 것을 없애기 위하여 2문을 더 만들었다.】 -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6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수축(4)	키워드	왜란과 호란을 거치며
이야기 자원	경기·충청도·전라도의 당령 선군(當領船軍)294) 및 방패(防牌)·섭육십(攝六十)295) 을 징용(徵用)하여 도성(都城)을 수축하였다. 이달 26일로 기한하였으나 지금 기한에 못 미쳐서 마쳤기 때문에, 그 군사를 나누어서 남은 날에는 흥인문(興仁門)과 동소문(東小門)을 수리하였으며 혹은 영웅 대군(永膺大君)의 집 바깥 담을 쌓았다. - 문종실록 6권, 문종 1년 3월 17일 병진 9번째기사 1451년 병조가 아뢰기를, “도성의 무너진 곳에 낭청(郎廳) 4명을 파견하여 금화사(禁火司)의 별좌(別坐)와 금군(禁軍) 등을 거느리고 구역을 나누어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지난달 28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9일에 역사를 마쳤습니다. 남소문동(南小門洞) 근처 같은 곳은 성이 무너진 부분으로 인마(人馬)가 통행하여 마치 큰 길과 같았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이 방벽을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뜻이겠습니까. 보기에 몹시 한심하였습니다. 지금은 체성(體城)과 궁가(宮家)가 모두 수축되었으나, 제대로 간수하지 않으면 무뢰배가 임의로 돌을 가져가 얼마 안 가서 도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인가(人家) 근처는 앞서의 계사대로 한성부로 하여금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인솔하여 성 내외의 인가를 일일이 나누어 맡기게 하고, 두 건의 책자를 만들어 본조와 한성부에 나누어 간직하여 훗날 참고에 대비하도록 전교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또 체성을 수축하는 곳의 석면에는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감축관(監築官)의 성명을 새기도록 하여 그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징험할 수 있게 하고, 남소문과 성군관 뒤 숙정문(肅靖門)의 곡성(曲城) 같이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은 평상시의 구규(舊規)대로 군보(軍堡)를 설치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순라돌며 수직하게 하여 범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겠습니다.”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광해군일기[중초본] 54권, 광해 4년 6월 4일 정묘 7번째기사 1612년 도성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였다. - 인조실록 3권, 인조 1년 9월 15일 임인 4번째기사 1623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7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수축(5)	키워드	숙종대 수축
이야기 자원	도성(都城)의 수축(修築)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각산(三角山)에 고유제(告由祭)를 지냈다. 오군문(五軍門)에서 각각 장교(將校)를 보내어 노원(蘆原)과 주암(舟巖) 등지에서 돌을 뜨게 하였다. 그리고 뭇을 짓고 기계(機械)에 소용되는 나무는 사산(四山)의 벌레먹은 나무를 베어다 쓰게 하였다. 영의정(領議政) 신완(申琬)이 기계를 준비하여 8월부터 수축을 시작할 것을 청하니, 그대로 따랐다. 경기(京畿) 백성으로 군문(軍門)에 예속된 사람들은 이 역사 때문에 폐농(廢農)하였고, 돌을 운반하는 역사에서는 사상자(死傷者)가 상당히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원망하였다. -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3월 25일 갑자 3번째기사 1704년 약방(藥房)에서 입진(入診)하였다. 도제조(都提調) 최석정(崔錫鼎)이 연사(年事)가 흥년이 든 이유로써 우선 도성(都城)의 역사를 중지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무너진 성을 보수(補修)하는 것은 성을 쌓는 데 비할 것이 아니다. 대개 도성의 일에 논의가 일치(一致)하지 않는데, 비록 정치가 태평할 때일지라도 또한 편안할 때에 위태함을 잊지 않는 방도(方道)가 있어야 하는데, 더구나 오늘과 같은 때이겠는가? 논하는 자는 반드시 강화도[江都]와 남한산성(南漢山城)으로 말을 하는데, 남한산성은 외롭고 위태하여 외부의 원조를 바라기 어려웠던 것은 병자년의 일로써 또한 증험할 것이며, 강화도는 착실히 보장(保障)할 방비(防備)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구(海寇)가 만약 온다면 더욱 믿을 만한 것이 없으니, 혹시 사변(事變)이 있게 되면 장차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도성의 수축은 곧 국가의 큰 계획이니, 긴급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하고, 임금이 또 말하기를, “임진년의 난리엔 선조(宣祖)께서 내부(內附)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어가(御駕)가 용만(龍灣)에 머무는데 이르렀지만, 지금은 내부(內附)의 방도(方道)가 없으며, 더구나 인심(人心)과 사세(事勢)가 어찌한 걸음이라도 옮길 수가 있겠는가? 강화도나 남한산성은 모두 믿을 수 없으니 도성(都城)을 수축하는 것은 실로 이것이 큰 계획인데, 늘 이와 같이 하면 어느 때에 성취되겠는가? 모름지기 착실히 유의(留意)하도록 하라.”하였다. 최석정이 또 〈도성이〉 넓고 커서 지키기 어렵다는 이유로써 말을 하니, 제조(提調) 민진후(閔鎭厚)가 말하기를, “도성을 굳게 지키는 것은 의리(義理)에 정당(正當)한 것이니, 점차로 다 쌓게 되면 어찌 이루지 못할 이치가 있겠습니까? 설령 당초에 이런 의논을 오발(誤發)하였더라도, 그 본심을 구명(究明)한다면 실로 나라를 위하여 낸 것인데 근래에 문득 당론(黨論)을 이룬 것입니다.”하였다. - 숙종실록 43권, 숙종 32년 2월 4일 계사 3번째기사 1706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수성절목(守城節目)	키워드	도성방어체제의 정비
이야기 자원	수성 절목(守城節目)을 작성하고 호조와 선혜청 및 여러 군문들의 창고를 차례차례 성 안으로 옮기라고 명하였다. (중략) 드디어 하교하여 절목을 속히 작성하고 성 밖의 창고를 모두 옮기되, 창고를 옮기기 전에 받아들이는 곡물은 성 안의 창고로 받아들이도록 하였다. 그후 절목이 작성되었다. <그 절목에 이르기를,> 1. 오부(五部)의 민호를 각기 가까운 데에 따라 삼영(三營)에 분속시킨다. 1. 삼영(三營)이 나누어 받은 성첩(城堞)은 모두 5정(亭)으로 나누어 전(前)·좌(左)·중(中)·우(右)·후(後)의 차례를 정한 다음, 돌에 글자를 새겨 표시를 한다. 【훈전(訓前)·훈좌(訓左)·훈중(訓中)·훈우(訓右)·훈후(訓後)로 표시하고, 금위영 어영청도 이와 같이 한다.】 1. 각 군문이 지킬 성첩을 다섯으로 나누고 만약 1영으로써 지킬 것 같으면 5부(部)를 나누어 5정을 만들고, 1부로 지킬 것 같으면 5사(司)를 나누어 5정을 삼으며, 1사로 지킬 것 같으면 1초(哨)를 나누어 5정을 삼는다. 1. 5부의 각계(各契)는 모두 조그마한 기를 만들되, 훈련도감은 황색, 금위영은 청색, 어영청은 백색으로 하여 아무 부, 아무 계라는 것을 쓰고, 또 훈전·훈좌 등의 글자를 써서 표시를 삼으며, 해당 영이 만들어서 해당 부에 지급하되, 평상시에는 본영에 간직하여 둔다. 1. 혹시라도 위급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매 호(戶)마다 집을 지키는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성을 지키고, 동서(東西) 양반의 현직·전직 및 유생(儒生)·출신(出身)·잡과(雜科)·한산인(牀散人)들 까지도 일제히 성첩에 올라가서 힘을 합쳐 성을 지킨다. 하였다. 사신은 말한다. “성을 설치하는 목적은 장차 지키자는 것이다. 주현(州縣)의 조그마한 성일지라도 적의 침입을 보고 버리고 갈 수 없는데, 더구나 왕성이겠는가? 그러나 침입의 안팎과 형세의 완급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니, 성을 지킬 것인가의 여부를 어떻게 미리 정할 수 있겠는가? 또 한 한양성(漢陽城)이 지키기 어렵다는 논란은 예로부터 있어 온 것이고, 강가에 창고를 설치한 것에 대해 3백 년이 지나는 동안 오늘까지 아무 이의도 없었다. 옛사람들이라고 모두가 겁쟁이이고 피가 없었겠는가? 대개 성이란 높고 작으면 형세가 견고하여 안전을 기하기가 쉽고, 평평하고 넓으면 힘이 분산되어 지키기가 어려운 법이다. 강가의 창고는 평상시에는 강가에 사는 백성들이 이에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왔는데, 난리가 있으면 성 안으로 실어들일 수도 있고 배에다 실어서 아무데로나 보낼 수도 있다. 오부의 백성들로 나누어 지키도록 한다는 데에 있어서는 군자들도 아직 말하지 않은 일이니, 설사 도성을 사수한다 하더라도 적군을 맞아 대응하는 데는 그 형편에 따라 변화가 무궁하고, 또 도성의 백성을 통제하는 것은 단 한 사람의 장수가 수행할 수 있는 일이니 억지로 나눌 필요도 없고 또 미리 나누어 둘 필요도 없다. 그러나 이때에 임금이 사업에 뜻을 기울인 나머지 많은 개혁을 시도하여, 관제를 이미 수정하고 방례(邦禮)를 보완하며 법률을 밝히고, 아악(雅樂)을 바로잡았으며, 또 군비에 마음을 두었다. 이에 구성임이 도성을 지킨다는 말로 비위를 맞추고 나섰고, 또 그가 이른바 성을 수축한다는 것도 대개 분장하는 데에나 힘써서, 해묵은 석회가 굳어져서 벗겨지지 않는 곳은 날카로운 쇠끝으로 후벼내어 도색이 수월하게나 할 정도였다. 여러 창고를 헐어버림으로 인하여 삼강(三江)이 텅 비게 되고, 내창(內倉)으로 곡물을 운송하느라 손실이 수없이 많았으며, 두 역사에 따른 경비 또한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 대신들이 모두 마음속으로 옳지 못한 처사임을 알면서도 극력 간쟁하여 만류하는 자가 없었으니, 참으로 아는 일이라면 말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옛날 양신(良臣)의 의리에 비추어볼 때 부끄러운 노릇이다. 그럼에도 임금은 유독 구성임의 무리와 더불어 국가의 큰 계책을 결정하면서 조금도 어려워하지 않았다. 《주역(周易)》 〈이괘(履卦)의 구오(九五)에〉 이르기를, ‘결단코 이행하려 한다. 마음을 곧바르게 가져도 위태하다.[夬履貞厲]’라고 하였는데, 더구나 바르지 못한 것이겠는가? 아! 안타깝다.” - 영조실록 64권, 영조 22년 12월 6일 정묘 3번째기사 1746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9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양도성의 수축(6)	키워드	재정의 부족
이야기 자원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도성의 여첩(女堞)을 차례로 수축하고 있는데, 어영청(御營廳)의 물력이 다 떨어져 완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친부(宗親府)에서 가져온 돈 가운데 2,000냥(兩)을 구획(區劃)하여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하니, 윤허하였다. - 고종실록 3권, 고종 3년 9월 12일 무진 3번째기사 1866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0	작성자	백외준
제목	혜화문(1)	키워드	세종의 비밀 행보, 선암~혜화문~흥덕사
이야기 자원	성 쌓는 역사를 마치고 정부(丁夫)들을 돌려보내었다. 봄철에 쌓은 곳에 물이 솟아나서 무너진 곳이 있으므로, 석성(石城)으로 쌓고 간간(間間)이 토성(土城)을 쌓았다. 운제(雲梯)도 빗물로 인하여 무너진 곳이 있으므로 다시 쌓고, 또 운제(雲梯) 1소(所)를 두어서 수세(水勢)를 나누게 하고, 석성(石城)으로 낮은 데가 있는 데는 더 쌓았다. 또 각문(各門)의 월단 누함(月團樓閣)을 지었다. 정북(正北)은 숙청문(肅淸門), 동북(東北)은 흥화문(弘化門)이니 속칭 동소문(東小門)이라 하고, 정동(正東)은 흥인문(興仁門)이니 속칭 동대문(東大門)이라 하고, 동남(東南)은 광희문(光熙門)이니 속칭 수구문(水口門)이라 하고, 정남(正南)은 숭례문(崇禮門)이니 속칭 남대문이라 하고, 소북(小北)은 소덕문(昭德門)이니, 속칭 서소문(西小門)이라 하고, 정서(正西)는 돈의문(敦義門)이며, 서북(西北)은 창의문(彰義門)이라 하였다. - 태조실록 10권, 태조 5년 9월 24일 기묘 2번째기사 1396년 동소문(東小門) 밖에서 무과(武科)를 복시(覆試)하였는데, 전 사정(司正) 유승연(柳承淵)을 제일(第一)로 하였다. 임금이 친열(親閱)하고자 하였으나 마침내 실행하지 않고, 좌대언(左代言) 유사눌(柳思訥)에게 명하여 감독하게 하였다. 유승연을 부사직(副司直)으로 삼았다.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4월 6일 기유 1번째기사 1414년 임금이 대비를 모시고 선암(繕巖) 아래 냇가로 행차를 옮기고, 무당으로 하여금 악차(輦次)에서 신(神)에게 제사하였다. 새벽에 임금이 두어 사람을 데리고 대비를 모시고 가만히 동소문(東小門)으로 들어와 흥덕사(興德寺)에 행차를 정하니, 두 대군이 도보로 따르고, 시종자들은 임금의 간 곳을 잃어, 다 동대문 밖 안암동(安巖洞)에 이르러 헛되이 장전(帳殿)을 설치하고 시위하다가, 해가 저물어 다 성안으로 돌아왔다. 이날에 대비의 병환이 나으므로, 이로부터 밤마다 행차를 옮기시어, 사람들이 알지 못하였다. - 세종실록 8권, 세종 2년 6월 26일 계해 1번째기사 1420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1	작성자	백외준
제목	혜화문(2)	키워드	전별, 연산군의 의심
이야기 자원	김유(金有)가 적성(積城)으로 가니, 김흥(金興)이 동소문(東小門) 밖에 나가 전별하였다. 민견(閔鰲)과 예조 판서 이승손(李承孫)을 보내어 전별하고 아청면포 겹원령(鵝靑綿布袂圓領)·초록주 탑호(草綠紬塔胡)·유청주 철릭(柳靑紬帖裏)·백초 과두(白綃裹肚) 각각 1, 시복(矢服)·궁도(弓弰) 각각 1, 대전(大箭) 6, 각궁(角弓) 1장을 주었다. 김흥이 돌아와서 대궐에 나아가니, 노산군이 맞이하여 조계청(朝啓廳)718) 으로 들어갔다. 김흥이 유청사운저사(柳靑四雲紵絲) 1필, 청직금통주슬란저사(靑織金通紬膝欄紵絲) 1필, 용안(龍眼) 1합(盒), 여지(荔枝) 1합, 백사당(白沙糖) 1통(桶), 회회도아(回回條兒) 1조(條)를 바쳤고, 노산군은 아청면포 겹원령·초록주 탑호·유청주 철릭·백초 과두 각각 1, 시복·궁도 각각 1, 대전 6, 각궁 1장을 주었다. 김흥이 또 경정 공주(慶貞公主) 집으로 가니, 노산군이 환관 김충(金忠)을 보내어 어육(魚肉)을 가지고 가서 위로하게 하였다. - 단종실록 4권, 단종 즉위년 10월 13일 신축 1번째기사 1452년 동소문(東小門) 밖의 다야원(多也院) 냇가에 거둥하니, 영의정(領議政) 신숙주(申叔舟)·상당 부원군(上黨府院君) 한명회(韓明澮)·좌의정(左議政) 구치관(具致寬)·우찬성(右贊成) 박원형(朴元亨), 동지중추원사(同知中樞院事) 윤사흔(尹士昕)·김국광(金國光), 병조 판서(兵曹判書) 김질(金鎰)·우참찬(右參贊) 윤자운(尹子雲)·호조 판서(戶曹判書) 노사신(盧思愼)·예조 참판(禮曹參判) 임원준(任元濬)과 승지(承旨)·아중(兒宗)250) 등이 수가(隨駕)하였다. 한명회에게 명하여 한지(閑地)251) 를 보아 가운데를 나누어 구역의 경계를 삼고, 좌우로 하여금 수전(水田) 수십 무(畝)를 만들게 하고, 아중(兒宗)과 김질에게 명하여 그 위에다 내를 막아 좌우로 하여금 개천을 열어 그 전지(田地)에 물을 대어서 보니, 뒤에 물이 장마져서 해친 바가 되고 전지가 모두 모래에 덮이었다. - 세조실록 36권, 세조 11년 6월 4일 경진 2번째기사 1465년 전교하기를, “동소문(東小門) 밖 동구에 따로 경수소(警守所)를 설치하고 군기를 배정하며, 북쪽 정문 밖 산의 각곳에 잡인을 금하여, 통행하며 올라가서 대궐 안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51권, 연산 9년 11월 10일 계유 8번째기사 1503년 전교하기를, “병조로 하여금 동소문을 닫아 걸게 하고 그 열쇠를 대내에 들이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19일 정미 1번째기사 150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2	작성자	백외준
제목	혜화문(3)	키워드	여진인, 유성룡의 시각
이야기 자원	정원에 전교하였다. “야인(野人)은 늘 동소문(東小門)으로 왕래하거니와, 왜인(倭人)은 이제 비로소 보건대 여염 사이의 작은 길로 데리고 다녀서는 안되겠으니, 홍화문(弘化門) 앞의 큰길로 내보내야 하겠다.” - 중종실록 63권, 중종 23년 9월 21일 경인 2번째기사 1528년 상이 문묘(文廟)에 나아가 분향례(焚香禮)를 마치고 명륜당(明倫堂)에 나아가 글제를 내고 【주(周)나라의 태보(太保) 석(奭)이 여오(旅獒)를 받치 말기를 청하는 일을 본떠서 지은 표문031) [擬周太保奭請勿受旅獒表].】 우의정 이명(李瑄) 등에게 명하여 유생들을 시험보이게 하였다. 이어서 혜화문(惠化門) 밖 병암동(屏巖洞)에 거둥하여 무예를 시험보여서 【상이 계해년032) 가을 세자를 잃은 뒤로부터 거둥을 전폐하여 백성이 거마(車馬)와 의장의 성대함을 보지 못한지 오래되었다가 이제 비로소 거둥하니 구경하는 자들이 거리를 메우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진사 김효원(金孝元) 등 4인에게 문과 급제를, 충의위(忠義衛) 이원명(李源明) 등 3인에게는 무과 급제를 하사하였다.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3월 20일 정사 1번째기사 1565년 도체찰사 풍원 부원군 유성룡이 치계하였다. “성 안의 적세(賊勢)에 대해 각처에서 정탐하여 올리는 보고가 날마다 들어 오고 있으나 그 말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언백(高彦伯)의 군병은 모두 서울과 양주(楊州)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가 정탐하여 보고한 내용은 실정을 파악한 내용이 가끔 있으며 또 도망쳐 돌아온 사람들의 공사에 의하면 서울의 적세는 요사이 많은 수가 모였다고 합니다. 당초 명병이 처음 도착하던 날에는 적세가 매우 작아서 숙청문(肅淸門)·장의문(莊義門)·동소문(東小門)까지는 모두 성을 지키는 적이 없어 북쪽은 텅 비었고 남쪽 일대에만 산위에까지 적이 있었는데 그 수가 매우 적었으며, 또한 행주(幸州)의 패전으로 죽은 자가 태반이었으나 지금은 북쪽의 적이 모두 서울로 돌아왔고 원주(原州)의 적도 또한 서울의 흥덕동(興德洞) 백자정(栢子亭) 근처에 와 모이는 등 적병이 모두 모였으며, 남대문 안에서 모화관(慕華館) 근처까지 진을 쳐서 용산창(龍山倉)을 잇는가 하면, 평양에서 도망온 적이 또 성을 쌓고 둔을 쳤으며, 한강에도 적진이 있어 부교(浮橋)를 걸쳐놓고 서로 통행하며 사평원(沙平院)·천현(穿峴) 일로에 적병이 또 많이 출몰하여 수원(水原)·금천(衿川)·청회(菁回) 일대에서 날이면 날마다 분탕질한다고 합니다.” - 선조실록 36권, 선조 26년 3월 9일 갑자 8번째기사 1593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3	작성자	백외준
제목	혜화문(4)	키워드	문루 중건, 통행세
이야기 자원	전교하였다. “성문은 일찍 닫고 늦게 열라. 그리고 혜화문(惠化門)은 우선 다시 폐쇄하라.” - 광해군일기[중초본] 94권, 광해 7년 윤8월 3일 정미 1번째기사 1615년 이때 창의문(彰義門) 밖 동쪽에서 응봉(鷹峰)까지의 성밑과 동소문(東小門) 북쪽에서 응봉의 동쪽까지의 성 안팎에 조[栗]·기장[稷]·대두(大豆)를 파종한 자가 있었는데, 한성부(漢城府)에서 계문(啓聞)하니, 파종한 사람을 잡아내어 죄주도록 명하였다. - 숙종실록 18권, 숙종 13년 3월 3일 신사 2번째기사 1687년 혜화문(惠化門)의 지도리와 문짝이 부러지고 상하여 밤 사이에 닫지 못하므로 어영청(御營廳)에서 번군(番軍) 10명을 보내어 파수하게 하였다. - 영조실록 49권, 영조 15년 4월 19일 을미 3번째기사 1739년 혜화문(惠化門)에 옛날에는 문루가 없었는데, 임금이 어영청(御營廳)에 명하여 이를 창건하게 하고 편액을 걸었으니, 곧 세속에서 일컫는 바 동소문(東小門)이었다. - 영조실록 60권, 영조 20년 8월 6일 경술 2번째기사 1744년 예조(禮曹)에서 ‘제단(祭壇)의 이름은 성단(星壇)으로 정하고, 제단을 쌓을 곳은 혜화문(惠化門) 밖의 숭신방(崇信坊) 어창계(御倉契)에서 자좌오향(子坐午向 : 정북(正北)은 등지고 정남(正南)으로 향함)으로 정하였습시다.’라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2권, 고종 2년 11월 15일 병자 5번째기사 1865년 전교하기를, “비궁(闕宮)의 궁궐 아래에 여각(旅閣)을 설치한 것은 애당초 북도(北道)의 상인들에게 세금을 거두기 위한 것으로 바로 백성들을 모집하려는 뜻이었다. 그 당시 정묘조(正廟朝)의 하교도 본궁의 제조(提調)가 연석(筵席)에서 아뢰는 것에 대하여 그대로 율허한 것이었는데, 듣자니 요즘은 세금을 거두는 것이 너무 많아서 상인들이 혜화문(惠化門)을 거치지 않고 다른 곳으로 흩어져 들어와, 이로 인해 궁례(宮隸)들이 다른 문을 침탈하여 마구 거두어들이는 것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고 한다. 이제부터는 한결 같이 처음에 정한 절목에 따라 단지 혜화문을 통하여 들어온 북도 상인의 물건에 대해서만 간략히 세금을 거두도록 엄하게 신칙하여 분부하라.”하였다. - 고종실록 5권, 고종 5년 윤4월 9일 병진 4번째기사 1868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숙청문(1)	키워드	세종, 연산군, 중종
이야기 자원	승례문(崇禮門)은 열고 숙청문(肅淸門)은 닫고, 인정(人定)과 파루(罷漏)에 비로소 다시 복을 치게 하였다. - 세종실록 36권, 세종 9년 6월 23일 경진 3번째기사 1427년 날이 가문다고 하여 승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청문(肅淸門)을 열고, 저자를 옮겼다. - 세종실록 40권, 세종 10년 윤4월 23일 갑진 3번째기사 1428년 전교하기를, “숙청문(肅淸門)을 막고 그 오른편에 새 문을 만들라.”하였다. - 연산군일기 54권, 연산 10년 7월 25일 계축 6번째기사 1504년 승례문(崇禮門)을 폐쇄하고 숙청문(肅淸門)을 열어 저자를 옮기며 복을 치지 못하게 하니, 이는 한 재 때문이었다. - 중종실록 8권, 중종 4년 6월 3일 계해 3번째기사 1509년 포도장(捕盜將) 이종례(李宗禮)가 아뢰었다. “신이 북청문(北靑門) 밖의 도둑을 추포(追捕)하였는데, 모두 도망하여 숨고, 한 사람이 화살에 맞아 죽어 머리를 베어 왔습니다.” - 중종실록 10권, 중종 4년 12월 29일 병진 6번째기사 1509년 예조(禮曹)가 계청(啓請)하기를, “다음달 초1일부터 승례문(崇禮門)을 열고 숙청문(肅淸門)은 닫고 서, 격피고(擊皮鼓)는 도로 예전에 있던 시장의 그 자리에 갖다 두도록 하소서.”하니, 아뢴 대로 윤허하였다. - 중종실록 48권, 중종 18년 6월 29일 무진 2번째기사 1523년 예조 판서 윤인경(尹仁鏡)이 아뢰었다. “사직에는 이미 섰행했고, 종묘에는 연(輦)을 치우고서 가마를 타고 나오시어 재계하는 별궁에서 치재하시다가 비로 인해 정지하셨으니, 비록 이번엔 친제하시더라도 번거롭지 않을 듯합니다. 또 지금의 토룡석척(土龍蜥蜴)이나 원통한 옥사를 심리(審理)하는 것이나 해골을 덮어주고 시체를 매장해 주는 것이나 승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청문(肅淸門)을 열어놓는 것과 같은 일들은, 토룡으로 비를 부르고 남문을 닫고 북문을 열어놓고 사람의 해골을 묻어주고 항아리에 석척·사의를 담아놓고 비를 기원하고 옥사를 즉시 처결하고 의옥(疑獄)을 잘 분별하여 처리한다는 뜻입니다. 풍운뇌우단에서 친제를 거행하시려는 것은 성탕(成湯)이 상림(桑林)에서 비를 빌고 송 인종(宋仁宗)이 교외에서 친히 비를 빈 것과 같은 아름다운 뜻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조종조에는 비록 한재를 만나더라도 친제한 때가 없었으므로 예관(禮官) 만으로 의논하기는 곤란하니, 대신들과 의논하심이 어떻겠습니까?” - 중종실록 84권, 중종 32년 4월 26일 갑술 2번째기사 1537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숙정문(2)	키워드	명종, 선조, 영조, 고종
이야기 자원	예조가 아뢰기를, “날씨가 가물면 남문은 닫고 북문을 열어 피고(皮鼓) 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음(陰)을 부지(扶持)시키고 양(陽)을 억제하는 뜻입니다. 지금 한재(旱災) 끝에 장마가 개지 않아서 이익은 없고 손해만 있으니, 전례에 따라 숙정문(肅靖門)을 닫고 숭례문(崇禮門)을 여소서.”하니, 그대로 윤허하였다. - 명종실록 23권, 명종 12년 7월 17일 무진 2번째기사 1557년 가뭄이 극심했기 때문에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었다. - 선조실록 10권, 선조 9년 5월 4일 병신 1번째기사 1576년 가뭄이 심하여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었으며, 시장을 옮겼다. 상이 정전(正殿)을 피해 거처를 옮기고 감선 철악(減膳撤樂)하였다. - 선조실록 18권, 선조 17년 5월 2일 정축 1번째기사 1584년 예조에서 아뢰기를, “춘당대(春塘臺)에서 석척동자(蜥蜴童子)가 기우제를 지낼 때 숭례문(崇禮門)을 닫고 숙정문(肅靖門)을 열어 3일 만에 그치도록 하소서.”하니, 임금이 윤허하였다. - 영조실록 58권, 영조 19년 5월 16일 무술 1번째기사 1743년 금위영(禁衛營)에서, “이전에 훈련 도감(訓練都監)이 도성의 내산(內山)과 외산(外山)을 나누어 소나무 채벌을 금지하던 자내(字內)는 금위영과 어영청(御營廳)이 나누어 맡아 관리하여야 합니다. 금위영의 경우 외산을 맡아 2패(牌)가 사현(沙峴) 서쪽에서 홍제원(弘濟院) 다리가 있는 대천(大川) 부근 동쪽까지, 3패가 홍제원 다리가 있는 대천부근 서쪽에서 양철평(梁鐵坪), 말흘산(末屹山), 정토(淨土), 가좌(加佐) 동쪽 성산리(城山里)까지 관리하게 하고, 어영청의 경우 내산은 1패가 숙정문(肅靖門) 삼청동(三清洞) 냇가 서쪽 북악에서 창의문(彰義門) 대로(大路) 동쪽까지, 2패가 창의문 대로 서쪽에서 돈의문(敦義門) 북쪽까지, 외산은 1패가 사현 이북으로 서곡강(西曲江)까지, 남쪽으로 안현(鞍峴)의 제1, 제2, 제3봉(峯) 안쪽까지 나누어 맡아 관리하게 하겠습니다.”라고 아뢰었다. - 고종실록 19권, 고종 19년 10월 21일 갑술 2번째기사 1882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정종~태종)	키워드	첫 선잠제, 제도의 정비
이야기 자원	처음으로 선잠(先蠶)에 제사하였다. - 정종실록 3권, 정종 2년 3월 4일 기사 2번째기사 1400년 또 말하기를, “바야흐로 지금 물건을 갖추고 예문(禮文)을 다하는 때에 적전(籍田)과 선잠(先蠶)의 두 제사에만 악장(樂章)이 없으니, 대단히 불가합니다. 원컨대 유사(攸司)로 하여금 짓게 하소서.” 하여,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 태종실록 2권, 태종 1년 12월 21일 을해 1번째기사 1401년 예조(禮曹)에서 제사에 사용하는 폐백(幣帛)의 제도를 상정하였다. 상언은 이러하였다. “(중략) 오제(五帝)에게는 각각 그 방위의 빛을 따르고, 선농(先農)에게는 청색(靑色)으로 하고, 선잠(先蠶)에게는 흑색(黑色)으로 하고, 그 나머지 신명에게 제사하는 폐백은 모두 백색을 썼습니다. 지금 우리 조정에서 쓰는 폐백이 예전 제도에 어긋나니, 그 빛과 길이를 한결같이 예전 제도에 의하고, 모두 주문공(朱文公)의 조례기척(造禮器尺)을 쓰소서.”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2권, 태종 11년 8월 25일 갑인 2번째기사 1411년 예조에서 종묘·사직제의 희생을 쓰는 제도[用牲之制]를 올리었다. “종묘에서는 소·양·돼지를 쓰고, 사직에서는 소·돼지만을 쓰고, 선농(先農)·선잠(先蠶)에서는 돼지만을 썼으니, 청컨대, 이제부터는 고제(古制)에 의하여 사직·선농·선잠에서도 모두 양을 쓰게 하소서.”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1월 21일 신축 3번째기사 1413년 예조에서 여러 제사[諸祀]의 제도를 올렸다. 계문은 이러하였다. “삼가 전조(前朝)의 《상정고금례(詳定古今禮)》를 살펴건대, 사직(社稷)·종묘(宗廟)·별묘(別廟)는 대사(大祀)가 되고, 선농(先農)·선잠(先蠶)·문선왕(文宣王)은 중사(中祀)가 되며, 풍사(風師)·우사(雨師)·뇌사(雷師)·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보(馬步)·마사(馬社)·영제(靈祭)·칠사(七祀)와 주현(州縣)의 문선왕은 소사(小祀)가 됩니다.”(중략)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4월 13일 신유 1번째기사 1413년 예조에서 또 아뢰었다. “제사(諸祀)의 단유(壇墪) 안에서는 오직 사직단(社稷壇)과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만이 법식대로 축조(築造)되었고, 그 나머지 영성(靈星)·사한(司寒)·마조(馬祖)·선목(先牧)·마사(馬社)·마보(馬步)·중농(仲農)·후농(後農)의 단유는 모두 아직 축조되지 못했으며, 선농(先農)·선잠(先蠶)·노인성(老人星)·북교(北郊)·여제(厲祭)의 단유는 비록 축조하였다 하더라도 또한 법식과 다르니, 율항의 단유는 고제(古制)를 상고하여 땅을 보아서 축조하소서.” - 태종실록 25권, 태종 13년 6월 8일 을묘 2번째기사 1413년 예조(禮曹)에서 제사(諸祀)의 단(壇)·유(墪)의 제도를 아뢰었다. “선잠단(先蠶壇)과 영성단(靈星壇)은 높이가 3척(尺), 둘레가 8보(步) 4척(尺)이고, 4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으며, 선농단(先農壇)은 양유(兩墪)가 깔고 유(墪)는 각각 25보(步)이며, 마사단(馬社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보단(馬步壇)은 각각 너비가 9보, 높이가 3척이고, 사방으로 나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 태종실록 27권, 태종 14년 6월 13일 갑인 4번째기사 141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세종-1)	키워드	제도의 정비
이야기 자원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전하였다. - 세종실록 23권, 세종 6년 3월 4일 경진 2번째기사 1424년 이조에서 계하기를, “모든 제사의 의식을 정할 때에, 사직과 종묘의 초헌관은 정1품, 아헌관은 정2품, 종헌관은 종2품, 천조관(薦俎官)은 종2품이며, 예차(預差)도 2품 이상으로 정하였는데, 지금 각도 감사와 장수들은 모두 경관(京官)으로써 겸임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를 아울러 행할 때에는 1, 2품 관원이 혹 부족함이 있으니, 지금부터 섭행(攝行)하는 큰 제사에는, 초헌관은 1품, 아헌관은 2품, 종헌관·천조관의 직사(職事)는 정3품으로 정하고, 중간 제사[中祀]에는 풍운뢰우(風雲雷雨)·선농(先農)·선잠(先蠶)·우사(雩祀)·문선왕 석전(文宣王釋奠) 등을 제외하고는 초헌관도 정3품으로써 정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0권, 세종 7년 11월 8일 계묘 3번째기사 1425년 선잠단(先蠶壇)에 지내는 제사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 세종실록 31권, 세종 8년 3월 10일 갑진 2번째기사 1426년 봉상 판관(奉常判官) 박연(朴堧)이 상서(上書)하기를, “ (중략) 1. 원단(圓壇)·적전(籍田)·선잠(先蠶) 등의 제사는 본조(本朝)에서 모두 대주(大簇)를 사용하는 악(樂)으로 되었지마는, 그러나, 대주는 지지(地祇)에 제사지내는 음악이므로 사직에 이를 씁니다. 그런데 지금 원단은 하늘에 기고(祈告)하는 제사이니, 이를 쓰는 것은 미안할 듯합니다. 선농과 선잠도 선대의 인귀(人鬼)이니, 사직에 제사지내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합니다. 또 삼제(三祭) 안에서 당상과 당하에 순전히 대주의 양성만 사용하게 되니, 어찌 그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이 삼제(三祭)의 음악도 그 정세하고 당연함을 보지 못하겠으며,(하략)” - 세종실록 32권, 세종 8년 4월 25일 무자 1번째기사 1426년 예조에서 계하기를, “일찍이 종묘(宗廟)의 제사에 향악(鄉樂)을 연주하지 못하게 하였으니, 청컨대 원단(圓壇)과 사직(社稷)의 풍운뢰우제(風雲雷雨祭)·우사(雩祀)·선농(先農)·선잠(先蠶)과 석전(釋奠) 등의 제사에도 또한 향악을 쓰지 못하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39권, 세종 10년 1월 4일 정해 13번째기사 1428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세종-2)	키워드	제도의 정비
이야기 자원	예조에서 아뢰기를, “각도의 단유(壇壚)의 체제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담을 쌓지 아니한 곳도 있어서 사람과 짐승이 들어가서 짓밟아서 더럽혀 놓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여러 제사의 의식[諸祀儀式]을 보면, ‘큰 제사[大祀]인 사직단(社稷壇)은 사방 2장(丈) 5척(尺)·높이 3척 사방으로 낸 계단[階]이 3층씩이며, 양쪽으로 작은 담[墻]을 친다. 자[尺]는 영조척(營造尺)을 사용한다. 중간 제사[中祀]인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과 선농단(先農壇)·선잠단(先蠶壇)·우사단(雩祀壇)은 모두 사방 2장 3척, 높이 2척 7촌이요, 작은 담이 둘이다. 작은 제사[小祀]인 영성단(靈星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마보단(馬步壇)은 모두 넓이가 2장 1척, 높이가 2척 5촌이요, 작은 담이 하나다. 묻는 구덩이는 모두 묘단(廟壇)의 북쪽 임방(壬方)의 땅에 있게 하되, 남쪽으로 계단을 내고, 네모지고 깊게 하여 물건을 넣어 둘 만하게 만든다. 그 제도는 벽돌을 층이 지게 쌓아 올려서 조그마한 천정(天井)을 만드는데, 깊이와 넓이를 3, 4척쯤 되게 하고, 그 남쪽에 밝고 오르내리는 통로를 만들어서, 일이 없을 때에는 흙을 매워 두고, 제사지낼 때에는 흙을 파내고 깨끗이 소제하였다가, 제사를 마치면 사람을 시켜서 폐백과 축판(祝版) 등속을 가지고 밝고 다니는 길로 내려가서 구덩이 안에 집어넣은 다음에 흙을 부어서 꼭꼭 다지고 예에 따라 사람을 두고 지키게 한다.’ 하였습니다. 바라옵건대, 사묘(祠廟)가 없는 중간 제사[中祀]인 악해독단(嶽海瀆壇)은 풍운뢰우단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3척, 높이 2척 7촌, 작은 담[墻]을 둘로 하고, 작은 제사[小祀]인 명산대천단(名山大川壇)과 각 고을에서 제사지내는 제단(祭壇)은 영성단(靈星壇)의 제도에 따라, 사방이 2장 1척, 높이 2척 5촌, 작은 담을 하나로 하고, 사방으로 계단을 내되 3층씩 쌓아 올리고, 묻는 구덩이도 위의 구덩이의 체제에 의하여 만들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50권, 세종 12년 12월 8일 갑술 3번째기사 1430년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 세종실록 67권, 세종 17년 3월 8일 경진 2번째기사 1435년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악·해·독·산천의 단이나 묘가 고제(古制)가 아닐 뿐더러, 국도에서 제사지내는 산천·풍운뢰우 및 선잠(先蠶)·선농(先農)에 모두 단만 있고 묘가 없으니, 외방의 악·해·독·산천에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곳으로서 사묘가 없는 곳은 반드시 묘를 세울 것이 없고, 단이나 묘를 모두 예전대로 하게 하고, 신주를 간직하는 집과 신주·고방을 짓는 것은, 인가가 멀리 떨어져서 해곡(海曲)과 심산(深山)에 비록 간수하는 사람을 정하더라도 수호하기가 심히 어려우니, 나라에서 행제(行祭)하는 곳에는 신주와 고방 각기 두 간을 풍년을 기다려서 짓고, 소재관이 제사지내는 곳으로서 신주를 두는 집과 주고(廚庫)를 짓지 않은 곳은 관사 안의 깨끗한 곳을 가려서 따로 집 한 채를 짓고, 신판과 제기를 간직하여 두되, 제사 때에 임하여 재계하고 목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사지내는 곳으로 운반하게 하고, 단과 묘를 간수하는 사람은 근처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호를 택하여 조세와 부역을 면제하고 위임하여 정하소서.” - 세종실록 76권, 세종 19년 3월 13일 계묘 2번째기사 1437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1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세종-3)	키워드	제도의 정비, 박연
이야기 자원	첨지중추원사 박연(朴堧)이 상언하기를, “제사드리는 것[祀享]은 나라의 큰 일이운데, 우리 나라의 제단(祭壇)이 모두 그 제도가 틀렸사오므로 지난번에 신이 청하여서 모두 개정하도록 명하셨고, 특별히 제단 감조색(祭壇監造色)을 세워 그 건설하는 일을 위임하옵고, 영의정 황희와 호조 판서 안순(安純)과, 대제학 정초(鄭招)와 부윤 홍이(洪理)를 명하사 제조로 삼았사오니, 대개 그 일을 중하게 여기셨던 때문입니다. 그때에 다만 종묘(宗廟)·사직(社稷)만을 개정하옵고, 그 나머지의 중사(中祀)·소사(小祀) 아울러 10여 단(壇)은 모두 역사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이제까지 8, 9년이나 되도록 국가의 영선(營繕)이 호번(浩煩)하다 하여 덮어두고 거행하지 않고 있사옵나이다. 그러나 신은 생각하옵건대, 제단을 개정하는 일은 마땅히 뒤로 미룰 것이 아니옵고, 또 그 공사는 이미 전우(殿宇)를 화려하게 건축하는 사치도 없는 것이옵고, 또 깎고 단청 칠하는 사치도 없는 것이오며, 단지 돌을 포열(布列)하여 단을 쌓고 바깥으로 난간과 담장을 마련하는 것뿐이옵니다. 그러하온데도 불긴(不緊)한 것으로 보고 여러 해 동안 지체하는 것은 매우 불가하옵니다. 이제 만약 고치지 아니하옵고 그대로 후세에 전하오면, 제소(祭所)가 적의(適宜)함을 잃게 되옵니다. 그 중에서도 선잠(先蠶)·산천(山川)의 두 단(壇)은 잡석(雜石)으로 지경을 이루었사오므로 무너지는 것은 겨우 면할 것이오나, 그 나머지 여러 단은 모두가 흙 언덕이 될 뿐이옵니다. 또 단소(壇所)에 난간으로 보호하는 것이 없어서 소·양·개·돼지가 마구 드나들어 더럽게 만들며, 아울러 좁고 막히고 또 많이 기울어지고 쓰러져서, 예를 행하고 음악을 쓰는 데 모두 그 의례대로 못하게 되옵니다. 지금 예악이 바야흐로 성(盛)하고 제도가 닦여 밝은데, 이에 사전(祀典)에는 결함이 이와 같이 있사오니 통분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더군다나 일찍이 미신(微臣)에게 명하시어 그 일을 감독하게 하셨사오니, 어찌 구차하게 세월을 끌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와, 창성한 시대의 날로 새로와지는 성덕(聖德)에 누가 되게 하겠사옵니까.”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세종실록 83권, 세종 20년 11월 13일 계사 3번째기사 1438년		
참고문헌	조선헌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세종-4)	키워드	제도의 정비
이야기 자원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과 축문을 친히 전하였다. - 세종실록 84권, 세종 21년 3월 8일 병진 2번째기사 1439년 예조에 전지하기를, “이후로 사직(社稷)의 춘추(春秋) 및 납향(臘享)과 영녕전(永寧殿)의 춘추 대향(春秋大享)과 종묘(宗廟)·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제릉(齊陵)·헌릉(獻陵)의 사시 대향(四時大享)과 납향에는 재계(齋戒)를 3일간으로 하고 문선왕(文宣王)의 춘추 석전(釋奠)과 풍운뢰우(風雲雷雨)·우사(雲祀)·선농(先農)·선잠(先蠶)에는 재계를 2일간으로 하고, 향축(香祝)은 모두 친히 전하며, 이상 각처의 기도제(祈禱祭)와 선왕(先王)·선후(先后)의 기신제(忌辰祭)에는 재계를 1일간으로 할 것이며, 모든 재계하는 날에는 잔치·풍악·사냥·형벌(刑罰)·도살(屠殺)·거애(擧哀)·조상(弔喪)·문병(問病)·더러운 일[穢惡]·매운 음식[茹葷]·술마시기[飲酒] 등의 일은 일체 금단하며, 각 관아에서는 고신(拷訊)·사형[刑殺]·결벌(決罰) 등의 일은 행하지 못하게 하라.” 하였다. - 세종실록 106권, 세종 26년 12월 28일 계유 3번째기사 144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세종-5)	키워드	제도의 정비
이야기 자원	무릇 제사(祭祀)에 일정한 날이 있는 것이 있으니,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상무(上戊)와 납일(臘日)에 사직(社稷)에 제사하고, 삭망(朔望)과 세시(歲時) 【정조(正朝)·한식(寒食)·단오(端午)·추석(秋夕)·동지(冬至)·납일(臘日).】 에 종묘(宗廟)·계성전(啓聖殿)·문소전(文昭殿)·건원릉(健元陵)011) ·제릉(齊陵)에 제향(祭享)하고, 【삭망(朔望)에 만약 별제(別祭)를 만나게 되면 다만 별제만을 지낸다.】 세시(歲時)에 준원전(濬源殿)과 여러 산릉에 제향하고, 계하(季夏)의 토왕일(土旺日)에 중류(中霽)에 제사하고, 입추(立秋) 후의 진일(辰日)에 영성(靈星)에 제사하고, 경칩(驚蟄) 후의 길일(吉日) 해일(亥日)에 선농(先農)에 제향하고, 계추(季秋)의 길일(吉日) 사일(巳日)에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중춘(仲春)·중추(仲秋)의 상정(上丁)에 문선왕에게 석전(釋奠)하고, 삭망(朔望)에 문선왕에게 전을 드리고, 【만약 석전을 만나게 되면 다만 석전만을 행한다.】 중춘(仲春) 중기(中氣)후의 강일(剛日)에 마조(馬祖)에 제사하고, 중하(仲夏) 중기 후의 강일에 선목(先牧)에 제향하고, 중추(仲秋) 중기 후의 강일에 마사(馬社)에 제사하고, 중춘(仲春) 중기 후의 강일에 마보(馬步)에 제사한다. - 세종실록 128권, 오례 길례 서례 시일 우사단(雩祀壇)·동방 토룡단(東方土龍壇)·선농단(先農壇) 【모두 흥인문(興仁門) 밖 평촌(坪村)에 있다.】 마보단(馬步壇)·마조단(馬祖壇)·선목단(先牧壇)·마사단(馬社壇) 【모두 흥인문 밖 사근사리(沙斤寺里)에 있다.】 선잠단(先蠶壇) 【동소문 밖 사한이(沙閑伊)에 있다.】 노인성단(老人星壇)·원단(圓壇)·영성단(靈星壇)·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 【모두 승례문 밖 둔지산(屯地山)에 있다.】 남방 토룡단(南方土龍壇) 【한강 북쪽에 있다.】 서방 토룡단(西方土龍壇) 【가을두(加乙頭)에 있다.】 북교단(北郊壇)·북방 토룡단(北方土龍壇)·여제단(厲祭壇) 【모두 창의문(彰義門) 밖에 있다.】 - 세종실록 148권, 지리지 경도 한성부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세조~성종)	키워드	세조의 열심
이야기 자원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3권, 세조 2년 3월 11일 경진 2번째기사 1456년 임금이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7권, 세조 3년 3월 5일 무진 1번째기사 1457년 친히 선잠제(先蠶祭)168) 에 쓸 향(香)과 축문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12권, 세조 4년 3월 8일 을미 2번째기사 1458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傳)하였다. - 세조실록 15권, 세조 5년 3월 10일 임진 1번째기사 1459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傳)하였다. - 세조실록 19권, 세조 6년 3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460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23권, 세조 7년 3월 15일 병진 1번째기사 1461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세조실록 28권, 세조 8년 3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1462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과 축문(祝文)을 전하였다. - 성종실록 16권, 성종 3년 3월 8일 갑진 1번째기사 1472년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성종실록 28권, 성종 4년 3월 2일 임진 1번째기사 1473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성종-1)	키워드	선잠단 이전 논의
이야기 자원	예조(禮曹)에서 계달하기를, “무릇 제향의 단유(壇壝)가 모두 옛 제도로 되지 아니하였으니, 신(神)을 섬기는 예의에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삼가 상고하건대, 선덕(宣德) 5년 2월 일의 본조(本曹)의 수교(受敎)에는 이러하였습니다. ‘선잠단(先蠶壇)을 만든 것이 제도에 맞지 아니하여 바닥의 고름세[面勢]가 기울어지고, 흙에 모래와 자갈이 섞여서 심은 뽕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니, 그래도 제비(帝妃)의 영혼이 여기에 있어 오르내린다고 하겠는가? 또 악기(樂器)에 다는 기구로 난조(鸞鳥)·봉황(鳳凰)·벌레·짐승과 같은 장식(粧飾)과 기(旗)·꿩깃·유소(流蘇)841) 따위는 비나 눈을 한 번 맞으면 쉽게 떨어지는데, 봉상시(奉常寺)에 간직하여 다른 제사에 통용하여 옮기고 왕래하니, 1년이 되지 못하여 모두 훼손(毀損)되었고, 또 신주독(神主櫝)을 봉상고(奉常庫) 안에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하인들이 어깨에 메어다가 올리니, 무례(無禮)함이 더욱 심하다. 우사단(雩祀壇)·선농단(先農壇) 곁에 선잠단(先蠶壇)을 쌓고, 모든 제단(祭壇)의 곁에다가 집을 세워서 신주를 안치하며, 창고를 세워서 제기(祭器)와 악기를 간직해 두고, 지키는 자로 하여금 단(壇) 옆에 모여 살게 하여 전토를 주고 잡역(雜役)을 없애어 삼가 지키도록 하여서, 거칠고 무성한 잡초를 깎아내고 도둑을 방지하게 하면 단유(壇壝)가 완비(完備)되어 신(神)을 섬기는 예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법을 세우는 데에 자세하고 극진함이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유사(有司)에서 옛날대로 하고 폐하여 이제까지 행하지 아니하니, 대체에 온당하지 못합니다. 청컨대 이제부터 무릇 단유(壇壝)는 《오례의(五禮儀)》에 의하여 수축(修築)하고, 선잠단을 우사단·선농단의 곁으로 옮겨 마련하며, 세 단(壇)의 중앙과 풍운뢰우단(風雲雷雨壇) 옆의 편리한 땅에 집을 세우고 창고를 세워서, 예전의 수교(受敎)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성종실록 35권, 성종 4년 10월 25일 계미 4번째기사 1473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 성종실록 40권, 성종 5년 3월 7일 임진 1번째기사 1474년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여러 제사는 단유(壇壝)의 소재(所在)가 옛 제도와 맞지 않는 것이 많으니, 이제 주례(周禮)와 역대의 제도를 고증하고 그것을 참정하여 뒤에 갖추 기록합니다. 수(隨)나라의 제도에 선잠단(先蠶壇)이 궁궐 북쪽 3리에 있다 하였고, 우리나라는 도성(都城) 북쪽에 단(壇)을 두었으니, 옛 제도에 합합니다. 예전대로 수축(修築)하게 하소서. (하락)” - 성종실록 40권, 성종 5년 3월 28일 계축 5번째기사 147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성종-2)	키워드	친잠의례 상고
이야기 자원	예조(禮曹)에서 친잠(親蠶)에 응당 행해야 할 절목(節目)을 아뢰기를, “삼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조목(條目)별로 기록하여 아뢰습니다. 1. 《예기(禮記)》에, ‘대혼(大昕)의 아침에 임금이 삼궁(三宮)의 부인(夫人)이나 세부(世婦) 중에서 길인(吉人)을 가려 잠실(蠶室)에 들어가 누에를 치게 한다.’ 하였고, 그 주(註)에 ‘대혼(大昕)의 아침은 3월 초하루의 아침이다.’고 하였습니다. 《두씨통전(杜氏通典)》에는 ‘황후(皇后)가 3월[季春]의 길사(吉巳)832) 에 선잠(先蠶)833) 에게 제사지낸다.’고 하였는데, 지금 살펴보건대 3월달의 상사(上巳)에는 뽕잎이 피지 않고, 누에 새끼도 나오지 않을 것이니, 이제 3월 안에 뽕잎이 나기 시작할 때를 기다렸다가 길사(吉巳)를 택하여 〈선잠 제사를〉 행하소서. 1. 《예기(禮記)》에, ‘제후(諸侯)의 부인(夫人)은 북교(北郊)에서 누에를 길러 면복(冕服)을 제공한다.’ 하였고, 한(漢)나라 제도에, ‘봄에 누에에 나면 황후(皇后)는 원중(苑中)의 잠실(蠶室)에서 친잠(親蠶)한다.’ 하였는데, 이제 한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후원(後苑)에 채상단(採桑壇)을 쌓게 하소서. 1. 송(宋)나라 제도에 채상단(採桑壇)은 사방 3장(丈)으로 하고, 높이를 5척 4촌으로 한다.’ 하였으니, 지금 이 제도에 의거하여 단(壇)을 쌓게 하소서. 1. 《예기(禮記)》 제의편(祭義篇)에, ‘옛날 천자(天子)와 제후(諸侯)는 반드시 공상 잠실(公桑蠶室)을 두었는데, 이는 냇물 가까운 곳에 만들되, 높이는 한길 석자[仞有三尺] 되게 궁(宮)을 짓고 가시담을 쌓아 외부(外部)를 막는다.’ 하였습니다. 송(宋)나라 제도에, ‘선잠단(先蠶壇) 옆에 잠실(蠶室)을 짓고, 또 땅을 측량하여 궁(宮)을 짓는데, 사면에 담을 쌓되, 높이를 한길 석자 되게 하며, 위에는 가시를 덮고, 가운데에는 잠실을 27개 세운다. 그리고 따로 1구역(區域)의 전(殿)을 지어서 친잠(親蠶)하는 장소로 삼는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該司]로 하여금 잠실을 헤아려 짓게 하고, 친잠하는 곳에는 따로 궁전(宮殿)을 짓지 말고 악전(幄殿)을 설치하게 하소서. 1. 《통전(通典)》에, ‘황후(皇后)는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내고, 예를 마치면 채상단(採桑壇)에 나간다.’ 하였고, 《송사(宋史)》에는, ‘황후가 친잠(親蠶)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본단(本壇)에 제사지내게 한다.’ 하였습니다. 이제 선잠단(先蠶壇)은 북교(北郊)에 있고, 채상단(採桑壇)은 후원(後苑)에 있으므로, 친히 제사지내기가 어려우니, 송(宋)나라 제도에 의거하여 관원(官員)을 보내어 선잠(先蠶)에게 제사지내게 하소서. 1. 《통전(通典)》에, ‘황후(皇后)가 채상위(採桑位)에 이르면 상공(尙功)이 금 갈고리를 받들고, 사제(司製)는 광주리를 받들고 수종(隨從)하며 뽕잎을 따는데,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 1품 각각 1인과 2품·3품 각각 1인씩이 각각 여시자(女侍者)와 함께 광주리와 갈고리가 있는 데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이 제도에 의거하여 해당 관사[該司]로 하여금 미리 광주리와 갈고리를 만들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르고, 다만 잠실(蠶室)은 집을 짓지 아니하고 장막(帳幕)을 설치하도록 하며, 갈고리는 주석으로 만들도록 하였다. - 성종실록 71권, 성종 7년 9월 25일 을축 2번째기사 1476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성종-3)	키워드	선잠제와 친잠례 준비
이야기 자원	예조에서 아뢰기를, “《오례의(五禮儀)》의 서례(序例) 안에,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에게 제향(祭享)한다.’ 하였으니, 오는 3월 초 2일이 곧 길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교(傳敎)를 받기를, ‘오는 3월 친잠(親蠶)하는 길일(吉日)을 뽕잎이 생장(生長)하는 때를 헤아려서 간택(揀擇)하여 아뢰라.’고 하셨으므로, 신 등이 《통전(通典)》을 참고하여 상고해 보았더니, ‘황후(皇后)가 계춘(季春)의 길사(吉巳)에 선잠(先蠶)에 제향하고 친상(親桑)한다.’ 하였고, 《송사(宋史)》에는, ‘계춘의 달에 태사(太史)가 길일을 택하여 황후가 친잠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본단(本壇)에서 선잠에게 제향한다.’고 하였으니, 선잠에게 제향하고 친상하는 것을 일시(一時)에 아울러 행하였습니다. 우리 나라의 기후(風氣)는 중국과 아주 달라서, 매년 선잠에 제향할 때에는 뽕잎이 아직 패지 않는데, 올해에는 절후(節候)가 더욱 늦어서 3월 초2일에는 뽕잎이 반드시 패지 않을 것이니, 청컨대 선잠에 제향하고 친잠하는 것을 다시 3월 안의 사일(巳日)로 택하여서 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성종실록 77권, 성종 8년 윤2월 24일 임술 3번째기사 1477년 선잠제(先蠶祭)에 향(香)과 축문(祝文)을 친히 전했다. -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13일 경진 1번째기사 1477년 양전(兩殿)에서 삼대비(三大妃)에게 진연(進宴)하였다.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육조당상(六曹堂上)과 선공감 제조(繕工監提調)와 입직(入直)했던 모든 장수와, 선잠제(先蠶祭)의 집사(執事)와 예조 낭청(禮曹郎廳)과 축단 낭청(築壇郎廳)에게 명하여 대궐 뜰에 모이게 해서 주악(酒樂)을 내려 주었다. - 성종실록 78권, 성종 8년 3월 14일 신사 4번째기사 1477년 친히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 성종실록 90권, 성종 9년 3월 6일 무진 1번째기사 1478년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성종실록 114권, 성종 11년 2월 30일 경진 1번째기사 1480년		
참고문헌	조선헌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성종~연산군)	키워드	연산군
이야기 자원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친잠할 때에 꼭 행하여야 할 사건을 고제(古制)를 살펴서 기록하여 아뢰니다. (중략) 1. 《예기》의 제통(祭統)에, ‘제후(諸侯)의 부인(夫人)은 북교(北郊)에서 누에를 쳐서 면복(冕服)을 제공한다.’ 하였고, 한(漢)나라 제도에는 봄에 뽕이 피면 황후(皇后)가 후원(後苑)의 잠실에서 친히 누에를 친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선잠단(先蠶壇)은 도성(都城)의 북쪽에 있으므로 지세(地勢)가 좁아서 친잠(親蠶)하기가 어렵습니다. 청컨대 한(漢)나라의 제도에 의거하여 후원에다 채상단(採桑壇)을 축조하여 친잠하게 하소서.” - 성종실록 125권, 성종 12년 1월 18일 기사 5번째기사 1481년 승지 이점(李沾) 등이 또한 아뢰니, 전교하기를, “과연 아뢴 바와 같다. 선농과 사직은 백성들의 근본이 되는 것이니, 원래 소중한 것이다. 다만 선농제(先農祭)는 선잠제(先蠶祭)와 함께 거행해야 하는데, 중궁(中宮)이 방금 복중(服中)에 있으니, 금년에는 거행할 수 없다. 종묘(宗廟)·문묘(文廟)·사직에는 원래 당연히 몸소 제사를 지내야 하지만, 그러나 나의 몸이 편하지 못하고 요즈음 또 바람이 찬데, 만약 제사를 지내려 하면 반드시 목욕을 먼저 해야 하니, 병을 참고 했다가는 큰 병에 걸릴까 두려우므로 마땅히 낫기를 기다려 거행해야 하겠다.” 하였다. - 연산군일기 48권, 연산 9년 1월 5일 계유 2번째기사 1503년 전교하기를, “선잠제단(先蠶祭壇)이 매우 좁아 내외 명부(命婦)들과 섞여 앉을 수 없으니 보축(補築)하도록 하고, 또 장원서(掌苑署)에 유시하여, 뽕나무를 잘 길러 빨리 잎이 나도록 하라.” 하였다. - 연산군일기 52권, 연산 10년 3월 8일 기사 2번째기사 150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중종)	키워드	선잠제와 친잠례
이야기 자원	전교하기를, “국 의는 예문에 ‘명부(命婦)가 역시 입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지금 예조가 올린 의주(儀注)에는 이런 말이 없으니 어디에 의거하여 할 것인가? 선잠제(先蠶祭)는 입하(立夏) 전에 거행해야 하나, 친잠만은 입하 뒤에 거행할 수 없는지 물어서 아뢰라.” 하매, 예조에서 회계(回啓)하기를, “예문에 ‘선잠제와 친잠을 다같이 한날에 거행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종조(成宗朝)계축년 친잠 때에는, 선잠제를 3월 16일에 거행하고, 친잠은 21일에 거행했는데, 생각건대 반드시 뽕잎이 피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니, 이번에도 마땅히 이 예에 의하여 3월 20일 뒤로 고쳐 택일 하여 아뢰겠습니다. 국의(鞠衣)는 예문을 상고하건대 ‘친잠에는 국의를 입고 세 가지[枝]의 뽕잎을 따고, 내명부(內命婦)는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며, 그 이하는 전의(展衣)·연의(緣衣)를 입고 아홉 가지의 뽕잎을 따다.’ 하였으니, 이로 본다면 이번에 왕비께서 마땅히 국의를 입고 다섯 가지의 뽕잎을 따셔야 합니다. 전번 계축년에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복색(服色)을 모두 아청색(鴉靑色)으로 하였으니, 신은 이번에도 이 예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였다. - 중종실록 17권, 중종 8년 2월 11일 경술 2번째기사 1513년 종재(宗宰) 1품 이상과 의정부(議政府)·의빈부(儀賓府)·육조(六曹)의 당상(堂上)과 단(壇) 쌓는 일을 감독한 선공감(繕工監)의 제조(提調)·낭관(郎官)과 선잠제(先蠶祭)의 헌관(獻官)·집사(執事)와 예조(禮曹)의 낭관과 궐내(闕內)에 입직(入直)한 관원들에게 인정전(仁政殿) 뜰에서 술과 음악을 내렸다. - 중종실록 65권, 중종 24년 3월 27일 임술 4번째기사 1529년 정순봉이 아뢰기를, “제향(祭享)에 음복(飮福)이 있는 것은 예(禮)입니다. 삭망(朔望)이라면 모르되 대제(大祭) 때에는 음복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제는 거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명산(名山)·대천(大川)의 제사 때에 다 음복하였으므로 봉상시(奉常寺)의 술 맛이 좋았는데, 이제는 제관(祭官)이 오래 제사 뒤에 빨리 파하려고만 힘쓰고 음복하지 않으므로, 예를 폐기하고 다하지 않을 뿐더러 술 맛도 단속할 방도가 없습니다. 신이 죄를 입었다가 조정에 돌아온 뒤에 지난해 선잠제(先蠶祭)에 차출되었을 때에 음복하는 예를 베풀게 하였더니 봉상시의 종[奴]들 중에 그 절차를 아는 자가 없었으니, 이 예가 폐기된 지 오래입니다.” 하니, 상이 일렀다. “전에는 과연 음복하는 예가 있었는데 요즈음은 거행하지 않으니, 예조(禮曹)가 살펴야 할 일이다.” - 중종실록 104권, 중종 39년 9월 29일 을축 1번째기사 154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명종)	키워드	명종의 열심
이야기 자원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10권, 명종 5년 3월 4일 무진 1번째기사 1550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13권, 명종 7년 3월 10일 임진 1번째기사 1552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14권, 명종 8년 3월 16일 임진 1번째기사 1553년 상이 친히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전하였다. - 명종실록 16권, 명종 9년 3월 4일 갑진 1번째기사 1554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했다. - 명종실록 18권, 명종 10년 3월 9일 갑진 1번째기사 1555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22권, 명종 12년 3월 3일 병진 1번째기사 1557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香祝)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25권, 명종 14년 3월 8일 경진 1번째기사 1559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28권, 명종 17년 3월 8일 임진 1번째기사 1562년 상이 선잠제(先蠶祭)의 향축을 친히 전하였다. -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3월 7일 갑진 1번째기사 1565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2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광해군~영조)	키워드	
이야기 자원	전교하였다. “내가 앓고 있는 병이 아직까지도 쾌차하지 않았는데, 이 달이 장차 다 가려 하니, 앞으로의 친경(親耕)과 친잠(親蠶)의 대례를 무오년 3월로 물려서 거행하라. 그리고 방물(方物)의 물선(物膳)도 봉진하지 말라고 속히 과발마를 보내어 행회(行會)하라. 그리고 선농(先農)과 선잠(先蠶)은 전례대로 행하라. 이상의 일들을 해조에 말하라.” - 광해군일기[중초본] 111권, 광해 9년 1월 26일 임진 4번째기사 1617년 전교하였다. “내전(內殿)에서 친잠(親蠶)한 뒤에, 조종조의 전례에 의하여 1품 이상의 관원과 육조의 당상, 친적 도감의 당상과 낭청, 선잠제(先蠶祭)의 헌관(獻官)과 승지, 병조와 도총부의 여러 장수들, 예조의 낭청에게 술과 1등 악공을 하사하여 잔치를 베푸는 <일로 해조로 하여금 살펴서 시행하도록 하라.> ” - 광해군일기[중초본] 151권, 광해 12년 4월 16일 계해 3번째기사 1620년 관리를 보내어 선잠제(先蠶祭)를 행하였다. -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3월 12일 을사 1번째기사 1669년 예조에서 말하기를, “지금 3월 초8일에 있을 선잠제(先蠶祭)는 바로 상사일(上巳日)에 설행하는 제사입니다. 기왕 공제(公除)가 끝나기 전에 있어서 설행할 수 없기 때문에 등록을 상고해 보니 무술년(116) 2월 상무일(上戊日)에 사직제(社稷祭)를 행하려 하다가 마침 세자빈 심씨(沈氏)의 빈실(嬪室)이 마련되기 전이라서 중무일(仲戊日)로 물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의 선잠제도 이 예대로 20일의 중사일(仲巳日)로 물려서 설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 영조실록 76권, 영조 28년 3월 6일 정묘 3번째기사 1752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영조-1)	키워드	영조의 열심
이야기 자원	동춘추(同春秋) 조엄(趙巖)이 실록(實錄)을 상고한 뒤에 복명(復命)하였고, 내국에서 입시하였다. 승지에게 친잠 의주(親蠶儀註)를 읽도록 명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잠(先蠶)011) 은 황제 헌원씨(黃帝軒轅氏)의 황후인 서릉씨(西陵氏)이다.” 하고, 또 전교하기를, “왕후(王后)와 명부(命婦)는 모두 국의(鞠衣)인가?” 하니, 도제조 한익모(韓翼謨)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매, 전교를 쓰라고 명하고 이르기를, “지금 상고하여 가져온 《실록》을 보건대 마치 그때의 성대한 의식(儀式)을 보는 것 같다. 이제 는 그 의절이 손바닥 안에 있는 것과 같으니, 조신(朝臣)과 명부(命婦)는 이제 논할 것이 없다. 이번 에 혜빈(惠嬪)·세손빈(世孫嬪) 및 내명부(內命婦)·외명부(外命婦), 여러 옹주(翁主)·군주(郡主), 당저(當宇)의 왕손부(王孫婦)는 입참하고, 치사(致詞)는 혜빈 및 내명부 반수(班首)와 외명부 반수인 자만 하라. 우리 나라에는 이미 친향(親享)하는 예(禮)가 없으니, 그날 축시(丑時) 초(初) 1각(刻)에 선잠단(先蠶壇)에 예관(禮官)을 보내 먼저 행하고, 뽕을 따는 것은 시임(時任) 집사(執事)와 잠모(蠶母)가 예문에 의해서 거행하며, 왕비는 다섯 가지[條], 혜빈과 세손빈은 일곱 가지, 내명부는 아홉 가지, 외명부와 부부인(府夫人)·옹주·군주는 열 한 가지씩이고, 구광(鉤筐)014) 도 역시 예문에 의해서 거행하라. 《대명회전(大明會典)》에 배례(拜禮)하는 의례가 있으니, 예를 마친 후에 왕비의 자리를 잠단(蠶壇) 남쪽을 향하여 설치하고 조하례(朝賀禮)에 의해 행례하는 일을 의조(儀曹)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라. 지난날 예관이 ‘친경·친잠 후에 하의(賀儀)가 있다’고 말하기에, 내가 답하기를, ‘내가 어찌 사양하겠는가?’라고 하였는데, 중종(中宗) 때에는 단지 내하(內賀)만을 행하였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가례(嘉禮)를 행한 지 이미 9년이 되었으니, 3백 년 된 옛일을 따라서 이 예를 행하고자 한다. 성종(成宗) 때의 고사를 생각하고 그 당시의 성심(聖心)을 추념하니, 예는 비록 행하지만 어찌 차마 크게 벌이겠는가? 그날 마땅히 내전과 함께 경복궁에 가서 그 예를 보겠으니, 이렇게 해조에 분부하라.” 하였다. -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1월 18일 계미 2번째기사 1767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영조-2)	키워드	영조의 열심
이야기 자원	왕비가 선잠(先蠶)에 작헌(酌獻)하는 의식은 다음과 같다. 기일 전에 액정서에서 채상단(採桑壇) 밖에 유악(帷幄)을 설치하는데, 사면에 문을 연다. 왕비의 악차를 단의 동북쪽에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의 차(次)를 악차 남쪽에 조금 동쪽으로 서향하여 설치하며, 왕세손빈의 차를 혜빈 차의 남쪽에 서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내·외 명부(內外命婦)의 차를 단의 서남쪽에 동향으로 하여 설치한다. 그날에 상침이 왕비의 채상 옥위(採桑褥位)를 단 위 조금 동쪽에 동향으로 하여 설치하고 혜빈과 왕세손빈의 채상위를 단 아래 북쪽 가까이 남향으로 하여 설치하며, 또 채상하는 내·외 명부의 채상위를 단 아래 남쪽 가까이 북향으로 설치하는데, 모두 자리를 달리하고 겹줄로 하되,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혜빈위의 서쪽 조금 남쪽에 설치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또 단 위에 왕비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왕비 채상위의 북쪽의 조금 동쪽으로 남향하여 설치하는데, 서쪽이 위가 되게 한다. 혜빈 이하의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의 자리를 각 자리의 뒤에 설치한다. 여시(女侍)가 잠종(蠶種)·갈고리·박(箔)·광주리·시령 및 양잠에 필요한 기물을 상전(尙傳)에게 주고, 상전이 받아서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는 자 및 잠모(蠶母)에게 주어 기다리게 한다. 왕비가 작헌례를 행하여 예를 마치고 다시 악차로 들어오면, 상궁 이하가 각기 그 복장을 입고 상기(尙記)가 보(寶)를 받들고 모두 악차 앞으로 가서 사후(伺候)한다. 채상할 시각이 이르면 상의가 악차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중엄(中嚴)을 계청한다.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가 각기 그 복장을 입는다. 전빈(典賓)이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모두 단하의 자리로 가면,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모든 자가 각기 자리로 나아간다. 상의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예를 행하기를 계청하면, 왕비가 상복(常服)으로 바뀌 입고 나간다.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채상단으로 나아가 남쪽 계단으로 올라가 채상위로 가서 동향하여 선다.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자가 북쪽 계단으로 올라가 자리에 나가면 전빈이 상공(尙功)과 전제(典製)를 인도하여 채상위에 나아가 서향으로 선다. 상궁이 갈고리를 받들어 올리면 왕비가 갈고리를 받아서 뽕을 따고, 전제가 광주리를 받들어 올리면 받아서 뽕을 담는다. 왕비는 다섯 가지[條]의 뽕을 따는 데 그치고, 갈고리를 상궁에게 주면 상궁이 갈고리를 받으며, 전제는 광주리를 받들고 모두 내려가 제자리로 돌아간다. 상궁이 왕비를 인도하여 단의 남쪽 자리로 가서 혜빈 이하의 뽕 따는 것을 구경한다. 처음에 왕비와 채상 여사(採桑女史)가 각기 갈고리를 혜빈·왕세손빈 및 채상하는 내·외 명부에게 준다. 왕비가 뽕따는 것을 마치면 전빈이 혜빈·왕세손빈,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차례로 뽕을 따면, 광주리를 잡은 자가 받는다. 혜빈·왕세손빈이 각기 일곱 가지를 따고 내·외 명부가 각기 아홉 가지를 따면, 여사(女史)는 갈고리를 받아 광주리를 잡은 자에게 주고 물러가 제자리로 돌아가고, 전빈은 혜빈·왕세손빈,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3월 10일 갑술 5번째기사 1767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영조-3)	키워드	영조의 열심
이야기 자원	(앞 기사에 이어서) 전빈이 헤빈·왕세손빈 및 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잠실(蠶室)로 나아가면, 상궁이 갈고리와 광주리를 잡은 자를 거느리고 차례로 따라서 잠실에 도착한다. 상궁이 뽕을 잠모에게 주면 잠모는 뽕을 받아서 잘게 썰어서 내명부에게 주고 한 잠박(蠶箔)의 누에에다 뿌려주어 먹게 하고, 이를 마치면 전빈이 헤빈·왕세손빈·내·외 명부를 인도하여 제자리로 돌아간다. 잠모가 단 아래로 내려가 먼저 고두례(叩頭禮)를 행하고 반상(頒賞)을 마치면, 잠모가 다시 고두례를 행한다. 상의가 왕비 앞으로 나아가 부복하여 꿇어앉아 예필을 아뢴다. 왕비가 소차로 들어가 예복으로 갈아입고 수식(首飾)을 가하여 자리에 오르면, 전빈이 헤빈·왕세손빈 및 내·외 명부 이하를 인도하여 예복으로 갈아입고 배위(拜位)로 나간다. 전찬이 ‘국궁·사배·홍·평신’을 창하면, 헤빈 이하가 국궁·사배·홍·평신한다. 전빈이 헤빈 이하를 인도하여 단에 올라 시좌(侍座)한 후 잠모 등이 단 아래에 열지어 앉으면 음식을 내리고, 먹기를 마치면 물러가 선다. 상의가 꿇어앉아 예필(禮畢)을 아뢰면 왕비가 자리에서 내려오고 상궁이 앞에서 인도하여 악차로 들어가며, 전빈이 헤빈 이하를 인도하여 각기 자리로 돌아간다. 조현례(朝見禮) 시각이 이르면 의식대로 행례한다. 【친잠의(親蠶儀)이다. ○친경 전에 헌종(獻種)하는 예(例)가 있으니, 친잠 전에도 마땅히 육종(浴種)하는 의식이 있어야 하는데, 행할 만한 의식이 없어서 빠진 것이다.】 - 영조실록 108권, 영조 43년 3월 10일 갑술 5번째기사 1767년 임금이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을 지영하고, 이어 연화문에 나아가 문신(文臣)의 제술(製述)을 설행하였다. - 영조실록 114권, 영조 46년 3월 3일 경진 1번째기사 1770년 임금이 연화문(延和門)에 나아가 선잠제(先蠶祭)에 쓸 향(香)을 지영(祗迎)하였다. 하교하기를, “농사를 짓고 누에를 치는 것은 국가의 중대한 일인데, 늘그막에 그 마음이 헤이해지는 듯하여 근년에는 친경(親耕)하고 친잠(親蠶)하여 바로 백성들에게 우러러 보도록 하였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와 같이 하였겠는가? 선농단(先農壇)의 향을 받는데도 이미 지영하였으며, 선잠단(先蠶壇)에도 역시 지영하니, 뜻이 대체로 깊다. 임금은 백성을 의지하고 백성은 농사 짓고 누에 치는 것에 의지하니, 그 중대한 것을 우선하는 것이 마땅하다. 수령 칠사(守令七事)를 비국(備局)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에 신칙하게 하여 그 부지런하고 태만함을 내가 마땅히 알아야 하겠다.” 하였다. - 영조실록 116권, 영조 47년 3월 3일 갑진 1번째기사 1771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과 선잠제(영조~순종)	키워드	신위 이전, 폐지
이야기 자원	임금이 궁정(宮庭)에서 향을 전하고, 겸하여 지영례(祇迎禮)를 행하였는데, 선잠단제(先蠶壇祭)때문이었다. - 영조실록 118권, 영조 48년 3월 9일 갑진 2번째기사 1772년 지평 박준원(朴俊源)이 상소하였는데, 대략 이르기를, “선잠단(先蠶壇) 제향 때 아헌관(亞獻官)인 전(前) 판서(判書) 이익원(李翼元)은 도성문을 곧장 빠져나갔고, 종헌관(終獻官) 서희수(徐晦修)는 뒤늦게 따라갔으니, 모두 견책하여 파직시키는 법을 시행하기를 청합니다.” (중략) 하니, 임금이 우악한 비답을 내리고 가납(嘉納)하였다. - 영조실록 123권, 영조 50년 7월 1일 임자 3번째기사 1774년 승정원이 아뢰기를, “선잠단(先蠶壇) 제향 축문의 빈 곳을 채울 때에 헌관(獻官) 안창군(安昌君)의 성명을 의당 갖추어 써야 하는데, 대축(大祝)이 성(姓)자를 쓰지 않아 비록 즉시 바로잡기는 했으나 이미 일이 매우 잘못되었으니, 대축 한용탁(韓用鐸)을 중추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 정조실록 44권, 정조 20년 3월 11일 정사 2번째기사 1796년 〈개정한 제사 제도 [享祀釐正]〉 선농단(先農壇), 선잠단(先蠶壇)의 신위는 사직단(社稷壇)에 배향하고 해당 제단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산천단(山川壇), 산천 악독단(山川嶽瀆壇), 우사단(雩祀壇), 사한단(司寒壇), 옥추단(玉樞壇), 칠사사현사(七祀四賢祠), 여단(厲壇), 성황단(城隍壇), 마조단(馬祖壇), 무열사(武烈祠), 정충단(旌忠壇), 선무단(宣武壇), 정무단(靖武壇)의 제사는 이제부터 폐지하고 해당 단(壇)과 사(祠)의 터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대보단(大報壇), 만동묘(萬東廟), 숭의묘(崇義廟), 동관묘(東關廟), 남관묘(南關廟), 북관묘(北關廟) 및 지방 관묘(地方關廟)의 제사를 폐지하고, 대보단의 터는 궁내부에서 관할하며 숭의묘와 북관묘는 국유로 이속시킨다. 만동묘, 동관묘, 남관묘 및 지방 관묘는 해당 지방 관청에 넘겨 백성들의 신앙에 따라 따로 관리할 방법을 정한다. 역대의 묘, 전, 능, 사 및 지방에 설치한 사직단과 문묘는 모두 정부의 소관으로 한다. 이 칙령(勅令)은 반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순종실록 2권, 순종 1년 7월 23일 양력 3번째기사 1908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둔 설치 배경	키워드	숙종, 윤취상, 성북, 구준, 백악
이야기 자원	윤취상은 말하기를, “성북(城北)은 낮고 평평하여 높은 봉우리에서 내려다보이는 것이 마치 어른이 아이를 안고 굽어 보는 것과 같아서 진실로 적병이 여기에 웅거하게 되면, 아무리 높은 보루(堡壘)와 기병(奇兵)이 있다고 해도 힘을 쓸 데가 없을 것 같으니, 이는 반드시 쟁취해야 하는 곳으로, 구준(狗樽)과 백악(白岳) 사이에 4, 5개의 돈대를 설치한다면 안팎으로 서로 돕는 형세를 이루어 적병이 압도하는 걱정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안현(鞍峴)은 외로이 떨어져 있어 성원(聲援)해 줄 곳이 없기 때문에, 적병이 난무하고 물 길는 길을 포위하여 차단한다면, 돈대의 수졸(守卒)들은 칼도 써보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니, 돈대를 설치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도성(都城)은 남북이 험준하여 산을 이용해서 성첩을 축조한 곳이 상당히 있었고, 전에 축조한 것도 완고(完固)한 데가 많았습니다. 동서는 땅이 평탄하고 성이 낮아 제일 허술하니, 수선(修繕)하는 역사(役事)는 의당 동서를 먼저하고 남북은 뒤에 해야 합니다.” - 숙종실록 39권, 숙종 30년 2월 15일 을유 1번째기사 1704년		
참고문헌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영의정 홍봉한의 성북둔 설치 건의	키워드	영조, 홍봉한, 어영청, 아병(牙兵), 원충(元摠)
이야기 자원	鳳漢曰, 北城主脈補土之役, 今已了當, 鍊戎臺一局, 若使摠使, 一向盡心, 則別無可虞者。而以地勢言之, 戎臺在於北山之西北, 故肅靖門北東, 無以照管, 東村無賴樵採之類, 任意往來, 童濯無餘, 已不勝其痛駭。況其一帶長谷, 介在城外, 虛曠蕪廢, 所見可悶。自前已有募民入居之議, 而尙今未遑者, 全由於忽於遠慮, 視若餘事也。此是御廳分授處, 故御將爲之深憂, 常加料度, 昨日則親往而遍審, 方欲略略設施。此不過募聚民居於回抱之平地, 買給近處屯田, 設置若干倉穀, 使之資生而安接, 不欲煩諸朝家, 但自營門經紀, 而事係新創, 難於獨決, 往復於臣, 臣果力贊之。是不但環守都城之計, 實有與戎臺, 表裏聲勢之益, 使之及時措置, 以爲緩急相須之道, 何如? 上曰, 卿其取紙而指陳, 此誠好矣。使御廳卽爲舉行, 可也。所置之田, 爲營屯, 而居民將爲屯軍耶? 鳳漢曰, 自當如此, 而御廳有本牙兵, 而自廟堂定額, 今不必加其軍額, 就其元摠中移定, 則自可依其事目, 除雜役矣。上曰, 依爲之。 - 승정원일기 69책 (탈초본 1242책) 영조 41년 4월 17일 임술 17/17 기사 1765년 영의정 홍봉한이 아뢰기를, “북성(北城) 주맥(主脈)의 동북쪽에 빈 골짜기가 하나 있어 지면이 매우 평평하고 넓은데, 나무꾼들이 함부로 들어가 벌채하여 민둥산이 되어 나무가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만일 수십 호의 인가(人家)를 두어 살게 한다면, 가히 도성(都城)을 수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박전(薄田) 약간 경(頃)이 선잠단(先蠶壇) 근처에 있는데, 군사(軍士)의弩料(廩料)를 먹는 자로 하여금 그 땅에 살게 하되 그 밭을 경작하게 하고 그 세금을 감하여 주어 그들에게 생활을 정착하게 한다면, 가히 돌아가 농사를 짓게 하는 실효(實效)가 있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지형(地形)을 그려 진달하라고 명하였다. 홍봉한이 손가락으로 지점(指點)하며 조목조목 아뢰기를 자못 자세히 하매, 임금이 어영청(御營廳)에 창고를 설치하고 백성을 모집하라고 명하였으니, 곧 오늘날 성북창(城北倉)이었다. 창고가 성외(城外)에 있어서 한갓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가 있으며, 거민(居民)들은 땀나물을 하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다가 창고의 저축미로 먹여 주기를 바라니, 소모되는 비용이 도리어 심하였다. - 영조실록 105권, 영조 41년 4월 17일 임술 2번째기사 1765년		
참고문헌	승정원일기(국사편찬위원회 http://sjw.history.go.kr) 조선왕조실록(국사편찬위원회 http://sillok.history.go.kr)		

No.	1-3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1)	키워드	김한구, 홍봉한, 연응대, 강운봉, 1805년
이야기 자원	盖朝家之置屯鎮何則 安不忘危 古不云乎 都城之北 卽主脉也 山岳峻疊閭閻隔絕 朝家以虛爲慮者久矣 歲在乙酉鰲興府院君使道 與都提調洪政丞大監 博議廣詢後 字內原處 以設屯募民之意 筵中仰達 丙戌春 行次本洞 相地之宜 創高填低 修之葺之 設屯居民 鎮之實之 卽惠化門之左 肅靖門之右也 大抵 本洞山高谷深 生計零落 地僻市遠 利路艱難 丁亥秋 朝家特軫居民之生計 木布苧三廩曝白之物 松苧並盡數 付之於本洞居民以爲練熟 戊子冬 又設燠造幕 而自廟堂 發關於摠戎廳鍊戎臺 燠造幕所在熟手者一人 移付於本幕 使之教訓使洞中居民 演學成就 以爲賴活之意楊前定奪 雖乎高哉 兩相國閣下 統轄營門 爲國成就之道 方略保護之德 並行國有陰雨之備 民無桂玉之愁 神運籌劃 爲時保佑 於斯至矣 易曰 王公設險 以備不虞 書曰 能使斯民 如保赤子 然則設屯鎮以居民 豈偶然者哉 屯鎮者 國之保障 居民者 屯之根本 屯恃於民 民依於屯 互相保護 固非無一者 故朝家特軫保民之政 使斯民使之曝役燠業 以目成出 以爲憑後之跡 伏願僉僚 奉承成意 悉心遵行 與屯興廢 是所望也 夫廟堂及營門決給之時 行者追錄于左 以爲日後可考之地云爾 補資生之路 其字恤之政 深且厚矣 廟堂文案 營門文蹟 次第連付 作成卷軸 置之於鍊戎臺移來人姜雲峯家矣 雲峯身死許多文蹟 隨而闕失 無處可推可勝痛哉 可勝惜哉 已失之物 勢無奈何 故今番 以此闕失之意 具由呈訴于使道前 伏蒙許施之澤 立旨完文節 嘉慶十年 歲在乙丑季夏迫成 대개 조정에서 둔진을 두는 것은 어찌서인가? 편안한 때에도 늘 위험을 잊지 않는다고 옛 사람은 말하지 않았던가? 도성의 북쪽은 주맥이라 산악이 높아 첩첩이고 여염집들은 떨어져 있어서 조정에서는 빈 것을 우려한지 오래되었다. 지난 을유년(1765년, 영조 41)에 오흥부원군 김한구 사포와 도제조 홍정승 대감 홍봉한께서 널리 의논을 구하고 물어보아서 도성 안팎 경계 지역의 언덕에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모은다는 취지를 경연에서 임금께 아뢰어 병술년(1766년, 영조 42) 봄에 본 동리에 행차하여 적절한 땅인지를 살펴서 높은 곳은 깎고 낮은 곳은 메워서 고치고 수리해서 둔진을 설치하고 백성을 거주하게 했다. 둔진을 둔 곳은 해화문의 왼쪽이자 숙정문의 오른쪽이다. 대체로 본 성북동은 산이 높고 계곡이 깊어서 주민의 생계가 형편없으며 땅은 외지고 시장은 멀어서 살아갈 방도가 곤란하다. 정해년(1767년, 영조 43)가을에 조정에서 특별히 거주민들의 생계를 헤아려서 목면(무명), 포(베), 저(모시) 세 가지 점포에서 포백할 물건과 송도의 모시 전부를 본 동리의 거주민에게 주어서 삶아서 익히게 하였다. 무자년(1768년, 영조 44) 겨울에는 훈조막을 설치해서 비변사에서 총융청에 관문(關文, 공문서)을 보내어 연응대 훈조막에 있는 숙련자 한 사람을 본 막으로 보내어 가르치게 하고 동리의 거주민으로 하여금 배워서 생활에 보탬이 되게 하는 뜻을 가지고 임금께 재가를 받았으니 옳은 일이었다. 두 상국 합하께서 군영을 통솔하시니 국가를 위해 성취해야 할 방법과 주민을 보호하는 덕을 아울러 행하였다. 나라에서는 미리 위험을 방지하게 되었고,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근심을 잊었으며, 귀신처럼 헤아리고 때맞춰 보우하심이 이에 이르렀다. 주역에 이르기를 “왕궁이 시설을 험하게 만들어서 미리 방지하여 근심이 없게 하였다.”고 했고, 서경에 이르길 “백성을 잘 보호함에 어린 아이와 같이 한다.” 라고 했다. 그러니 둔진을 설치하여 백성을 거주하게 한 것은 어찌 우연의 일이겠는가? 둔진이란 것은 나라의 방패막이며 백성이 거주하는 것은 둔진의 근본이다. 둔진은 백성을 믿고 백성은 둔진에 의지해서 상호 보호한다면 하나됨이 없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조정에서는 백성을 보호하는 정치를 특별히 헤아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포역과 훈업을 하게 해서 생활하는 길에 보태도록 하였으니 백성을 어루만지는 정치가 깊고 두텁게 된 것이다. 비변사의 문안과 군영의 문적은 차례대로 붙여 족자로 만들어 연응대에서 옮겨 온 강운봉의 집에 두었다. 강운봉이 사망하자 여러 문적을 잃어버려 찾을 길이 없으니 통탄스럽고 애석하다. 이미 잃어버린 물건은 형편상 어찌겠는가. 그러므로 이번에는 분실한 사정과 연유를 갖추어 사포께 소장을 올려 엎드려 시행되는 은택을 바라오며 이를 입증하는 완문과 절목을 만들어 주셔서 뒷날 증빙 자료로 삼고자합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저희들이 그 뜻을 받들어서 마음을 다하여 준수하여 둔진의 흥망과 함께 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무릇 비변사와 군영이 결정해 문서를 발급해 줄 즈음에 저희들이 아래와 같이 추록하여 뒷날 상고할 근거로 삼고자 합니다. 가경 10년 을축(1805년, 순조 5) 늦여름에 추기함		
참고문헌	「성북동포백훈조계완문절목」(서울시유형문화재 제182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글번역 :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도성과 마을1』, 2014, 38쪽.		

No.	1-3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포백훈조계원문절목」(2)	키워드	마전 : 무명, 베, 모시 훈조 : 메주
이야기 자원	一. 木布苧三塵 練熟之物 松都苧 並依廟堂 決給例 從束曝白 輸送于各其塵 毋至遲滯之廢爲白齊 一. 木布苧曝白工錢 木每同雇價四兩 布每同雇價六兩五錢 苧每同雇價十兩式 並依廟堂決給例 捧上爲乎矣 無敢違越爲白齊 一. 戶曹遮障布每同練熟雇價 依本曹定式例 白米二十斗 受出爲白齊 一. 營門姑給卜馬 使之物種載來 而本契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卜馬畢納今無 一. 依廟堂決給例 五人作爲一所 掛設兩釜 交遞蒸太爲乎矣 五人外無敢增加爲白齊 一. 治道時 依廟堂決給例 出軍五名 三台廣耳持是遣 與內契 同爲赴役爲白齊 一. 釜稅段 依廟堂決給例 每年三十五兩 輸送于內契 以補治道之需爲白齊 一. 營門燠太 每石工錢六錢 代米二斗式爲白齊 一. 無邊錢段 本幕蘇醒後 卽爲還納爲白齊 畢納今無 大將(手決) 일. 무명·베·모시 삼전에서 삶아서 익힐 것들은 송도의 모시와 함께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묶음 단위로 포백하여 해당 전으로 수송하며 지체되는 폐단이 없도록 한다. 일. 무명·베·모시를 포백하는 수공은, 무명은 매동 50필마다 임금이 4량이고, 베는 매 동마다 노임이 6량 5전이며, 모시는 매 동마다 노임이 10량씩이다. 아울러 비변사에서 결정해준 예에 따라 받되 감히 위반하지 않는다. 일. 호조의 차일에 쓰일 포는 매 동마다 삶아서 익히는 노임은 호조에서 정하는 규식에 의거하여 백미 20두를 내준다. 일. 군영에서 우선 제공해준 짐말로서 물건들을 실어 나르게 하며 본 계가 형편이 좋아지면 곧바로 돌려준다. 짐말을 되돌려 주어서 지금은 없다. 일.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인을 1소를 만들어 두 개의 술을 걸고 교대로 콩을 삶는다. 5인 외에 감히 증가시키지 말 것이다. 일. 길을 닦을 때에는 의정부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5명의 역군을 징발하여 삼태기, 팽이를 가지고 내계와 더불어 함께 부역한다. 일. 술에 대한 세금은 비변사에서 결정한 예에 따라 매년 35량을 내계로 수송하여 도로 닦는 비용에 보태도록 한다. 일. 군영에서 콩을 삶는 것은 매 석당 노임은 6전인데, 이는 쌀로 대체하여 2두씩으로 한다. 일. 이자가 없는 돈은 본 막이 형편이 좋아지면 즉시 갚는다. 다 갚고 지금은 없다. 대장(수결)		
참고문헌	「성북동포백훈조계원문절목」(서울시유형문화재 제182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한글번역 : 서울역사박물관 편, 『도성과 마을1』, 2014, 39쪽.		

No.	1-3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1)	키워드	김구주, 채제공, 목만중 성대중
이야기 자원	再訪城北屯 北墩初設攢羣言。陰雨城隍至計存。 往者尋常一長谷。居然排列幾家村。 緣溪泝泝誰爲葉。負郭耘耕可餉屯。 更得清秋水石好。客來拄杖問窮源。 - 김구주(1740~1786), 가암유고 甲辰春。同幼選，公會，季受及諸兒輩賞花北渚洞。仍宿屯舍。 背郭斜穿逕。緣崖窈似門。 有花皆覆水。何處可尋源。 地勢深如此。笛聲時一喧。 娟娟今夜月。隨我入山村。 - 채제공(1720~1799), 변암집 與樊巖・公會 游北屯。 衆壑紛殊體。羣峯共一門。 桃花自成塢。藜杖直窮源。 客簞連沙淨。人家有酒喧。 去城無數里。那得此深村。 - 목만중(1727~1801), 여와선생문집 北屯月夜沼上作 照水花如動。流雲月與飛。 山樓當此夜。林壑有餘輝。 狂甚無端至。情多未便歸。 傾城萬人出。清賞似吾稀。 - 목만중(1727~1801), 여와선생문집 出東小門有述 瘦馬崢嶸屢渡川。烏巾白袷意飄然。 閉門愁髮千莖雪。出郭澄懷萬里天。 東道烟霞期信宿。北屯桃李記前年。 主人病起多幽事。藜杖相須菊樹邊。 - 목만중(1727~1801), 여와선생문집 奉寄太湖 自失詩朋意便摧。北屯花事爲誰催。 明朝試入幽蘭洞。聊洩西門醉後哀。 - 성대중(1732~1809), 청성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3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2)	키워드	박준원, 윤기
이야기 자원	北寺洞次諸人韻 無多出城步。頗怪有仙家。 一道長流水。千林未落花。 幽蒼山背郭。虛白洞開沙。 未至猶深酒。酣歌倚日斜。 - 박준원(1739~1807), 금석집 上巳遊北渚洞 蘭亭千載後。暮春歲癸丑。 麗日屬上巳。芳辰携好友。 城北東流水。石上清瀾瀏。 羽觴波綠蟻。屈曲隨湍走。 詩文傲今古。談笑溢左右。 隔岸笙歌起。投壺迭勝負。 桃花滿眼舒。色之以綠柳。 深紅映淺紅。霞蒸亘原畝。 人家極瀟灑。夾溪開竹牖。 悅入武陵源。自疑是漁叟。 騁望暢幽情。緬想永和九。 未知逸少會。亦有此樂否。 斜日蕩林梢。光景萬千紉。 坐久還移席。壺乾更呼酒。 齊言興未已。欲起時被肘。 兒童走復來。喧說終在口。 閑僻兼富貴。茲遊誠難朽。 名區本無主。世事復何有。 嘗聞沂雩詠。聖師喟然取。 嚶嚶願學志。不恨沒黎莠。 - 윤기(1741~1826), 무명자집 北渚洞 洞裏桃花滿。村中澗水馳。 拂枝香襲袂。臨石影搖池。 眼醉何須酒。神癡未暇詩。 遊人喧日夕。俱是樂平時。 - 윤기(1741~1826), 무명자집 和李友景質春日遊北渚詩韻 山家如畫望依微。碧柳低垂白竹扉。 北渚水流魚自戲。春城日暖馬如飛。 歸鳥悠悠穿岫靄。落花片片點人衣。 羨君詩思酬風物。飽得奚囊意氣歸。 - 윤기(1741~1826), 무명자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4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3)	키워드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
이야기 자원	성시전도(城市全圖) 혜화문 밖에서는 무엇을 보았는가 / 惠化門外何所見 푸른 숲이 흰 모래밭에 연하였네 / 點綴靑林白沙嘴 북동의 복사꽃 천하에서 가장 붉고 / 北屯桃花天下紅 푸른 시냇가엔 울타리 짧은 집들 / 短籬家家碧溪沚 - 이덕무(1741~1793), 청장관전서 北屯桃花 2수 十季重叩北山扉。眼慣桃溪淨午暉。 今雨幾人來酒所。東風數日駐花飛。 靑溪路帶微紅槲。芳艸春迷淺碧衣。 但得小閒騎馬去。看花伴侶未全稀。 一帶溪流幾板扉。女牆高處挂斜暉。 夭桃嫩柳村村好。舊燕新鶯處處飛。 烟艸平分歸騎影。落英多積醉人衣。 城東三月春何限。酒碧花香似此稀。 - 유득공(1748~1807), 영재집 北屯看花。學兒有作。次其韻。 城北饒蒼翠。軍廂久護松。 村村白苑潔。處處碧桃濃。 細路丫難辨。遊人萬可容。 吾知居者意。販果捋侯封。 - 유득공(1748~1807), 영재집 北屯草堂。次斗室學士韻。 桃林何必問榮枯。車馬乘秋亦甚都。 眞箇詩人何處得。不能飲者是中無。 池荷破碎凄堪畫。堤柳摧頽婉可扶。 試向城東溪上醉。此身終竟着江湖。 - 유득공(1748~1807), 영재집 出惠化門。循城而鹵二里。有倉曰城北屯。居民皆種桃。紅霧蒸成。隔岡有破寺。所謂北寺洞者。 一雨郊原麗曠新。春天數騎踏芳塵。 桃花地僻空倉晚。泚泚僧稀古寺貧。 碧樹園中尋水響。亂山高處見城身。 莫嫌灌圃生涯拙。我輩十年無此人。 閒來耳目一時新。塾客鬚眉不染塵。 滿地飛花驚節暮。出城羸馬笑官貧。 溪頭亂石留殘墨。山頂流雲擁半身。 最是夕陽光景絕。白沙堤外醉歸人。 - 박제가(1750~1805), 정유각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4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4)	키워드	이이순, 장훈, 조수삼
이야기 자원	自貞陵轉至北渚洞而還。崔令聖會戲誦猶是青雲九分人之句以嘲之。步韻見答。 看花行屐拂城塵。踏盡貞陵洞裏春。 歸路白雲精舍過。仙緣自謂十分人。(北渚洞。有茅亭。名白雲精舍。) - 이이순(1754~1832), 후계집 遊北渚洞 入洞深深出洞遲。靈源窮處我從之。 雖無絕愛山如畫。別有貪看石更奇。 懶聽悠揚一作微風芳草岸。 啼鶯斷續一作斜日落花枝。 時人謾說尋眞事。咫尺丹丘猶不知。 - 장훈(1759~1828), 이이엄집 遊北渚洞。洞西北附城陰。有亭新構。扁曰吾老。甚精灑。走題壁上。 一流水夾萬株松。數里行過人未逢。 烟火幾家隱何處。城譙千仞倚孤峰。 黃鸝遊子茅亭好。綠葉閑雲午景濃。 鎖日誰知濠濮想。郭門車馬競相從。 - 장훈(1759~1828), 이이엄집 次兒輩遊北渚洞韻 桃花千樹映柴扉。人似秦餘生事微。 無水漁舟從底入。近城車馬不曾稀。 斜陽空翠全和飯。宿雨霏紅半染衣。 少日遊觀成一夢。請君爲寫畫圖歸。 - 장훈(1759~1828), 이이엄집 北渚洞 山中種桃李。員幅與山齊。 嘉實三秋熟。名花十日迷。 下蹊人遠近。仰食樹高低。 爲飾昇平觀。非關避地棲。 - 조수삼(1762~1849), 추재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4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5)	키워드	박시원, 김조순
이야기 자원	丁卯暮春。京嶺諸勝十四人。會北渚賞桃花。拈唐人詩玄都觀裏桃千樹盡是劉郎去後栽。分韻以記勝。余於是日。滯直內省。獨未參會。遂合諸韻追和。 洞觀造化天。紅紫自玄玄。 年光無處無。爛熳集神都。 柳行分塵泮。花香耀樓觀。 時我苦持被。若繫樊籠裏。 聞說北城壕。有村村有桃。 是日會羣賢。愛爾紅萬千。 不妨苔侵屨。政好花滿樹。 剩被酒力緊。緣溪興不盡。 天台碧玉蕊。勝賞無乃是。 論襟許梅歐。拈韻較秦劉。 塊坐負仙香。武陵迷漁郎。 風流無定處。適來又適去。 倘念踈慵否。鶯啼晚雨後。 明年花又開。寄語謹培栽。 - 박시원(1764~1842), 일포집 同竹里，江右，滄濱 履會 三叔。申仲立，兒子迪根。賞北渚桃花。僕實初至。淵泉叔忽追躡。共宿倉舍。 西崦亭沼話微塵。東谷桃花耀眼新。 十里遼山如遠道。一朝出郭便知津。 種前應屬荒涼境。開後真堪富貴人。 酒盡林間成止宿。五更殘月衆香身。 幽情暢叙出凡塵。行盡清溪興愈新。 宛是風流追曲水。何須消息漏仙津。 花間細路初歸客。松下餘樽半醉人。 安得龍眠傳繪素。他年看作臥遊身。 - 김조순(1765~1832), 풍고집 與寧野出北渚同吟 不問花誰主。行看遍一村。 詩成流水外。碁對古松根。 山日捎林轉。溪雲釀雨昏。 悠然思止宿。清興湛餘樽。 宋老何年築。桃園甲一村。 起居無別幹。衣食自成根。 石澗情今古。雲巒態曉昏。 有錢應買此。書卷伴琴樽。 - 김조순(1765~1832), 풍고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4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6)	키워드	김려, 강이천, 강준흠 박운목
이야기 자원	晩春游覽絶句 十二首 鵲花淨盡杏花消。無懶東風太寂寥。 北渚緋紅千萬樹。晩春猶保淡粧嬌。(北渚洞。桃花已晩。) 昨夜封姨一陣風。芳園春色片時空。 靑門盡日香如海。紅雨濛濛十里中。(自北渚洞。至東小門。自門至新興寺洞口。摠是桃花。) - 김려(1766~1822), 담정유고 北渚醉歸 桃花花下雨微微。忽漫相逢到醉歸。 半夜酒醒天又霽。一輪紅日舊光輝。 - 강이천(1768~1801), 중암고 北渚看花 山噴桃花水半沙。客來全似武陵家。 參差舊木交新木。粧點東城谷谷霞。 - 강준흠(1768~1833), 삼명시집 北渚洞(在城東惠化門外五里。居人種桃爲業。) 東郊楊柳綠暎津。北渚桃花萬樹春。 桃花深淺與溪長。數家烟火自作鄰。 不是神仙不是隱。箇箇栽花種果人。 花發居人不獨看。滿城珂馬蹴香塵。 果熟居人不自食。幾樹能濟一家貧。 理生不殊農蚕家。使人看作林泉民。 種樹年年利漸滋。五穀勾歉不關身。 涿郡種菜眞英雄。城東牧豕亦經綸。 志士高人未易用。不妨身作草莽臣。 - 강준흠(1768~1833), 삼명시집 陪竹里學士賞桃北渚共賦 玉澗幽蘭摠後塵。爭如北渚萬花新。 傾城車馬無虛日。一洞繁華似要津。 石井片霞追傑句。武陵流水憶漁人。 臨風更起陽春興。畱看紅粧月下身。 - 박운목(1771~1849), 존재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4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한시(7)	키워드	김정희, 변중운, 조병현 윤정현, 이상적, 이견창
이야기 자원	북둔에서 도화를 구경하다[北屯看桃花] 척오의 땅이라 성 동쪽에는 / 城東尺五地 만 수풀에 일제히 꽃이 피었네 / 花發萬林齊 불승을 당장에 깨칠 것 같고 / 佛乘如將悟 선원도 또렷하여 희미치 않네 / 仙源了不迷 차간엔 파란 이끼 어울려 있고 / 乳苔又礪合 격산은 검은 눈썹 나직하구나 / 眉黛鬬山低 그림인 양 마을 떠집 조출도 하니 / 罨畫村茅潔 중당에는 땅을 빌려 깃들 거로세 / 行當借地棲 - 김정희(1786~1856), 완당전집 북둔에서 꽃을 구경하고 성을 벗어나 구호하다[北屯賞花 出郭口號] 두서너 집 산곽에 아지랑이 갓 걷히니 / 數家山郭翠微開 눈부시게 타올라라 시내 긴 붉은 노을 / 炙眼蒸紅夾礪栽 낮에 부는 번풍이 술 기운을 올리는 듯 / 吹面番風如被酒 곱게 개인 하늘 기운 회대에 가까우이 / 嫩晴天氣近恢台 - 김정희(1786~1856), 완당전집 北渚洞 都門只尺絕塵喧。短杖來尋活水源。 恠石長松城下路。飛花啼鳥洞中村。 浮生無事憂千歲。斜日多情照一樽。 清福知應天所惜。春風閒鎖幾名園。 - 변중운(1790~1866), 소재집 共卯君夜訪北渚洞 東城歸馬暝烟深。獨向春山息靜林。 十里客程三月暮。數村人語百花陰。 碧溪雲散悠揚夢。芳草風來黯淡心。 恐被武陵仙犬吠。遊踪不露夜中尋。 - 조병현(1791~1849), 성재집 城北屯放桃花 城北桃花初發時。待人春色故遲遲。 易知蹊在不言處。正欲吟成前度詩。 丈室偶緣來問疾。漁舟仍作後爲期。 今朝風雨應無恙。好對緋英一展眉。 - 윤정현(1793~1874), 침계선생유고 兒輩出城北屯看花 城北桃花千萬株。冶游當日幾提壺。 風懷老去輸兒輩。爲問春光似舊無。 - 이상적(1804~1865), 은송당집 城北亭 湖上人過城北亭。賣船却欲買園局。 總是一般好生理。桃李香多魚蟹腥。 - 이견창(1852~1898), 명미당집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No.	1-4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유북저동기(遊北渚洞記)	키워드	북저동, 성북둔, 채제공, 목만중, 인제
이야기 자원	遊李氏園未數日。餘窩陸幼選。賞花北渚洞歸。直抵余。津津說北渚勝不離口。且曰。度了明日花且凋。公若有意乎。雖日日往。願從之。人或謂之狂。當不恤也。余挽以宿。遲明俛馬出。李學士公會。季受兄弟及敍恭。弘選。弘遠輩從。出惠化門。循北城以折未數里。洞呀然以開。卽所謂北渚也。纔入洞。有壇面南四出陞。繚以短牆。其門形。四之。每歲春三月祭先蚕云。行可百許步。居人橋其川。橋下衆水所會。水泏泏有聲。橋之南有谷。不知淺深。桃花團作錦障。兩厓通紅。心以爲必有異也。然姑捨之。取直路行無幾。又度橋抵御營屯。庭宇頗寬。屯之外小塘甃以石。制雖略繁。花倒水其影不定。稍迤巖壁嶒然。如屏如障。巖之下莎與沙半之。意行意坐俯視之。村家點點分麓。大抵以桃花爲藩籬。隱約露出者。或牕之半。或簷之角也。都人士自達官。至閭巷民庶。遊賞如不及。車馬殷殷轟轟。歌呼迭作。間以笙簫。國家百年昇平之象。盡在是矣。余靜者。不耐鬧熱。與諸君還取來路。尋向所稱橋南谷者。谷窈以容。水益清花益盛。僂僂然兩腳輕舉。不知衰且病也。屢度溪危。及城根而止。有茅茨四五間。蕭灑可愛。主人方釀酒。香聞于外。公會買數盞飲。亟稱曰美哉。已而。餅飯自城中至。鋪席崖松下列坐以食。食訖。日已晡矣。送兒輩還。余與三子者。各賦詩一篇。待山氣向曛。復還倉屯遊人歸。獨素月在空。坐池上。熙熙然忘寢。月以色花以香。目之所寓。鼻之所觸。未知其孰多孰少也。公會興甚。典其袍買酒以飲。又各賦詩一篇。時夜可三四鼓。相與歸倉舍以宿。枕席如在衆香國矣。余卧念茲洞。非今有也。我興。非昔無也。以我而尋茲洞。不過費徒御半餉之勞而曾不能一至者。以茲洞之無蟠木之容也。今乃始至焉。徘徊歎賞。有若得見其不可見者然。何其晚也。深區奧壑。懷奇抱勝。有十倍百倍於茲者何可勝道。而若不見知於人。則荒塗古今。埋沒以終焉耳。嗚呼。推是以反。奚獨山與水爲然。旣以是語餘窩。朝起感慨以書。 - 채제공, 변암집 이씨의 정원에서 놀다온 지 며칠 못되어 여와 목유선(유선은 목만중의 자)이 북저동 꽃구경에서 돌아와 곧바로 나에게 와서는 북저동의 멋진 경치에 관해 진진하게 물어 그 이야기가 입에 떠나지 않았다. “내일을 보내면 꽃 또한 시들 것이오. 공께서 만약 북저동에 갈 뜻이 있다면 비록 날마다 간다고 할지라도 공을 따르겠소. 남들은 혹 미쳤다고 하면서 불쌍히 생각지도 않으리다.” 나는 그를 잡아끌어 하룻밤 내 집에 묵게 하고는 이튿날 날이 밝아올 즈음 나란히 말을 타고 집을 나섰다. 학사 이공회 · 계수(이정운 · 이익운의 자)형제와 서공, 홍선(모두 채제공의 인척), 홍원(채제공의 아들)이 따랐다. 해화문을 나가 북성을 돌아 꺾으니 몇 리 못가서 골짜기가 입을 벌리듯 열려있으니 이른바 ‘북저’라는 곳이다. 비로소 골짜기 안으로 들어서니 계단이 하나 있는데 남쪽을 바라보고 사면에 계단을 두었으며 담장을 낮게 둘렀고 홍살문을 사면에 세웠다. 해마다 여기서 춘삼월에 선잠에게 제사 지낸다고 한다. 백보쯤 더 가니 마을 사람들이 냇물 위로 다리를 놓고 있었다. 다리 아래에는 여러 물길이 모이고 있어서 물소리가 뽕뽕했다. 다리 남쪽으로 우묵한 곳이 있는데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복사꽃 무더기가 비단으로 장막을 친 듯 물가 이편과 저편이 온통 붉었다. 마음속으로 필시 기이하다 여겼으나 짐짓 그런 생각조차 놓아버린 채 반듯한 길을 취하여 걸어가니 얼마 안 가서 또 다리를 건너니 어영둔(성북둔)이 막아섰다. 뜰과 건물이 제법 너적했다. 둔의 밖에 있는 작은 연못은 돌담을 둘렀는데 지음새가 비록 엉성하고 번잡했으나 꽃이 물에 거꾸러져 꽃 그림자가 아물거리고 줄기가 구부러져 암벽과 맞닿아 공룡 모양을 하고 있어 병풍이나 장막 같았다. 바위 밑을 보		

	니 베풀이 반 모래 반이었다. 혹 가다가 혹 앓다가 하면서 내려다보니 촌가가 점점이 산기슭에 흠어져 있는데 대체로 복사꽃으로 울타리를 삼았다. 창호의 일부나 처마의 모서리가 언뜻언뜻 울타리 밖으로 드러나 보였다. 도성의 인사들은 달관에서부터 여항의 서민에 이르기까지 놀고 구경함을 시간이 모자란 듯이 열중하였다. 수레와 말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노래 소리 번갈아 일어나며 사이사이 생황과 통소 부는 소리가 들려왔다. 국가 백년 승평의 모습이 다 여기에 있음이라. 나는 조용한 사람이라 열 내며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를 참지 못하므로 제군들과 함께 왔던 길에서도 취하여 교남골이라 하는 곳을 찾아갔다. 그윽하고 조용한 골에 물은 더욱 맑고 꽃은 더욱 번성하여 두 다리가 가볍게 들려 춤추는 듯하므로 쇠하고 또 병든을 몰랐다. 여러 번 시내를 위태롭게 건너서 성뿌리에 미쳐 멈추어 서니 그곳에 너댓 칸 규모의 띠집이 있었다. 쓸쓸하면서도 단정한 분위기의 집이었다. 마침 집주인이 막 술을 빚어 그 향기가 바깥으로 퍼져 나왔다. 공회가 몇 잔을 사서 마시고 곧바로 칭찬하며 이르되 “술맛 참 좋다”고 하였다. 얼마 뒤 성중에서 가져온 떡과 밥이 도착하였으므로 절벽에 자라는 소나무 아래 부들자리를 펴고 나란히 앉아 먹었다. 다 먹고 난 뒤에 해를 보니까 신시쯤(오후 3시~5시) 되었다. 음식을 가져온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나와 더불어 세 사람이 각각 시 한 편씩을 지었다. 싸늘한 산기운을 머금고 석양을 마주하면서 다시 창둔(성북둔)으로 돌아오니 낮에 놀던 사람들은 돌아가고 흰 달만이 텅 빈 하늘에 홀로 떠 있었다. 연못 위에 호젓하게 앉아 있노라니 잠자는 것도 잊었다. 달은 색이고 꽃은 향일뿐이어서 눈으로 보고 코로 맡아도 그중 무엇이 많고 적은지 알지 못했다. 공회는 매우 흥이 나서 제 도포까지 전당 잡혀서 술을 사 마셨다. 재차 시 한 편씩을 짓고 나니 서너 번은 북이 울렸을 때가 되었으므로 서로 어울려 창사(성북둔)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잠자리가 향기의 나라에 있는 것만 같았다. 내가 누워 이 북저동을 생각하니 이 동네는 (내가 누워 있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있는 것이지만, 또 내일 내가 일어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와서 놀았던) 어제가 아니었으면 (내게)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내가 북저동에 찾아올라치면 불과 반 식경의 말 타는 노력만 들이면 되는 것인데 한 번도 이르지 못했음은 북저동에 장대하고 기괴한 모습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에서야 비로소 이르러 여기저기 배회하며 기쁘게 감상하기를,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힘이 있음은 어찌 뒤늦게 왔다는 아쉬움 때문이라. 깊숙이 들어간 구역에 깊은 골짜기에 기이한 절승을 품은 경치가 이보다 열배 백배 좋은 곳이 있음을 어찌 이루 다 말하겠나마는 만약 그곳이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도록 황량한 길로 남아 언제까지나 묻혀 있을 것이다. 오호라! 이를 미루어 돌아보건대 어찌 유독 산과 물만 그러하겠는가? (가까운 곳의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말—역자) 간밤에 이를 여와(목만중)에게 말하고 아침에 일어나니 문득 감개가 밀려와 붓을 드노라.
참고문헌	한국고전번역원 DB > 한국문집총간

일제강점기(1910~1945)의 성북동

No.	2-1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의숙 운동회	키워드	운동회, 삼산의숙
이야기 자원	三山運動 三山義塾秋期運動을 再昨日에 三仙坪에서 設行호얏는디 賞品與午餐諸般經費을 該塾主가 自擔호는 中該洞老人契에서 空冊五拾卷鉛筆二匣과 有契에서 空冊五拾卷鉛筆 匣麵舖三百塊오 本塾 敎師李允熙氏가 鉛筆一匣을 捐助호야 一體施賞호얏다더라		
참고문헌	1908.10.24		

No.	2-2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의숙 창설 취지	키워드	삼산의숙 창설 취지 김수영(金洙榮)
이야기 자원	雜 報 ●三山靛立 城北洞金洙榮氏가 該洞靚年子弟를 敎育하기 爲하야 私立三山義塾을 靛設흔 趣旨가 如左하니 寶玉도 琢磨를 不加하면 光彩를 不發하고 杞梓도 培養을 不爲하면 良材를 難成하느니 物皆然矣어니와 人爲甚焉하야 敎育으로써 智能을 啓發하고 道德을 擴充흔 後에야 健全흔 人物을 始成홀지라 稽經往古하면 三代의 隆盛이 是를 尙흠이오 驗之古今하면 强國의 文明이 是를 懋흠이니 敎育의 功化가 豈不偉大며 豈不神靈哉아 惟我城北洞은 地瘠民貧하야 由來生活不贍으로 敎育을 不遑하얏거니와 顧今文明競爭의 大風潮가 韓半島에 漸被하미 全邦人士가 汲汲然憤奮하야 都野市村에 庠舍繼起히거늘 惟此一洞은 尙此寥寥하야 譬컨디 春風流蕩에 園林이 紛葩흔디 獨히 陰崖寒谷과 如하야 發榮이 遲遲하니엇지 慨歎홀 者ㅣ아니리오 於是乎三山義塾이 始立하니 黑洞天中에 燈臺放光하고 迷渾渡頭에 蘇航이 浮出하얏도다 嗚呼라 從今으로 父兄은 敎導에 盡力하고 子弟는 學習에 熱心하야 進進不已하고 蒸蒸日上하는 能力이 有하면엇지 乙支文德金庾信과 如흔 人物이 不出하리오 惟我同志人士는 協力勉勵하야 進步를 期圖홀지어다		
참고문헌	1908.07.18		

No.	2-3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동의 촛불, 봉시 황연수의 아름다운 일	키워드	황연수, 성북동, 삼산의숙, 졸업식
이야기 자원	경성부관내 송인면 성북동은 궁벽한곳에 있어 그 동리인민의 생활정도는 빨래하기와 지신을 삼아 영업하는데 지나지 아니 함으로 백여호 민가가 호구한기에 분주하여 아동의 교육을 돌아볼 여지가 없더니 조선가로 유명한 중부대묘동사는 전 奉侍 황연수(黃延壽)씨가 오년 전부터 그 동리의 정황을 궁측히 여겨 자신의 집의 경비를 아껴 쓰며 그 동리에 삼산의숙(三山義塾)을 설립하고 제반설비를 공립보통학교와 동일하게 열심히 유지하다가 금년에 제 1회 졸업식을 거행하게 되었음으로 그 동리 인민들은 황씨의 공익상 열심함을 칭송한다 한다.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2.3.29		

No.	2-4	작성자	남기현
제목	교육가의 열성, 삼산의숙의 원족회	키워드	삼산의숙 원족회, 인천항
이야기 자원	동소문 밖 성북동에 있는 사립 삼산의숙 황연수씨는 그 의숙 생도 10세 이상된 자 60명을 인솔하고 전부 경비를 부담하고 금일에 인천항으로 내려가서 원족회를 설행하였다고 한다.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2.05.09		

No.	2-5	작성자	남기현
제목	경향의 자선가	키워드	황수연, 자비부담
이야기 자원	교육상, 덕의상에 유명한 전 봉시 황수연씨는 동소문 밖 성북동에 삼산의숙이라하는 학교를 자비 부담하여 설립한 후 한푼도 타인의 의연을 받지 않고 지금 열심히 교육함은 본보에서 여러 번 게재하였거니와...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2.05.21		

No.	2-6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설립자 황수연 별세	키워드	황수연, 별세
이야기 자원	黃壽延이 別世하다. 號는 春波, 初名은 允明, 壽延은 御賜名이다. 江原道 平海 胎生으로 14歲時에 楊鳳協의 養子가 되다. 詩書畫 三絶을 嗜好하여 中國 韓國의 古書 古畫 古籍의 蒐集이 富有하였으며 1908年 春 三山義塾을 設立 諸般 經費를 自擔 經營하다.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6.02.22		

No.	2-7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의숙의 장래-세탁공전으로 유지	키워드	성북리, 삼산학교, 마전, 홍태운
이야기 자원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는 산밑에 따로 떨어져 있는 촌락이 되어 아이들이 문안 보통학교에 통학하기는 좀 곤란한고로 지난 명치41년에 고 황수연 씨가 삼산의숙을 세우고 운영해오던 바 대정 6년도부터는 설립자의 기부금이 없어서 유지방침이 없더니 그 동리 마전질 영업하는 사람들이 십장 홍태운(洪泰潤)씨를 청하여 대정 6년 12월 11일부터 세탁공전 중에서 얼마씩을 제하여 학교 경비를 담당하기로 하였음으로 동교의 장래는 유지할 망침이 있다고 하더라.		
참고문헌	『매일신보』, 1918.01.29		

No.	2-8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창립 17주년 기념 운동회	키워드	17주년, 운동회, 삼선평 광장, 권규진
이야기 자원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에 있는 사립 산산학교에서 지난 18일에 창립 제 17주년 기념식을 마친 후 운동회를 동소문 외 삼선평 광장에서 개최하였는데 인산인해를 이룬 학부형과 부근 민중은 정각 전부터 도착하였으며 청아한 주악과 생도일동의 운동가(運動歌)로 식을 열고 교장 권규진씨의 개회 가 있는 후 순서를 따라 50여종의 경기를 진행하고 흥미진진한 교감 김동근씨의 폐회사로 식은 마 치었는데 당일 금품을 기부하신 씨명 및 품명은 다음과 같다고 ― 樂隊一組 : 회중기독교회 ― 공책 오백부 : 중앙인쇄소 송태오씨 ― 공책백부 연필24타 : 사립 인창학교 ― 연필12타 : 손홍일씨 ― 금 25원 : 본교 졸업생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4.05.25.		

No.	2-9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부형회	키워드	위안회, 활동사진 창가, 유희, 성북구락부
이야기 자원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삼산학교에서는 방금 夏節을 당하여 일반 학부형과 유지 諸彦의 위안회를 지난 26일 열었다. 당일은 여흥으로 활동사진을 영사하였는데 정각 전부터 남녀관람객은 넓은 교정에 입추의 여지가 없었는데 정각에 이르러 청아한 奏樂 裡에 교감 김동근씨 사회로 식을 열고 개회사가 있는 후 흥미진진한 활동사진이며 간간히 천진난만한 여생도 등의 아름다운 창가와 유희가 있었으며 겸하여 성북구락부원 諸氏의 의연적 출연으로는 희극도 있어 관중의 취미를 돋우고 하오12시경에 산회하였고.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4.07.01.		

No.	2-10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와 송인면 부호(富豪)	키워드	향학열, 김동근, 교통 편리 성북적천, 구제
이야기 자원	-諸君아 보라! 배우겠다고 부르짓는 현대 向學熱을 보라. 이와 같이 향학열이 팽창하매 이를 구제하기 위하여 慘風淒雨를 不顧하고 동분서주하여 애쓰는 저분네들은 누구며 제군과 같이 소작인의 노작물을 가지고 錦衣玉食으로 지나는 자는 누구인가. 각성하여라 다 같은 白衣人 으로 同族인 제군은 실지노력은 못할망정 제 14회의 졸업은 내는 성북리 삼산학교에 대하여 한점의 동정하는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니 한심하지 아니한가 -전교주 황씨의 열열한 교육열로 유지하여 오던 바 불귀으니 객이 된 후 성북리 주민의 열성과 송인면장 金基宅씨 安應善씨의 노심초사로 근근히 유지하여 그의 유업을 계승한 金東瑾씨의 노력과 10여년이나 한길같이 변함이 없이 희생적 교편을 잡은 朴明煥씨는 누구를 위함인가? 우리의 손으로 된 삼산학교를 누가 있어 이것을 구하여 주며 우리의 것을 누가 救할까? -다른 사람이 구하여 줄 자가 있는가. 依賴心이 많은 제군아 내 배만 불리려고 하는 제군아 우리의 것을 우리가 구하여야 할 책임감이 있는 줄 모르는가? 생각해보아라 송인 보통학교 건축 당시에 다대한 금전을 각출하여도 군들의 의사에 적합하지 않은 산촌궁벽 한곳에 지어 놓코도 탄원 한마디 못하고 후회만 하지 않았는가? -교통이 편리한 三山校를 다시한번 회상하여 동정의 눈물을 아끼지 말아라. 농촌생활의 향상과 무산계급발달을 위하여 있는 삼산교는 오리무중에서 형체가 보일락말락하니 이것이 누구의 죄일까? 군들에게 일언을 고하니 우리의 잘못된 과거를 고치고 우리 자체의 장래를 위한다면 一日二食을 하더라도 저 삼산교를 구제하여야 할 것이다.(城北赤泉) *동아일보 <自由鐘>이라는 코너에 실린 글. 독자가 투고하는 글.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5.03.09		

No.	2-11	작성자	남기현
제목	백인기(白寅基)군과 동척감사	키워드	백인기, 별서, 동양척식주회회사
이야기 자원	경성재계에서 현재 한일은행 두치 한상용과 쟁패전을 격렬히 했던 백인기가 한일은행에서 은퇴한 후 성북의 別墅에서 궁사극치窮奢極侈한 생활을 했다... 백인기가 동척감사가 되었는데 동척의 흑막을 廓清整理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5.05.27.		

No.	2-12	작성자	
제목	성북구락부, 한양청년연맹에 가맹	키워드	성북구락부, 임시총회
이야기 자원	경성부근에 있는 청년단체를 망라하여 한양청년연맹(漢陽靑年聯盟)을 조직하고 활동한다는 소식을 들은 성북동에 있는 성북구락부(成北俱樂部)에서는 지난 8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5.08.12.		

No.	2-13	작성자	남기현
제목	경기의 수군이오 경선의 번병	키워드	김수영, 김기택, 장인근
이야기 자원	삼산학교 : 송인면 성북동에 있는 융희2년 5월 28일 지역 유지 김수영(金洙瑩) 김기택(金基宅) 외 수씨의 발기로 창립했다는 바 현재 학생이 145명이고 교장은 張寅根씨라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7.02.05.		

No.	2-14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야학원 설립	키워드	무산어린이, 야학원, 모집
이야기 자원	성북소년회에서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무산어린이를 위해 야학원을 설립하고 보통학교의 일, 이, 삼, 사학년의 아동을 모집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7.07.06.		

No.	2-15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소년회 야학부	키워드	진급식, 성북소년회 야학부
이야기 자원	성북소년회 야학부(夜學部) 진급식이 진행되었다. 진급식은 (성북)동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8.03.30.		

No.	2-16	작성자	남기현
제목	교실에 난로 없어 200생도 고생	키워드	난로, 2백명, 부호별장 20곳
이야기 자원	경성 근방 삼각산을 배경삼고 경계절승한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는 옛날 융희2년 고 黃壽延씨의 설립으로 그간 이십년 동안에 수백명의 졸업생을 내어서 사회에 다대한 공헌이 많았는데 그간 춘풍추우 역경속에서 겨우 유지하다가 고 황수연씨 애손(愛孫) 김수영씨가 맡아 경영하던 중 6년전에는 교육협성회(敎育協成會)의 윤갑병(尹甲炳)씨와 김동근(金東瑾)씨가 많이 활동하다가 그들도 역시 감당키 어려워서 지난 오월 경에 사직하매 그 동리 유력 청년 수명이 침식을 잊어 가면서 눈물 섞인 열성으로 유지하는 중이라는데 요사이 혹독한 추위에도 경비가 없어서 2백명이나 되는 학생들과 선생이 불도 피우지 못한 교실에서 목불인견의 현상이라 하며 성북동에는 시내 부호별장이 20여 곳이나 있으나 삼산학교의 비운에는 세상이 모두 냉정할 뿐이라 하여 그곳 주민들은 매우 근심중에 있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8.12.13.		

No.	2-17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교에 서광	키워드	동리유지 이신구
이야기 자원	시의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는 그간 비운에 빠졌든 바 그곳 유력 청년의 희생 덕으로 활동한 결과 항상 사회사업에 유의하던 동리유지 이신구(李信龜)씨가 그 정경을 보고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대한 찬동과 활동을 하여 제구 不備를 착착 준비중이라는 바 이소문을 들은 동소문의 일대인사와 이백명되는 학부형들은 교당국 이씨의 열(성)을 칭송하며 따라서 삼산학교는 사립학교로서는 앞으로 상당한 학교가 되리라고 칭송한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8.12.17.		

No.	2-18	작성자	남기현
제목	이원우 씨의 독지	키워드	석탄, 이원우
이야기 자원	시내 황금정에 사는 이원우(李元雨)씨는 항상 공익 사업에 공헌이 많은 바 이번 시외 성북리에 있는 삼산학교의 경비 곤란함을 듣고 동교의 과동할 석탄 전부를 담당하였음으로 동교 직원 및 학부형 간에서는 이씨의 篤志에 감사함을 말지 않는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9.01.30.		

No.	2-19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왕히 거행할 경성 어린이날	키워드	경성소년연맹, 동소내외
이야기 자원	20여 개 세포를 가진 경성소년연맹(京城少年聯盟)에서 경성어린이날 거행에 대한 재경 소년단체 대표자회의를 열었다. 구역을 정했는데 성북소년회 담당 구역은 東小内外 일대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9.04.30.		

No.	2-20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의 향기 (一)	키워드	아리랑고개, 무너진 성터
이야기 자원	“어떤이는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라 한다든가? 그는 향도시적 말이어니와 고개를 넘어서 고개를 넘어서가 아니라 고개의 마투턱이에서 슬쩍 발 밑을 나리보면 그것은 그것은 사십리 서울을 위요한 한양성 한끄트머리 문혀진 넷성터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0.03.27.		

No.	2-21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의 향기 (二)	키워드	잔디밭, 나물
이야기 자원	“...노란 잔디도 속잎이 난다. 잔디!하면 성북동을 생각하리라 성북동! 하면 잔디밭을 생각하야 말리라” ☞ 성북동에 잔디밭이 많았나 보다. 시기적으로 봄이다. 성북동의 들뜬에 새싹이 나고 있다. “이키가 긴 폐허의 성 앞에 소녀들의 나물바구니를 어떻게 표시해야 좋을까? 달래도 캐고 냉이도 캐고 썸바귀도 캐고 꽃다지도 캔다. 성 밑으로 흙을 쭈석쭈석 해논 사리는 소녀들의 나물캐고 간 자취일 것이다.” ... 소모는 소리를 오래간만에 들어서 그런지 조춘정경(早春情景)이 심금을 때리는 배적지 안타“ ☞ 성북동이 시골이네. 작가는 성북동에서 마음의 안식(?)을 얻고 있다. “상치도 심고요, 시금치도 심고 몇일 지나면 오이도 심고 호박도 심으렵니다. 이랑 옆에이론 옥수수도 심고 감자구멍도 파렵니다. 이것은 밭가는 것을 구경하는 사람과 채마전을 가는 사람과의 친절한 대화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0.03.28.		

No.	2-22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의 향기 (三) - 1	키워드	앵두, 진달래, 샌드위치, 피크닉
이야기 자원	“...처마 저쪽엔 앵두나무가 몇 그루 있는가 하면 진달래 나무의 꽃매듭과 복사나무의 꽃매듭은 금방에 그만 봉오리가 피려는 듯이 볼록볼록! 하고 있다. ... 이리하여 성북동엔 꿀벌도 모이고 나비는 날고 노고지리 雲雀는 잔디밭 위 상공에서 한껏울고 노래를 부를 때가 온 것이다. ... 그러나 벌써 ‘산도횃치픽닉’이 시작된다. 일본 여자의 능청거리는 걸음과 겨녀 옆에 병정같은 사나이의 두 볼엔 산도횃치를 미어질 듯이 씹는다.” 『산』 작가가 생각하기에 정겨고 조용한 성북동의 경치에 횡방군이 있다. ‘산도횃치픽닉’을 즐기는 일본 남녀이다. 『산』 성북동은 경치를 즐기기 위해 오는 피크닉 장소였나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0.04.02.		

No.	2-23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의 향기 (三) - 2	키워드	고요함, 별장
이야기 자원	① “산이 고요해서 태고(太古)와 같다!”란 말은 성북동을 두고 이름이 아닐는지. 문을 활짝 열어 제치고 저녁밥을 먹으면 산사(山寺)에 와서 이 세상에 둘도없이 가장 친한 벗과 오붓이 밥사먹는 느낌이 난다. 그 고요함. 그어둠. 그바람. 그정취(情趣) ... 그믐밤이 되면 절벽과 같이 캄캄하고 그와 반대로 달밤이 되면 진세(塵世)가 아니라는 듯이 교교(皎皎)하다. 멀리 개짓는 소리만이 들린다 할까. 성북동은 그렇다. ... 봄이 행진하면 할수록 성북동은 성북동의 天才를 발휘하리라. 자신은 扮裝한 嬌態를 자랑하리라. 그리고 한없는 禮讚과 끝없는 감탄을 받드리라. ② “성북동에 별장이 많다. 그것은 예전날 일이려니와 요새는 없든집이 들어서곤 또 들어선다. 늙은 鬱松 밑에 양관(洋館)이 있는가 하면 좌청룡이오 우백호를 서로 應하고 和해서 네 귀를 든 조선식건물이 있다. 그 뒤로 빼근히 내다보는 아담한 모던빌딩이 보인다. 성북동은 이렇게 氣를 피우고 있다. 어떤이는 십년뒤 坪값까지 구구(九九)를 치기도 한다. 집거간이란 새 직업이 마전으로 먹고 사는 이 동리에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 ①을 보면 작가는 정말 성북동을 사랑하나보다. 성북동이 변하는 것을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다. 그것을 ②와 같이 표현했다. ②의 마지막을 보면 성북동의 땅값이 오를 것을 예측하는 사람이 있다. 필자는 이들을 ‘집거간’이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성북동에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집거간은 지금으로 따지면 부동산업자이다. 성북동은 이제 발전할 운명에 있다. 그래서 땅값은 오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었다. 별장이 많고 마전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위주였던, 시골동네였던 성북동은 이제 변하고 있다. 서양식 건물과 새로운 조선식 집들이 속속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 부동산업자들이었던 ‘집거간’들은 이러한 성북동을 주시하고 있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0.04.02.		

No.	2-24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대운동회	키워드	삼산학교 대운동회
이야기 자원	삼산학교 대운동회가 11일 열렸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0.10.11.		

No.	2-25	작성자	남기현
제목	하운실씨가 지난 20일에 삼산교장으로 취임	키워드	하운실, 교장, 김일엽
이야기 자원	이십여년의 장구한 역사를 가진 시외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는 수년래로 경제적 타격을 받아오든 바 이번 조도전(早稻田)대학 고등사범과를 졸업하고 현재 보성고보에 교편을 잡고 있던 하운실씨가 지난 20일에 교장으로 취임하는 한편 자진하여 교편을 잡고 동분서주한 결과 시의 성의에 감복한 몇몇 인사도 적극적으로 후원키로 되어 신학기를 이용하여 더 한층 사회적으로 활동을 개시할 터이라 하며 우선 제일계획으로 지금까지는 4년제 이던 것을 6년제로 연장하고 교사도 금년도 안에는 기어히 증축할 터라는 바 더욱이 하씨는 학창시대부터 특히 무산 아동의 동심에 착안하여 전 공으로 연구하였다하며 여류작가로 동씨의 부인인 김일엽(金一葉)씨도 자진하여 교편을 잡기로 하였다더라.		
참고문헌	『중외일보』, 1930		

No.	2-26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를 보통학교로 승격 노력 중	키워드	하윤실, 보통학교
이야기 자원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시외 성북리 삼산학교는 설립자, 동리 제씨와 교장 하윤실씨의 노력으로 학교의 내용이 날로 충실하던 중 이번에 완전한 보통학교로 승격시키고자 방금 승격을 수속중이라 한다. 동리른 인구가 날로 늘고 학령아동이 많아짐에 따라 시내 통학에 많은 고통을 느끼는 터임으로 동학교의 승격은 자못 기대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1.02.22.		

No.	2-27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 국유지 1만8천평 불하	키워드	국유지 불하, 수의계약
이야기 자원	총독부에서 성북리 산4-6, 성북리 산4-4, 성북리 산 62-1, 총 일반팔천오백칠십평을 경쟁입찰에 부쳤는데 최저가격에 미치지 못했다. 방침을 바꿔 수의계약으로 불하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1.02.10.		

No.	2-28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동민 단오위안회(端午慰安會)	키워드	단오, 동민위안회
이야기 자원	시의 성북리에서 단오에 동리 리중 유지 제씨의 주최로 동민위안회를 열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2.06.08		

No.	2-29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유치원 설립	키워드	유치원 설립, 유양호
이야기 자원	유지 몇사람이 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했다. 그 준비가 끝나서 7월 1일 동리예배당에서 개원식을 했다. 이름은 성북유치원이고 원장은 유양호(柳養浩)이다.		
참고문헌	1933.07.01.		

No.	2-30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동의 문인촌	키워드	안서 김억, 김일엽, 김기진, 이태준, 홍효민, 이종린
이야기 자원	서울 부근은 모두 산자수려하여 옛날 이곳을 수도로 잡은 무학대사의 선견지명에 누구나 경탄하거니와 그 중에도 동소문 밖 성북리는 천석(泉石)의 미관, 공기의 청정으로 유명하야 근래에 성 안 사람들이 이주함이 많다. 그런데 이렇게 한적한 근교인데다가 오리 주둥이 같이 지형이 아름다워 예술을 벗 삼는 문인들이 많이 나가 살아서 일종(一種) 문인촌(文人村)인 듯한 광경을 이루고 있다. 오늘까지 벌써 그곳 나가서 집 짓고 영주(永住)하는 이에 시인에 김안서(金岸曙), 여류문사에 김일엽(金一葉), 평론가에 김기진(金基鎭), 소설가에 이태준(李泰俊), 평론가에 홍효민(洪曉民), 노논객(老論客) 이종린(李鍾麟) 등의 제씨가 있다.		
참고문헌	『삼천리』 5권 10호, 1933.10.01		

No.	2-31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운동회	키워드	추계운동회, 유치원
이야기 자원	시외 성북동에 있는 삼산학교에서는 오는 17일 그 학교 안에서 추계운동회를 연다는 바 그곳 성북 유치원에서는 유치원 원아가 동대회의 흥치를 돕기 위하여 아동유회를 하리라 하며 기타 여흥도 많다는데 일반은 물론이오 졸업생들은 빠짐없이 출석해주기를 바란다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10.16.		

No.	2-32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학예회	키워드	학예회, 삼산학교
이야기 자원	시의 성북리에 있는 사립 삼산학교에서는 오는 3일 오전 10시부터 학예회를 연다고 하며 동시에 학부형회도 연다는 바 학부형은 물론이오 일반 관람자에게도 무료로 공개하니 다수 내참하기를 바란다 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12.03.		

No.	2-33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유치원에 내는 의연금	키워드	이종린, 박성근, 이신구 장혜자
이야기 자원	성북유치원후원회에서 이사 이종린(李鍾麟), 박성근(朴性根), 이신구(李信龜)씨 등의 활동으로 의연금이 들어왔음. 원감 장혜자(張惠子)는 원아들을 친자식 같이 친절히 훈육한다. 이 유치원의 앞날을 기대하고 있음.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4.01.14.		

No.	2-34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동 동명의 유래	키워드	성북둔, 이덕무, 박제가 매주, 별장, 음벽정
이야기 자원	① 성북동이 새로 서울이 되어 성북정이 되었다. 옛날에 성북동도 원래 서울이었다. 그때는 북저굴(북저동(北楮洞))이라고 하였다. 또는 성북둔(城北屯)이라고 하였다. ② 진장담는 “절매주”를 만들어 팔기로 유명했다. 전매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성북사람만이 하던 일이었는데 영조 때 창의문 밖 사람들이 침범해서 싸움이 크게 벌어졌다. 그래서 영조가 두 곳에 이 일을 하도록 했다. ③ 현재 성북동 사람들의 주요한 직업인 세탁업은 그때(영조)때부터 유명했다. ④ 성북동은 복숭아꽃이 유명했다. 雅亭 李德懋의 북둔도화천하홍(北屯桃花天下紅)과 楚亭 朴齊家的 부종도화이위치(不種桃花以爲恥)라는 시구는 지금도 전해 내려오고 있다. ⑤ 이러한 이유로 성북동에는 예부터 재상가의 별장이 많다. 최근 민충정공(閔忠正公)의 별장 음벽정(飲碧亭)이 유명한 것이었다. ⑥ “어이없다. 이 음벽정이 말세에 이르러 蕩子들의 술노리, 게집노리터가 된 채 음벽정이란 정호(亭號)마저 그대로 욕을 볼 줄 지하의 민충정공이 알기나 할 것인고” ☞ 민영환의 별장인 음벽정이 요정이 되었다. 그것에 대해 필자는 한탄을 하고 있다. ☞ 음벽정 광고 또는 기사 찾아볼 것(조선일보, 1935년 9월 23일) - 음벽정 주소는 성북정 113번지다. 1939년 2월 7일 별실에서 불이남. 불을 너무 때서 온돌이 파열되어 깔았던 요에 붙은 것으로 판명됨. 피해는 천원가량(『동아일보』, 1939.02.08.) - 동아일보에 실린 음벽정 광고  그림 3 『동아일보』, 1937.10.26.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3.21.		

No.	2-35	작성자	남기현
제목	전차구역제를 철폐하라	키워드	전차, 경성전기주식회사 행정구역과 교통구역의 불 일치 시정
이야기 자원	“경성부는 인접 1읍 8개면을 합쳐 면적 9方里 인구 육십삼만의 대도시가 되었다. ... 부의 확장은 부의 울타리를 넓힌 것으로 제일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부내의 교통문제일 것이다. ... 행정구역의 담만 헐고 교통구역의 담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확장된 새 경성부의 제일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살림이 한 살림 되는대는 무엇보다도 교통의 장벽을 철폐하는 것이 긴급한 일이니. ... 京電은 구역철폐에 대하여 성의가 없고 부당국 역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 새로 편입된 곳은 細民이 많이는는 곳으로 요금구역제에 가장 큰 손실을 받는 이들이다. 또한 행정구역이 통일됨에 따라 부내출입이 빈번해지는 데서 생기는 교통비의 손실이 덧붙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누구보다도 그들이 구역철폐를 열망하고 있다는 이유를 알 수 있다. 경성부는 새로운 경성부의 빈곤한 부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면서도 보고만 있을 것인지... 새로운 경성부의 구역을 보자. 동으로는 청량리, 왕십리방면, 서로는 마포 서강방면, 북으로는 성북 부암, 홍제 방면이요, 남으로는 노량 영등포 방면이니 거기에는 무수한 빈민이 住接하고 있지 않은가. 그들의 대부분은 도시자유노동자요, 행상이요, 공장노동자들인만큼 그들은 경성부 사회정책의 주요대상이 되는 생활군이다. 그들이 열망하고 있는 전차, 버스 구역철폐에 등한한 태도를 가진다면 이는 새 경성부의 새로운 실태가 아니면 아니다. 그뿐만 아니라 京電이 부의 공공사업을 대행하는 처지에 있으면서 폭리를 탐하여 그 ‘시빌 서비스’의 책무를 저버린다는 것이 얼마나 패심한 일인가”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4.02.		

No.	2-36	작성자	남기현
제목	학령초과아동 위해 영명학교 신설	키워드	영명학원, 방황하는 아동
이야기 자원	“부내 성북정의 유지들은 동리에 학령초과아동이 많이 있으나 그들은 배울 길이 없어 가두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든 나머지 학령초과아동의 교육을 본위로 하는 영명학원(永明學院)을 창설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미 50여여명의 입학지원자도 있게 되었으므로 10일에는 동학원 개원식을 거행하는 동시에 직원까지 선거하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이의석(李義錫)씨는 원장에 취임하게 되고 이춘길(李春吉), 유일(劉鎰), 이희철(李熙哲), 김상욱(金湘旭) 등 제씨는 직원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바 전기 제씨는 전부가 무보수로 동학원을 위하여 힘쓰기로 되었다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4.12.		

No.	2-37	작성자	남기현
제목	고심 20여년 거자(巨資)도 희생(犧牲)	키워드	조선사, 김정중
이야기 자원	“성북정 지산 김정중 씨는 20수년 동안 저작에 고심 중이던 ‘朝鮮史’를 재작년 겨울에 탈고되어 작년부터 인쇄에 착수, 이번 봄에 이르러 수백길이나 되는 방대한 인쇄를 마치고 전부 17권으로 된 이 문헌의 책자를 민간 중등이상의 남녀학교와 각 도서관에 기증하였다 한다. 이 ‘조선사’는 김정중씨가 庚戌年 겨울부터 평소에 느끼던 크나큰 사업을 전북 苗浦에서 표착수한 이래 20수년 동안 매일 4~5명씩의 서생을 두어 편찬하는 사이에 김정중 씨의 나이 74의 노령에 이르렀다. 840여 권의 이조실록을 토대로 하고 천권의 승정원일기와 야사 등을 참고한 것으로써 6, 7권가량 시작하다가 잘못된 것이 판명되어 이것으로 이번 완성한 책자의 표지에 사용하는 등, 物資가 들은 것은 10만원으로 헤아린다. 그러나 그보다도 실록을 구해보기에 야사를 사드리기에, 사람을 구하기에 여간한 고심이 아니었으나 좀 더 잘해보려 하던 것도 나이 늙으니 이만한 정도에서 붓을 놓게 되었다라고 거의 일생을 바치고도 오히려 정력의 남음을 보이며 苦心談을 말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5.20.		

No.	2-38	작성자	남기현
제목	조선사 서지사항	키워드	지산서실, 성북리 41
이야기 자원	『조선사』17권 맨 마지막 쪽 1936년 2월 15일 인쇄, 1936년 2월 20일 발행 발행인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41번지. 金喆中 발행소 : 경기도 고양군 송인면 성북리 41번지. 芝山書室 朝鮮史序 夫史所以記當時之善惡而垂勸懲於後代者也史之作不其難乎先王惟是之故必重其責而慎其人記之必實而書之必公與是彼一時之治亂興衰邪正實否無得以適其情千百世之後瞭然若目觀而耳聞者皆以與惡者以懼史之關於世其重顧何如哉吾邦自桓楸以來迄于羅季上下數千年事多闕略文獻雖繁文人學士能讀他邦之史而于本國則反若然不思所以考究之其亦可恨而可耻者也惟我 李朝受天文物彬與制度備具左事右言皆各有官明主實相致治之由皆君親臣民之蹟無不備載而悉書之極之金匱藏之石室歷朝五百歲之開華映之積石近于數則其記錄之詳立制之嚴亦可謂過越前古而不幸中經亂變散佚頗多夫不為焉 宗社又見矣則金匱石室之書其將為飛塵化為雲土而為教之休典章之遺蹟不為朽爛之無數者幾希矣余不肖為是之懷矣不自強欲就前定一部國家財賄不可遍誦城中士友廣集公私諸陳刊繁刪冗稍括勸而凡諸書之同異虛實必據實錄以折衷之積十數年羣六七易始克成焉總若干卷皆吾邦自有萬古 金喆中		
참고문헌			

No.	2-39	작성자	남기현
제목	김경중의 『조선사』	키워드	편년체 사서
이야기 자원	김경중이 조선 태조원년(1392)부터 철종 14년(1863)까지를 편년순으로 정리한 조선왕조사로, 1936년 경기도 고양군 지산서실에서 간행하였다. 연인 신활자본. 김경중(金景中)이 조선 태조 원년(1392)부터 철종 14년(1863)까지를 편년순으로 정리한 조선왕조사. 17권 17책. 연인(鉛印) 신활자본. 규장각·장서각·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김경중이 1934년 5월에 적은 서문에 따르면 십수년의 작업을 거쳐 편찬이 완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1936년 경기도 고양시 지산서실(芝山書室)에서 간행되었다. 역사는 선악을 드러내어 후대에 권면하고 징계하기 위한 것이라는 도덕의식과 문인 학사들이 다른 나라의 역사는 잘 읽으면서도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자국의식을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공사간 많은 서적을 수집해 참고했으며 여러 책에서의 이동과 허실은 실록에 근거해 절충했다고 하였다. 당목(黨目)에 따른 주장은 모두 수록해 놓아 후세의 군자를 기다린다고 적고 있다. 『조선사인용서류목록』에 의하면 실록, 보감, 열성지장, 선원보략 등 국가의 공식기록 외에도 『국조편년』·『대동기년』·『본조기사』·『연려실기술』·『율곡경연일기』·『해동명신록』·『해동명장전』·『약과만록』·『신임제오』·『대동야승』·『산서잡록』·『갑을록』·『황극편』·『당의통략』 등 야사형 자료 및 여러 성현들의 문집 등 자료들이 인용되어 있다. 그 외 중국서와 일본서의 명칭도 적고 있다. 서술체제를 보면 권 1은 태조~태종, 권 2는 세종~예종, 권 3은 성종~연산주, 권 4는 중종, 권 5는 인종~선조 상, 권 6은 선조 중, 권 7은 선조 하, 권 8은 광해주~인조 상, 권 9는 인조 하, 권 10은 효종~인종, 권 11은 숙종 상, 권 12는 숙종 하, 권 13은 경종, 권 14는 영조 상, 권 15는 영조 중, 권 16는 영조 하~정조, 권 17은 순조~철종까지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권선징악과 같은 유교적인 명분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전통적인 유교적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실록을 자료로 이용하고 있어 조선 후기에 널리 편찬되었던 야사 형식의 조선왕조사와는 달리 서술에서의 균형과 내용에서의 확충이 두드러진다.		
참고문헌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No.	2-40	작성자	남기현
제목	내년 주민의 숙원이던 성북정 하천 개수	키워드	경성부 확장
이야기 자원	지난 4월 근교 76개 동리가 경성부로 편입된 이래 신편입구역의 주민들은 경성부 구역확장으로 인하여 받은 혜택이란 허울 좋은 “경성부민”이라는 이름 외에 하등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하여 부 당국에 대한 불평의 소리는 점점 높아갔었다. 부 당국은 경기도와 협력하여 신편입구역에 대한 첫 사업으로 토목공사를 착수하기로 되었다한다. 그것은 현 경성부에서 이상적 주택지로 자타가 공인 하는 성북정에서 동소문 밖으로 흐르는 개천을 근본적으로 개수한다는 것인데 그 개수공사는 금년 안으로 착수하기로 되었다 한다. 그 개수공사의 범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 것이며 또 그 공사비가 얼마나 걸릴지는 설계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데 그 공사는 개천가를 전부 돌로써 축 대를 싸서 흐르는 물을 깨끗이 하는 동시에 도로 폭을 넓히고 또 여러 곳에 다리를 놓아서 교통상 편리하도록 한다고 한다. 그 공사비는 도지방비에서 지출하기로 되었다는데 이 개수공사가 완성되면 성북정주민은 많은 편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5.24.		

No.	2-41	작성자	남기현
제목	버스 운전시간 연장을 진정	키워드	버스, 동대문경찰서, 탄원서
이야기 자원	송인정, 혜화정, 성북정 등 수만 주민의 경전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데 기어코 폭발되어 3일 조정환(曹正煥), 이근영(李根榮)씨 외에 5인의 주민대표들이 동대문서를 거쳐 경전당국에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창경원과 종로5정목에서 혜화정 정류소까지는 버스는 전부터 전차운전시간에 비하여 분수 없이 빨리 걸어가므로 참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수차 직접 간접 항의 교섭하여 밤 9시에 걸어나가는 것은 9시45분까지는 연장시켰으나 전차에 비하면 두시간반이나 빠르니 더구나 비눈 뿌리는 밤 같은 때 전차에서 내려 터덕터덕 걸어나가는 사람들의 불평은 발자욱마다 커졌다 한다. 만일 이번에 운전시간을 연장치 않으면 어떠한 수단을 쓰든지 성공하여 보려고 대표 제씨는 그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6.04.		

No.	2-42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정 산불	키워드	성북정 산 20-1
이야기 자원	6일 오후 성북정 산 20-1호 동리에서 약 4정 가량 떨어진 국유림에서 불이 났다. 2백평가량을 태우고 25분경에 진화되었다고 한다. 발화원인은 담뱃불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6.07.		

No.	2-43	작성자	남기현
제목	승인, 창신정 사무는 동부출장소에서 취급	키워드	출장소, 주민 질문
이야기 자원	지난 4월 경성부 구역확장안의 실현을 계기로 경성부의 행정사무는 東部, 永登浦, 龍山, 本廳 등 네 곳에서 취급하기로 되어 재래 본청구역이던 창신정, 승인정은 동부출장소로 편입되고 성북정, 아현정은 본청소속으로 되었으나 부 확장안이 실현된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창신정, 승인정 등의 행정사무는 본청에서 취급하여 왔고 성북정의 행정사무는 동부출장소, 아현정은 용산출장소에서 취급하여 오게 되어 부민의 불평이 대단하여 관계 주민들은 그 이유를 부당국에 누차 질문하였다고 한다. 이에 깨달음이 있었음인지 부에서는 오는 22일부터는 승인정, 창신정의 행정사무는 완전히 동부출장소에서 취급토록 하였으며 또 성북정, 아현정의 사무는 본청에서 취급하기로 되었다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6.17.		

No.	2-44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정 요정촌화에 주민이 궂기진정	키워드	음벽정, 자동차, 정회 동대문경찰서
이야기 자원	성북정은 이상적 주택지라고 하여서 너도 나도 하고 많이 나가 살게 되었는데 최근에 요리점이 생긴 이후로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다고 마침내 정회에서 궂기하였다. 성북정에 음벽정이 생긴 이후 도로는 좁은데 자동차의 왕래가 심하여 통행상뿐만 아니라 학교, 유치원, 예배당, 약학 등이 있고 그 외에 1500여명의 학생이 머물고 있다. 선생, 연구가등 80여명이 사는데 주야로 풍기상 자 미롭지 못한 일이 많이 우려되며 위생상 견지에서도 영향이 적지 않아 은근이 불만이 많던 중 최근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또 요정이 설치된다는 풍설을 듣고 성북정 町會를 열고 다음과 같은 대표를 선정하여 지난 6일 동대문서에 진정을 하는 동시에 음벽정 측에도 다음과 같은 요구를 5일에 제출하였다 한다. 대표자 : 李信龜, 吳祥根, 金順哲, 尹炳哲, 金昌學 요구조건 一. 道路塵埃를 방지할 것 一. 道路罷鑿을 수시 補修할 것 一. 업무시간을 준수하여 정민(町民)의 安眠을 圖할 것. 一. 요정에 오는 車馬를 徐行케 하여 통행인의 위험을 방지할 것 一. 도로 狹窄處에 架橋를 완전히 설치할 것 一. 요정에 오는 자동차가 정내 통과시 주의사항을 요정 구내에 게시함을 容認 할 것. 一. 요정 소속인원이 정내에서 酗酒行惡하여 정민의 풍기를 문란하게 하고 동시에 極害를 끼치는 때에는 料亭主가 절대책임을 질 것. 소화 11년 8월 5일 성북정회대표일동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6.08.09		

No.	2-45	작성자	남기현
제목	경성부내 수도선(水道線) 확장	키워드	상수도 공사
이야기 자원	경성부 수도과에서는 ... 금년도에 20만원의 예산으로 신편입구역 및 구 부내로서 수도가 뺏치지 않은 곳 중 시급한 곳을 추려 공사할 예정이었다. 그 공사는 오는 8월 중순경이나 9월 초순부터 착수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 혜화정에서 성북정 : 1000미터.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7.06.20.		

No.	2-46	작성자	남기현
제목	경성부 풍치지구 20개소 지정	키워드	풍치지구
이야기 자원	경성부의 도시계획은 12년도부터 25년 계속 총예산 1억원으로써 근대도시로서의 모든 시설을 완비시킨다는 대계획으로 우선 부민의 보건 위생에 중점을 두어 상공업지대, 주택지역, 풍치구의 지정설치를 도모하여 풍치구 20개소를 지정하였는데 이곳은 부내에 산재한 대소 公園과 함께 부민의 산책지가 되어 우윳한 빛깔인 회색이 농후한 도화에 신선한 녹색지대로서 설치되는 것이다. 北岳과 성북일대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01.22.		

No.	2-47	작성자	남기현
제목	전염병원설립증지를 경영자에게 교섭	키워드	정홍섭, 주민대회
이야기 자원	하수도 설비가 없는데다가 수도까지 없어서 우물물을 음료수로 하는 성북정에 전염병 요양원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은 성북정 6천 주민은 보건상 이것의 반대 운동을 일으킨다 함을 보도한 바와 같다. 16일 오후 7시부터 정회회관에서 임원 35명이 출석하여 토의한 결과 먼저 교섭위원 6명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여 병원경영자인 鄭弘燮씨에게 중지 권고를 하고 그래도 불응하는 때는 주민대회를 열고 동시에 당국에 진정하기로 되었다. 徐光前, 李傑善, 鞠壽烈, 金昌學, 金順哲, 李信龜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02.28.		

No.	2-48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정민 재분기 - 요양원 설치 중지 최후권고 연명서 제출	키워드	병원 설치 반대
이야기 자원	부내 성북정에서는 의사 정홍섭 씨가 폐결핵 환자 수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을 설치함에 대하여 동정 주민이 정회를 열고 반대운동위원회를 조직하고 우선 전기의사 정홍섭 씨에게 수차중지권고를 하였으나 병원이름을 교묘히 내과라고 과명만을 내세우고 의연히 병원설치를 진행 중임으로 주민 측으로는 지난 6일 7시에 동정회관에 동정유지 85명이 다시 모여 다음과 같은 반대의 적극운동을 결의하였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04.08.		

No.	2-49	작성자	남기현
제목	폐병원의 설치반대 성북정민 재진정, 동서의 태도 주목	키워드	동대문경찰서, 경성보건의원
이야기 자원	성북정 상류지대에다 의사 정홍섭씨가 폐병요양원을 경영하려는 데 대하여 성북정 주민 일동은 주민보건상 중대 문제라고 하여 그간 수차 주민대회를 열고 반대운동을 하는 관계로 당국과 정씨에게 중지를 권고하였으나 수 일전부터 정씨는 예정지에다 경성보건의원(京城保健醫院)이라는 간판을 붙이고 영업을 개시하였다 한다. 간판은 보건의원이나 내용은 전염병을 치료하는 병원에 다름이 없음으로 이에 분개한 주민들은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우선 19일 주민 630명의 연명 날인의 진정서를 가지고 대표 성북정총대 李信龜 부총대 金昌學, 尹炳哲 외 8씨가 소관 동대문서로 찾아가 강경히 반대를 진정한 바 있었는데 경찰의 처지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04.20.		

No.	2-50	작성자	남기현
제목	부호의 별장지대 풍경, 성북동 일대	키워드	백인기, 백상규, 한양호 전형필, 임종상, 이종석
이야기 자원	서울에는 부자양반이 만히 산다. 그러기에 서울 근방에는 부호의 別莊이 수두룩하다. 위선 눈에 띄이는 곳이 竹添町 三丁目の 高台와, 獎忠壇너머 鶴丘 一帶와 龍山너머 明水台 一帶가 모다 十萬長者, 百萬長者의 別莊地帶이라 그러나 조선인 부자가 가장 만히 사는 곳으로는 水石이 조흔 城北洞 一帶를 가르치리라. 이제 별장지대를 巡禮하는 첫길로 城北洞 一帶를 爲先 보기로 하자. 時價十餘萬圓의 白寅基邸 가튼 城北洞이라 하여도 山水조흔 幽閑한 深谷이 세가달 있다. 그 中央골목 막바지에 第一 조흔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집이 白寅基 氏 別莊이다. 後園山林만 十餘萬坪이라 전하며 들니는 말에 十四萬圓을 바드란 것을 아니 팔고 있다가. 某銀行에 七萬圓인가 저당이 되어 드러가 있느니 만치 넓고 깊고 큰 것은 이로 말할 수가 없다. 드러가는 山門은 花剛石으로 하여 싸혔고 園內에는 數百年 묵은 老松이 길을 막었고 泉流가 흐르고 石橋가 있고 그 속에다가 좀 낡았지만 대규모의 여러 해의 朝鮮式 크다란 집이 드러안졌다. 여름이 되면 바람소리 새소리와 물소리가 人間苦를 닛게 하는 仙境이 다 거기서 조금 나오다가 洋製의 白象圭別莊 하얀 洋製 2層 집이 樹石속에 싸인 것은 白象圭 別莊이라. 이도 時價로 치면 몇萬圓이면 몇萬圓이지 그 이하는 안들 洋式別莊이다. 내가 그 近傍을 지날때에 피아노소리 들ն은 그의 愛人으로 東京音樂學校出身의 韓琦柱 女史가 食后 한곡조 타심인가. 新式的 韓養浩別莊 그 부근에 저 韓末의 總理大臣 韓圭高 씨의 令息인 韓養浩 氏 別莊이 또 있다. 그의 아드님인 韓昌洙 氏는 韓靑鰐塍의 所有者로 鍾路和信 건너편에 큰 鰐塍을 짓고 있느니만치 建築에는 자신이 있는 듯 누구의 設計인지 모르나 이 別莊의 建築도 뛰어나게 風致가 있다. 基他도 여러 萬坪일 듯 日大卒業한 全澄弼別莊 石돌담을 찾키만에 五千圓을 던졌다하면 그 規模의 豪大를 알니라. 몇해전에 西洋사람인 富來商會主人으로부터 五萬圓에 산 純洋式집으로 요지음 十萬圓에 팔나해도 아니판다는 消息이 있다. 이 別莊主人 全瑩弼 氏는 아직 30세 전후의 靑年으로 일즉 東京드러가 日本大學을 마춘 鍾路四丁目에 本宅이 있는 大地主로 貸金業하는 분이다. 貸金業의 林宗相別邸 東大門밖 昌信洞에 安南國王의 邸宅가치 한울을 막을 듯이 올니싸흔 그 담장 집의 所有者 林宗相 氏는 城北洞의 그 本宅보다 더 클 듯한 別莊을 가지고 있다. 넓고 크고 和洋圻衷의 그 仰視케 하는 邸宅은 보는 이의 눈을 휘황케한다. 이 富豪는 亦貸金業을 주로 한다든가. 地主의 李種奭氏 別莊 서울 長橋富者 李種奭 이라면 모르는 이가 업스리라. 이 富者의 別莊은 꼭 王公이 사는 집가치 豪擧壯麗하다. 아들 딸 업는 분으로 너무 만흔 財産을 處理할 길업서 집에다가 이리케 大金을 던집 인가. 其外諸氏의 것 이 맞게도 여러 집이 있다. 옛젏든 城北洞안에는 十萬長者의 別莊이 14個所가 있다느니 만치 간곳 온곳이 모다 눈을 부시게 하는 別莊이다. 黃金町서 藥種商하는 李有善 氏 別莊도 여기 있고 海東銀行의 金季洙氏 또 서울 부자 金東圭氏의 別莊도 다 여기 있다. 그리고 여기 적는 것이 올흔는지 엇덜넌지는 모르겟스나 李垺 殿下 別莊도 城北洞의 金季洙氏 別莊을 지나 한참 드러가면 있다. 그러나 그집 洋屋은 아니고 純朝鮮式 늙은 建物인 듯이 인상되엿다.		
참고문헌	『삼천리』7권5호, 1935.06.01		

No.	2-51	작성자	남기현
제목	백만장자의 제2세 행장기	키워드	한양호, 한규설, 음벽정
이야기 자원	韓亮鎬氏=氏는 朝鮮 사람이라면 누구나 記憶에 남아 있을 韓末 政界의 空氣 속에 계시든 參政大臣 閣下 故韓圭高氏의 長男이니 故韓圭高氏로 논하면, 韓末當時에 늦긴 바 잇서고 餘生을 杜門不出로 맞친 분이다. 이가티 지내시든 一方 數百萬의 財産도 能히 직혀 내려오다가 氏에게 이것만을 傳하고 不歸의 客이 되었는데 이제 韓亮鎬氏는 靑年 때에는 多少 豪遊한 남어지에, 「父死後出給」이란 「奉天票」가튼 證書를 濫發하야 아름답지 못한 榮譽(?)를 남겼지만 一次 財産相續을 바든 後는 그 前의 모든 것을 清算하고 家財를 整頓한 後 前過를 翻然悔悟하야, 그 令胤 學洙君과 더부러 家産을 扶植하기에 全力을 傾注하는 중인데 氏는 지금 城北洞에 잇는 某氏의 別莊을 비러가지고 「飲碧亭」이라는 料亭을 開設하고 그것을 經營 중이라 하며 其他로는 敎育協會에 應分の 助力을 하고 있다고.		
참고문헌	『삼천리』제8권제6호, 1936.06.01		

No.	2-52	작성자	남기현
제목	음벽정	키워드	한택수, 요리옥, 별장지대
이야기 자원	飲碧亭 경영주 韓澤洙씨는 조선의 명문가인 韓主高씨의 愛孫으로 本年 삼십 미만의 弱冠의 몸이다. 방면이 다른 요리업 경영에 발을 디려 놓은 씨는 心腹의 人 趙萬九씨에게 모든 경영을 맡기고 있다. 서울에 있는 요리옥으로서는 그 위치가 別莊地帶에 처하여 있어 展望의 風光은 실로 絶好하다.		
참고문헌	『삼천리』제8권제8호, 1936.08.01.		

No.	2-53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당국담	키워드	교장 김홍규, 심상소학교
이야기 자원	현재 교장 金鴻圭씨와 교무주임 李相鳳씨가 없어 동교 교원 李哲圭씨의 말을 들어 본 즉 씨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30여 년간 무산아동의 교육을 위하여 많이 힘써온바 오는 봄에 돈암정에 심상소학교가 설치 되리라함으로 이 기회에 학교 및 기지를 부 당국에 기부하고 현재학교 직원과 생도를 신설교에서 인수하는 동시에 충실한 심상소학교로 만들려고 합니다. 운운.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12.08		

No.	2-54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승격문제로 후원회측에서 쫓기, 기지 기부운동에 반대	키워드	삼산학교유지후원회
이야기 자원	부내 성북정에 있는 삼산학교는 현재 동교 설립자 강진구씨의 선친의 창설로 지금까지 30여년간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많은 일꾼을 배양하여왔다. 그런데 부당국으로부터 내년도 초등학교 증설계획에 의하여 돈암정에 심상소학교 하나를 신설한다고 하는 소식이 현실성을 띄게 되자 학교당국에서는 현재 동교가 자격이 없는 소학교로 되어 있음에 학교 기지 및 건물을 부 당국에 기부하고 현재학생과 학교직원을 신설되는 소학교에서 양수하여 달라는 의견을 가지고 4일 오전 11시부터 학부형회를 소집하여 동일한 보조를 취하려고 하였는데 동 석상에서 먼저 학교 당국에서 말하였던 것과 상위되는 점이 많을 뿐 아니라 인신공격문제등도 나와 결국 갑론을박을 하다가 입회하였던 경관으로부터 해산을 당하여 오후 2시경에 휴회되었다. 즉 학교당국에서 돈암정 학부형에 대해서는 성북정에 학교를 두고서 승격시킨다고 이와같이 불일치하게 언명한 기운이 농후하여 의사가 잔 진접되지 않을 뿐 아니라 설립자측을 중상하는 의론도 나와 결국 해산을 당한 것이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1개월전 동교의 발전과 흥융을 위하여 성북정민은 삼산학교 유지후원회를 조직하고 이사까지 선정하여 동교설립자 강진구(姜振九)씨로부터 경영에 관한 권리와 재래교무정리에 대한 권리를 지난 30일에 위임받아 이래 동교를 위하여 활동하고 있지는 중으로 이 후원회 이사측에서는 동교를 현재 그대로 두고 장차 심상소학교로 만들려고 하여 학교 당국의 의견과 정반대되어 분규를 계속하고 있는바 이에 관계자의 말에 의하여 그 진상을 규명하면 다음과 같은 바가 자못 그 추이는 주목된다. 그리고 동후원회측 이사 1명과 성북정 총대 양명이 6일오전에 부당국을 방문하고 학무과장에게 오는 봄에 신설되는 돈암정 심상소학교의 예산에 이 삼산학교 기부 문제를 고려하고 있느냐함에 대하여 절대로 오는 봄 신설을 보게 될 심상소학교와 이 삼산 학교와는 별개 문제이며 이에 대하여 생각 해본 일이 없다고 답변하였다하며 동 석상에서 후원회측을 대표하여 간 양명은 후원회의 목적을 설명하는 동시에 수년후에는 격증하여가는 인구수로 보아 성북정에 심상소학교를 하나 설치함이 절대필요함으로 현재 이 삼산학교를 수년내로 심상소학교로 승격시켜달라는 뜻을 말하고 돌아왔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12.08.		

No.	2-55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교주 姜振九 氏 책임경영을 성명	키워드	강진구, 성명서
이야기 자원	3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부내 성북정 사립 삼산학교는 교무자가 돈암정에 설립될 공립소학교금으로 삼산학교 재산전부를 기부하자는 책동이 있어 암운이 떠돌던바 11일 정오 동교 설립자 강진구 씨는 동교 유지 위원회원과 학부형을 초대하고 삼산학교는 선조의 의의깊은 유업이므로 동교 재산 기부는 생각도 않을 것이며 또 동교는 동장소에서 옮기지도 않을 분만아니라 장차 훌륭한 학교로 만들기에 힘쓰겠다는 성명을 발하여 도리어 이번의 소란으로 전화위복을 보게 되었다. -성명서- 一 공사립을 막론하고 성의를 다하여 본교를 세에 적합하고 성북정 주민 내지 隣町民의 子孫의 장내출세의 유력한 학교를 만들겠다는 본의이다. 본교는 선조의 역사깊은 유업인 고로 더욱 관심을 가져 마지아니함. 二 그 시기는 돈암정에 공립소학교가 완성한 후일 것임.(단 장소는 성북정내에 두도록 할 것) 三 돈암정 소학교 신설에 본교를 기부하여 본교를 폐지할 생각은 全無함. 四 본인이 설립자로 된지 수년간에 본교에 대해서 무성의하다는 것을 악선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은 본인이 학교와 遠隔학 지역에 거주하는 관계가 있으나 본인으로 하여도 무성의하게 만든 것은 현 학교당국주무자가 설립자에게 무성의하였음인 것임. 五 본교의 금후 경영은 본인과 삼산학교유지위원회 諸氏도 협력하기로 함. 단 경영방침과 교무 제반취급권은 본교유지후원회에 일임함. 六 본교설립자승인이라 함에도 불구하고 본교를 돈암정에 신설할 심상소학교에 기부운동을 함으로 인심을 소란케 한 자는 적당한 처치를 하기로 이에 성명함 소화 13년 12월 11일 설립자 姜振九 교주 성명 광경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12.12		

No.	2-56	작성자	남기현
제목	재건의 삼산학교	키워드	무산아동, 유지후원회
이야기 자원	약전고투 30여년의 역사위에서 무산아동의 유일한 교육기관이 되어 있는 부내 성북정 삼산학교는 작금 1일부터 전하던 기괴한 풍설을 물리치고 오랫동안 숙망의 昇格을 얻으려고 설립자 강진구 씨는 28일 아침 경성부 학무과를 방문하고 승격인가 신청에 관한 수속을 정식으로 밟았다. 이제 발전의 첫 발을 디디게 된 삼산학교 재건의 뒤에 숨은 장거가 또한 있으니 설립자 강진구씨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 연 3000원씩을 부담 지출키로 되었고 동교 유지후원회에서는 校舍를 책임지고 건축하기로 되어 멀지않아 성북 일우에 위관을 이루게 되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9.01.29.		

No.	2-57	작성자	남기현
제목	음벽정 화재, 별실 1동 전소	키워드	화재
이야기 자원	7일 오전 1시경 부내 성북정 113번지(필자:13번지의 오기) 음벽정 별실에서 돌연 발화되어 때마침 불어오는 매서운 바람으로 삽시간에 한 채를 전소되고 진화되었다. ... 원인은 불을 너무 땀 관계로 온돌 ‘핏치’가 과열되어 깔았던 요에 붙은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손해는 약 1000만원가량이라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9.02.08.		

No.	2-58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동창회	키워드	졸업식, 동창회
이야기 자원	시내 성북정 삼산학교에서는 오는 3월 19일 오전 10시 졸업식을 거행한 후에 동창회를 개최하므로 졸업생은 많이 참석하기를 바란다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9.03.18.		

No.	2-59	작성자	남기현
제목	음벽정의 철야영업	키워드	요리조합, 요리집
이야기 자원	작년 가을부터 부내 각 요리집에 유흥하는 손님은 자정 이후는 받아서는 안 되고 오전 한시 이후에는 문을 다고 영업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발표됨. 부내 각 요정에서 이것을 어겨 많은 처벌을 당한 후 매우 좋은 실적을 보임. 그러나 부외 한적한 곳에 있는 요리집과 요리집 별장 등에는 취체 경관의 손이 잘 미치지 않아서 이것이 실사가 되지 않아서 철야토록 영업을 하고 유흥을 하며 심한 데서는 기생과 더불어 추잡한 일이 있다. 그중에서 비난이 자자한 곳은 동대문서 관내에 있는 성북정 음벽정 등의 별정에 비난성이 자자하다. 늦게까지 무제한으로 유흥하려는 손님들이 예사로 이곳에 모여 철야를 하고 당국이 지정한 1시까지의 시간제한을 무시하고 있다. 요리조합에 가입되어 있어 1시까지 영업해야 한다. 앞으로 위반하면 가차 없이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9.03.23.		

No.	2-60	작성자	남기현
제목	삼산학교 이사장, 경성부 의원 입후보	키워드	이신구, 경성부 의원 출마
이야기 자원	長事理校學山三 歲三十四(新)氏龜信李 부립중학 설립 히뚱히뚱한 머리카락에 풍상이 잠겨 있는 듯 오랫동안 오산중학교에서 교편을 잡았고 현재는 삼산소학교의 이사장으로 역시 교육에 몸을 바치고 있다. 씨의 말하는 포부는 교육확충에도 府立中學의 설립과 토목 위생시설의 촉진인데 인생은 40부터라고 이제 활동기에 첫 출마인지라 앞으로 기대가 크다 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9.05.04.		

No.	2-61	작성자	남기현
제목	성북정 순사 파출소, 9월말에 준공	키워드	파출소, 기부
이야기 자원	동대문서에서는 관내 성북정에 경찰관파출소를 신설하기로 되었는데 준공은 대개 오는 9월말 경에 준공될 터이며 서원 4명이 주재할 예정인데 동 파출소의 신설은 정민의 요청에 의하여 기지, 청사의 건축도 정민의 자발적 기부에 의한 것이라고 한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9.07.01		

No.	2-62	작성자	남기현
제목	교외 산재한 요정에 철야영업을 경고	키워드	음벽정, 동대문경찰서
이야기 자원	성북정에 있는 음벽정에서는 영업시간 외는 물론 심지어 밤새도록 영업하는 일이 있으므로 누차 동대문서 주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철야영업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철저히 점검하여 처벌함은 물론 유흥객도 발견하는 대로 시말서 또는 구류처분에 부쳐 시국 하에 국민 정신동원에 발맞출방침이라고 한다. “東署嚴保安主任 談：업자들을 불러 엄중히 주의를 시킬 생각이다. 이 문제는 시국하에 국민정신동원이 강조되어 있는 때인 만큼 유흥객들도 맹성함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같은 시국에 반하는 행동이 있을 때에는 유흥하는 남녀도 처벌할 생각이다. 운운”		
참고문헌	『동아일보』, 1940.02.28.		

No.	2-63	작성자	박수진
제목	구인회는 ‘무의지파’가 아니다	키워드	구인회, 백철, 조선적인 것, 두루마기
이야기 자원	금년 초에 두루마기 입고 和信食堂(화신식당)에 요기를 하러 갔다가, 눈상그러운 꼴을 보고 온 일이 있었다. 어린 조카를 데리고 가서 “우동”을 시켰더니 심부름하는 아이가 국물을 반이나 엇질러 놓기에 다시 가져오라고 하니까 대답도 없이 그대로 가서는 함흥차사다. 눈썹이 틀려서 그대로 나오다가 監督(감독) 비슷한 사람을 붙들고 논란을 하니까 그 監督(감독) 같은 사람이 나의 어깨를 치다시피 하며 “온, 선생님두. 그러게 洋服(양복)을 입고 오시지요. 온 암만 일러도, 그 애들이 그러니다그러” 하고 웃는 바람에 나도 따라 웃고 만 일이 있다. 경제적으로 보든지 미관으로 보든지 관습으로 보든지 주택구조로 보든지 朝鮮의 周衣(주의, 두루마기)가 그렇게까지 천대를 받아야 할 아무 조건도 없건만, 천대를 받고 있는 것만은 否認(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本情(본정)이나 기타 朝(조), 日(일), 英(영), 米(미) 이렇게 각국인이 모이는 장소에서 조선의복이 홀대를 받는 것은 가끔 체험하는 일이지마는, 조선인의 경영이요 조선 어린아인 계집애들까지 우리의 의복을 그처럼이나 과소평가하는 근거가 어디 있는지 모를 일이다. 언제나 말하는 바이지마는 오늘날의 조선문화도, 주의와 같은 천대를 받고 있지 않은가 싶다. 외국인이 그렇고 사회인이 그렇고 문단인이 그렇다. 오랫동안 제것만은 열싸안고 살려다가 실취한 조선인은, 이번에는 남의 것만 동경하다가 역시 같은 실패로, 되풀이하지나 않는가 저으기 걱정이 된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는 조선문화만 사수하라는 것은 아니다. 조선에 문학이 없으면 문학이 생기도록 노력함이 우리의 마땅히 할 일이어든 식당 계집애가 무조건하고 조선주의 입은 사람이면 박대하듯이 그와 똑같은 태도로, 문학을 논하며 문단을 논하는가? 다같이 조선인이요, 다같이 조선의 문단을 떠메고 나선 문단인으로서 문단이 없느니 문학이 없느니 한 번도 아니요 두세 번 한사람도 아니고 네다섯 사람이나 마치 책임이나 전가하려는 듯한 태도를 끝끝 고집하려 함은 무슨 까닭일까? (중략) 원래 신중한 비평가로 백철 씨가 필요에 의하여 비평을 한다면 구인회의 진로를 보아 그것을 비평함이 옳을 것이다. 어찌 발기된 구인회의 방향을 점쟁이가 아닌 다음에야(점이라는 것은 시인해 놓고 말한다)알 길도 없는 것이, 안다면 도리어 기적일 것이다. 비평은 해야 하겠고, 재료는 없으니까 조금한 마음에 (구인회를) 무의지파라 명명을 해놓고 마치 발표되지 않은 작품은 혼자서 비평하고 있는 그대로의 월권을 범하고 있다. 구인회는 백씨가 예정한대로 무의지파는 아니다. 백씨가 아직 그 방향을 모르는 것이다. 동회의 총회가 머지않아서 열리고 토의될 조항이 기초되었다 하니 그때를 기다려보면 백씨는 반드시 조금했던 비평을 후회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12.28.		

No.	2-64	작성자	박수진
제목	1934년과 조선문단 - 반동의 시대	키워드	반동, 홍효민, 프로문학, 구인회, 카톨릭문학
이야기 자원	그러면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어떠한가. 이 프롤레타리아 문학은 당연히 활발하여야하겠음에 반하여 또한 활발치 못한 것은 물론이요, 점차로 이불 안의 조류에 같이 휩쓸리어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내건 “유물변증법적 창작방법”에서 “사회주의적 리얼리즘”과 “혁명적 로맨티시즘”으로 옮겨온 오늘 이 “슬로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이렇다할 조선 현실에 맞는 작품이 하나도 없는 것이다. 곧 말하자면 “사회주의적 리얼리즘”이나 “혁명적 로맨티시즘”에 맞는 작품은 거의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조선도 새로운 반동시대의 와중에 들어왔다고 알 수 있는 것이니 이는 곳 무엇이냐 하면 예술의 종합성은 인정하고 있으나 “그리스도”와 “마리아”가 부활하는 예술시대인 것이다. 그 의미에 따라서 예술이 봉건시대의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하거니와 이는 새로운 반동시대인 것이다. 1930년으로부터 1933년대에 이르기까지 이 새로운 반동시대는 그 제1기를 걷고 있다고 쯔인(오인)은 보고자 하거니와 1933년 말에 이르러 완전히 조선문단에도 이 새로운 반동시대는 좀 더 심각하여 그 제1기적 과정에서 제2기 과정으로 옮겨온 것을 넉넉히 알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냐하면 “카톨릭문학”의 대두도 한 개의 그러한 현상이거니와 그 외 “구인회” 같은 것과 또한 잡지 “조선문학”이라는 그곳에 문학현상으로 보아서도 그러한 것이다. 이곳의 문학의 변환하는 시대를 늘어놓고자 하는 바가 아니니 그것은 피하거니와 오인의 보는 바 안목은 1930년으로부터 1933년까지는 새로운 반동시대에 제1과정이었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요컨대 과거 1933년에 있어서 새로운 반동시대의 심각한 정도는 실로 3분지2 이상이 부르조아지의 문예작품이 산출된 것과 春園(춘원)의 “유정”과 金東仁(김동인)의 “운현궁의 봄”, 尹白南(윤백남)의 “봉화” 등등이 이 새로운 반동시대의 제2기로 넘어가는 틀이 잡힌 문예작품이 아닌 것을 누가 감히 부정할 수 있겠는가. 그와 동시에 李東九(이동구)와 같은 사람은 감회문학의 만능을 주장하는데 이르기까지한 것이다. 그것은 “카톨릭 문학에 대한 당위의 문제”는 너무나 이 반동시대의 새로운 제2기적 深入(심입)을 여실히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하여간 과거 1년간에 있어서의 조선문학은 성장과정이 새로운 반동시대의 제1기적 과정을 졸업하고 제2기적 과정으로 심입한 것은 속일 수 없는 현실일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마리아”와 같은 고전적, 봉건시대에 돌아가게 되는 것은 대세의 한 화폭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홍효민)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4.01.04		

No.	2-65	작성자	박수진
제목	구인회 주최 “시와 소설의 밤”	키워드	구인회, 시와 소설의 밤, 이태준, 박태원, 정지용, 김기림
이야기 자원	구인회 주최의 “시와 소설의 밤” 내일 밤 종로청년회관서 구인회에서는 명 30일 밤 8시 15분부터 종로중앙기독교청년회관에서 “시와 소설의 밤”을 개최한 다는데 회비는 일반은 10전이요, 학생은 5전이며 연사와 연제는 다음과 같다 한다. - 창작의 이론과 실제 : 李泰俊(이태준) - 언어와 문장 : 朴泰遠(박태원) - 시낭독 : 鄭芝溶(정지용) - 시의 근대성 : 金起林(김기림)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4.6.29		

No.	2-66	작성자	박수진
제목	구인회는 어디로?	키워드	문학의 현실 참여, 구인회, 다독다작
이야기 자원	구인회는 그 명칭이 창립 당시의 회원수에 유래한 것이요, 목적은 다독다작에 둘 뿐, 무슨 뚜렷한 주장이나 색채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찍이 무의지파 또는 자유주의전파라 한 평도 있었다. 구인회로부터서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답변도 없었었다. 이는 그 자신이 “무의지”로 자처한 것이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의지는 있어도 공언키 어려웠던 까닭인지도 모를 일. 그런데 최근에 구인회의 진용에 이상이 있다. 某某氏(모모씨)의 신가입을 회세의 확장이라고 본다면 모모씨의 탈퇴는 무엇으로 볼 것인가. 단순히 다독다작을 위한 것이라면 가입은 있을망정 탈퇴는 없을 일. 없을 일이 있는데는 이유가 없지 않으렸다. 억측을 허한다면 이제 구인회가 파로서의 의지를 새로이 가짐이 아닌가. 아니 창립 당시부터 배태하고 있던 의지가 최근의 제정세에 순응하여 순수예술주의적 입장 위에 서게 되려는 것이나 아닐까. 구인회가 문예의 정치적 효과의 발휘를 위한 단체가 아님은 당초부터 자타가 공인하는 바인즉 이제 그가 의지를 가진다면 그 가지는 바 의지가 무엇일 것도 자타가 공인할 수 있다. (알파)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5.3.10		

No.	2-67	작성자	박수진
제목	내가 문단에 데뷔하던 때 - 박금청(朴金淸) 회고담	키워드	1934년, 박금청, 신문
이야기 자원	1934년 그 당시 작단에서 활동하던 작가로 현재 생존해 있는 분이 몇 명도 안 된다. 그러나 그 당시의 문단은 상당히 활발했다고 생각한다. 작단뿐 아니라 평단도 그러했다. 신문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종합잡지가 지금보다도 많았다고 기억한다. 신문의 4면은 언제나 문예물로 차 있었고 권위 있는 잡지에도 문학에 많은 지면을 제공했었다. 그리고 모더니즘의 시가 처음으로 나오고 구인회가 조직된 것도 1934년을 전후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일제의 탄압 밑에서 지식인들의 고민이 극심한 때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문학열이 고조에 달했을 때 나는 당선작가로 등장했다. 이때 문단에 데뷔한다는 것은 용이하지가 않았다. 다만 동아일보사와 조선일보사에서 모집하는 현상문예의 길을 통하는 수밖에 없었다. 신문과 잡지는 당시 기성인들만의 무대였다. 신인이 거기 뚫고 들어간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학을 지망하는 젊은 사람들은 학생란이나 독자란의 한 귀퉁이를 빌리는 것만으로도 영광으로 생각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3.3.29.		

No.	2-68	작성자	박수진
제목	측면으로 본 신문학 60년 (19) 구인회 - 조용만의 회고담	키워드	조용만, 구인회의 결성
이야기 자원	1930년대초기의 우리나라 문단의 판도는 대체로 다음과 같았다고 기억한다. 문단을 독차지하다시피 하여 기세를 올리고 있던 것이 「카프」를 중심으로 한 프로문학의 일파로서 회월, 팔봉이 논객으로 앞장서고 포석, 서해, 설야, 민촌 등의 전위작가와 또 한 파로서 현민, 효석 등의 동반작가들이 잡지 「조선지광」, 「비판」과 조선일보를 무대로 하여 치열한 활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퇴폐한 부르조아 작가라고 매도하는 우익 측에는 春園(춘원), 東仁(동인), 橫步(횡보), 憑虛(빙허), 月灘(월탄) 등이 있었지만 점잖게 수세만 지켜서 별로 대꾸가 없었고 橫步(횡보)만이 처음부터 프로문학을 야유조로 빈정거리고 있었다. 1925년 프로문학이 처음으로 기치를 들고 나설 때에 橫步(횡보)는 「계급문학을 논하여 소위 신경향파에 여함」이라는 논문을 심여회에 걸쳐서 조선일보 학예면에 실어 프로문학을 조롱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회월이 「신흥문학의 이론적 근거를 논하여 廉想涉(염상섭)군의 무지를 박함」이라는 답변을 써서, 좌우익의 논쟁이 이것으로 시작되었다. 이 두 파외에 노풍, 무애 같은 절충주의를 제창하는 사람도 있어서 세력은 미약했지만 이 절충파를 합해서 문단은 3파로 갈려 있는 느낌이었다. 1933년 봄이었다. 李鐘鳴(이종명)이라는 젊은 작가와 金幽影(김유영)이라는 영화 연극의 감독이 내가 관계하는 신문사의 단골기고가이었던 관계로 세 사람이 자주 만났었다. 우리들은 순수문학을 지향하고 있던 패들이라 「카프」에 대항해서가 아니라 순수문학을 지키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끼리 한데 모여서 무슨 서클을 조직하는 것이 어떨까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동지를 규합하기 시작하여 尙虛(상허), 지용, 片石村(편석촌) 등이 모이게 되고 鐘鳴(종명)과 尙虛(상허)가 主動(주동)이 되어 여러 번 회합을 거듭한 결과 대체로 이렇게 합의되었다. 즉 「카프」가 투쟁단체인데 반하여 우리들은 친목(친목)단체를 만들 것. 따라서 무슨 강령이라든지 내규 같은 것을 전혀 만들지 말고 회장, 부회장과 같은 직제도 두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두 번씩 다방이나 간단한 음식점에 모여서 작품에 대한 이야기나 하고 서로 친목을 도모하자는 것이었다. 회원도 처음에는 7명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결국 9명이 되었고 회이름도 여러 가지로 말이 나왔지만 구인회로 낙착이 되었다. 당시 일본에는 「나프」에 대항해서 신흥예술파의 단체로 「십삼인구락부」가 있었으므로 구인회 이름이 이것을 모방한 것 같이 보여서 창피하다고 하였지만 尙虛(상허)의 고집으로 구인회로 되고 말았다. 孝石(효석)은 순수문학 쪽으로 전향하여 그때 경성농업학교에서 영어선생을 하고 있었으므로 그가 하기방학에 상경하기를 기다려서 칠월 그믐께 종로에 있는 다과점에서 발회하였다. 아홉명이란 鐘鳴(종명), 유영(幽影), 尙虛(상허), 지용, 片石村(편석촌), 孝石(효석), 柳致眞(유치진), 無影(무영) 및 筆者(필자)이었다. 회원의 대부분이 신문사 학예부 관계자이었으므로 이 소식이 각 신문에 났었고 「카프」에서는 민촌이 부르조아문학의 줄도들의 망동이라고 공격의 화살을 던졌다. 그러나 우리들은 잠자코 매월 1~2회 정기적으로 모여서 작품평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였다.		

이것이 서너달 계속하였을까. 그해 가을에 위선 주동자인 鐘鳴(종명)과 유영(幽影)이 탈퇴하고, 孝石(효석)과 致眞(치진)은 처음부터 흥미가 없어서 잘 안 나오고 회합은 尙虛(상허)가 모든 것을 리드하고 지용의 해학으로 시종되었다. 이어서 孝石(효석)과 致眞(치진)과 내가 탈퇴하고 尙虛(상허)와 지용이 중심이 되어서 仇甫(구보)와 李箱(이상)은 무직이었으므로 열심히 회를 운영하여 문예강연회도 한 번 가졌고, 1935년 봄에 李箱(이상)이가 창문사 주인 具本雄(구본웅)을 움직여서 기관지 “시와소설”을 한 호 출간하였다.

구인회는 이것으로 흐지부지 되어버렸는데, 지금 와서 공정하게 생각하면 이회는 문단적으로 아무런 족적을 남긴 것이 없다. 사교구락부나 친목계 같은 형식으로 몇 사람이 모여서 잡담을 했고, 문학의 순수성을 옹호하여 프로 문학에 물들지 않았을 뿐이다. 작품행동은 완전히 개인플레이 이어서 「카프」 같은 단체행동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 이것뿐이다.

요새 와서 젊은 사람들이 구인회를 무슨 대단한 업적을 남긴 문학단체인 것처럼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회의 관계자였던 한사람으로서 나는 별반 무슨 두드러진 업적도 족적도 내세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역지로 있다면 천하를 휩쓸던 프롤레타리아예술동맹의 영향을 벗어나서, 그들과 은연히 대립하는 한 세력을 결성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을까. 그러나 구인회의 한 사람도 좌익논객들과 대항해서 당당히 논쟁을 전개한 사람은 없었다. 그만큼 소극적이었다.

이제 와서 감회에 빠지는 것은 그 당시 홍안의 미청년이던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을 떠났고, 또 그중 몇몇은 「카프」 운동을 극력 반대하더니 해방 후 어느덧 그 쪽에 가담해서 조국을 배반한 사람이 있는 것이다. 참으로 세상은 무상하다고 할까, 알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68.7.20

No.	2-69	작성자	박수진
제목	밭 갈며 쓴 「흙의 문학」 李無影 씨 10주기 맞아 - 백철	키워드	이무영, 1930년대 문학
이야기 자원	우리 농민문학의 대가인 李無影(이무영) 형이 52세로 별세한 지 어언 10년, 21일로 그의 10주기를 맞는다. 1930년대부터 삼십년 동안 문단생활을 같이해 온 無影에의 절실한 회상이 30년대 후반기, 농민문학으로 전환하던 그 당시로 집중됨은 내 나름으로 그의 변화와 그 시대가 인상적이었던 까닭이다. 사십대 독자라면 누구나 알겠지만 1935~6육년경은 세계적으로 위기설이 떠돌고 국내에서도 대륙 침략을 위한 일본군벌의 압력도 험악한 상황이었어서 작가들, 아니 온 지식인들이 방향을 잃고 방황할 때였다. 이 무렵 문단에서도 프로문학이 전면퇴각하여 전향의 풍조가 유행이었는데 그것은 정세에 대한 압력 때문만은 아니었다. 이 당시 無影(무영)은 좀처럼 얻기 힘든 동아일보사의 학예부 기자로 활약하면서 많은 장단편의 소설을 발표했었다. 일본의 「가또」(가슬무웅)으로부터 문학을 사사하고 1928년 「의지 없는 영혼」 「폐허」로 데뷔한 그는 이효석, 유치진과 함께 구인회 서클로 활동하면서 초기에 무정부적 반향을 보여왔는데 동아일보가 일장기 말살사건으로 정간 당하자 분연히 직장을 버리고 군포로 이사해 버렸다. 이 같은 그의 낙향은 얼핏 현실도피로 보이지만 실은 그 반대였다. 당시에는 일제가 판치던 때여서 현실도피가 사실은 가장 완강한 저항의 자세였으며 특히 그의 경우 실제로 농사를 지으며 새로운 농민문학의 가능성을 개척한창작의 신경지를 파고들기 위한 것이었다. 30년대 작품을 모은 「취향」이 그의 이런 변화를 잘 반증해 주는데 초기의 작품세계가 갈 데까지 가면서 차츰 신변적인 곳으로 저회하고 있었다. 이러니 만큼 그에게 새로운 전환은 불가피했고 「제1장 제1과」, 「흙의 노예」 등 일련의 작품을 통해 농촌을 테마로 한 새 경작지의 개척이 성공했음을 입증해 주었다. 그의 농민문학관이 잘 드러나는 「제1장 제1과」는 작가 자신의 실기처럼 보이거니와 직접 농촌으로 들어가 논밭을 갈며 땀을 흘리는 체험을 통해 산 작품을 쓰자는 신념을 표현하고 있다. 그가 농사에 매여 있던 어느 여름날, 군포로 찾아간 내게 “이기 귀하신 서울손님이 오시는군...”하며 허리를 치고 일어서던 그의 얼굴은 햇볕에 타서 마치 키 작은 인디언 같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방황하는 도시지식인의 세계를 버리고 대지에서 새로운 삶과 창작의 용기를 얻으며 체험을 통해 작품을 살린 그의 문학은 따라서 기왕의 농민문학인 「흙」이나 「상록수」와 달리 강인한 힘이 넘치고 있었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0.4.21		

No.	2-70	작성자	박수진
제목	문단 반세기 (41) 30년대 전반의 문인들 - 김병익	키워드	1930년대 조선문단, 김기진
이야기 자원	[카프]가 퇴조할 무렵의 1930년대 전반기 조선문단의 인구는 근 일백명으로 늘어나 있었고 프로문학을 둘러싼 논쟁의 소용돌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문학과 그 기교법에 있어 다양한 편차로 분화해 있었다. 이 땅에 근대적인 의미의 [문단]이 형성된 지 십여년, 그 짧은 시간 속에 식민지 문학은 이미 난숙해 있었고 개별적으로는 분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나약한 초기의 상태와는 달리 이제는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기틀이 잡힌 문단으로 성장해 있었다. 우선 개인의 출혈로 간행되고 따라서 단명할 수밖에 없는 동인문예지의 한계를 탈피하여 대규모 자본 특히 언론기관에 의한 종합지가 경쟁적으로 속속 출간되어 문인들의 작품활동 무대로 제공되었다. 파인 金東煥(김동환)이 대중지 [삼천리]를 1929년 6월에 창간, 고급문예작품을 싣기도 했지만 동아일보사가 1931년 1월에 [신동아]를 창간하고 1933년 1월에 [신가정](현 여성동아)의 전신을 발행, 한국잡지계를 주름잡는데 이어 조선중앙일보가 역시 1933년 11월에 종합지 [중앙]을 간행했다. [신동아]와 [신가정]이 일장기말살사건으로 폐간되기 1년 전 조선일보도 종합지 [조광]과 여성지 [여성]을 창간, 매스컴의 잡지경쟁대열에 끼어든다. 기존의 [동아], [조선], [조선중앙] 등 일간지와 이들 종합지 그리고 단속적으로 창, 폐간 되는 문예지 동인지들을 통해 문인들의 체질은 스펙트럼처럼 비슷한 색조로 계열화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문단색조의 분화현상은 20년대의 동인지 시대 각양의 주의와 경향이 무질서하게 공서하던 것과 는 양상이 다른, 다분히 질서 있고 정돈된 동류체질의 확인이었다. 八峰(팔봉)이 정리한 문인계보 金八峰(김팔봉)이 정리해 본 1934년경의 문인계보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문학의 현재와 수준] 신동아 1934년 1월호) ◇ 민족주의 ▲국수(국수주의) = 鄭寅普(정인보) 崔南善(최남선) 李殷相(이은상) 李秉岐(이병기) 봉건적인도주의 = 李光洙(이광수) 尹白南(윤백남) ▲소시민적자유주의 = 낭만주의 = 金億(김억) 盧子泳(노자영) 劉道順(유도순) 金素月(김소월) ▲기교주의 = 金起林(김기림) 朴泰遠(박태원) 李泰俊(이태준) ▲이상주의 = 朱耀翰(주요한) 金東煥(김동환) 金石松(김석송) 朴鍾和(박종화) 洪思容(홍사용) 卞榮魯(변영로) 朴龍喆(박용철) 鄭芝溶(정지용) 異河潤(이하운) 毛允淑(모운숙) 沈熏(심훈) 尹石重(윤석중) ▲자연주의 = 玄鎮健(현진건) 方仁根(방인근) 李益相(이익상) 金一葉(김일엽) ▲사실주의 = 金東仁(김동인) 廉想涉(염상섭) 朱耀燮(주요섭) 姜敬愛(강경애) ▲교회문학 = 鄭芝溶(정지용) 毛允淑(모운숙) 韓龍雲(한용운) ◇ 절충적 계급협조주의 = 梁柱東(양주동) 鄭蘆風(정노풍) ◇프로문학 ▲동반자적 작가 = 俞鎮午(유진오) 李孝石(이효석) 李無影(이무영) 蔡萬植(채만식) 柳致眞(유치진) 洪曉民(홍효민) 朴花城(박화성) 崔貞熙(최정희) 趙容萬(조용만) ▲카프파 = 李箕永(이기영) 韓雪野(한설야) 金南天(김남천) 朴英熙(박영희) 白鐵(백철)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3. 06. 15.		

No.	2-71	작성자	박수진
제목	찬란한 1930년대 조선문단	키워드	1930년대
이야기 자원	[카프]의 해체로 프로 문학론이 퇴조한 30년대중반이후의 평단은 이념문학의 전개보다 문학사조와 방법론의 탐구로방향을 전환, 白鐵(백철)의 휴머니즘론, 崔載瑞(최재서) 金起林(김기림)의 주지주의론, 金煥泰(김환태)의 예술비평론, 그리고 문학의 순수성을 둘러싸고 俞鎮午(유진오) 金東里(김동리) 사이에 벌어졌던 세대논쟁으로 발전한다. 이들의 비평업적은 [작품없는 이데올로기 비평] 일변도의 20년대평론보다 더큰 비중을 두어야할것으로 구호로부터 해방된 본격적인 한국 비평문학의 설정은 여기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보아야할 것이다. 중량급신인 속출 강령문학의 강요로부터 비평을 구출한 이 당시 평계의 총아는 林和(임화) 白鐵(백철) 李軒求(이현구)보다 늦게 출발했으며 金汶韓(김문집) 李原(이원)와 함께 활동한 영문학전공의 崔載瑞(최재서)와 金煥泰(김환태), 경성제국대를 졸업, 동대학 강사로 있던 崔載瑞(최재서)는 삼사년이후 [비평과 과학], [비평의 형태와 기능]을 통해 [T E 홈] [I A 리차즈] [TS 엘리엇]을 소개하며 주지문학, 모더니즘의 이론을 밝히고 이상 朴泰遠(박태원)의 작품을 분석한다. 일본구주대학을 졸업, 박용철의 누이동생 朴鳳子(박봉자)와 결혼한 김환태 역시 삼사년 [문예비평가의 태도에 대하여]로 등단하여 구인회에 가입, [예술지상주의자!]로 자처하며 순수문학론을 옹호한다. 문예동인지 20여 종 이처럼 문학을 정치로부터 본래의 자리로 복귀시키려는 바람직한 동향을 보이는 평단의 지원을 받으며 창작계는 [찬란한 삼오년대]의 꽃을 피우기시작한다. 시에서 金光均(김광균) 金玟燮(김광섭) 金尙鎔(김상용) 金東鳴(김동오) 辛夕汀(신석정) 柳致環(유치환) 金素雲(김소운) 張萬榮(장만영) 金容浩(김용호) 金尙沃(김상옥) 白石(백석) 咸允洙(함윤수) 徐挺住(서정주) 尹公岡 등 유망한 신인들이 쏟아져나오고 소설에서 李箱(이상) 金裕貞(김유정)을 이어 張赫宙(장혁주) 桂鎔默(계용묵) 李無影(이무영) 朴榮濬(박영준) 許浚(허준) 崔明翊(최명익) 金東里(김동리) 鄭飛石(정비석) 玄德(현덕) 金永壽(김영수) 許允碩(허윤석) 黃順元(황순원) 등 목직한 신진들이 잇따랐다. 이 당시 문예지 동인지 운동도 새로운 부흥기로 접어들어 [신동아] [조광] [중앙] 및 복간한 [개벽] 등 종합지외에 朴龍喆(박용철)이 낸 [문학]의 삼삼년말부터 李泰俊(이태준)이 주재한 [문장]이 창간되는 삼구년초까지 이십여종이 창간된다. 그중 중요한것만 뽑아도 盧子泳(노자영)의 [신인문학], 연전 출신인 申白秀(신백수) 李時雨(이시우) 趙豐衍(조풍연) 李用熙(이용희) 등의 동인지 [삼사문학], 吳一島(오일도)의 [시원], 金東仁(김동인)의 [야담], 구인회의 기관지로 李箱(이상) 화가 具本雄(구본웅)이 편집한 [시와 소설], 徐廷柱(서정주)의 [시인부락], 洪淳烈(홍순열)의 [풍림], 金東煥(김동환)의 [삼천리문학], 金相沃(김상옥) 金容浩(김용호) 咸允洙(함윤수) 의 시동인지 [맥], 楊明文(양명문)등 동경 유학생들의 [홍]등 십개를 넘는다. 그리고 잡지 이상으로 시집 붐이 일기 시작, 전반적으로 보아 질과 양에서 압도적으로 20년대를 능가한다. 이제는 거의희귀본이 된 1934년이후 1940년까지의 창작시집만을 보면 李殷相(이은상) [노산시집] 毛允淑(모윤숙)[빛나는 지역] (이상 삼사년), 卞榮魯(변영로) [조선의 마음, 삼오년 金永郎(김영랑) [영랑시집], 金起林(김기림) [기상도], 黃順元(황순원) [골동품], 삼육년 尹崑崗(윤곤		

	강) [대지], 張萬榮(장만영) [양], 朴英熙(박영희) [회월시초] 毛允淑(모윤숙) [렌의 애가], 金琬燮(김광섭) [동경], 삼칠년 盧天命(노천명)[산호림], 金東鳴 (김동오 [파초], 삼팔년 異河潤(이하운) [물레방아], 金泰午(김태오) [초원], 金尙容(김상용) [망향], 咸允洙(함윤수) [앵무새], 尹崑崗(윤곤강)[동물시집]. 吳章煥(오장환) [헌사], 金光均(김광균)[와사등], 李秉岐(이병기) [가람시조집], 金起林(김기림) [태양의 풍속], 辛夕汀(신석정) [촛불], 張萬榮(장만영) [축제], 柳致環(유치환) [청마시초], 삼구년 朴南秀(박남수) [초통불], 朴貴松(박귀송) [세기의 예언], 朴八陽(박팔양) [여사시초], 李燦(이찬) [망양], 尹崑崗(윤곤강) [방화], 金嵐人(김람인) 金海剛(김해강) [청색마], 金達鎭(김달진) [청시], 咸允洙 (함윤수) [음화식물지]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분화다양화의 소설계 시단 못지않게 활기를 띠는 소설계도 화려한 창작의 결실을 맺으면서 체질과 정신에 따라 분화, 다양화하기 시작한다. 프로문학은 韓雪野(한설야) 金南天(김남천)에 이어 [아귀도]의 張赫宙(장혁주) [낙조]의 金史良(김사량)으로 전달되며 蔡萬植(채만식) 金裕貞(김유정)의 풍자성은 李箕永(이기영)의 [인간수업] 桂鎔默(계용묵)의 [백치아다다]로 확대된다. 金東鳴(김동명)의 [파초] 金尙鎔(김상용)의 [망향] 辛夕汀(신석정)의 [촛불]에서 묘사되는 전원 풍경은 소설에서 李無影(이무영)의 [제일장제일과] 박영준의 [모범정작생]으로 연결된다. 신문 잡지의 소설연재로 크게 보급되는 李光洙(이광수) 洪命憲(홍명희) 金東仁(김동인) 玄鎭健(현진건) 朴鍾和(박종화)의 역사소설, 方仁根(방인근) 沈熏(심훈) 金末峯(김말봉) 朴啓燾(박계주)의 통속소설이 유행했던 이즈음 순문학계의 큰흐름은 심리소설 세대소설 토속서설 등 세갈래. 李箱(이상)이 개발하여 꽃피운 심리소설은 許浚(허준)의 [탁류] 崔明燾(최명익)의 [장삼이사]로 이어지는데 이런 경향의 작품들은 가령 유진오의 [김강사]와 T교수 蔡萬植(채만식)의 [치숙] [레디메이드인생] 지식인문학의 불안 좌절과 맥이 통한다. 蔡萬植(채만식) 朴泰遠(박태원)으로 대표되는 세대소설은 풍자적인 성격을 강력히 드러내는데 전자는 사회구조적인 접근법으로 들어가고 후자는 지식인의 내면에서 현실로의 발산법을 써서 대조를 이룬다. 낭만주의와 탐미주의가 결합, 토속문학을 형성한 것은 삼오년대의 또하나 공헌이다. 동반성을 버린 李孝石(이효석)이 [메밀꽃 필 무렵] [산] [들] 등 잇단 수작을 발표하고 金裕貞(김유정)이 한의 미학에 농촌의 비참한현실을 수용한데이이 金東里(김동리)의 [무녀도] [산화] 鄭飛石(정비석)의 [성황당] [줄곡제] 金永壽(김영수)의 [소복] 시에서 소설로 전향한 黃順元(황순원)의 [별], 그리고 시에서 白石(백석)의 [사슴] 徐柱廷(서정주)의 [화사] 등은 한국인의 특이한 풍속과 심정을 긍정한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다. 소설의 구인회와 시의 해외문학과 및 모더니스트들이 중심으로한 삼오년대의 커다란 문학적성과는 어떻게해서 이루어졌을까 논쟁이 사라지고 도식적인 이데올로기가 철수된 그당시의 지적 풍토와 연관, 깊이 분석해볼 과제를 남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3. 06. 26

No.	2-72	작성자	박수진
제목	유진오의 구인회 회고	키워드	1930년대 조선문단의 여러 경향
이야기 자원	나나 李孝石(이효석)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던 무렵 金珖燮(김광섭) 李軒求(이헌구) 徐恒錫(서항석) 鄭寅燮(정인섭) 등의 세칭 [해외문학과]가 등장하였다. 해외문학과라는 것은 동경서 외국문학을 전공하던 사람들의 그룹으로 외국문학을 국내에 좀더 활발하게 도입, 소개하여야 하겠다는 당연한 주장을 내세운 것이었지만 문학의 사상성 또는 정치성에 초연한 자세를 취한 것 때문에 일시 프로문학과와 대립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하였다. 해외문학과는 시 수필 평론등방면에서 주로 활동하였으나 柳致眞(유치진)이 [토막]을 써서 상연함에 이르러 산문 창작방면에서도 중요한 업적을 남기었다. 이렇게 보아오면 1931년 소위 만주사변이 일어나기까지의 조선 신문학운동은 상당히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李光洙(이광수) 廉想涉(염상섭) 등의 서양근대문학의 갖가지 조류 계몽주의 민족주의 인도주의 자연주의 예술지상주의 등을 이어받은 기성문단과 이에 대항해 싸우는 프로문학과, 프로문학과에 동조하는 듯하면서도 문학의 독자성을 버리지 않던 동반자작가군 그리고 이데올로기 문제에 무관심한 듯하면서도 은연중 순수문학의 냄새를 피우던 해외문학과 이러한 여러 그룹이 병립해서 각각 자기들 나름의 활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만주사변은 조선 신문학운동에도 커다란 변동을 가져왔다. 카프에 대한 일경의 탄압이 시작되어 좌익계 작가들의 대량검거가 연달아 일어나다가 일구삼오년에는 드디어 카프가 해산하고 말았는데 그러는 동안 카프계 작가들의 [전향]이 연달아 일어났다. 그시기에 카프계의 이론적 중진이던 朴英熙(박영희)가 “얻은 것은 이데올로기요, 잃은 것은 문학이었다”고 술회한 것은 유명한 이야기다. 나는 카프조직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단 관계로 경찰에 체포되지는 않았으나 1932년에 피검된 것은 조선사회사정연구소 관계 카프작가들이 수난을 겪는 동안 나도 경찰에 불려가고 형사의 방문을 받고 하는 일은 면할 수 없었다. 일경과 마주앉아 이야기할 때 “왜 너는 하필 그런 내용의 소설을 쓰느냐”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소설이란 공상이 아니고 현실에 있는 일들을 tM는 것인데 현실이 그러하니 그런 내용의 소설을 쓰는 것”이라 대답할수 있었지만 그들이 다시 “네말도 옳다. 그러나 현실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않느냐. 아홉 가지가 나쁘고 어둡더라도 한 가지는 좋고 밝은 것이 있겠는데 너는 왜 그 밝은 것에는 외면하고 어두운 것만 추려서 쓰느냐. 그것은 결국 너의 사상이 나쁘기 때문 아니냐”고 추궁하는 데에는 질색이었다. 그러할 무렵 李泰俊(이태준) 鄭芝溶(정지용) 李孝石(이효석) 趙容萬(조용만) 등의 [구인회]가 나타났다. (뒤에 朴泰遠(박태원) 李箱(이상) 金裕貞(김유정) 등이 참가). 구인회는 해외문학과와는 달리 순수문학을 정면으로 들고 나온 그룹이었다. 순수문학을 표방하는 구인회에 동반자작가라 불리던 이효석이 참가한 것은 일종의 이였으나 알고 보면 그것은 이효석 자신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전신 이 아니었다. 문단에 데뷔하던 때 그는 [운동]이네 [투사] 네 하는 단어를 작품 속에서 즐겨 썼지만 그것은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 위함이요 처음부터 그는 사상의 작가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효석이 작고한지 얼마 안 되어 쓴 나의 [이효석론]에서 나는 다음과 같이 쓴 일이 있다. “어떻든 씨는 사상이라는 것에 작위적인 규제를 받음이 없이 새가 노래 부르듯 노래 부르는 것을 본령으로 하는 작가였었다. 그러기에 그는 1932, 3년경의 좌익문학의 전면적 퇴조기에도 손쉽게 순수문학으로 전신하여 새로운 조류를 타고 재등장을 해내었던 것이다. 많은 좌익작가가 시대의 큰 흐름에 직면해서 그때까지 자기 몸에 배어있던 것을 청산하고 새로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혹은 암중에 모색하고 혹은 침잠고음하여 글자그대로 피의 자기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때에 씨는 몸도 가벼이 새로운 시대로 줄달음쳤던 것이다. 씨는 이 전신에서 지금까지 무거운 짐모양 씨에게 덮어 씌워졌던 시대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겨우 숨을 돌린 그런 형태였었다.” 순수문학에의 움직임은 구인회가 선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한 움직임은 당시의 조선문학이 나아갈 필연적 진로이기도 하였다. 프로문학의 퇴조가 직접적으로 일경의 탄압에서 나온 것은 사실이지만 지나치게 사상성 정치성을 강조하여 문학의 문학성을 경시해온 프로문학운동은 그자체의 내재적 필연으로서도 조만간 반성의 시기를 맞이하지 않으면 안 될 전기에 처해 있었던 것이다. 1938년 내가 [창랑정기] [어떤 부처] [나비] 등 일련의 단편소설을 쓰고 연이어 동아일보에 장편소설 [화상보]를 연재하던 때에는 나도 이미 [동반자적 작가]를 탈피하고 이른바 순수문학의 방향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만 나는 당시의 순수문학파가 문학은 마치 사상성을 외면 또는 포기함으로써 비로소 순수해질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것이 마음에 거슬렸다. 그래서 문학은 사상성을 초월함으로써 순수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사상성에 철저하여 독자로 하여금 작품 속에서 생경한 사상과 대면하지 않게 하는 것이 순수문학의 극치라는 에세이 [순수예의 지향]를 써서 이태준주간의 [문장]에 발표하였다(1939년). 그 에세이가 당시의 신진작가 金東里(김동리)의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일은 문단관계자는 다 아는 바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4. 04. 12

No.	2-73	작성자	박수진
제목	월북문인작품의 규제완화	키워드	월북문인, 규제완화
이야기 자원	해방직후와 6.25전쟁기에 월북하였거나 납북된 문인들의 작품에 대한 거론이 종전보다는 자유로와질 것 같다. 국토통일원이 13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월북문인이나 그들의 작품에 대한 거론은 민족사적 정통성의 확립에 기여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무방하다는 원칙을 세우고 두가지 세부기준을 마련했다고 한다. 그 세부기준이란 첫째로 거론대상은 해당 문인의 월북 이전의 사상성이 없는 작품으로서 근대문학사에 기여한 바가 현저한 작품에 한하며, 둘째로 문학사연구의 목적에 국한하되 그 내용이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에 저촉되지 않는 작품에 한한다는 것이다. 통일원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문단과 학계에서는 획기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월북문인들이나 그들의 작품을 어떻게 다루어야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법규도 없고 문학계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해서 작품집류에서는 말할 나위도 없고 문예사전등에서도 제외되어왔다. 그런가 하면 현대문학사연구서 등에서는 저자에 따라 다루는 태도나 방법이 다르고, 또 원로문인들의 회고록 등에서는 그들에 대한 에피소우드가 자세히 술회되기도 하는등 혼란을 거듭하여 왔다. 그런점에서 통일원의 이번 조치는 월북문인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을 처음으로 표명한 것으로 뜻 있는 일이라고 하겠다. 한 마디로 월북문인이라고 하더라도 월북의 동기나 경위에는 차이가 있다. 또한 그들의 대부분은 이미 작고하였거나 숙청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형편에서 사상과는 무관한 해방이전에 그들이 남긴 작품들을 거론조차 못한다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가령 구인회등의 이른바 주지주의문학이나 모더니즘 운동과 같은 문학사의 어떤 대목은 몇몇 월북문인들을 제외하면 완전한 논평이 안되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오늘날까지 월북문인들이나 그 작품에 대한 언급에 규제를 가한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또 지금은 이 같은 규제가 전연 필요 없다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문학사에서는 언급하면서 원작은 볼수 없다면 이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렇다고 오늘날 그들의 전 작품을 간행하여도 무방할 처지는 못 된다. 자칫하면 감상주의를 타고 이상한 풍조가 일어날 염려도 있고, 그릇된 상업주의의 물결이 묘한데 이용당할 염려도 없지 않다. 규제완화에 따르는 이와 같은 이율배반적인 문제들은 신중히 검토하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8. 03 .15		

No.	2-74	작성자	박수진
제목	이상(李箱)의 일화	키워드	구인회, 이태준, 김기림, 박태원, 이상, 윤태영
이야기 자원	구인회가 결성된 것은 프롤레타리아문학이 시든 1933년. 상허, 지용과 구보, 기림이 중심인 그 그룹에는 한두해 사이에 예닐곱명의 동인이 기질 차이와 문학관의 차이로 나가고 들어오게 된다. 창대 같은 수염을 기르고 봉두난발을 한 이상이 그곳에 입단한 것은 1934년의 봄무렵이었다. 그의 입단은 찬성과 반대로 동인사이에 입씨름이 무성하였으나 일단 들어오고 나자 반대를 부르짖던 사람들도 회장을 주름잡는 말썽씨에 매료되어 어느새 그의 건담의 팬이 되어 버렸다. (이상은 자신을 건담가라고 했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페이스스와 독설의 비수가 번득이는가 하면 신랄한 역설 속에도 사람의 마음을 쓰다듬어주는 봄별과 같은 따스함이 흐르는 그의 말썽씨를 상허나 기림 등은 따를 수가 없었다. 구보가 대작을 하고 간간이 지용이 새디스틱한 여자이야기에 편찬을 줄 정도였다. 그럴 때면 이상은 독특한 웃음을 웃고는 언제 그랬느냐는 듯 나무젓가락에 간장을 찍어서 때가 낀 식탁에 낙서를 했다. 그리고는 그 젓가락으로 천연스레 안주를 집어 먹었다. 상허와 기림은 연극을 보듯 그의 한 동작을 물끄러미 보고 있었다. 그 품이 흐린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 같았다. 아니 자신을 감추려고 물고기와 같은 연극을 하고 있는 배우 같았다.(그들은 그때 주로 중국집에서 모였었다.) 지성의 관사를 잠시도 벗지 않고 쓰고 다니던 최재서도 이상의 화술에 단숨에 매료 되어 버렸다. 그가 이상을 처음 본 것은 [기상도] 출판기념회가 끝난 뒤에 가진 영보그릴의 맥주파티에서였다. 그곳에서도 이상은 구인회 모임에서와 똑같이 시니컬한 웃음을 웃으면서 기지발랄한 스피치를 중형무진으로 구사하고 있었다. 그의 시나 소설보다 더욱 천재기가 번뜩이는 듯 했다. 그때 그가 무슨 말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최재서가 기록해 두지 않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알 수가 없다. 하지만 그의 [오감도]나 [날개]의 대화로 보아 그것이 상식과 비상식 사이를 출몰하는, 그래서 상식인으로서의 쉽사리 대응키 어려운 것이었으리라는 점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아마도 그것은 게릴라 같은 것이었을 터이다. 앞에서도 뒤에서도 옆에서도 예고 없이 튀어나오는 정규전법만을 익힌 병사들에게는 야비하게조차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런 대화법을 기록해둔 사람이 딱 한 분 있다. 윤태영의 한 회상기가 그것이다. 그날 이상은 윤태영씨와 함께 르네 크레르의 [최후의 역만장자] 라는 영화를 보고 명동 뒷골목에 있는 카페 AI로 가서 독주를 마셨다. 오래잖아 그의 입에서는 독설이 쏟아져 나왔다. “고놈의 독재자가 그만 머리가 돌아서 사투마다 바람으로 침실에서 뛰어나오니까 독재주의 국가의 백성들은 모조리 사투마다 바람으로 뛰어나오는 게야. 그리고 전봇대를 열싸안고 맴도는 게야. 이 왜나라 상전들도 그렇게 되지 말란 법이 없지. 우리 엽전야 성명 삼자도 없는 외인부대지만 말야” 히틀러를 풍자한 르네 크레르의 또 다른 영화 [유령서쪽으로 가다]를 두고 한말이어JT다. 이상의 재담에 끌린 여급들이 하나 둘 그들의 테이블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신이 난 것처럼) 위트와 패러독스가 넘치는 대화를 이끌어 나갔다. 그때 한 여급이 “창대수염 이상은 D.H. 로렌스의 이미테이션이 예요!”하고 소리쳤다. “뭐라구? 이 발칙한 것, 내가 로렌스의 이미테이션이라말야. 로렌스가 내 이미테이션이 아니구? 한		

	번 더 그런 불순한 소리를 했다간 사루마다 바람으로 한길에 내쫓고 말테니....” 술잔을 훌쩍 들이켠 뒤 이상은 다시 말했다. “사루마다 바람이 아니라 즈로즈 바람이어야겠구나. 전여성이 즈로즈 바람으로 시가 행진을 한다! 유령이 서쪽으로가 아니라 즈로즈 서쪽으로 가다.... 뭐 나더러 로렌스의 이미테이션이라고? 차탈레 이부인 이미테이션도 못 되는 것들이...” 그런 이상도 그의 생명이 2,3년 밖에 남지 않은 35, 36년 무렵에는 재담의 빛도 약해지고 울고 웃는 감정의 밑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다. 해화전문 시절의 徐廷注(서정주)가 咸亨洙(함형수) 李成範(이성범)과 함께 이상을 찾아갔을 때도 그는 그의 목숨의 끝을 보고 있는 듯한 창백한 얼굴로 맞아주었다. 그들은 종로통의 술집을 거쳐 반도 호텔 뒤의 선술집으로 들어갔다. 주모에게 약주를 청한 뒤 이상은 분위기를 잡을 겸 그의 장기인 창부타령을 부르기 시작했다. 세 사람도 따라서 불렀으나 이상의 노래 숨씨를 따를 수는 없었다. 그만큼 이상의 음색이나 창법은 빼어난 데가 있었다. “대단한 노래다. 대단한 노래”라고 서정주가 내심으로 감탄하고 있을 무렵, 이상은 그의 화법이 그렇듯이 갑자기 주모의 젖가슴 위에 있는 단추를 누르기 시작했다. 처음엔 장난기로 발아들이던 주모가 누르는 엄지손가락의 강도에 못이겨 “야야야”소리지르기 시작했고, 그는 그의 생명의 구급용 벨을 누르듯 더욱 힘껏 눌러댔다. 그의 얼굴엔 정시하기 어려운 살기가 파랗게 떠오르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여 뒤 그는 동경에서 죽어 흰 유골로 돌아왔다. 몇 사람의 친구들이 유골과 얼굴 스케치를 놓고 장례를 치렀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83. 03. 05

No.	2-75	작성자	박수진
제목	월북 작가 이태준 작품 출간	키워드	해금(解禁), 1930년대 문학, 임화, 이용악, 1988년
이야기 자원	우리나라 30년대대수문학의 대표적 소설가이자 현진건 등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한국단편소설의 완성자로 손꼽히는 월북작가 이태준(1904년생)의 작품전집 제1권과 閔忠煥(민중환) 교수 (부천공업전문대)의 「이태준 연구」 등 두 권의 책이 깊은샘출판사에서 출간, 문공부에 납본됨으로써 이에 대한 정부의 태도, 즉 해금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태준은 강원 철원 태생으로 휘문고보를 다녔으며 25년 단편 「五夢女(오몽녀)」가 「조선문단」지에 추천, 문단에 나왔다. 호는 尙虛(상허). 등단이후 그는 李箱(이상) 李孝石(이효석) 등과 「九人會(구인회)」의 멤버로서 활발한 작품활동을 했으며 원래 사회주의와는 거리가 먼 인물이었다. 광복이전까지 그는 날카로운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식민치하 우리민족의 불우한 환경, 불우한 삶을 탁월한 문장과 소설적 기법으로 형상화했다. 해방이후 그가 좌익문화단체에 가입하고 이어 47년경 北(북)으로 간뒤 오늘날까지 그의 문학은 이땅에서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尙虛(상허)는 북에서조차 “부르주아반동사상의 잔재를 지닌 작가”“카프를 반대하는 「九人會(구인회)」를 조직, 일체의 앞잡이로 혁명사상을 반대했다”는 등의 혹독한 비판을 받은 후 숙청됐는데 아직도 생사불명이다. 尙虛(상허)의 작품집으로는 「달밤」(34년) 「가마귀」(37년) 「이태준단편집」(41년) 「돌다리」(43년) 「복덕방」(47년)등이 손꼽힌다. 그는 특히 작품마다 선명한 인간상을 포출하는 수완과 등장인물들의 평범한 생활 속에 독특한 유머와 페이스스를 부각시키는 점이 돋보인다. 그의 책 서문을 보면 문학을 대하는 그의 진지한 성품이 잘 드러나 있다. 첫 창작집 「달밤」에서 그는 “나의 조그만 경험에서는 아직 한번도 자기의 작품을 만족히 읽은 기억이 없다”면서 “자꾸 고치자! 나는 여간해서 만족할 수 있는 작품을 내놔보지 못할 것을 깨달았고 그대신 기회만 있으면 평생을 두고 고칠 것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가마귀」의 서문을 보면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내가 쓰고 싶은 때에, 내가 쓰고 싶은 투로 쓰는 것은 나의 생활에서 가장 즐겁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신성하기도 한 일”이라고 했다. 尙虛(상허)의 작품에 대해 故 李殷相(고 이은상)은 30년 대말 “그의 글은 진실로 달밤 같은 글이다. 달밤같이 향기롭다. 깨끗하다. 그의 명랑한 글은 읽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정화하는 힘을 가졌다. 이 높고 깨끗한 사상과 맑고 아름다운 감성을 가진이 작가의 작품은 반드시현문단의 자랑스러운 보배일 뿐 아니라 조선말, 조선땅, 조선사람과 긴 생명을 가질 줄 나는 확실히 믿는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나온 전집 제1권에는 「五夢女(오몽녀)」 「아무일도없소」 「코스모스 이야기」 「손거부」 등 주옥같은 단편29편이 실렸는데 잇따라 단중편집이 나올 계획이다. 이밖에 그는 장편희곡수필 등을 술하게 남겨 전집의 분량은 10여권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태준연구」는 尙虛(상허)의 생애에 대한 전기적 고찰, 작품의 소개와 고찰, 방언 연구, 작품발표 원문과 개작 내용 등을 상세히 대조한 역저이다. 민중환 교수는 “월북문인에 대한 사향을 금기시하고 덮어두고 있던 새에 어느덧 일본에서는 상당히 연구가 진척돼 있다. 첨단과학이 아닌 국문학연구까지....이러다가는 일본에 우리의 흔까지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결코 그럴 수만은 없다는 내부의 들끓음이 이 책을 쓰게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문학사의 공백을 메우는 이같은 작업은 尙虛(상허)뿐 아니라 역시 월북작가인 林和(임화) 李庸岳(이용악)(1914년생)의 시전집을 펴낼 예정이다. 「분수령」 등 4권의 시집과 미수록 작품 20편 등 모두 1백편의 시에 尹永川(윤영천) 인하대 교수의 해설을 곁들일 계획이다. 林和(임화)(1908년생)의 경우 풀빛사에서 작품전집(전5권)과 연구서를 준비하고 있다. 이 전집에서는 시와 평론들, 문학사에 관한 글이 수록된다. 「카프」의 지도자였던 그는 북에서 53년 군사재판을 받은 후 처형됐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88. 04. 14		

No.	2-76	작성자	박수진
제목	30년대 구인회 조용만 씨 소설 출간	키워드	조용만, 구인회, 소설집 출간
이야기 자원	지난 1931년 「비판」지에 단편 「사랑과 행랑」을 발표한 뒤 李箱(이상)등과 함께 구인회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편 원로작가 조용만 씨가 소설집 「젊은 예술가들의 초상」(창간)을 펴냈다. 수록된 16편의 단편 중 「서정가」와 「젊은 예술가들의 초상」을 제외하고는 해방 전에 쓰여진 것들이다. 이들 작품들은 해방 직후 「북경의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조판까지 들어갔다가 6.25로 원고가 불에 타 이제야 빛을 보게 된 것. 특히 표제작 「젊은 예술가의 초상」은 李箱(이상), 鄭芝溶(정지용), 李泰俊(이태준), 朴泰遠(박태원) 등 30년대 대표적 문인들을 실명으로 등장시켜 당시의 문단을 재현하고 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92.5.18		

No.	2-77	작성자	김보라, 박수진
제목	노시산방기	키워드	김용준, 김환기, 노시산방
이야기 자원	지금 내가 거하는 집을 노시산방이라 한 것은 삼사 년 전에 이군이 지어 준 이름이다. 마당 앞에 한 칠팔십 년은 묵은 성실은 늙은 감나무 이삼 주가 서 있는데, 늦은 봄이 되면 뽕죽 뽕죽 잎이 돋고, 여름이면 퍼렇다 못해 거의 시꺼멓게 온 집안에 그늘을 지워 주고 하는 것이, 이 집에 사는 주인, 나로 하여금 얼마나 마음을 위로하여 주는지, 지금에 와서는 마치 감나무가 주인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인이 감나무를 위해 사는 것쯤 된지라, 이군이 일러 노시사라 명명해 준 것을 별로 삭여 볼 여지도 없이 그대로 행세를 하고 만 것이다. 하기는 그후 시관과 같이 주안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던 끝에 시관의 말이, 노시산방이라기보다는 고시산방이라 함이 어떠하겠느냐 하여 잠깐 내 집 이름을 다시 한번 짚어 본 일도 있기는 하다. 푸른 이끼가 낀 늙은 감나무를 노시라 하기 보다는 고시라 함이, 창으로 보든지 글자가 주는 애착 성으로 보든지 더 낫지 않겠느냐는 것이요, 노시라 하면 어딘지 모르게 좀 속되어 보일 뿐 아니라, 젊은 사람이 어쩐지 늙은 체하는 인상을 주는 것 같아서 재미가 적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나는 역시 고 자를 붙이는 골동 취미보다는 노 자의 순수한 맛이 한결 내 호기심을 이끌었던 것이다. 원래 나는 노경이란 경지를 꼭 좋아한다. 기법상 술어로 쓰는 노련이란 말도 내가 항상 사랑해 온 말이거나, 철학자로 치면 누구보다도 노자를 좋아했고, 아호로서도 나이 많아지고 수법이 원숙해진 분들이 흔히 노 자를 붙여서, 가령 노석노인이라 한다든지, 자하노인이라 하는 것을 볼 때는, 진실로 무엇으로써도 비유하기 어려운 유장하고 함축 있는 맛을 느끼게 된다. 노인이 자칭 왈 노라 하는 데는 조금도 어색해 보이거나 과장해 보이는 법이 없고, 오히려 겸양하고 넉넉한 맛을 느끼게 하는 것 같다. 그러나 그렇다고 나는 노시산방을 무슨 노경을 사랑한다 하여 바로 나 자신이 노경에 든 행세를 하려 함이 아니요, 그저 텅없이 노 자가 좋고 또 노시가 있고 하므로 그렇게 이름을 붙인 데 불과함이고, 또 가다가는 호까지도 노시산인이라 해 본 적도 있었다. 한번은 초대면하게 된 어느 친구가 인사를 건넌 뒤 놀라면서 하는 말이, 자기는 나르 적어도 한 사오십은 넘은 사람으로 상상해 왔다는 것이다. 그는 내가 노시산인이라 호를 쓴 것을 본 때문은 아니요, 집 이름을 노시산방이라 한 것을 간혹 들은 것만으로 그 집 주인은 으레 늙수그레한 사람 이려니 하였다는 것이다. 그 말을 들을 때 처음에는 아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 보니 그렇게 생각됨직도 한 일이라 싶었다. 아무튼 나는 내 변변치 않은 이 모옥을 노시산방이라 불로 오는 만큼 뜰 앞에 선 몇 그루의 감 나무는 내 어느 친구보다도 더 사랑하는 나무들이다. 나는 지금으로부터 오 년 전에 이 집으로 이사를 왔다. 그때는 교통이 불편하여 문전에 구루마 한 채도 들어오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집 뒤에는 땡이랑 늑대랑 가끔 내려오곤 하는 것이어서 아내는 그런 무주 구천동 같은 데를 무얼 하자고 가느냐고 맹렬히 반대하는 것이었으나, 그럴 때마다 암말 말구 따라만 와 보우 하고 끌다시피 데리고 온 것인데, 기실은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 늙은 감나무 몇 그루를 사랑한 때문이었다. 무슨 화초 무슨 수목이 좋지 않은 것이 있으리요마는 유독 내가 감나무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놈의 모습이 아무런 조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고풍스러워 보이는 때문이다. 나무 껍질이 부드럽고 원초적인 것도 한 특징이요, 잎이 원활하고 점잖은 것도 한 특징이며, 꽃이 초롱같이 예쁜 것이며, 가지마다 좋은 열매가 맺는 것과, 단풍이 구수하게 드는 것과, 낙엽이 애상적으로 지는 것과, 여름에는 그들이 그에 덮을 나위 없고, 겨울에는 까막 까치로 하여금 시흥을 돋우게 하는 것이며, 그야말로 화조와 월석에 감나무가 끼어서 풍류를 돋우지 않는 곳이 없으니, 어느 편으로 보아도		

	고풍스러워 운치 있는 나무는 아마도 감나무가 제일일까 한다. 처음에는 오류선생의 본을 받아 양류를 많이 심어 볼까 하고도 생각한 적이 있었다. 너무 짙은 감나무 그들은 우울한 내 심사를 더 어둡게 할까 저어한 때문이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지나고 보니 요염한 버들가지보다는 차라리 어수룩한 감나무가 정이 두터워진다. 나는 또 노시산방에 이들 감나무와 함께 조화를 시켜야 할 여러 가지 나무와 화초를 심기에 한 동안은 게으르지 않았다. 우선 나무로서는 대추며 밤이며 추리며 벽오동 등과, 꽃으로는 목련, 불두, 정향, 모란, 월계, 옥잠, 산다, 황국, 철쭉 등을 두서없이 심어 놓고, 겨울에는 소위 온실이라 하여 한 평이나 겨우 툇락툇락한 면적을 사오 척 내려 파고 내 손으로 문을 째다 유리를 끼운다 해서 꿀꺽잘게 만들어 놓은데다가, 한두 분 매화와 난초를 넣고 수선을 기르고 하면서 날이 날수록 물을 주기에 세사의 어찌 됴을 모를 만한 지경이었다. 이렇게 하고 있노라니까 이 모양이니까 우리 산방의 살림을 누가 보면 재미가 나겠다고도 하고, 자기네도 한번 이렇게 살아 보았으면하며 부러워하는 인사도 있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의 성질로써 그런 생활이 오래 계속될 리는 만무한 것이었다. 나는 한두 해를 지나는 동안 어느 여가엔지 뜰을 내려다보는 습관이 차츰 줄어들고, 필시에는 본바탕의 악성, 태만이 발동하기 시작했다. 그 좋아하던 감나무도 심상해지고, 화초에 풀이 자욱해도 못 본 체하고, 어떤 놈은 물을 얻어먹지 못하여 마르다 못해 배배 꼬이다가 급기야는 굶아 죽는 놈들이 비일비재였건만 그래도 나는 태연해졌다. 대체로 화초란 물건은 이상한 것이어서, 날마다 정신을 써가면서 들여다볼 적에는 별로 물을 부지런히 주는 법이 없더라도 의기가 충천할 것처럼 무럭무럭 자라나는 놈이, 아무리 비옥한 토질과 규칙적으로 물을 얻어먹는 환경에 있으면서도 주인에게 별써 사랑하는 마음이 끊어지고, 되면 되고 말면 말라는 주의로 나가는 데는 제아무리한 독종이라도 배배 꼬이지 않는 놈을 별로 보지 못했다. 화초일망정 아마도 정이 서로 통하지 않는 소이일까. 나의 게으름은 이렇듯이 하여 금년 들어서부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시피 했다. 그것은 어느 때고 한번은 오고야 말 운명이라고 예감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참고문헌	김용준, 『근원수필』

No.	2-78	작성자	김보라
제목	동일(冬日)에 제하여	키워드	김용준, 성북동
이야기 자원	파초도 온실에 숨고 나뭇잎 모조리 떨어진 뒤, 온돌방 윗머리 나의 가난한 문갑 위에는 수선 봉 오리 <u>바야흐로</u> 피어오르고, 창 밖에는 날이 날시금 삭풍이 요란스레 불어와도 우리집 늙은 감나무에는 한두 개 물은 홍시란 놈이 까치의 식욕을 자아낸다. 앙상한 나무들과 까치 집과 싸리 울타리와 괴석과 흰 눈과 그리고 따스한 햇볕. 이것들이 노시사의 겨울을 장식해주는 내 유일한 벗들이다.		
참고문헌	김용준, 『근원수필』		

No.	2-79	작성자	김보라, 박수진
제목	육장후기	키워드	김환기, 김용준, 노시산방, 성북동
이야기 자원	좋은 친구 수화에게 노시산방을 맡긴 나는 그에게 화초들을 잘 가꾸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의정부에 새로 마련한 삼간두옥에 두 다리를 쭉 뻗고 누웠다. 한 채 있던 집마저 팔아먹고 이렇다는 직업도 없이 훨훨 날 것처럼 자유스러운 마음으로 천석고 황이 되어서 자고 먹고 하다 보니 기껏해야 고인의 글이나 뒤적거리는 것이 나의 일과일 수밖에 없었다. 하루는 늦게 일어나서 소위 측상음을 하고 있는데 우연히 이러한 시를 발견하고 그 시의 작자인 송씨라는 이의 심경이 나와 꼭 같은데 놀랐다. <i>집을 팔고서 어쩔거나 근래 들어 뼈를 예는 가난으로 내 살던 집 이젠 벌써 이웃에게 넘어갔네. 다정하게 뜰에 선 버들에게 묻노니 앞으로 날 만나면 행인처럼 보려는가!</i> 송씨는 어느 때 사람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도 나타나 있지 않았다. 단 녀 줄의 시에서 그가 점점 가세가 기울어져가는 사람이란 것, 이웃 사람에게 가난에 쪼들려 집을 팔아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가 살던 집에는 그가 몹시 사랑하던 버드나무가 정원에 서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는 자기의 몸을 담고 살던 집을 무엇보다도 사랑한 듯, 버드나무를 보고 후일 이 집 앞을 지날 때면 너도 나를 남인 척하겠구나 하고 오열에 가까운 탄식을 한 흔적이 한 토막 절구를 통하여 역력히 드러난다. 집을 샀던 사람도 이 시를 보고서는 감격함을 못 이기어 그 집을 도로 송씨에게 주었을 뿐 아니라 송씨의 부채까지도 물어 주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 시에 숨어 있다. 하루는 자주 놀러 오던 대산을 만나 이런 이야기를 하였더니 그 다음에 대산이 시 한수를 지어 보냈다. <i>빛쟁이가 들볶아서 온 집안이 걱정이니 집과 과수 몽땅 팔아 갚을 길밖에 없네. 감나무는 가을 되면 붉은 열매 열릴 텐데 이제부터 남에게나 따 가라고 하겠구나.</i> <i>측백나무 뻗뻗하게 시내 끼고 서 있으니 이곳에는 그 옛적에 대원군이 살았었지. 백년도 채 안 돼서 만점 변화 일어나니 정자 앞 바위에는 소와 양이 묶여 있네.</i> <i>저 먼 시절 안견 공을 아직도 뒤따르고 단원·오원 그뒤에서 찬란하게 꽃피웠지.</i>		

그대가 아니라면 누가 유업을 잇겠는가.
한 해 내내 고생해도 신세자탄 하지 마소.

그림이나 글씨는 본래부터 한 근원
소원하게 보는 자들 진정코 우습구나.
<세한도>에 담긴 이치 터득하고 난다면
천고의 붓끝 비밀 은연중 만나겠지.

밤낮으로 가고 오며 많이도 함께 다녀
대머리는 염소수염과 꺾도 잘 어울리네.
길거리의 멋쟁이들 깔깔대며 묻는구나.
“염소수염이 바보 대머리보다 낫나요?”

대산은 그 나이에 맞지 않게 머리가 벗겨져서 공연히 늙어 보이고, 나는 염소처럼 턱 아래위에 꼬부라드는 수염을 기르고 다녀서 역시 나이에 맞지 않게 늙어 보였다.

창동서 다니던 대산과 의정부에서 다니던 나는 매일같이 차중에서 만나고, 만나서는 일경의 눈을 슬슬 피해 가면서 학문이며 예술에 관한 이야기의 꽃이 피었다.

그 초라한 행색을 한 독두공과 고수공이 한데 어울려 다닐 적에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웃었을까?

평생 한시라고는 짓는 체하지도 않던 대산이, 일인의 세상에서는 산송장 노릇을 하던 대산이, 이러한 유유한 시를 지은 데는 그의 심경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으니, 그 당시 모든 것에 희망을 잃고 생사의 관두에서 방황하던 대산인지라 그의 친구인 나를 두고 지은 이 시에도 역시 맥맥이 흐르는 그의 비애가 숨어 있음을 느끼게 된다.

나는 대산의 증시에 수화할 의무를 느꼈으나 불행히도 한시라고는 자고저도 모르는 몰자비라 후일 기회를 보아 그림으로 대신 응수하기로 하고 말았다.

일본이 패망하는 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독립이 곧 올 것이요, 우리가 떳떳한 독립 국민이 되는 날은 내 평생에 쌓인 심회를 탁 풀어놓고 마음대로 그림도 그려 보려니 하였다.

그때는 대산의 시도 그림으로 재현될 날이 오리라 하였다.

그러나 기회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해방’이란 간판을 갈아 건 지도 어언 삼 년이 넘었건만 우리들의 울분은 그대로 사라질 날이 없다.

대산의 언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도 적이 미안한데, 더구나 전망증 많은 내가 그의 시조차 잊어버릴까 저어하여 이에 내 잡문 중에 초록해 두려는 것이다.

지금 회상하면 허망타 할까 어이없다 할까, 한참 북새통을 치른 다음 소위 ‘해방’이라는 시기가 오자 나는 다시 새로운 감격과 희망을 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다.

서울로 올라온 뒤로 한번은 노시산방의 새 주인 수화를 만났더니 그의 말이 ‘노시산방을 사만 원에 팔라는 작자가 생기고 보니’ 나에게 대해 ‘대단히 미안한 생각이 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후로 수화는 가끔 나에게 돈도 쓰라고 집어 주고 그가 사랑하는 좋은 골동품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후로 수화는 가끔 나에게 돈도 쓰라고 집어 주고 그가 사랑하는 좋은 골동품도 갖다 주고 하는 것이다.

그럴 때마다 나는 옛날 시인 송씨의 집을 산 사람을 연상하게 되고, 옛날 세상에만 그러한 사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 각박한 세상에도 역시 그와 같은 사람은 있구나 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오늘에도 가장 큰 보물을 얻은 것처럼 마음이 든든함을 느낀다.

	인생이란 세상에 태어날 때 털을 하나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도 털을 하나 가지고 갈 수는 없다. 물욕의 허망함이 이러하다. 많은 친구를 사귀어 보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경영해 보았으나 의리나 우정이나 사교란 것이 어느 것 하나 이욕의 앞에서 배신을 당해 보지 않은 것이 없다. 순수하다는 것을 정신의 결합에서밖에는 찾을 길이 없다. 이 정신의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종교의 세계와 예술의 세계에서뿐이다. 수화는 예술에 사는 사람이다. 예술에서 산다는 간판을 건 사람이 아니요, 예술을 먹고 예술을 입고 예술 속으로 뚫고 들어가는 사람이다. 노시산방이 지금쯤은 백만 원의 값이 갈는지도 모른다. 천만 원, 억만 원의 값이 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노시산방은 한 덩어리 환영에 불과하다. 노시산방이란 한 덩어리 환영을 인연삼아 까부라져 가는 예술심이 살아나고 거기에서 현대가 가질 수 없는 한 사람의 예술가를 얻었다는 것이 무엇보다 기쁜 일이다.
참고문헌	김용준, 『근원수필』

No.	2-80	작성자	김보라
제목	김환기와의 결혼	키워드	김환기, 김향안, 수향산방
이야기 자원	김환기는 반생을 살고 30에 인생과 예술을 재출발하려고 고민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금고에는 조각인들의 빚문서 뿐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김환기는 조각인들에게 빚문서를 모조리 돌려줘버리고 지장이라는 유산에서 스스로를 해방시켰다. “나는 유산 같은 건 싫다. 내 힘으로 내가 벌어서 살지.” “하나?” “둘?” “셋이야?” “열이면 어때? 데려다 교육시키면 되지.” 그러나 나의 친정에서는 어머니 이미 안 계셨지만, 나의 언니는 펄펄 뛰면서 반대했다. 전실 소생 있는 데는 개가하는 게 아니라고. 나는 오히려 반감이 갔고 경멸이 갔다. 제가 낳아야만 자식인가. 애들은 교육시키면 된다고 믿었다. 1944년 5월 1일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교회동 선생 주례로 정지용, 길진섭의 사회로. 성북동 274-1. 근원 선생이 손수 지으신 노시산방을 물려받아 보금자리를 꾸미다. 섬에 내려가서 가족을 데려오다. 홀어머니와 아이들을. 1945년 B29가 성북 산협에 번쩍이던 날, 수화는 캔버스를 뜯어서 룯색을 만들었다. 우리도 소개 가자면서. 이웃이 거의 소개가고 몇 집 안 남았는데. 그런데 곧 소위 해방이 왔다. 숨가빴던 8·15의 흥분. 아직도 혜화동 고개에는 무장한 일군 잔병이 잠복해 있는, 산협에서 걸어서 종로에 나오다. 여기저기 다방에 들러서 친구들을 만나다.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세계 정세는 어떻게 되어가는 건가? 미·소는? 삼팔선은? 군정 - 이데올로기의 대립, 점차로 치열해지는 싸움. 여기저기서 테러가 발생하다. 미술계는 처음으로 서울대학에 미술학부를 창설하다. 장발씨, 근원 선생, 김환기 등등이 - 그때만 해도 성북동은 맑은 개울이 흐르는 산협. 드문드문 인가 있는 별장지대였다. 아침에 파삭파삭한 모시옷을 입고 나갔다가 저녁에 계곡을 걸어 들어오려면 그냥 옷이 후줄근 젖어버렸다. 집안에 들어 앉으면 깊은 산중에 묻힌듯 적요했다. 수화는 직장(서울 미대)이 과해서 곧장 귀가하는 일이 드물고 친구와 어울리면 시내에 들어가서 술 마시고 회담하고 자정이 가까워야 집에 돌아왔다. 나는 하루종일 집안일하고 가족들과 저녁이 끝나면 내 방에 들어와서 수화가 오기까지의 흐뭇한 내 시간을 즐겼다. 책도 읽고 글도 쓰고. 수화는 버릇이 요리집에서 요리와 술을 마시고도 집에 와서 꼭 저녁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밖에서 지낸 하루종일의 보고를 상세하게 한다. 수화는 참 얘기하기를 좋아했다. 하루종일 밖에서 떠돌고 와서 또 떠든다. 음성이 한 옥타브가 높아서 나타나면 유난히 시끄러웠다. 그 시끄럽던 목소리가 푹 그쳐버리니까 이렇게 조용하다.		
참고문헌			

No.	2-81	작성자	김보라
제목	산방기	키워드	김환기, 성북동, 산방, 불편
이야기 자원	집을 구하는 친구에게 나는 성북동으로 오기를 권한다. 그러면 대개는 성북동은 안 좋아하는 모양이다. 심한 친구는 성북동은 못 살 곳으로만 안다. 교통이 불편한 것을 첫째 흠으로 잡는다. 실은 성북동이 좋다는 것은 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다. 명동이나 종로 북판에 비하면 물론 살 만한 곳은 아니다. 교통이 불편한 성북동에 나와 보는 친구는 한디는 소리마다 "지프나 한 대 있으면 살기 좋겠다" 한다. 나도 실은 은근히 지프 한 대가 욕심나는 것이다. 차가 있고 전화가 있고, 이것은 생활의 사치는 아닐 것이다. 제트기가 나는 현대 생활에는 자동차라든가 전화 같은 것은 응당 생활필수품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들은 아직도 장작으로 불을 때고 밥을 짓고 솥을 쓰는 원시적인 생활을 한다. 인류 태초의 소박한 생활형식을 그대로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부산 광주도 비행기로 가야 되고 더구나 외국여행이란 으레 공로다. 내가 전차 머리에까지 걸어 나가는 동안 지프는 의정부에서 달려 나와 종로 북판을 통과하고, 내가 전차를 타고 명동 다방에 들어서면 수원서 지프를 타로 달린 친구가 이내 뒤따라 들어선다. 명동을 왔다갔다하다가 대포나 하는 동안 노랜드 의원은 우리 대통령을 만나 보고 여러 차례 파티까지 하고, 그리고 워싱턴 의석에 까딱없이 앉아 있다. 시간과 공간이 완전히 뱅뱅 도는 세상이다. 헌데 불편한 성북동으로 왜 오라는 것인가. 그 이유는 간단하다. 전차 머리에까지 도보로 20분, 그렇게 멀지 않다는것, 성북동은 수돗물이 아니라 우물물을 먹는다는 것, 그리고 꽃이 피고 숲이 있고 단풍이 들고 새가 운다. 달도 산협의 달은 월광이 다르다.		
참고문헌	『현대공론』, 1953. 10.		

No.	2-82	작성자	김보라
제목	남풍	키워드	김환기의 시
이야기 자원	하이얀 옷고름 적시면 단번에 죽물이 들리리다. 탐스런 백양모에 담복 적셔보세요. 뽀얀 취수지에 한번 갈겨봄직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맑고 깊은 바다인지 그 바다 위에 나비같이 날으는 듯 그들에 나상 하나 남풍을 안 놓치려 고개를 하늘 끝에 들었소. 높은 하늘에 나직한 구름송이 남풍은 이대로 계속하리라.		
참고문헌	김환기 에세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문예마당, 1995.		

No.	2-83	작성자	김보라
제목	편편상(片片像) - 김환기의 수필	키워드	김환기의 1950년대, 화론(畫論)
이야기 자원	1. 미술평론가 끈랑 옹은 내 그림을 자기 같은 살결이라 했고, 내 아틀리에의 학생 윤 군은 내 선을 도자기의 선이라고 했다. 본 바닥 전문가의 평은 그저 그랬지만 윤 군의 감쪽한 감각에는 찔끔했다. 사실, 나는 단원이나 혜원에게서 배운 것이 없다. 나는 조형과 미와 민족을 우리 도자기에서 배웠다. 지금도 내 교과서는 바로 우리 도자기일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는 그것이 여인이든 산이든 달이든 새든 간에 그것들은 모두가 도자기에서 오는 것들이요, 빗갈 또한 그러하다. 저 푸른 그릇을 보라. 저 흰 그릇을 보라. 저 둥근 항아리를 보라. 날씬하게 서 있는 저 제기의 굽을 보라. 저 술병의 모가지를 보고, 깎아 내린 그 칼 맛을 보라. 찌들고 썩은 이 찻종의 호홉과 채운을 못 보는가? 2. 피카소는 발견이란 말을 많이 쓴다. 그 다음엔 파괴란 말을 또한 많이 쓴다. 발견하고 표현하며 그 다음엔 파괴해 버린다. 피카소의 창작은 파괴인 것이다. 그래서, 자꾸 전진해 가고 있는, 자꾸 전진해 가기 때문에 여든 살 된 노인이 아직도 젊은 세대의 앞장을 서 있는 거다. 여러 예술 분야에 있어 미술이 가장 전위에 나가고 있는 것도 피카소의 위력이요, 많은 미술가들이 안심하고 난해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도 피카소의 혜택이다. 피카소는 늘 앞장을 서서 미술을 보는 법을 세계 시민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젊은 미술가들은 자유로이 제작만 하면 되는 것이다. 여행중에 어느 주보를 들여다보니, 거기 노 피카소가 벌거숭이로 춤을 추고 있는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 그날의 일을 명랑하게 하기 위해서 아침이면 으레 한바탕 춤을 춘다는 것이었다. 르노아르는 장미를 피우게 하고, 조롱의 새를 울리며 분홍 그림을 그렸다. 피카소도 젊은 프랑소아즈와 지중해에 살며 로제의 목신을 그렸다. 춤추는 피카소의 사진은 아직도 인상에 있지만, 미소 없이 볼 수 없는 피카소의 춤에는 어딘지 투우와 같은, 딱 피카소 자신의 그림 속에 나오는 소와 같은 그런 피카소였다. 피카소의 소는 바로 피카소의 자화상인 것이다. 매일 아침 제작에 들어가기 전에 춤을 추는 피카소와, 정신없이 싸우는 피카소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 3. 이런 것도 예술과 싸우는 것일까? 1951년 부산에서 살 때다. 생철지붕 밑, 그것도 허리를 펼 수 없는 다락 속이었다. 이 다락 속에서 한여름 한겨울을 냈었고, 나는 이 다락 속에서 줄곧 일을 했었다. 삼복, 이 다락 속은 숨이 콕콕 막혔다. 한번은 복중에 일을 하다 말고 내 정신상태를 의심해 보았다. 미쳤다면 몰라도 그 폭양이 직사하는 생철지붕 바로 밑에서, 그것도 허리마저 펼 수 없는 그런 다락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슨 급한 부탁도 아니요, 들고 나가 한 뒷박 짚이나 소주 한 병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다. 그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러 일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달콤한 문학적인 것으로만 여겨왔던 예술과 싸운다는 말을 이 다락 속에서 다시 생각해 보았다.		

파리에서 고생살이할 적이다. 아침 9시에서 자정이 넘도록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심경으로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어왔다. 앞이 캄캄해서 지척이 안 보이는 절벽에 서서 붓을 드는 심경—이것은 몸소 체험하지 않고는 모를 일이다.

알프레드 마네시에는 내 그림 앞에서 "싸우라, 싸우라, 우리들은 이렇게 싸울 수밖에 없다"고 몇 번이고 되풀이해 주었다.

4.

미술가는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 내기 전에 아름다운 것을 알아 내야 한다. 아름다운 것에 무감각한 미술가가 있을까.

미술가는 눈으로 산다. 우리들은 눈을 가졌으되, 만물을 정확히 보고 있는 것일까?

옥석을 분별 못한다는 말이 있다. 돌 틈에서 옥을 발견해 낸다는 것은 하나의 창조의 일이다.

모딜리아니나 피카소가 아프리카 조각을 발견했고, 저 농가의 부엌에 쌓여 있던 우리 뚝배기를 찻그릇으로 발견해낸 일인들의 감각은 틀림없이 모두가 창조의 일이다.

로당이 "자연을 잘 보라, 거듭거듭 자연을 잘 보라"고 되풀이했던 그 말은 자연 속에서 구체적이고 불가사의한 미를 발견해 내라는 말이 아닐까?

나폴레옹이 이집트에서 그 어마어마한 돌기둥(돌기둥이라해서 실감이 안 난다. 저 중앙청 돔만치나 높을까), 그렇게 길고 육중한 돌덩어리를, 저 오벨리스크를 파리까지 끌어왔다. 그리고, 루브르한 층을 이집트 것으로 꼭 채웠다. 이것들이 전쟁으로 인한 약탈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좋은 것을 알아 내는 그 안목과 정신인 것이다.

5.

금히지도 않고 금 하나 없는 쪽 빠진 우리 자기를 본다는 것은 희한한 일이다. 그러나 산산이 부서진 우리 자기의 파편을 본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로되, 왜사기나 양사기 따위의 완전한 것을 보는 것과는 그 감흥이 자못 다르다. 좋으면 좋은 것일수록 파편이 빛을 발한다.

산산이 부서진 루오의 그림을 생각해 본다. 그 어느 조각을 들고 보아도 보석처럼 찬란히 빛날 것만 같다.

마티에르란 진실로 이러한 것이 아닐까?

6.

한번은 세느 화랑가를 거닐다가 어느 화랑 진열장에서 아름다운 루오를 발견했다. 크기가 명함만한 종이에 그린 과슈(포스터 칼라 비슷한 재료)의 얼굴이었다. 들여다보고 있으니 욕심이 났다. 1935년 작이었다. 저 정도면 얼마나 할까? 아무리 비싸대도 저렇게 작은 소품이라면 내 경제력 가지고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곁에서 같이 들여다보고 있던 아내와 의논을 했다. 2백 불, 3백 불, 5백 불까지 올라가서, 5백 불까지도 사자고 합의되었다. 우리들은 은밀히 웃고 나서 씩씩하게 화랑에 들어섰다. 다짜고짜로 저 루오가 얼마냐고 물었다. 나도 그럴 수밖에. 그러나 나는 그 루오를 사야만 했다. 5백 불 예산에 배가 뛰었지만 그 그림에 비하면 그까짓 천 불, 싼 돈이었다. 나는 사자 하고, 아내는 생각해 보자 하고, 우리들은 한참 승강이를 하다가, 결국은 맨손으로 그 화랑을 나왔다.

그 후 우리들은 차를 마실 때나 식사를 할 때나, 잠자리에 들어가서도 그 명함짝만한 루오의 얼굴 얘기였다.

그럼, 앞으로 굶는 한이 있더라도 그 루오를 사버리자고 우리들은 완전 합의를 보고 나서, 그대로 앞서거니뒤서거니 세느가로 걸어나갔다.

그런데 웬걸, 그 화랑 그 진열장의 그 그림이 없어졌다. 선뜻한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 진열이란 수시로 바꾸기 마련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며 그 루오를 찾았다.

루오는 팔렸다고 했다.

꼭 내 소유물을 날려 보낸 것만 같아서 아내가 원망스럽기 짝이 없었다.

이젠 루오도 영영 가고, 꼭 내 벽에 걸려 있을 그 루오의 피에르가 어느 수장가의 깊은 벽에 걸려 있을까?

7.

1957년 9월초에 남불 니스에서 개인전을 했을 때다. 니스 방송국에서 전화가 오고 잇달아 국원이 왔었다. 이제 곧 가서 12시 방송을 해 달란 것이었다. 한국 미술가로서 무엇이든 10분 동안만 얘기해 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방송해 본 경험도 없고, 또 아무런 준비도 없을 뿐더러 말도 할 줄 몰랐기에 사절을 했으나, 결국은 마담 환기가 통역을 하기로 하고, 우리들은 얼떨떨한 기분으로 차에 올랐다.

방송국에 당도하니, 곧 귀빈실로 안내되었다. 마실 것이 들어온 다음, 우리보고 한 5분 간 방송내용을 생각해 보라 하고는, 국원들은 우리 둘만을 두고 나가 버렸다.

우리 방송시간은 12시 반인데, 10분 정도의 여유밖에는 없을 것 같다.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생각도 안날 뿐더러, 난생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설 것이 겁이 났다. 그때 우리 방엔 정오의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고, 저 음악이 끝나면 우리 차렷 것 같았다. 불안해 하는 나를 보고 아내가 하는 말이 "수화야 뭐 걱정이요, 우리 말을 누가 알아듣길래. 내가 야단났어." 하긴 그럴 것 같았다. 방에 들어서니 높고 얇은 여러 가지 모양의 마이크가 띄엄띄엄 서 있고, 방의 벽이 모두가 유리로 되어 있어, 옆방에서 작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보였고, 녹음기 같은 것들을 들고 있는 것도 그대로 보였다.

중년의 여성 아나운서가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보고 얘기를 해보란 것이었다. 이것은 목소리의 연습인 것 같은데, 우리의 목소리를 기계로 적당히 조절하는 모양이었다.

나는 다소 용기가 났다. 용기가 났다는 것보다도 한번 우리 말을 근사하게 하고 싶었다. 그러자 우리 방에 땡 하는 종소리가 났다. 아나운서는 우리를 니스 시민들에게 소개한다. 소개가 끝나자, 나도 나지막하고 굵은 목소리로 니스 시민들에게 인사를 했고, 우리 소개도 했다. 그 다음 무슨 내용의 말을 지켰었는지 나도 잘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하늘은 지독히 푸릅니다. 하늘뿐이 아니라, 동해바다 또한 푸르고 맑아서, 흰 수건을 적시면 푸른 물이 들 것 같은 그런 바다입니다. 나도 이번 니스에 와서 지중해를 보고 어제는 배도 타봤습니다만, 우리 동해바다처럼 그렇게 푸르고 맑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순결을 좋아합니다. 깨끗하고 단순한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기에 백의민족이라 부르도록 흰옷을 사랑하고 흰옷을 많이 입습니다. 푸른 하늘, 푸른 바다에 사는 우리들은 푸른 자기 청자를 만들었고, 간결을 사랑하고, 흰옷을 입는 우리들은 흰 자기, 저 아름다운 백자를 만들었습니다……."

대개 이러한 문학조로 우리의 자연을 소개했던 것 같다.

—우리가 부야베스(생선국)를 대접받고 바닷가에 나갔더니, 벌거숭이 선남선녀들에게 인사받기에 바빴다. 이 사람들은 우리 방송을 들었던 것이다. 이 방송을 듣고 내 회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 당신의 나랏말 참 아름답다는 것이다.

니스에서의 개인전은 나에겐 아름다운 추억의 하나이기도 하지만 이른 아침 지중해를 거닐다가 금시에 눈앞에서 찌주는 그 향기 높은 포도주를 마시던 그 싱싱한 인상은 잊혀지지 않는다.

8.

나는 동양 사람이요, 한국 사람이다. 내가 아무리 비약하고 변모하더라도 내 이상의 것을 할 수가 없다. 내 그림은 동양 사람의 그림이요, 철두철미 한국 사람의 그림일 수밖에 없다.

세계적이라면 가장 민족적이어야 하지 않을까? 예술이란 강렬한 민족의 노래인 것 같다.

나는 우리나라를 떠나 봄으로써 더 많은 우리 나라를 알았고, 그것을 표현했으며 또 생각했다.

파리라는 국제경기장에 나서니, 우리 하늘이 더욱 역력히 보였고, 우리의 노래가 강력히 들려왔다. 우리들은 우리의 것을 들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 우리 것이 아닌 그것은 틀림없이 모방 아니면 복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9.

내가 생각하기엔 서구 사람들은 두뇌가 입체적이지요, 동양 사람들은 두뇌가 평면적이 아닌가 싶다. 이 입체와 평면의 비교는 어디서 오는 것일까? 나는 이것을 간단히 생각한다. 고기를 많이 먹고 안 먹고 하는 차이의 현상이 아닐까?

	저 사람들의 주식은 고기요, 우리들의 주식은 소채가 아닌가? 저 동물들을 보라. 육식의 동물을 보고, 초식의 동물을 보라. 피를 먹는 동물은 영리하고 투지가 강하며, 초식하는 동물을 그렇지 못하다. 평화 애호자라고나 할까. 우리들의 사고는 정력적인 데서 나오며, '일'이란 어디까지나 정력적인 것이다. 무기력에서는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다. 정력적으로 우리가 끈기 있게 일을 하고, 또 생각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주식물이 고기여야 한다. 그러기 때문에 국가와 민족은, 우리 인민은 좋은 정치를 바라는 것이다. 10. 어제는 뜻밖에도 마담 루니아의 편지가 날아왔다. 화랑을 걸어치우고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로 떠난다는 것이다. 이제 파리를 떠나는 자기의 생활은 무척 고독해질 거라 했다. 우리가 떠날 때, 루니아는 우리를 포옹해 주었고 눈물을 쏟았다. 마담 루니아는 금년 들어 칠순이 아닌가 한다. 옛날 그의 청춘 시절에는 모딜리아니의 열렬한 애인이었다. 열일곱에 파리에 나와서, 파리에서 늙은 폴란드 부인이다. 조국을 가졌으되 조국이 없는 그런 루니아였다. 마담 루니아는 세느 가에서 조그만 화랑을 경영했고, 전쟁에 남편을 여윈 후 홀로 조용한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다. 우연한 기회에 우리는 루니아를 알게 되었고, 루니아의 화랑에서 나는 두 번이나 개인전을 했으며, 수시로 내 그림을 진열해 주기도 했다. 마담 루니아는 우리를 아들딸처럼 사랑해 주었고, 우리도 어머님처럼 여겨 왔었다. 루니아는 항상 명랑한 분이였다. 소녀가 그대로 나이 먹은 것 같은 그런 루니아였다. 한번은 같이서 남불을 여행했을 때 길을 가며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었다. 루니아의 춤은 소녀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를 끌고 뒷골목을 안내하며 토속요리를 잘도 찾아냈었다. 루니아는 크리스마스 카드를 모딜리아니가 그린 자기 초상화의 그림엽서로 썼다. 모딜리아니의 초상화에 루니아의 얼굴이 많이 있지마는, <부채 든 여인> <루니아의 초상> 등은 특히 모딜리아니의 걸작 중에 드는 작품들이다. 루니아의 침실에는 레제가 두 폭 걸려 있다. 레제와는 막역한 사이였다. 레제가 작고한 후, 남불에 레제의 미술관이 세워졌다. 마담 레제의 초청으로 루니아는 레제미술관에 가서, 마담 레제와 같이 일을 하게 되었으나, 두 달이 채 못 돼서 파리로 돌아왔었다. 고독해서 시골에서는 못 살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던 루니아가 이제 파리를 떠나서 몬테비데오로 떠난다는 소식이다. 찾아보니 몬테비데오는 남미 우루과이 항구이다. 나는 몬테비데오를 모르거니와, 필시 더운 지방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노래에 이주가 가능할 것일까? 걱정이 된다. 참 언젠가 이러한 지방에 동생 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으나, 아무래도 파리를 떠나는 루니아가 서럽게만 생각된다. 조국이 있으되 조국이 없는 루니아, 우리에게 눈물을 쏟은 루니아가 무한히 그리워진다.
참고문헌	1961. 9 (김환기 에세이,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 문예마당, 1995)

No.	2-84	작성자	김보라
제목	근원의 글을 읽다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1)
이야기 자원	해방되기 세 해 전인 1942년 가을, 신문에서 근원 김용준 선생의 글을 봤어요. 나로서는 그게 선생을 처음 대한 겁니다. 『매일신보』에 심산 노수현 선생에 대해 쓴 「심산의 산수화」라는 글이었는데, 글 내용이 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가는 시기였는데 남다르게 많은 독서를 했어요. 보기 드문 장서를 가지고 있는 집에서 자랐는데, 그 책들 대부분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옛 고전들이었지요. 그런 환경에서 늘 책을 보았고, 동양미술에 관계되는 고전서적도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고문에 저절로 눈이 뜨였죠. 또 대대로 내려오는 글씨와 그림들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고서화에 관심을 갖게 됐지요. 그 근원 선생의 글을 읽는데, 거기에 산수화를 그리는 방법과 관련된 여러 고전 미술용어들이 언급되더군요. 장산척수 촌마두인—한 발 되는 산을 그리면 그 밑의 나무는 한 자 정도라야 비례가 맞고, 말이 일 촌 정도의 크기면 그 말에 걸터앉은 사람은 콩알 정도의 크기라야 전체 그림의 비례가 맞다—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중국 고대 작가인 곽희의 산수화론도 인용이 되고 말이죠. 그래서 읽고 또 읽었어요. ‘김용준 선생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죠. 내가 책에서 봤던 말들이 나오니까 반갑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분을 한번 만나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나라 형편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근원 선생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게 됐지요.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던 중에 해방을 맞았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85	작성자	김보라
제목	첫 만남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2)
이야기 자원	해방이 되고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민족대표 삼십삼 인 중의 한 분이셨던 김선주 목사님이 일생 동안 독립운동을 하셨던 내 선고하고 아주 깊은 관계가 있던 터라, 그분의 자제인 화가 김진섭 선생을 찾아 뵙고 그림을 그려 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렇게 인연이 닿아 김진섭 선생에게 석고 데생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선생께서, 내가 ‘서양화보다도 동양화를 많이 보고 자랐고 그쪽 방면에 대한 이해가 더 많으니, 동양화를 해 보는 게 어떻겠냐’ 하시더군요. 좋은 선생님을 한 분 소개할 테니 만나 보라면서요. 얼마 후 김진섭 선생이 나를 종로 화신백화점 부근의 한 음식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잠시 기다리니 키가 훗칠하고 체구는 깡마르고 얼굴이 가름한 분이 들어오시더군요. 근원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아주 무뚝뚝한 거예요. 화난 사람 같기도 하고, 어찌 보면 걱정이 많은 사람 같기도 하고…. 그런 표정이 첫 인상으로 남아 있어요. 그때의 근원 선생은 눈이 조금 들어간 편이고, 얼굴이 좁고 길쭉했어요. 이마가 좀 벗겨졌고, 면도를 안 해서 수염이 거무잡잡했고요. 입술은 조금 두꺼운 편이었고, 코가 길었죠. 머리는 기름을 발라 넘기셨더라고요. 그리고 경상도 분이셨는데, 사투리는 안 쓰고 듣기 좋은 서울 말을 쓰시더군요. 김진섭 선생이 날 소개시키고는, 이 사람이 그림에 관심이 있는데 그림을 가르쳐 주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냐?’는 얘기도 없고 ‘그렇게 해보자’는 말도 없고, 그냥 무뚝뚝하니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거기서 그렇게 한 시간이 넘도록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한번도 웃는 걸 못 봤어요. 나는 ‘참 특이한 분이로구나’ 생각했죠. 그게 근원 선생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86	작성자	김보라
제목	두 번째 만남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3)
이야기 자원	그러던 어느날 신문을 보니, 한국 미술가들이 덕수궁에 모여서 미술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대회를 했다는 기사가 났더군요. 그리고는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이 발표되고, 경성제대가 국립서울대학교로 바뀌면서 그 안에 예술대학을 만들고 미술학부와 음악학부를 두기로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나도 이 학교에 들어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미술학부에 시험을 쳤습니다. 구두시험을 보러 갔더니, 거기 김용준 선생이 앉아 있는 게 아니겠어요. 나중에 알고보니 근원 선생이 미술학부의 교무 담당 교수이셨던 겁니다. 예전에 만났을 때처럼 뭔가 불만스럽고 화가 난 표정, 어두운 표정, 무뚝뚝한 표정으로 질문을 하시더군요. “지금 미술가들 중에서 어떤 화가를 알고 있는가?” “몇 분 있습니다만...” “서양화 말고 동양화 하는 화가들 중에서 아는 사람이 있는가?” 그때 얼핏 내 형님에게 들었던 게 생각이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당 김은호 선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대단히 불쾌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시더군요. 나중에 알았는데 근원 선생이 이당 선생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이당 선생은 친일을 했고, 일본화풍의 그림을 그리고, 그 제자라는 이들도 모두 일본식 그림만 그렸기 때문이죠. “이래서 되겠냐, 우리 그림을 말살하는 일본 화단, 총독부 정책에 의한 침략미술전(조선미술전람회)에 왜 그림을 내냐, 지조도 없어.”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분이셨거든요.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게 근원 선생과의 두 번째 만남이었습시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87	작성자	김보라
제목	서울대 미술학부 창립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4)
이야기 자원	장발 선생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보성고보 출신으로 일본 동경미술학교와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서양화를 공부한 분이었죠. 귀국해서 잠시 휘문고보 미술선생을 했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영어를 잘하니까 서울시 학무과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미군정하에서 국립서울종합대학안이 발표되고 예술대학 신설이 추진되면서 미술학부 설립이 장발 선생에게 맡겨졌어요. 그런데 그 이전부터 미술학교를 세우자고 앞장섰던 분은 춘곡 고희동 선생이었습니다. 춘곡 선생을 중심으로 여러 미술가들이 모여서 미술학교 설립을 위한 발기대회를 덕수궁에서 가졌는데, 여기에 근원 선생도 참석을 했습니다. 근원 선생은 동경미술학교 졸업 후 보성고보에서 교육경력도 몇 년 쌓으셨으니, 재론의 여지없이 교수 자격이 완비된 분이었죠. 그래서 장발, 고희동 선생과 함께 서울대 미술학부 창립 추진의 주축 멤버가 되신 겁니다. 특히 근원 선생은 서울대 미술학부의 학제나 교과과정을 다 만드셨어요. 사실 서울대 미술학부는 근원 선생의 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당시 서울대 역시 미군정하에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원활한 교섭을 위해서 영어를 잘하는 장발 선생에게 학부장을 맡겼지요. 모든 교과과정이나 힘든 일은 근원 선생이 다 해 놓고 학부장은 장발 선생이 된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근원 선생은 이때부터 ‘세상일이라는게 이렇구나’하는 실망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사람들 세상에서 영어 하나 못 한다고 이렇게 밀린다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후에 학교 일을 맡아서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근원 선생이 교무다 뭐다 다 담당을 했어요. 미술학부는 모두 네 개 과로 시작했는데, 제1회화과(동양화과)에 김용준 선생, 제2회화과(서양화과)에 길진섭 선생, 조각과에 윤승옥 선생, 도안과에 이순석 선생이 있었죠. 이 외에 정교수를 더 초빙하려고 해도 자격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우’라는 말을 붙여서 ‘대우 전임강사’ ‘대우 조교수’라는 이름의 직함을 만들어 사람을 썼어요. 교수 자격은 없지만 가르칠 수는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쓴 거죠. 동양화과의 장우성 선생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88	작성자	김보라
제목	근원의 미술교육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5)
이야기 자원	서울대 미술학부에서 근원 선생은 실기 지도는 물론, 이론으로 동양미술사도 강의하셨어요. 동양미술사 강의 중에 한국미술의 역사나 정신사, 이런 것도 곁들여서 얘기해 주셨죠. 또 서예 지도도 맡아서 하셨어요. 동양미술사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게 생각나네요. 중국의 회화사는 크게 관파와 야파로 나뉘는데, 관파는 이미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수련을 거듭해서 점점 더 다듬어 나갔고, 야파는 혁신적이고 혁명적이고 실험적인 정신으로 새로운 회화양식을 창출하려는 경향을 지녔습니다. 대표적인 관파로 청나라 때 사왕오운이라 불리던 작가들은,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것들을 그대로 베끼고 답습하기만 했죠. 그들한테서는 예술가적인 창조정신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어요. 그저 현웃 물려받아 입듯이 일생을 살아온 작가들이죠. 근원 선생은 동양미술사 강의에서 이런 폐단을 곧잘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중국 그림에서 새로운 개척이나 실험정신을 주류로 놓고 강의하셨어요. 예컨대 양주팔괴를 중심으로 많은 이야기를 하셨어요. 미술사에서도 사관이 중요한데, 그분의 사관이 그랬습니다. 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고졸’해야 함을 강조하셨어요. ‘에스럽고 좀 웅졸한 듯해야 한다.’ 무슨 말이나면, 뿌리를 알고 그러야 하고 순수하고 순박한 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되바라지고 화사하기만 한 그림을 추구하면 말미로 몰락한다는 거였죠. 이 ‘고졸’이라는 말을 강의할 때마다 수십 번씩 언급하셨어요. 근원 선생은 종이를 펴 놓고 직접 그려 보이는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그림 그리기는 자세, 화제 쓰는 법 등을 시범 보이신 거죠. 또 그림을 그리면서는 일절 말을 안 하셨는데, 한번은 그림을 그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앉아서 손끝으로 만드는 게 아냐.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정신이나 열정을 붓끝을 통해 화면에 쏟아내는 거지. 손끝으로 만드는 건 환쟁이야, 환쟁이. 그리고 작가가 화면 속에 들어앉아 있어야지, 작가는 없고 그림만 남아 있으면 그것 역시 환쟁이야.” 또 근원 선생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급한 문제로 일본화풍의 청산을 강조하셨습니다. 선생의 논리는 아주 분명했죠. 일본화는 어디까지나 일본 사람의 그림으로, 풍토가 다르고 감정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배경이 다른 그림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일본화는 굉장히 섬세하고 빈약하고 가벼워서 불면 날아갈 것 같은 그림인데, 우리 그림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삼면이 바다인 반도지만 우리는 대륙적인 그림을 그렸고, 자유스럽고 분방하고 생명력있는 그림을 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그림은 이 땅에서 쏘아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우리는 붓을 높이 쳐들고 한껏 힘을 분출하는 식으로 죽죽 선을 내그어야 한다. 그렇게 자유분방한 그림을 그려야 한다.” 대상의 묘사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산수, 풍경이라든가 인물, 화조를 그릴 때 다른 사람이 그려 놓은 것을 그대로 베끼는 것은 안 된다. 실제 대상을 놓고 묘사해야 된다. 대상 그 자체를 파고들면서, 연구하면서, 그려 나가야 된다. 그 표현방법은, 자유스럽고 힘차고 분방한 선을 구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한 한 채색보다는 먹을 중심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셨죠. 이렇게 근원 선생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재료로 그림을 그려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고 간명하게 제시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술대학 미술학부 동양화과의 지침이 되다시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지만, 한 사람도 어떤 방법으로 우리 그림을 그릴 것인가 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지는 못했거든요. 대체로 그때 화가들은 미술사, 미술의 본질, 미술의 시대성 등에 대한 공부가 부족했습니다. 대개 선생이 가르치는 것을 답습하거나 모사하는 정도였고, 실기에서도 말초적인 방법론만 가르쳤죠. 그런데 근원 선생은 미술에서의 근본적인 정신을 가르쳤고, 우리 미술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어요. 이것이 우리 미술에 공헌한 근원 선생의 크나큰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89	작성자	김보라
제목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6)
이야기 자원	원래 근원 선생은 동경미술학교에서 서양화를 배운 분입니다. 동경미술학교를 다니던 어느 해 방학을 이용해 잠시 귀국해서, 고향인 경북 선산에 간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지인의 집에 초청받아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오원 장승업의 병풍 그림이 펼쳐져 있었더라고요. 기명절지화였답니다. 화면에 칼로 베어낸 생선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생선의 살코기 무늬, 육질이 붓을 몇 번 안 댔는데도 얼마나 사실적으로 표현됐는지 살아 있는 생선으로 착각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위대한 화가가 있었구나’ 감동하셨답니다. 또 붓이 한번 지나가면서 나뭇가지의 볼륨, 입체감이랄까, 농담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힘차게 올라가면서 끝에 꽃과 과일이 달린 표현들을 보고 굉장한 경지라는 생각을 하신 거죠. 또 그릇의 원근법적 표현, 붓 한 번 찍어서 빛을 받는 부분과 그늘을 받는 부분을 농담으로 표현한 이파리 부분 등, 그 그림에 작가가 살아 움직이고, 대상으로 표현한 것이 다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보고 무척이나 감동했다고 합니다. 이때 오원 장승업이라는 화가를 알게 되었고, 그후로 우리나라 그림들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겸재니 단원이니 하는 대가들의 그림들을 찾아보고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동양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아가 중국 그림, 글씨, 동양미술 전체를 공부하게 되신 거죠.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90	작성자	김보라
제목	노시산방, 반야초당, 경운동 집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7)
이야기 자원	근원 선생은 성북동 노시산방이라는 조그만 한옥에 사셨습니다. 당시에는 성북동이 서울이 아니고 경기도 고양군이었어요. 성북동에서 삼선교까지 개울이 흘렀는데 아주 일품이었죠. 바닥이 전부 노들바위여서 그 물이 층층 폭포를 이루면서 삼선교로 흘러내렸어요. 그 개울물이 선생이 사시던 노시산방 문 앞에도 흘렀는데, 징검다리를 딛고 건너야 대문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삼선교에서 성북동으로 오르는 길에는 수백 년 된 소나무, 전나무가 서 있었고, 대낮에도 토끼가 왔다갔다했어요. 참 아름다웠죠. 그런데 경치는 좋았지만 사는 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거기서부터 더운 날이나 추운 날이나 걸어야 했으니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당시 화가들이 대개 그랬듯이 선생도 가난했고, 그저 운치를 찾아 그곳으로 와 사셨던 겁니다. 근원 선생은 수화 선생한테 그 집을 넘겨주고 떠나셨는데, 그 다음에 수화 선생도 얼마 안 있어서 수원고등농업학교의 이 교수라는 분에게 팔았죠. 이후 근원 선생은 의정부로 가서 집 이름을 반야초당-반쯤 들뜬 곳에 지은 초가집-이라 짓고 사셨답니다. 그때는 일제 말기라 폭격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외곽으로 나가서 살라고들 했거든요. 근원 선생만이 아니고 몇몇 지인들과 함께 의정부로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다시 서울로 들어오셨을 거예요. 서울대 교수로 계시면서 사시던 집이 경운동 천도교회관 옆 골목의 한옥이었어요. 민씨라는 주인집 옆에 붙어 있는 한옥에 세들어 사셨죠. 내가 어찌다가 그 집에 가 본적이 있는데, 비좁지만 운치가 있고 격조가 있는 집이었어요. 두 사람이 앉으면 알맞을 정도의 좁은 마루가 있었는데, 거기에 서가를 놓고 책을 짝 쌓아 놓으셨더군요. 좁은 방에도 전부 책이에요. 학생 때부터 보시던 책들인 것 같았어요. 한적은 거의 없었고 일본책들이 많았는데, 다고색창연하게 빛이 바랬더군요. 그 책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셨던지, 아주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그 옆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그 안에는 옛날 문갑이 하나 있었고 벽에 그림이 걸려 있었어요. 오원 장승업의 기명절지화였죠. 먹으로만 그린 그림에 글이 덧붙여 있었어요. 두 폭이 한 쌍으로 된 이 묵화가 아마도 오원의 대표작 중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그리고 위창 오세창 선생이 근원 선생한테 그려 준 매화 그림도 있었어요. 족자를 해서 걸어 놓으셨더군요. 그 옆에는 그림 그리는 도구들, 붓이며 필통, 벼루 등이 있었는데, 그곳이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쓰시던 서재였던 셈이지요.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91	작성자	김보라
제목	근원 선생과 나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8)
이야기 자원	한번은 내가 지방에 가서 근원 선생께 편지를 쓴 적이 있었는데, 순 한문으로 편지를 썼어요. 나중에 선생을 뵈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젊은 사람이 무슨 편지를 그렇게 써, 한글로 써야지...” 근원 선생은 아무리 잘해도 잘했다는 말씀을 일절 안 하셨어요. 항상 잘못했다고 해요. 늘 화난 표정으로 얘기하시고... 그게 특징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 이분이 내가 쓴 편지에 뭔가 감동 같은 것을 느끼셨구나’ 하는 것을 감지했어요. 표정은 그렇지 않았지만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화론총간』이라는, 중국 상고시대 때부터의 모든 그림에 대한 이론을 모은 책이 있었어요. 근원 선생이 그 책을 가지고 나를 부르시더군요. “서군, 자네가 연필로 이 책에 표가 안 나게 점을 좀 찍게” 그러시는 거예요. 표점을 찍으라는 말씀이었죠. 그때 내가 ‘왜 저더러 그걸 찍으라고 하십니까’ 하고 묻지 않았는데, 순간 ‘아, 선생께서 이걸 보고 싶으신데 해독이 자유롭지 못하시니까 나더러 점을 찍으라고 하시는구나’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네놈 실력이면 이 책에 점을 찍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래서 “언제까지 점을 찍을까요?” 여쭙었더니, “저녁까지 해서 내일 아침에 날 줘야 하네” 그러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고 가져갔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점을 찍었어요.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근원 선생이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웬일이십니까?” “아니, 지금이 몇 신데... 나 학교 가는 길인데 그 책에 점 다 찍었으면 내놓게!” “아이고, 그리 급한 일이신가요?” “그 책이 전집 중에서 하나 가져온 거라 없어지면 큰일나네. 불안해서 바로 찾아가려는 거야. 점 다 찍었나?” “네, 찍었습니다.” 이 양반이 ‘이 젊은 아이가 어떻게 이런 공부를 했나’ 하는 의문을 갖기 시작하더군요. 한번은 글씨 시간이었어요. 나중에는 손재형 선생이 서예를 가르쳤는데, 그때는 근원 선생이 서예도 담당하셨죠. 선생님이 시범을 보이며 글씨를 쓰시는데, 초서도 있고 전서도 있어서 다른 학생들은 모르는 글자가 많았지만, 나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근원 선생께서 갑자기 “서군! 다른 사람들이 모른다고 해서 자만심 가지면 안 돼, 알았어?” 그러시지 뭐니까. “아닙니다, 알긴 뭘 안다고 그러십니까. 무슨 글자라는 것 정도밖에는...” 학생들이 왜 야단을 치시나 하면서 쳐다봤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하시는 얘기였죠. 근원 선생은 내가 그림에 눈을 뜨도록 해주셨어요. 동양예술에서 대상을 놓고 그리는 것을 사실이라 하고, 대상 밖의 것을 그리는 것을 사의라고 하는데, 사의의 정신에 예술의 위대함이 있지요. 사실에서 그리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지만 그것은 말초적이고 보편적인 것이예요. 사의의 정신은 원칙적이고 근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갈 길이 무궁무진한데, 그걸 나한테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근원 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존경해 마지않는 거죠. 근원 선생은 작가로서 창작을 하는데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네, 내 말 똑똑히 듣게.” “예.” “자네, 예술가가 되고 싶은가 환쟁이가 되고 싶은가, 분명히 말해보게.” “...”		

	“환쟁이가 되고 싶어, 예술가가 되고 싶어? 왜 대답이 없어?” “그야 예술가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 예술가가 되어야 하는 거야, 환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얘기를 안 하셨는데, 유독 나한테는 많은 애정을 갖고 얘기해 주셨어요. 내가 근원 선생의 주변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었던 게 매우 짧은 기간이었습시다만 그 시간이 짧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불과 몇 년 안 되는 기간이었지만, 선생과 나는 예술에 있어서 깊은 세계를 가지고 만났던 것 같아요. 선생도 나에게 예술의 깊은 세계를 보여주거나 말씀해주셨고, 나도 어느 학생과는 다르게 그분의 예술정신이랄까 삶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걸 참 행복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서울대를 그만두신 후에 「대한민국미술전람회」—줄여서 「국전」이라 불렀죠—가 생겼어요. 제1회 「국전」이 1949년에 열렸는데 내가 거기에 출품을 했죠. 그때 나는 근원 선생의 가르침을 곱씹으면서 ‘일본화적인 냄새를 벗어나겠다’ ‘자유롭게 붓을 써야겠다’ ‘대상을 철저하게 바라보고 그림을 그려야겠다’ 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림을 그렸죠. 그렇게 그려서 출품한 것이 <꽃장수>라는 작품입니다. 한 노인이 받쳐 놓은 지게에 꽃을 잔뜩 실은 채 팔고 있고, 그 옆에 젊은 아가씨들이 한복을 입고 꽃을 보면서 사려고 하는 그림이었죠. 그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어요. 큰 붓을 들고 획을 긋는 연습을 수없이 했어요. 몇 달 동안은 밥 먹는 것도, 잠 자는 것도 잊고 서 연습을 했죠. 그런데 그 그림이 동양화부 특선으로 뽑혀 국무총리상을 받게 됐습니다. 뜻밖이었죠. 그때 근원 선생이 「국전」에 오셨어요. “선생님 오셨습니까? 작품 보시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잘 그렸어. 그런데 신문사에서 나더러 평을 써 달라는데, 욕을 실컷 해줄 생각이야.” 나중에 신문에 난 선생님의 평을 보니, 내 그림의 어느 부분은 잘 그렸는데 어느 부분은 실패다, 그런 식으로 쓰셨더군요. 그 다음에 선생님을 다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평 쓰신 것 잘 읽었습니다.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그건 말야, 자네가 상 받았다고 우쭐떨까 봐 그렇게 쓴 거야. 그림은 좋았어. 거기서 상 받은 학생은 자네밖에 없었다면서?” 그때 선생님의 애정어린 말씀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92	작성자	김보라
제목	국대안 반대 운동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9)
이야기 자원	서울대학교가 개교되자마자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터졌어요. 국립종합대학안 반대, 약칭 ‘국대안 반대’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당시에는 모든 사상과 이념이 동시에 노출돼 있었는데, 말하자면 좌익, 우익, 중간노선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었죠. 정치활동에 대한 정열, 조직력, 활동력 등 모든 면에서 좌익이 앞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종합대학이라는 것에 매우 생소해했는데, 좌익 계열에서 미국을 몰아내자며 반대 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도 데모를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조직을 만들어서 동맹휴학까지 하게 됐죠. 좌익 계열뿐만 아니라 경성제국대학 학생들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적극 동참했어요. 미술학부 좌익 조직이 있었는데, 그 책임자가 서양화과의 김진항이라는 친구였어요. 이 친구는 좋은 사람이었어요. 집안도 부유했죠. 이 친구가 위원장이 되어 동맹휴학에 가담하면서, 예술대학도 동맹휴학을 하게 됐어요. 동맹휴학이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계속 되면서 학교에서는 전체 유급 사태를 막기 위해 기일을 정해 등록하고 등교하라는 경고를 했고, 그에 따라 몇몇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물론 동맹휴학과는 등록을 거부했죠. 학교와 학생 간에 극단적인 대립상황이 벌어졌는데, 급기야 학교에서는 등록 안 하는 학생들을 제명시켜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교수들간에 이견이 생겼습니다. 훗날 내가 이순석 선생한테 그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술대학 미술학부에서 장발 선생 주도하에 교수 회의가 열렸답니다. 그 중 장발, 윤승옥, 장우성 선생 등은 등록을 거부하는 학생들은 제명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냈대여. 근원 선생은 반대 의견이셨죠. ‘다 우리가 뽑은 학생들이다. 그 사람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느냐,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동맹휴학한 건데 다 제명시키면 어떡하냐, 등록기한을 연장해서라도 다시 받아 줘야 하지 않겠냐’ 그러신 거죠. 그러니까 반대쪽에서는, ‘안 된다, 이 놈들은 국가적으로도 안 되고, 학교로서도 골치 아파서 안 된다, 다 좌익골수분자로 밝혀졌으니까 몰아내 버리고 제명하자’ 그랬답니다. 점점 격론이 벌어졌는데, 사태를 온건하게 처리하자고 한 것은 근원 선생 한 분 뿐이었답니다. 나머지는 강력하게 제명해 버리자고 했고, 이순석 선생은 속으로는 근원 선생의 의견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대세가 장발 선생 쪽이니, 가만히 지켜보기만 했다네요. 장발 선생이 성격이 아주 급한 분인데, 그때 굉장히 격분했었나 봐요. 언성이 높아지고 옥신각신하던 중에, 급기야 장발 선생이 근원 선생에게 주먹질을 하는 일이 벌어졌답니다. 근원 선생은 그 자리를 떨치고 나가 버리셨대요. 그리고 그 길로 사람을 시켜 사표를 제출했더랍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93	작성자	김보라
제목	『근원수필』과 『조선미술대요』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10)
이야기 자원	서울대학교를 그만두고 나니 동국대 사학과에서 근원 선생한테 미술사 강의를 담당해 주십사 초빙을 했어요.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죠. 근원 선생 하면 여기저기에서 초빙해 가려고 하는 위치에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948년에 『근원수필』은 한번에 쓴 게 아니고 젊어서부터 쓴 것들을 뽑아서 간추려 낸 책입니다. 내가 선생을 알기 전에 쓰신 것들이 대부분인데, 그후에 쓰신 것도 몇 편 있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것이 「승가사의 두 고적」입니다. 서울대 미술학부 교수들과 학생들이 승가사에 답사를 간 적이 있어요. 근원 선생, 수화 선생은 물론이고, 손재형 선생, 장발 선생도 갔죠. 승가사 뒤쪽의 마애불을 보고 나서, 근원 선생하고 나하고 두세 명 정도가 산을 더 올랐습니다. 산꼭대기에 바위 봉오리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비석이 서 있었어요. 신라 진흥왕 순수비였습니다. 조선 후기에 추사 김정희 선생이 그 경계비를 찾아 올라가 비문을 읽고 그 비석 모서리에 ‘비문 몇 자를 읽을 수 있었다’ 하는 글을 새겨 뒀다는데, 우리가 가서 보니 비문이 마손되어 추사 선생이 읽었던 글자를 못 읽겠더군요. 두 고적을 보고 내려와서 같이 갔던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 놓고 근원 선생이 마애불과 비석에 대해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아주 화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나는 오늘 아주 실망했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 같이 왔는데, 몇 사람 외에는 관심도 없고 다들 노래나 부르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우리 민족미술을 어떻게 지켜 나갈 건가!” 그랬던 생각이 나네요. 얼마 후 승가사에 관한 수필을 발표하시더군요. 근원 선생의 수필은 당시 문단에서 어느 누구도 쫓아갈 수 없는 글로 인정받았어요. 사실 여러 문인들이 수필을 쓰긴 했지만, 문학가들 사이에서도 ‘수필’ 하면 근원이었어요. 압축된 주제로 깊은 향기를 품고, 인생의 내면 속에서 우러나오는 목소리, 바로 이게 근원 선생의 수필입니다. 당시 문인들이 한결같이 선생의 수필에 감탄했죠. ‘수필은 근원으로 끝이다’ ‘더 이상 좋은 수필 쓸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이럴 정도였어요. 『조선미술대요』는 오래 전부터 원고를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집필하시던 중에 학교를 그만두신 것 같은데 그때가 경운동 한옥에 사실 때였죠. 내가 서양화 전공하던 동료 서너 명과 함께 선생 댁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근원 선생이 그 원고 때문에 몇 달간 외출을 안 하셨는지—원래 선생은 별에 그을린 얼굴이었어요—, 그때 보니 얼굴이 하얘지셨더라고요. 누런색 담요 같은 것을 잠옷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걸 입고 앉아 계시더군요. 저녁 시간에 왔는데, 선생이 “저녁을 먹고 가야 하는데 너무 여럿이 와서 같이 못 먹겠네” 그러셨어요. 대접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 『조선미술대요』가 출간되니까 『근원수필』 때와 마찬가지로 ‘미술사에는 근원밖에 없다’ 이런 말이 돌았어요.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우리나라 미술사를 집필한 것은 거의 처음이나 마찬가지였죠. 이 책의 특징 중 하나는 구어체로 돼 있다는 거예요. 대화하는 것처럼 읽기 편한 문장인 거죠. 그때는 그게 좀 이상해 보였는데, 요즘은 서양이나 중국의 미술사책을 보면 이렇게 쓴 책이 많아요. 이런 면에서도 근원 선생은 일종의 선각자였던 것 같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94	작성자	김보라
제목	미술문화의 사회교육자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11)
이야기 자원	육이오 직전인 1949년에서 1950년 상반기까지 근원 선생은 김재원씨를 비롯한 국립박물관 사람들과 잘 어울렸습니다. 국립박물관에서 해방 이후 나름대로 면모를 일신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는데, 그 중에 문화 강좌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에 근원 선생이 자주 초청되셔서 강의를 했습니다. 동양미술개론, 이조회화, 단원 김홍도, 이런 주제들이었죠. 근원 선생이 미술문화 전반에 걸쳐 눈이 열려 있는 분이다 보니, 박물관 사람들이 계속해서 초빙한 거죠. 또 근원 선생은 라디오 강의를 많이 하셨어요. 일주일에 몇 번씩 정기적으로 방송을 하셨는데,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죠. 나도 근원 선생의 방송을 늘 들었어요. 지금 기억에 남는 건, 조선조말 어린아이들이 신던 꽃신에 대해, 그것이 어떻게 해서 생겼으며, 그 세밀하게 수놓은 기법이며, 그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유산이니 잘 보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장독에 대해서도 얘기하셨어요. 장독대의 아름다움, 옹기의 풍만한 볼륨감, 포용성 등에 대해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단원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도 우리나라의 생활미, 의복이며 가구, 돛자리, 그리고 무쇠술과 술뚜껑까지 어느 하나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셨어요. 그 기록들이 지금은 모두 없어져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No.	2-95	작성자	김보라
제목	해방과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키워드	서세옥의 회고(12)
이야기 자원	육이오 이후 많은 사람들이 근원 선생을 좌익 공산주의자라고 나쁘게 봐 왔어요. 그렇지만 나는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근원 선생은 정치적인 분이 전혀 아니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분은 예술이나 학문에 대한 얘기만 했지, 정치적인 얘기를 했던 적은 기억에 없습니다. 구태여 근원 선생을 사상을 가지고 판단해 본다면, 오히려 우익 중에서도 극우에 속할 거라고 나는 봅니다. 그분이 생각하는 예술은 소위 마르크스가 얘기하는 이론과는 정반대되는 것이었거든요. 근원 선생이 젊어서는 동경에서 새로운 학문이라고 해서 프롤레타리아 예술론, 사회주의 유물론, 이런 것들을 읽었겠지요. 이분이 그후에 천주교도가 됐었는데, 나중엔 불교 신자가 되셨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걸 들어 보거나 수필을 읽어 보면 알겠지만, 이분은 정신주의자예요. 근원 선생은 항상 “정신이 우선이고 물질은 그 다음이다” “예술가가 가난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정신의 불은 꺼져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공산주의 운동을 했다거나 가담했다는 말에 나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근원 선생의 월북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제시대 때 일본에게 그렇게 수탈과 박해를 당했는데, 해방이 되니 이번에는 미국 사람들이 와서 군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에 일본 사람들이 와 괴롭히면서 우리말도 못 하게 하더니, 이제 미국 사람들이 오니까 별 볼일 없는 놈들이 영어 좀 한다고 실권을 잡고 판을 친 거죠. 그런 상황을 감내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장발 선생에 대한 저항도 있었을 겁니다. 근원 선생이 서울대 미술학부 창립에 그렇게 많은 공헌을 하고도, 장발 선생이 학부장을 맡지 않았습니까. 국대안 반대 운동 때도, 학생들을 포용하지 않고 다 빨갱이로 몰아세우고, 학생들 제적하는 걸 반대했다고 해서 주먹을 행사하고..., 선생에게는 이런 것에 대한 저항심리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당시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이었는데, 그 흐름에 민감하게 저항해서 월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그런 저항감보다 더 큰 것이 바로 천재의 고독입니다. 『근원수필』에도 고독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자기의 뜻을 제대로 펼칠 수 없는 데서 나오는 그런 고독인 거죠. 그런 고독이 혼란스러운 사회의 흐름과 맞물리면서 결국 북으로 발길을 돌리게 만든 거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당시 근원 선생은 현실적으로 월북하지 않고는 안 될 상황에 있었어요. 인민군 지배하에 서울대학에 복직해서 몇 달 동안 학부장을 했는데, 그대로 있으면 형무소 신세를 면할 수 없었죠. 북으로 가실 수밖에요.		
참고문헌	김용준 외, 『근원전집 이후의 근원』, 열화당, 2007.		

현대(1945~)의 성북동

No.	3-1	작성자	한봉석
제목	성북동회, 동회를 이끈 인물들 (1955년까지)	키워드	성북동회, 동회장, 자성회, 향보단, 김일
이야기 자원	오늘날 우리가 흔히 마을이라고 부르는 최소단위가 바로 동네 혹은 ‘동(洞)’이다. 서울의 경우에 한정하더라도 이는 18세기 이래 자연발생적으로 성장해온 생활공간이었다. 일제시대 서울, 즉 경성부 역시 행정의 최소단위를 바로 이 동으로 삼았고, 당대에는 이를 ‘정(町)’이라고 불렀다. 1936년 4월 경성부로 편입된 ‘성북정’역시 이러한 역사적 맥락 아래 있다. 성북정에 사람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이후였다. 그리고 이들은 곧 성북구락부라는 청년조직과 총대/정회라는 청년조직과 지역조직을 만들어 지역의 이익을 위한 활동을 했었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은 해방 이후로 이어졌다. 1946년 왜색을 일소하는 움직임 하에 성북정은 곧 성북동이 되었다. 그리고 이 성북동에는 동회와 이를 이끈 동회장들이 있었다. 동회는 1933년 10월 3일에 설치되었던 정회가 그 기원이 된다. 1943년 구제가 실시된 이래 동대문구에 속했던 성북동은 그해 8월 1일에 성북 1, 2 정회를 발족시켰다. 그리고 해방 이후인 46년 10월 1일 정회는 동회로, 정회를 이끄는 정총대는 동회장으로 그 이름을 바꿨다. 성북 제 1,2 정회 역시 제 1동회와 제 2동회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는 1955년 4월 18일 동제가 실시되어 성북 제 1동과 제 2동의 구역이 재정의되기 이전까지 큰 십년간 유지되었다. 1955년 이전까지 행정의 최소단위에서 힘을 발휘했던 것은 이들 동회, 그리고 동회장이었다. 원래 행정조직이 아닌 동회는 1949년 7월 4일 공포된 지방자치법에 의해 폐지될 뻔했었다. 그러나 예산 문제, 그리고 연이은 한국전쟁으로 인해 정식 행정조직의 산하에 속하지 않고, 반관반민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물론 성북동에는 예로부터 마을 문화가 강했고, 해방 이후에도 동민들의 자치조직인 ‘자성회’가 조직되어 동민단합과 문화적 계몽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좌우대립이 극심했던 해방 3년, 그리고 주민동원이 일상화되어있던 이승만 정권 하에선 이들 동회를 중심으로 여러 조직들이 난무했다. 5·10 선거를 수행하기 위한 향보단(후일의 민보단), 주민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유숙계, 애국반(후일 국민반) 등이 그것이었다. 특히 한국전쟁 직후에 동회는 일시적으로 이러한 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떠맡는 등 지역 활동에서 핵심을 담당했다. 성북동에도 동회아래 제 1 향보단 등 향보단이 결성되었고, 이른바 해방 정국 우익 4대 청년단체 중 하나인 국정 성북동 제 1분회, 제 2분회 등이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청년단의 활동은 특히 1948년 1월 유엔조선임시위원단의 조선 방문을 계기로 격화되었다. 동회장 중에는 후일 국회의원이 된 이도 있었다. 1951년 당시 성북 제 1동의 동회장은 조태우(趙泰友)씨, 그리고 제 2동의 동회장은 김일(金一)씨였다. 이중 제 2동의 동회장 김일은 1954년 제 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당 소속으로 서울시 국회의원 16인 중 1인으로 9,838표로 당선되었던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만주 봉천 삼성중학교를 졸업하고, 중국 남경 금릉대학을 중퇴한 이후 국민회의 선전부장, 자유당 성북구 당위원장 등을 역임했었던 인물이었다. 이는 일제시대 이래 주민조직의 핵심을 담당했던 동회의 위상이 50년대 중반까지는 여전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사건이었다.		
참고문헌	김영미, 『해방전후 서울의 주민사회사 - 동원과 저항』, 푸른역사, 2009.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1993. 『동아일보』 1948.2.18 『경향신문』 1948.2.17		

No.	3-2	작성자	한봉석
제목	해방공간 좌우의 소용돌이	키워드	청암장, 이봉재, 대원각, 조소앙 당선
이야기 자원	일제시대 이래 성북동은 문인들의 이주로 유명하다. 아직 성북동이 고급 주택가의 이미지로 기억되기 보다는 호젓한, 문인의 품격과 평의 바다와 같은 풍경과 이미지로 기억되던 시기였다. 성북동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삼선교 돈암교를 거쳐 흐르던 이른바 ‘안감내(安甘川)’라는 천이 흐르는 시원함이 성북동의 정치를 돈우었다. 그런 곳에 해방 후의 여러 문인, 화가, 작가들이 자리를 틀었던 것이다. 그런데 동시에 성북동은 정치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오늘날 정갈한 사찰의 풍광과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기억되는 길상사는 한때 요정 대원각으로 이름을 날렸다. 이 대원각은 백석의 ‘나타샤’ 김영한(金英韓)이 1951년 650만원의 거금을 주고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청암장’을 인수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길상사로부터 나타샤의 애함과 백석의 치기어린 사랑이 법정스님의 말씀으로 정화되는 이미지를 기억한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이 공간에 스며들어 있는 중요한 역사적 장면 하나가 잘리워져 나갔음을 간과하곤 한다. 김영한이 인수하기 전 청암장은 이봉재(李鳳載)가 요리집으로 운영했다. 그리고 이 요리집은 해방 공간에서 이런 저런 곡절 속에서도 제법 그 위세를 자랑했다. 특히 통일된 남북한 정부수립을 위해 내한해 온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인도대표 ‘싱’씨에 대한 환영회가 이곳에서 열렸다는 것은 중요한 역사의 한 대목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의미 있는 것은 이 성북동이 바로 정부 수립 후 한국정치의 가능성을 내포했던 중도파의 희망과 아픔이 함께 했던 곳이라는 점이다. 성북동, 조금 범위를 더 넓혀 성북구 전체에서 가장 유명했던 중도파 정치인을 꼽으라면 조소앙 선생을 꼽을 수 있다. 선생의 일화는 1950년 5월 30일 치러졌던 국회의원 선거전 비사를 통해 일반에게 잘 알려져 있다. 한국정부 수립을 위한 5·10 선거 이후 두 번째였던 이 선거는 당대에 바람의 선거라고 불리기도 하였지만 국회 내 제3세력이라고 불리웠던 중도파, 남북협상파들이 대대적으로 당선되었던 선거였다. 그리고 이 선거에서 조소앙은 당대의 유력자이자 미군정청 경무국장을 역임했던 조병옥을 상대로 갖은 공작 끝에 선거에 당선됐다. 당시 조소앙은 “공산당의 정치자금을 받아쓰게 탄로나 투표일을 하루 앞두고 월복했다.”라는 벽보와 뼈라 때문에 30일 새벽 지프차에 확성기를 달고 자신의 건재함을 알리는 등, 갖은 고초 끝에 당선되었다. 조소앙을 필두로 한 이들 중도파들은 한국 정치에서 큰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9.11.15.; 9.26 / 『동아일보』 1948.3.31. / 『경향신문』 1955.8.8 서중석, 『한국현대민족운동연구』 2, 역사비평사, 1996.		

No.	3-3	작성자	한봉석
제목	한국전쟁의 상처	키워드	남북, 월북, 문화재, 조소앙
이야기 자원	그러나 이 모든 가능성에 상처를 크게 입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한국전쟁의 발발이었다. 미아리에 서의 초창기 전선이 무너지면서 서울에 살던 사람들에게 지옥이 찾아왔다. 인민군이 들어오는 그 짧은 순간 사이에 대통령도 없는 서울 하늘 아래 사람들은 발길을 서둘러야 했다. 그러나 한강철교는 너무 일찍 끊어졌고, 정부의 왜곡된 라디오 방송으로 인해 피난길을 선택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았다. 이른바 도강파와 잔류파의 소용돌이는 아마도 그 후 성북동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 소란의 와중의 모습은 일관되지 않다. 저 간송 전형필 선생에게 한국전쟁의 초입은 문화재를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긴장감으로 기억된다. 전쟁 초입 인민군들은 남침경로의 중앙에 있는 돈암동과 성북동에 진을 쳤다. 이어 서울이 함락된 이후에는 저 유명한 간송 전형필의 문화유산의 보고인 ‘보화각’이 그네의 손에 들어갔다. 최순우 선생 등의 기지로 이를 지켜내기는 했지만 아찔한 순간이었다고 선생은 기억한다. 그러나 이 혼란의 시기에 김용준 등 혹자는 북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주로 많은 문인들과 화가들이 북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걸음 걸음에는 아마도 이후의 미래에 대한 예측은 없었을 터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예기치 못하게 납북된 인사들이 많았다. 오늘날 납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당시 서울 시민들의 경우 2~4천명 사이로 납북자 수가 추정되고, 성북구의 경우 225명 정도가 납북되었다고 추정된다. 이들 중에는 안재홍, 조소앙 선생, 역사학자 손진태 선생 등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름없는 청년단원, 여학생 등도 포함되어 있었다. 연구와 증언의 차이에 따라 다르지만 당시 성북동은 당시 이들 중요 인사들이 연금되어 있던 안가가 있었던 곳이었다. 이들은 이전까지 주로 인민군의 대남방송에 활용되었다가 8월 중순에서 9월 사이에 납북되었다. 그러나 많은 납북자들이 피신하는 도중 공습에 명을 달리하였고, 나머지도 전쟁 후 북에 남거나 소식만 간간히 들려오는 등 중도파들의 명맥은 이때를 기점으로 크게 쇠약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중도파들이 마지막으로 머물다간 땅이 바로 여기 성북동이었던 것이다. 당시 중도파의 가장 저명한 인물이었던 조소앙은 이후 북한에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에 참여하지만, 1958년 경 수상스럽게도 물에 빠져 그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참고문헌	송지영·심지혜, 『성북동 길에서 예술을 만나다』, 연두와 파랑, 2015. 조영복, 『월북 예술가 오래잇혀진 그들』, 돌베개, 2002. 이신철, 『북한 민족주의 운동연구: 1948~1961, 월북·납북인들과 통일운동』, 역사비평사, 2008. 이태호·저·신경완 증언, 『압록강변의 겨울 - 납북 요인들의 삶과 통일의 한』, 다섯수레, 1991.		

No.	3-4	작성자	한봉석
제목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1)	키워드	행정건설대, 복구, 건재동
이야기 자원	한국전쟁 이후의 전쟁 복구의 과정 속에 성북동은 어떻게 기억되고 있을까? 흥이 많았던 예술가들은 이 시절을 그래도 아늑하게 기억했다. 운보 김기창과 우향 박래현 부부는 외진 곳이라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도 행복한 삶을 꾸렸다. 부인도 천생연분, 자연도 천생연분이라고 기록으로 남긴 그의 글에 사랑이 담뿍 배여 있다. 개울을 사이에 두고 후일 유립을 뒤흔들 작곡가 윤이상이 길건너 조지훈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이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다. 이기붕 시장을 필두로 한 행정건설대 300여명이 서울로 입성한 것이 1951년 3월 18일이었다. 그리고 서울의 시설물들이 복구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었다. 당시 성북동에 남아 있던 사람들 외에 피난을 갔던 사람들은 임시수도였던 부산에 행정처가 임시로 꾸려졌으며, 관할 구청별로 구호양곡이 지급되었다. 성북동 사람들도 성북구에 속해 이 피난살이를 견뎌냈던 것이다. 그러나 전쟁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는 컸다. 우선 주민의 수가 일시적으로 급감했다. 1949년 13,372명에 달하던 주민수가 1953년에는 5,546명으로 급감했다. 그러나 피난민 등이 더해지면서 인구는 점점 급증했다. 무엇보다 주택수가 부족했다. 한국전쟁 3년 동안 거의 7만 9천여 동의 주택 피해가 있었다. 개 중에서 성북동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운이 좋은 편이었다. 1951년 3월 16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의하면 성북동은 건물의 피해 측면에서는 “일부 피해 및 건재동(健在洞)”인 지역으로 평가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성북 제 2동은 한국전쟁 당시보다 15% 정도 손실이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화가 가라앉으면서 성북동의 인구 역시 급격히 불어나기 시작했다. 토착민 외에 일 자리를 찾아 서울로 올라온 이들이 성북동 곳곳에서 자리를 잡았다. 이번에도 문제는 주택수요였다. 1952년부터 서울시는 새 서울 건설을 위해 기존 서울의 공간을 도심지대, 중간지대, 교외지대 등으로 구획하고 이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여기에 국립공원 등의 녹지공간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문제는 당시 정부가 22만 6000호의 난민용 구호주택을 건설, 보급하였지만 그것이 전체 인원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에 사람들은 시가 보유한 땅이나, 녹지공간으로 설정된 국립공원 등의 지역에 이른바 불량주택이라고 불리우는 토막, 판자집, 바라크 건물(빠락) 등을 세우게 되었다.		
참고문헌	손정목, 『서울도시계획이야기』 1권, 한울, 2003. 전남일·손세관·양세화·홍형욱 지음, 『한국 주거의 사회사』, 돌베개, 2008. 『동아일보』 1951.3.24 『동아일보』 1951.3.16.		

No.	3-5	작성자	한봉석
제목	전후의 살림살이와 ‘판자촌’(2)	키워드	한국전쟁, 판자촌, 바라크 건물, 불량주택
이야기 자원	성북동 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성북천, 정릉천변에 피난민들이 정착했고, 공원개발로 예정된 청암장 부근, 즉 배밭골과 이어진 골짜기에 사람들이 정착하였다. 오늘날 북정마을 역시 당시 서울로 일을 찾아 들어왔던 사람들이 모여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형성되었던 한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 시기에 함경도 함청사람들 역시 성북동에 정착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이른바 ‘불량건물’들 혹은 판자촌들이 1960년대 후반까지 이곳 성북동에서 그 모습을 유지했다. 그러나 이는 당시 주택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시가 불량건물이라 불렀던 바라크 - (빠락) 등을 현실적인 주거 형태로 인정한 탓도 크다. 그렇다면 이들 피난민 외에 원래 주민들의 삶은 어떠했을까? 1958년도 보건사회부의 주택조사 보고서가 그 단면을 보여준다. 1958년 본 조사보고서에 응답한 성북동 총 가구호수는 403호였다. 그런데 당시 응답자 중 한 가구당 인원수가 주로 5~10명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이는 2천5백 명 남짓한 이들이 응답한 것이다. 1961년 성북동의 인구가 18,535명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를 다 반영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대체로 주택을 자가소유한 이들이 응답했음을 감안할 때 이들의 응답을 통해 당시 성북동 사람들의 삶의 한 단면을 살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성북동이 전쟁 당시 마을에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음은 이 조사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조사에 응답한 이들 중 주택을 자가한 이들 중에서 전쟁 중 피해를 입은 가구수는 총 82호이다. 그러나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응답한 가구는 총 193호로 훨씬 많다. 이들 중 일부는 전채를 복구하고 사는 이들도 있고, 그대로 피해를 유지한 채 살림을 꾸려가는 이들도 있었다. 이는 1950년대 정부주도의 도시개발과 주택보급에서 유독 성북동이 제외되어 있던 것에 대한 한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950년대 정부는 대한주택영단, 미 원조기구 등과 더불어 부흥주택, 재건주택, 난민주택, 희망주택, ICA 주택 등 갖은 유형의 주택을 민간에 보급하였다. 이는 성북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안암동의 재건주택, 운크라의 1957년 미아리 난민정착촌사업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성북동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록이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시기 서울시의 도시개발, 즉 구획정리사업에서 성북동과 유관한 개발은 주로 환경정비사업이었다. 즉 종래 파괴된 전화국, 수도시설의 재정비를 위한 증설 공사 등이 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주민들은 주로 전전의 주택에 그대로 거주했던 듯 하다. 주택의 대체적인 규모는 11-30 평 사이가 많았고, 대체로 온돌처리가 되어 있는 집들에 살고 있었다. (227호) 그러나 저마다 주택에 사용된 재료는 달랐는데, 콘크리트 바닥인 집이 138호, 흙 바닥인 집이 113호, 마루 바닥인 집이 152호 등 다양각색이었다. 중요한 수도의 경우 전용 수도를 사용하는 이가 309호, 공용을 이용하는 이가 34호로 분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의 주택개발, 새로운 주택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전망은 작지 않았다. 당시 주민들은 대체로 전쟁 이전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었지만 희망하는 형태의 주택으로 주로 서양식을 선호했다. (164호) 물론 이들 중 일부는 임시가옥인 ‘빠락’에 주거하는 이도 있었다. (3호) 또 셋집에 거주하는 이들도 (54호) 있었다. 생계에 있어서는 공무원이라고 응답한 이가 (140호), 상업이라고 응답한 이가 (163호)로 반반 정도를 차지하는데, 상업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응답자 중 일부는 임시가옥인 ‘빠락’에 거주했고 (3호) 비율이 크진 않지만 농업에 종사한 자가 (5호), 공업에 종사하는 자 (27호)도 있었다. 이 조사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동민 전체를 대표하기엔 부족하다. 또한 당대 성북동에 허다했던 ‘불량주택’에 거주했던 이들이 모두 포함된 것 같지도 않다. 그러나 피난민 이외 성북동 원 주민들의 삶의 일단을 살펴 볼 수는 있었다고 할 것이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52. 5.1. / 『경향신문』 1954. 9. 12 보건사회부 편, 『도시(서울)주택조사보고서』, 서울: 보건사회부, 1958.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0년사』,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1999. 정은경, 「1950년대 서울의 공영주택 사업으로 본 대한원조사업의 특징」, 『서울학연구』 (59), 2015.		

No.	3-6	작성자	한봉석
제목	‘풍치지구’를 벗어나 북악스카이웨이 시대로	키워드	풍치지구, 북악스카이웨이, 불도저식 개발
이야기 자원	문인들의 회고에 등장하는 성북동의 풍경에서 집들이 점차 현대적인 꼴을 잡아가기 시작한 것은 아무리 빨리 잡아도 1960년대 중반경은 넘어야 했다. 윤이상이 조지훈과 마주보고 즐겼던 성북천이 복개된 것 역시 1967년 이후이다.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는 바로 이 본격적인 회고의 이전 시대를 읊조리는 이야기이다. 김광섭은 1961년 건축가 김중업에게 부탁한 설계대로 집을 짓고 성북동에서 5년을 거처했다. 그리고 이때의 기억을 후일 시집에 실었던 것이 바로 ‘성북동 비둘기’였던 셈이다. 성북동에 대한 문인들의 정서는 이렇듯 김광섭에 의해 절묘하게 드러났지만, 그것은 또한 당대 문인들이 성북동을 바라보던 시선이기도 했다. 송지영 선생이 소개한 정한모의 글줄에는 당시의 성북동 상이 잘 드러나 있다. 당시 성북동에 거주했던 정한모는 지금은 고급 주택지대라고 간주되는 곳이 당시에는 “성북초등학교에서 개울을 따라 한참을 걸어올라와야만 하는 약수터나 빨래터를 찾는 사람들만이 올라오는 곳이었다.”라고 회고한다. 즉 1960년대 초중반까지 여전히 성북동은 비록 정재계의 별장터이고 썰의 바다로 불리기는 했지만 아직은 오늘날의 모습보다는 과거의 모습이 더 많이 남아 있었던 셈이다. 그래서 과거 유명했던 배나무, 복숭아 등의 흔적은 점차 사라져갔지만 몇몇 성북동 산위의 집들, 그리고 보통사람들로 구성된 지역 문화는 60년대 중반까지 엇비슷하게 이어져갔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서울의 도시계획 상 성북동의 위치 때문이었다. 해방 이후 서울은 많은 변화를 겪었다. 특히 1961~80년 사이에 서울시는 도시계획 상 구획정리만 27개 지구에, 60~70년대에 집중된 택지조성사업 등을 대규모로 진행했다. 그러나 종로, 중구, 성북, 서대문, 용산 등 일제 하에서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던 지역들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특히 성북동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에 이르러 사정이 변했다. 정부는 제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세웠고, 건설부가 주택건설계획을 발표하는 등 주택보급을 서둘렀다. 그러나 동시에 이는 기존 무허가건물들, 즉 흔히 판자촌이라고 불리는 ‘불량건물’들을 대대적으로 정리하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4년간의 불도저식 개발을 통해 유명해진 서울시장 김현옥의 추진력 아래 서울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7. 10. 23. / 『동아일보』 1967. 6. 26. 방경만 구술,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신종범 구술, <메모리인 서울 프로젝트>		

No.	3-7	작성자	한봉석
제목	‘성북동 비둘기’의 추방	키워드	판자촌 철거, 성북동 비둘기
이야기 자원	그리고 이런 와중에 있었던 대표적 조치가 바로 1967년부터 약 5년간 진행되었던 이른바 ‘판자촌’의 철거와 재배치였다. 특히 서울의 도심부의 형태적 재개발을 위해 정릉 등 기존의 도심 반경에서 5~10km내외의 무허가 정착지들이 철거 대상이 되었다. 정릉과 등을 맞대고 있었고, 또 그 골짜기에 많은 판자촌이 형성되어 있었던 성북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특히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번지 일대의 숲속 풍치지구 약 10만평이 대규모 외국인 주택단지 로 책정된 것은 그야말로 오늘날 성북동 부촌의 전조를 알린 신호였다. 성북전은 복개되었고, ‘풍치지구’로 개발이 불허되었던 숲의 나무들이 집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듬해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를 위한 대대적인 공사의 진행이 이루어질 무렵 김광섭이 ‘성북동 비둘기’를 발표했던 것이다. 물론 1960년대 중반 이전에도 성북동의 개발이 완전히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쿠데타 이후 일부 사유지들이 개인에게 불하되었고, 성북동 지역의 중요 문화재 주변의 필지 등은 소유권 변화 등을 겪으며, 공간상의 변화를 맞이했다. 그러나 역시 1970년대 성북동의 대대적인 변화를 예비했던 것은 풍치지구의 본격적인 해제였다. 1967년 6월 성북동 산 25의 일대가 정부에 의해 외인 택지로 책정되면서 이른바 풍치지구의 축소와 종래 이곳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십여년을 넘게 살아오던 주민들의 철거문제가 사회문제로 외화되었다. 특히 성북동 산 14~26번지 일대의 1백호 가량의 무허가 건물들, 성북동 산 1번지 일대의 3백여 동의 무허가 건물들이 강제적 철거의 대상에 놓였다. 이는 서울시의 북악스카이웨이 공사로 인해 성북동 산 18과 25일대의 필연적 철거로 인해 일부 무허가 판자집의 양성화 계획에서 예외로 상징되는 주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당시의 서울시장 김현옥은 일부 판자촌을 양성화하는 한편 판자촌으로 상징되는 무허가 건물들을 규정에 맞게 철거하거나 개량하고자 하였다. 1968년 12월 현재 성북동에는 여전히 2백동의 불량건물이 존재했고, 이 과정에서 바로 김광섭의 성북동 비둘기와 같은 시들이 급격한 변화를 노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1960년대 중반에 이어 두 번째로 대대적인 풍치지구가 해제되었고, 성북동 330 일대 등을 포함해서 서울 시내 34곳 풍치지구는 25개로 그 규모가 축소되었다. 그리고 1977년 12월 8일 처음 구획된 이래 40여년 만에 드디어 일제의 풍치지구의 대대적 변동이 발생했다. 총 34곳 중 25개 지구로 풍치지구는 축소되었고, 이 중 성북동 330 일대 등이 추가로 해제되면서 이른바 대개발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59. 5. 31. / 『경향신문』 1968. 5. 2. / 『동아일보』 1977. 12. 8.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편, 『서울 600년사』 제 5권, 서울특별시, 1993. 이원호·이세미, 「성락원(명승 제 35호) 주변지역 필지변화과정에 관한 연구 - 성북동 문화재 주변을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 31, No.2, 2013.		

No.	3-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조정래의 소설에 나타난 1959년의 성북동 풍경	키워드	소설 한강, 수돗물, 판자촌
이야기 자원	대하소설 『태백산맥』으로 이름을 알린 소설가 조정래(1943~)는 1959년 보성고등학교 입학차 상경한 후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성북동 산동네에 살며 매일 물지계를 지고 산비탈을 오르내렸다. 대학 졸업 후엔 아내인 김초혜 시인과 함께 부부 교사로 동구여자상업고등학교(현 동구마케팅고등학교)에 재직한 적도 있다. 조정래는 이 학교에서 국어교사로서 근무하던 중인 1970년 『현대문학』 6월호에 단편소설 「누명」이 첫회 추천되어 등단하였으며, 같은 잡지 12월호에 「선생님 기행」이 추천 완료되었다. 1998년 한겨레신문에 연재를 시작한 대하소설 『한강』의 초반부에 등장하는 1959년 성북동의 풍경 묘사는 소설가 자신의 고학생 시절 자전적 체험이 바탕이 되어 씌어진 것이다. 아래 인용문은 소설에서 형 유일민이 막 광주에서 상경한 동생 유일표에게 성북동을 소개하는 대목이다. “싼 방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멀고 불편한 것은 각오해야 돼. 우리가 갈 곳은 이 골짜기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야 하는데, 그전에 여기가 어딘지부터 대충 알아두는 게 좋아. 그러니까 말야, 이 지역 전부가 옛날로 치면 성 밖으로, 산짐승들이나 살고 호랑이가 오가던 산골이었지. 저기 오른쪽에 돌출대 보이지? 저게 바로 한양성의 성터야. 그리고 저 뒤로 보이는 산이 그 유명한 삼각산 백운대와 북악산이 이어지는 산줄기고. 그래서 성북동엔 이 지점까지도 아직 수도가 없어. 수도는 삼선교와 여기의 중간 지점쯤 와 있지, 아마. 언제쯤 수도가 여기까지 뻗을지, 그걸 누가 알겠어. 한마디로, 너나 나나 수돗물 못 먹고 서울 사는 서울 촌놈인 거야. 곧 알게 되겠지만, 사실 이 성북동 골짜기마다 시골서 몰려온 사람들로 만원사레지. 신설동 산동네가 그런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날마다 서울역에 내리지, 어디다 움막이라도 쳐야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보다 더 변두리인 미아리나 종암동, 청량리 같은 데로 밀려가는 수밖에. 나라나 서울시에서 속수무책인 채로 무허가 판자촌이 생겨나고 있는 판이지. 그런 곳에 비하면 여긴 천국인 셈이야. 시내 가깝겠다, 전차 탈 수 있겠다, 버스에 비해 값싼 전차를 탈 수 있다는 건 가난뱅이들한테는 큰 혜택이 아닐 수 없거든. 그런 건 차차 살아가면서 느끼게 될 거고, 그럼 슬슬 움직여볼까.” - 조정래, 『한강』 1권 1부 중에서		
참고문헌	조정래 대하소설, 『한강』 (2003년 완간)		

No.	3-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조성 과정	키워드	성락원, 평의바다, 대교단지
이야기 자원	1960년대 중반부터 형성되기 시작한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1970년대 크게 세 구역으로 나뉘어 확대되었다. 성락원 마을(5통), 평의바다 마을(8통), 대교단지(9통)가 그것이다. 입주민은 대체로 국내 대기업 총수, 전·현직 고급 공무원, 언론인, 대학교수 등 내로라하는 사람들, 이른바 한국 사회의 ‘주류’였다. 무엇보다 1970년 삼청터널의 개통이 부촌 형성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 성북동-세종로 간 거리를 10분 이내로 단축시켜 준 이 터널 덕분에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인기는 한층 높아졌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이르면 현대, 럭키금성, 롯데, 국제, 효성, 두산, 코오롱, 한국타이어, 남양유업을 비롯한 우리나라 유수의 대기업 회장들의 모여 사는 한국 제일의 부자동네가 되었다. 그밖에 1974년 일본대사관저와 1976년 서독대사관저를 필두로 주한 외교관들의 사택들도 속속 들어서서 일대의 풍경을 한층 다채롭게 만들었다. 1970~80년대 성북동 고급주택들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다. 명패도 없는 대문, 철옹성 같은 담장, 슈퍼 하나 없는 골목, 곳곳에 초소와 감시카메라가 있는 이상하리만치 조용한 이 동네를 찾은 취재기자들은 순찰을 도는 경찰들에게 수상한 사람으로 몰리기 일쑤였다. 이 일대의 ‘호화주택’은 심심치 않게 언론의 도마에 올라 사회적 병리 현상으로 지탄 받았다. 심지어 ‘도둑촌’이라는 말도 생겨났다. 도둑질을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서민 주택가격의 20~30배가 넘는 호화주택을 지어 살 수 있겠느냐는 데서 생겨난 말이었다. 가까운 서민들의 주거지와 동떨어진 채 어떠한 교류도 허용치 않는 한국 최고부자들의 동네는 좋게 말하면 별천지요, 나쁘게 말하면 자기들만의 성채였다. 갈수록 인간의 얼굴을 잃어가는 고도 자본주의의 속성이 삭막한 경관으로 표출된 것이었다.		
참고문헌			

No.	3-1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회적 위상	키워드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야기 자원	1978년 조세희가 펴낸 연작소설집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은 이러한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회적 맥락과 의미를 날카롭게 해부하고 있다.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였다. 아버지가 행복동 삼층집을 팔고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한다고 처음 말했을 때 누나는 발을 동동 구르며 싫다고 했었다. 비서를 따라 갔다 와서는 반대로 이사갈 날만 기다렸다. 울타리가 쳐져 있는 동네였다. 입구에 경비실이 있고, 경비원들이 차를 세워 동네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했다.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거리는 깨끗하고, 집들은 그림 같았다. 걸어서 이 저택촌을 드나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봄이 되자 동네는 향기로 가득 찼다. 껌뿔뿔뿔굴장마라일락백목련산철쭉가막살나무박태기나무 등이 꽃을 피웠다. 벌들이 잉잉 소리를 내며 날았다. 그 동네에서는 과거의 소리를 들을 수 없었다. 비 온 다음의 풍경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다. 윤호는 거기서 작은 혼이 자지러지는 소리를 듣고는 했다. - 「케도 회전」 중에서 윤호네는 ‘행복동’ 3층집을 팔고 북악산 산허리 숲속 단층집으로 이사를 갔다. 윤호네가 이사를 간 동네에서는 더 이상 3층 다락방 바깥으로 ‘난장이’의 동네가 보이지 않았다. 방죽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무허가 건물들도 벽돌 공장의 굴뚝도 보이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난장이의 가족을 만날 일도 없어졌다. 거리는 깨끗하고 집들은 그림 같은 북악산 산허리 숲속의 동네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다. 이웃의 ‘은강그룹’ 회장집도 마찬가지로였다. 이들이 사는 아주 밝고 깨끗한 동네는 저 멀리 서해안의 공업도시 ‘은강시’와 대조된다. (은강) 시내에는 많은 구름이 기복을 이루며, 동서로 뻗은 중앙부의 구름에 의하여 시가지는 남북으로 나뉜다. 공장 지대는 북쪽이다. 수없이 솟은 굴뚝에서 시커먼 연기가 오르고, 공장 안에서는 기계들이 돌아간다.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일한다. 죽은 난장이의 아들딸도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 그곳 공기 속에는 유독 개스와 매연, 그리고 분진이 섞여 있다. 모든 공장이 제품 생산량에 비례하는 흑갈색황갈색의 폐수폐유를 하천으로 토해낸다. 상류에서 나온 공장 폐수는 다른 공장 용수로 다시 쓰이고, 다시 토해져 흘러 내려가다 바다로 들어간다. 은강 내항은 썩은 바다로 괴어 있다. 공장 주변의 생물체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중략) 수많은 공장, 그 공장을 움직이는 경영인들, 그리고 그 경영인들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서울에 있었다. - 「기계 도시」 중에서 흔히 성북동을 부자동네와 일반 서민들의 동네가 서로 마주보고 공존하는 기묘한 동네라고들 한다. 그러나 조세희의 소설은 성북동을 좀 더 넓은 각도에서 본다. 소설에서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어디까지나 저 멀리 떨어진 공장지대의 대칭점으로서 여기에 존재한다. 밝고 깨끗한 이 동네에서는 ‘과거의 소리’가 그렇듯이 노동자의 소리도 차단된다. 이러한 맥락을 이해한다면 성북동 고급주택지는 이들, 성북동 주민들과 마주보며 있는 마을이라기보다 저들, 자신이 고용한 노동자들과 거리를 두기 위한 안전지대이다. 물론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이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소설은 아니다. 그러나 성북동 고급주택지가 한국 사회에서 갖는 의미를 잘 지적인 훌륭한 문학적 보고서임에는 틀림없다.		
참고문헌	조세희,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문학과지성사, 1978.		

No.	3-11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7년 길상사의 개원	키워드	김영한, 법정, 무소유
이야기 자원	1997년 12월, 길상사의 개원은 성북동 고급주택지에 새바람을 몰고 왔다. 군사정권 시절 요정정치의 대명사로 알려졌던 대원각의 소유주 김영한(1916~1999) 여사가 법정(1932~2010) 스님의 책 『무소유』를 읽고 감명을 받아 스님에게 7천여 평의 땅과 건물을 모두 시주하겠다고 10여 년 동안 간청한 끝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1995년 송광사의 분원으로 등록한 절은 2년여 동안 예전 음식점과 유흥장으로 쓰던 건물을 법당, 선원, 요사채 등으로 개조, 단장한 끝에 길상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신도들을 맞이했다. 존경 받는 승려이자 수필가로 이름이 높은 법정 스님이 회주로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불자는 물론 많은 일반인들이 길상사를 찾았다. 바로 절 앞에 닿는 버스가 없어 마을버스에서 내린 후 약 1킬로미터 되는 거리를 굽다시 걸어 올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신도와 방문객들은 기꺼이 수고를 감내했다. (지금은 한성대입구역에서 나와 성북02번 마을버스를 타면 된다.) 유령 도시처럼 적막했던, 기껏해야 대원각을 찾아온 시커먼 차량들만 줄지어 다니던 성북동 고급주택지 골목에 모처럼 웃음꽃이 피어났다. 때마침 불어 닥친 IMF 외환위기로 성북동 부자들의 기세도 한풀 꺾여가던 시기여서 길상사는 그 존재만으로 일대에 작은 파장을 일으켰다. 골목은 외관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저 위쪽 무소유의 산문(山門)을 향하여 난 순례의 길이 되면서 예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의 공간으로 바뀌었다.		
참고문헌			

No.	3-12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6년 성북문화원의 개원	키워드	구두회, 제2의 전경련
이야기 자원	더불어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1996년 말 성북문화원의 개원이 그것이다. 지방문화원의 개원이 뭐 그리 중대한 사건이냐고 말할지 모르지만 당시 이는 ‘제2의 전경련’이라고 할 정도로 세간의 관심을 모은 ‘사건’이었다. 고 구두회 LG그룹 창업고문이 초대 문화원장을 맡고 성북동의 대기업 회장들과 원로 문화예술인들이 이사진으로 참여해서 성사된 성북문화원의 개원은 성북동 상류층들이 힘을 합쳐 만든 새로운 문화 커뮤니티의 탄생이란 점에서 매우 뜻 깊은 일이었다. ‘제3의 물결’로 불리는 세계 경제의 새로운 전기를 맞아 기업인 스스로 문화의 가치와 지식정보의 중요성을 자각했음을 알려주는 시대적 지표이기도 했다. 또한 기업의 사회환원 활동이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현상이었다. 아래쪽 세상과는 단절된 드높은 성채처럼 보였던 저 성북동 고급주택지의 사람들도 사실은 시대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조금씩 변화를 모색하고 있었음이 드러난 장면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No.	3-1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로(1)	키워드	나폴레옹과자점~최순우옛집
이야기 자원	성북동의 한복판을 지나는 도로이다. 1980년대 성북천을 복개해서 만든 길이다 보니 복류하는 물길의 곡선을 그대로 따라간다. 길이는 약 2킬로미터로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서 시작해 일본대사관저 앞까지 이어진다. 원래 왕복 2차선이었던 도로는 1998년 한성대입구역 교차로에서 홍익중고입구까지 왕복 6차선으로 확장되었다. 1111번을 비롯해 네 종류의 버스가 이 도로를 지나며 성북동의 오래된 장소들이 길 양옆으로 포진해 있다. 길의 시작점, 한성대입구역 5번 출구 앞의 나폴레옹과자점이 해사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이한다. 1968년 2월 삼선교에 처음 문을 연 이 제과점은 우리나라 7명의 제과 명장 중 3명을 배출한 한국제빵사들의 산실이다. 고 강인정 초대사장은 제과제빵 선진국인 일본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어 창업했으므로 처음 ‘동경제과’란 상호로 업소 등록을 신청했지만 ‘왜색’이라는 이유로 당국의 불허 통보를 받았다. 빵집 이름을 다시 정해야 했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아들이 즐겨 읽던 나폴레옹 위인전에서 힌트를 얻어 지금의 상호를 달았다고 한다. 2007년 성북천 복원공사로 삼선상가가 헐리면서 여기로 이전 확장했다. 동구마케팅고 입구 맞은편엔 이승만 대통령이 1957년 식목일에 심었다는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부근에 조선의 천재화가 오원 장승업(1843~1897)이 말년에 살았다는 초가집이 있었다고 한다. 여기에 장승업이 살았다는 것은 원로화가 산정 서세옥(1929~)의 증언에 따른 것이다. 1995년 ‘미술의 해 조직위원회’에서 집터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해 놓았으나 파손되어 지금은 가까운 성북예술창작터에서 보관 중이다. 홍익중고 입구 버스정류장 부근 골목에는 앞서 언급한 최순우 옛집과 조지훈 집터 표석이 있다. 2002년 빌라 건축 붐 속에서 자칫 사라질 수 있었던 최순우 옛집이 시민문화유산 1호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내셔널트러스트 활동가들의 노력과 이를 도운 시민들의 성원 덕분이었다. 2년간의 보수와 복원 공사를 거쳐 2004년 4월, 일반에 공개된 가옥은 길상사의 뒤를 이은 성북동의 또 하나 열린 공간이 되어 시민들을 맞이했다. 미술사학자 고 최순우(1916~1984) 선생의 애정 어린 손길 위에 순수 민간의 힘으로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더해진 이 근대한옥은 길상사와 함께 성북동 방문객들이 가장 자주 찾는 명소이다.		
참고문헌			

No.	3-1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로(2)	키워드	간송미술관~우정의공원
이야기 자원	성북초등학교 주변으로도 유서 깊은 장소가 많다. 선잠단지, 마전터, 간송미술관이 학교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다. 간송미술관 하면 봄, 가을에 보름씩 열리던 특별전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많다. 1971년부터 시작된 특별전은 매년 전시회가 열릴 때마다 관람객의 행렬이 미술관 입구부터 큰길 가까까지 길게 이어지는 진풍경을 자아냈다. 간송미술관 전시의 좋은 점은 우리 옛 그림을 은은한 자연광 아래서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뒤따라오는 행렬에 밀려 미처 오래 감상할 수 없었지만 오히려 짧은 일별이 오랜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2014년부터 동대문에 있는 디자인플라자의 상설전시로 옮겨가면서 예전과 같은 줄서기는 자취를 감추었다. 간송미술관이 다시 성북동의 열린 공간으로 시민들 곁에 다가올 날을 기다린다. 간송미술관 앞을 지나면서 도로는 2차선으로 좁혀지고 ‘쌍다리’라고 하는 곳이 나온다. 덕수교회(이종석 별장),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 성북구립미술관, 수연산방(상허 이태준 가옥) 등이 마주보고 있는 이 지역은 복개 전 성북천 위로 두 개의 다리가 놓여 있었다고 한다. 아래쪽은 돌다리, 위쪽은 나무다리였다. 지금은 쌍다리 돼지불백이란 상호를 단 식당만이 옛날 지명을 알려준다. 큰길과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구 본원(현 피정의 집)을 잇는 복자교는 1968년에 준공되었다. 성북구청은 2014년 이 다리 아래쪽으로 약 100미터 구간에 있던 가옥과 상가를 철거, 쌍다리 지구 특화거리 조성을 준비하고 있다. 1111번과 2112번 버스의 회차지점 주위로는 만해 한용운 심우장, 근원 김용준의 노시산방 터, 성북 우정의 공원 등이 있다. 우정의 공원에는 향시 형형색색 깃발들이 휘날리고 있는데 모두 성북동에 대사관저를 둔 국가들의 국기이다. 일 년 내내 성북로 양쪽에 걸려 있는 세계 국기들의 정체를 여기에서 파악할 수 있다. 성북동의 각국 대사관저는 1998년 22개국에서 2015년 현재 42개국으로 늘었다. 1998년 성북구청은 성북로를 ‘문화의 거리’로 만드는 사업을 펼쳤다. 성북로 주변의 문화공간들을 연결한 탐방 코스 운영과 성북동 주민센터 맞은편 벽화거리 조성이 주된 내용이었다. 1999년 6월 인근 한성대학교 교수와 학생들이 그린 벽화는 가로 55미터, 세로 2.2미터의 크기로 성북동의 역사와 인물들을 담았다. 퇴색한 벽화는 지금 보면 유행에 뒤떨어진 감이 없지 않으나 하나하나 뜯어보는 맛이 있는 싱겁지 않은 그림이다. 2013년 성북동이 ‘성북동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된 이후 구청에서는 관련 사업들을 연달아 진행해 오고 있는데, 벽화 거리와 같은 과거의 성과들도 찬찬히 검토하면서 안고 가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참고문헌			

No.	3-1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로의 문화공간	키워드	효재, 스페이스 오뉴월, 캔 파운데이션
이야기 자원	성북초등학교 옆 선잠단지에서 시작해 성북동 성당을 지나 한국가구박물관 입구까지 1킬로미터 가량을 잇는 도로이다. 성북동 고급주택지를 관통하는 중심 골목이기도 하다. 가파른 비탈인데다 자동차들이 빠른 속도로 오가는 때가 많으므로 걸어서 다니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2015년 길상사까지는 인도가 완공되어 이 구간만은 한층 걷기 편하게 되었다. 길상사 외에도 정법사, 연화원, 금강사와 같은 사찰들이 있으며 아래쪽에는 성북동 성당, 작은형제회 수도원과 같은 카톨릭 종교시설들이 있다. 이만하면 ‘믿음의 거리’나 ‘명상의 골목’이라고 불려도 되겠다. 선잠로에는 근래에 들어선 소규모 문화공간들이 많다. 효재, 스페이스 오뉴월, 캔 파운데이션이 대표적이다. 효재는 길상사 앞에 있는 한복집으로 한복 디자이너 이효재 씨가 주인으로 있다. ‘보자기 아티스트’, ‘한국의 마사 스튜어트’, ‘자연주의 살림꾼’이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는 이씨는 가게 운영뿐 아니라 저술, 전시회, 아트쇼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며 한국 살림 문화의 아름다움을 국내외에 전파하고 있다. 2009년 탤런트 배용준과 일본 도쿄돔을 찾아 보자기 아트쇼를 펼친 후로 한복집 효재는 일본인 관광객들도 자주 찾는 성북동의 숨은 명소가 되었다. 작은형제회 수도원 앞 오거리 한 구석에는 갤러리 스페이스 오뉴월(Space O'NewWall)이 있다. 미술이론을 전공한 젊은 기획자들이 의기투합해 세운 이 갤러리는 2011년 6월 개관전을 열었다. 서준호 대표는 한 인터뷰에서 “다양한 장르·연령·매체·국가시대가 화합하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 워크숍·프로젝트·세미나·스크리닝 등의 활동을 병행해 지역사회, 도시, 국제사회와 통하려 한다”고 설립 취지를 밝힌 바 있다. 2008년 문을 연 캔 파운데이션(CAN foundation)은 현대미술을 통하여 미술계뿐 아니라 문화예술 전반과 사회를 아우르는 선순환구조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CAN’은 ‘Contemporary Art Network’란 뜻이다. 국내작가의 예술활동 지원사업, 어린이 미술체험교육, 창작활동 지원사업, 해외 문화교류사업, 문화예술 아카데미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2009년부터 시작한 ‘아트버스 프로젝트’는 문화나눔희망지역 및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미술창작을 할 수 있도록 제작된 아트버스와 작가가 직접 찾아가서 예술창작 등의 체험교육을 제공하는 캔 파운데이션의 대표적 사업 가운데 하나다.		
참고문헌			

No.	3-1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청룡암과 삼청각	키워드	청룡암, 이광수, 삼청각, 7.4남북공동성명, 이정자
이야기 자원	삼청각은 해당 홈페이지 창에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이라고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으나 실제 이 공간이 품고 있는 역사는 결코 만만치가 않다. 다소 긴 설명을 요한다. 원래 삼청각 자리 부근에는 청룡암(靑龍庵)이란 절이 있었다. 조선 철종 때 영의정을 지낸 안동김문의 세도가 김좌근(金左根, 1797~1869)이 1853년(철종 4)에 창건한 절이다. 1934년 8월 30일 국어학자 이운재(李允宰, 1888~1943)가 『동아일보』에 발표한 글에 따르면 청룡암은 비구니 승방으로 당시 박묘상(朴妙相) 스님이 주지로 있으면서 3~4인의 상좌를 거느리고 절 살림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또한 ‘서울의 지척에 있지만 인적이 드물고 소란스럽지 않아 속세를 벗어난 별유천지의 경관이 빼어나므로 풍류를 즐기는 인사들이 왕왕 들러 놀다 가고 혹 정양차 기숙하는 이도 있었다’고 한다. 일설에 의하면 1934~1935년 무렵 춘원 이광수(1892~1950)가 이 절에 머물면서 『그 여자의 인생』이란 소설을 집필했다고 한다. 춘원은 소설 쓰는 틈틈이 가까운 심우장에 들러 만해를 보고 가기도 여러 번이었다고. 김용준, 이태준 같은 성북동의 예술가들도 청룡암과 미륵암(현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자리)을 산책 삼아 찾고는 하였다. 8.15해방과 한국전쟁을 겪는 와중에도 꺾끗이 법맥을 유지해 오던 청룡암은 1969년 산지개발계획에 밀려 토지를 매각하고 동소문동으로 도량을 옮겼다. 1972년 청룡암 자리 위쪽에 삼청각이 들어섰다. 6천여 평의 넓은 대지에 4층짜리 한옥 본관과 별관 4개를 갖춘 당대에 보기 드문 규모였다. 1972년 7.4남북공동성명 이후 11월 30일에 열린 남북조절회의 만찬이 이곳에서 열렸다. 남측 대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북측 대표 박성철 부수상이 공동성명의 발표를 축하하는 건배를 했다. 그 후 삼청각은 1970년대 남북적십자회담과 국민 접대를 위한 장소로 즐겨 사용되다가 내국인과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개방되면서 고급 요정으로 운영되었다. 상주하는 호스티스만도 300명이 넘었던 삼청각은 대원각, 오진암과 함께 장안의 3대 요정으로 꼽혔다. 그러다가 1983년 여주인 이정자 씨가 외화밀반출 및 탈세 사건에 연루되는 악재를 겪은 이후 시내 고급 룠살롱 등에 밀려 손님이 크게 줄어드는 경영난에 부딪히게 되자 결국 1993년 부지와 건물 일체를 내놓고 문을 닫았다. 1996년 일반음식점으로 전환해 ‘예향’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이어오다 1999년 예향이 폐업하자 2000년 서울시가 삼청각 부지와 건물을 도시계획시설상 문화시설로 지정하고 리모델링을 거쳐 2001년 전통문화공연장으로 개장했다. 2009년부터 (주)세종문화회관에서 운영권을 넘겨받아 한국의 식문화 및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 2015년 2월 서울시 미래유산으로 선정되었다.		
참고문헌			

No.	3-17	작성자	백외준
제목	북정마을 순환로	키워드	북정마을, 소방도로, 재개발 반대
이야기 자원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북정마을은 심우장 뒤편 한양도성 성곽이 보이는 평퍼짐한 언덕에 있다. 마을 이름 ‘북정’은 조선시대 포백훈조계가 여기 있던 시절, 인부들이 ‘북적북적’ 모이는 소리 또는 메주 쏘 때 ‘북적북적’ 끓는 소리를 따서 지었다고들 한다. 오늘날처럼 큰 마을이 된 것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민과 지방에서 상경한 사람들이 무너진 한양도성 성곽 아래 판자촌을 이루어 살면서부터다. 1970년대 성곽 보수복원공사로 성벽 가까이 살던 주민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켰지만 다시 마을로 돌아오거나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온 사람들로 주민 숫자가 늘어났다. 마을을 한 바퀴 빙 두르는 도로는 1983년에 완공한 소방도로인데 이 도로 안팎에 500여 가구가 모여 산다. 마을 꼭대기 성북 03번 마을버스가 서는 정류장에 있는 작은 슈퍼는 ‘북정카페’로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한다. 정류장 앞 너른 길은 ‘월(月)월(Wall)축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마을행사가 열리는 곳으로 축제는 주민들뿐 아니라 마을에 입주해 살고 있는 예술가들도 참여한다. 겨울에는 이곳에서 마을 아줌마들이 함께 모여 김장을 담그기도 한다. 슈퍼 건너편 북정노인정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마을의 중요한 일들을 논의하는 곳이다. 마을 곳곳 담벼락에는 아직도 재개발 반대의 목소리를 적은 벽보가 붙어 있어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 계획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고민과 갈등의 한 자락을 읽을 수 있다. 2004년 서울시는 마을 일대를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성북2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구역을 한옥마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해 한옥과 저층 주택이 어우러진 한옥마을을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재개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지만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서울시는 2012년 성북2구역을 신월곡1구역과 묶어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범 재개발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계획 역시 마을을 그대로 보존하기를 바라는 대다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유보된 상태로 있다. 더구나 2017년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앞두고 있어 성곽 주변을 공사장으로 만드는 것도 난감한 일이라 한동안 재개발 소식은 쑥 들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편, 『2014년 한양도성 마을 특별전 : 도성과 마을 1』.		

No.	3-1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의 순성길	키워드	한양도성, 순성길, 암문 혜화문, 숙정문
이야기 자원	성북동에서 가장 오래된 길이다. 1910년경 성 밖에서 혜화문을 찍은 사진을 보면 성문 앞으로 세 갈래의 길이 나 있는 것이 보인다. 정면으로 나 있는 길은 돈암동을 거쳐 미아리고개를 넘는 길이고, 하나는 비스듬히 S자 모양으로 내려가 지금의 성북1치안센터 앞에서 성북천변을 타고 오르는 길이다. 또 하나는 아예 내려갈 생각을 않고 성벽에 바짝 붙어 북서 방향으로 올라가는 길이다. 박제가(1750~1815)의 시 제목에 ‘혜화문을 나와 성을 돌아 서쪽으로 2리(약 800미터)를 가면 성북둔이 나온다 [出惠化門 循城而西二里 有倉曰城北屯]’고 했을 때의 그 길이다. 신통하게도 이 세 길 모두 지금도 옛날 그 위치 그대로 남아 있으며 순성길 역시 정비가 잘 되어 있다. 성북동의 순성길은 혜화문에서 숙정문을 최단거리로 잇는 길로서 성곽은 물론 좌우로 아름다운 풍광을 실컷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혜화문-혜성교회-경신고등학교 뒤편까지는 유실구간이 많아 여느 골목길과 다름없어 심심할 정도이지만 성북동 쉼터부터는 가파른 오르막이 연달아 이어져 웬만한 체력으로도 만만치 않다. 이 때문에 성북동과 한양도성을 연달아 보여주고 싶은 마을해설사들은 탐방객의 편의를 위해 최순우 옛집-선잠단지-수연산방-심우장을 거쳐 북정마을 공중화장실에 한 번 들른 다음 암문(暗門)을 통해 성곽 안으로 들어가 곧장 성북동 쉼터로 내려가는 길을 택한다.		
참고문헌			

No.	3-1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주민들의 단체 - ‘성아들’과 ‘성북동천’	키워드	성북동 주민, 단체
이야기 자원	성북로 옆에 동지를 틈 ‘성북동의 아름다운 사람들’-일명 성아들-은 성북동을 방문하는 관광객들과 학생들에게 이 동네의 역사문화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마을기업이다. 성북동과 한양도성 탐방코스를 주로 맡아 한다. 성북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등 모임이 역사탐방 부모 커뮤니티로 발전하였고 해설 수요가 증가하자 서울시 마을기업 만들기 공모를 통해 협동조합으로 정식 출범을 본 경우다. 2013년 11월 성북동의 주택 한 층을 빌려 정식 사무실을 개소한 이래 해마다 전문 해설사를 양성, 배출하고 있다. 성북동의 오래된 장소들이 볼거리로만 머물지 않고 생생한 배움의 장으로 남게 된 데에는 성아들에 속한 해설사들의 남모르는 노력을 빼놓을 수 없다. ‘성북동천(城北洞天)’은 성북동 주민, 단체, 예술인들이 결성한 마을 공동체 모임이다. 선잠로 12-6에 조그마한 모임장소를 두고 마을잡지 발간, 마을탐방, 마을학교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오고 있다. 2013년 11월 창간호를 낸 마을잡지 『성북동 사람들의 마을이야기』는 2015년 11월에 제6호를 발행했다. 잡지는 성북동 사람들의 삶과 이야기, 골목 기행, 문화재 탐방과 같은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북동 주민센터와 성북동의 작은 가게들에서 무료로 배포된다. 얇은 책이지만 성북동 주민들의 나날의 삶을 기록하고 이를 미래에 전달할 유일한 매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상당히 두툼하다.		
참고문헌			

No.	3-20	작성자	백외준
제목	대한교육보험, 외국인 주택 건설	키워드	외인주택 건설, 대한교육보험사
이야기 자원	외국인 주택 건설에 보험사서 6억 출자. 재무부는 생명보험회사에서 약 6억원을 외국인 전용주택과 대규모 「아파트」 건설에 투자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1일 관계당국은 이 외국인 주택 건설 사업은 서울시내 성북동에 이미 확보된 9만평의 대지에 단독주택 1백90동(8천8백평) 「아파트」 2동(3천6백평) 부속건물3동(3백평)을 세우도록 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7.03.11		

No.	3-21	작성자	백외준
제목	‘동베를린 사건’과 작곡가 윤이상	키워드	윤이상, 성북동 128의13
이야기 자원	「동백림을 거점으로 한 북괴의 대남 공작단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지검 공안부 이종원 부장검사는 29일 상오 제3차 수사결과로 음악가 윤이상(50·서울 성북구 성북동 128의13) 씨 등 18명을 구속기소, 전국의기노조 오산지부 상무 어원(51)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22명을 기소하고 서독 「켈른」 대학 대학원 학생 배준상(32) 씨 등 5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검찰은 이 사건에 관련되어 중앙정보부에서 송치된 66명의 관련자 가운데서 31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기소, 6명에 대해서 불기소처분하고 오는 8월 2일 제4차 수사결과를 다시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기소된 관련자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이 적용되었는데 모두 자격정지까지 병과되었다. 불기소 처분된 5명의 관련자 가운데 배씨는 북괴를 찬양한 혐의가 없다는 것이 밝혀져 무혐의 불기소되었으며 「캘리포니아」 대학강사 하태길(31), 「노트르담」 대학 화학과연구원 강성중(31) 씨 등은 26세부터 이학박사 학위를 받은 우리나라의 동량이 될 인재들이기 때문에 정상을 참작하기로 했으며 강빈구 씨의 처 강·하이드론 게란드(31·서강대학 강사)씨는 정을 모르고 부부의 정에 끌렸다는 이유로 서독에 귀국시키기로 했으며 임석진 씨의 여동생 임애자(29) 씨도 오빠에게 추종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하기로 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7.07.29		

No.	3-22	작성자	백외준
제목	명수학교의 개교	키워드	명수학교(서울다원학교)
이야기 자원	정신박약어린이학교 명수학원 개교 6세~10세까지의 정신박약아중 IQ50이상의 아동을 맡아 가르칠 서울 명수학원(설립자 최경순)이 올해부터 개교한다. 성북구 성북동 226의 91에 자리잡은 이 학교는 학급당 정원 20명씩 2학급을 모집, 6년간 특수 지도를 할 것인데 앞으로는 불구자도 모집하리라 한다. 전형시험은 오는 2월25일.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8.01.30		

No.	3-2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무허가주택 철거의 진통	키워드	무허가주택 철거, 철거반원 투석전, 4백여가구
이야기 자원	11일 상오 11시 3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87 무허가주택 4백여 가구 2천여명의 주민들은 철거에 나선 구청 철거반 2백여 명과 기동경찰 1천여 명과 충돌, 주민 김일봉 씨(33)등 10여 명과 구청 녹지계 직원 민병두 씨(32) 성북서 근무 윤성섭 순경(41) 등 철거반원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날 철거반원들이 철거에 착수하자 주민들과 투석전이 벌어졌는데 오물통과 몽둥이를 가진 주민들은 『양성화해주겠다던 약속을 어긴 철거는 못한다』고 팽과리를 치면서 아우성쳤다. 이들은 작년 선거전에 통·반장을 통해 양성화신고 용지대값조로 30원씩을 거뒀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사나운 기세로 철거반원은 일단 후퇴했다가 하오 2시부터 다시 철거에 나섰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8.05.11		

No.	3-2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조지훈 시인 별세(1)	키워드	조지훈, 성북동 60의44
이야기 자원	청록파 시인이며 고대 교수인 조지훈씨가 17일 상오6시 「메디컬센터」에서 기관지 확장으로 세상을 떠났다. 향년 48세. 고전적 소재와 전아한 시풍으로 시단에 많은 영향을 끼친 조교수는 근년 민족문화연구소를 개설, 국학의 분류사 간행에 분주했고 우리나라 민속학사를 집필중이었다. 시집으로 「풀잎단장」 「지훈 시선」 「역사 앞에서」 외에 「시의 원리」 「시와인생」 「창에 기대어」 등이 있다. 유족은 미망인 김난희여사와 3남1녀. 장례식은 21일 문단장으로 거행할 예정이다. 호상소는 서울 성북동 60의44 자택. 92-1053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8.05.17		

No.	3-2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조지훈 시인 별세(2)	키워드	조지훈, 청록파
이야기 자원	조지훈 씨가 17일 세상을 떠났다. 10여년내의 숙환이던 기관지 천식이 끝내 그를 앓아갔다. 그분은 최근엔 불과 몇 마디의 말도 잊지 못하고 쿨룩거렸다. 전화 받는 일조차 호흡이 가빠 사양했다. 『오늘날 주사엘 가도 시인은 옷자락을 스치기 힘들다. 터분히 마주앉아 막걸리잔 조차 나누기 힘들어졌다. 시인들의 소외는 시인들끼리만은 아니다. 오늘날 시를 읽으려는 독자는 아무도없다.』 작년 7월 「한국신시60년기념사업회」를 발기하는 자리에서 그는 펍 「페이소스」에 넘쳐 있었다. 시인들의 적적함과 외로움은 비단 시인들 전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심경이었던지도 모른다. 그의 만년은 이처럼 쓸쓸했다. 한국신시의 면면한 맥박을 이어주었던 1930년대의 청록파 시절은 그의 황금기였는지도 모른다. 그 당시의 세 문학청년(목월·두진 등)은 지금 고인의 자택인 성북동 개울가의 그 기와집 사랑채에 모여, 밤이 늦도록 민족정신을 이야기하고, 한국의 고유한 전통에 탐닉해 있었으며, 잊혀져가는 우리의 고전적 풍습에 연연해 있었다. 『자연은 청록파의 마지막 구원을 회구한 신이었다』는 말을 고인은 최근에 한 적이 있었다. 그가 한때 자연에 몰입해 있었던 것은 암담한 현실을 비판하고 탄식하고 있을 수 없었던 일종의 구원의 길이었던 것이다. 1930년대의 그 암흑을 내면에서 밝혀준 것은 용변가도 애국지사도 아닌 그 당시 몇몇 시인들의 조용하고 눈물겨운 음성이었다. 『비록 이 시대와 사회, 그 민족과 국가가 시와 시인을 버린다 해도, 시인은 언제나 이 시대와 사회를 지키고 제 민족과 조국의 정의를 드높인다. 이것은 그의 깊은 신념이었으며 언젠가 이 살벌하고 건조한 세상에 「시의 중흥」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오늘의 침체에서 떨치고 일어나 잃어진 시의 권위를 탈환하며 미래의 빛나는 설계를 이룩함으로써...』 그러나 그분의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이 숨 가쁜 소망도 이루어지기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젠 그분의 기침소리조차 사라지고, 낭랑한 시들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8.05.17		

No.	3-26	작성자	백외준
제목	보화각에서 국보급 고서 발견	키워드	간송, 용감수감, 고서
이야기 자원	고 전형필(간송)씨의 개인 박물관인 보화각(보화각·서울시 성북구 성북동)에서 세계적인 진본인 이조 초기의 용감 수감을 비롯한 국보 또는 보물 급의 210권의 고서가 발견되어 새 봄을 맞은 학계에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보화각은 5년 전인 62년에 56세로 작고한 전씨가 평생을 두고 수집한 수많은 고서화 및 도자기 등을 간직한 우리나라 유일의 개인 박물관으로만 알려지고 있었다. 6·25이래 문을 닫고 있던 동 박물관을 금년 봄에 새로 개관코자 유족 및 관계자들이 정리 작업을 하던 중 아직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2만여 권의 방대한 한적장서 가운데서 새로 희귀한 책들을 가려대게 된 것이다. 금년 들어 보화각 장서 정리작업에 참가했던 문화재 총 위원장 김상기 박사를 비롯한 이홍직, 김원룡, 최순우, 진홍섭씨 등 사계의 권위자들은 장서 속에 간직된 우리나라 유일본과 또는 출판 문화 연구나 국학 연구에 무거운 비중을 지닌 책들이 너무나 많아 흥분과 기쁨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24일 현재 2만여 권의 장서 중 약 절반인 1만여 권에 대한 정리를 끝낸 관계자들은 고인인 전씨가 고 미술품 수집가로서 뿐만 아니라 장서가로서도 으뜸이라고 놀라움을 말하면서 나머지 장서 속에서도 어떤 귀중본이 새로 발견될지 모르겠다고 기대에 부풀고 있다. 즉 전씨 소장본으로 기왕에 「훈민정음」 「동국정운」 「안향금보」 등은 모두 국보로 지정된바 있기는 하였으나 그밖에 이와 같은 방대한 장서와 귀중본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 새로 햇별을 보게 된 용감수감 7책 한 질만 하더라도 그 본 고장인 중국에서조차 완질이 없어 일본에 전래된 것과 합쳐서 영인을 해야 했을 정도였다. 뿐만 아니라 전씨 소장의 그것은 보기에 아름다운 송설체의 순천판본으로서 책의 내용과 함께 우리나라 출판 문학사는 물론 서지학상의 중요한 발견으로서 세계적인 진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 유일의 귀중 도서인 갑인자 주자본인 「본초」 권7, 「여사서 언해」, 「속옥체 의」 및 목판본인 「삼한시귀감」, 「몽산화상법어 언해」 초판본 등 이조 전기의 것 10여 종과 서지학상 희귀본으로 지목되는 책들은 별 항의 것들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67.01.24		

No.	3-2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시인 천상병이 살아 있다	키워드	천상병, 행려병자
이야기 자원	5개월 동안 행방을 감춰 가까운 문단 동료들까지 다계한 줄로 믿고 있었던 시인 천상병씨(41)가 서울 서대문구 암동에 있는 시립 정신병원에서 입원 가료 중임이 밝혀졌다. 그의 병명은 『알콜에 의한 정신적 황폐증』으로 나와 있다. 지난달 성춘복 송영택 이형기 박재삼 등 평소 천씨와 가깝게 지내던 시인들이 여러 곳에 실린 그의 시들을 모아 시집 『새』를 출판하면서 그의 행방은 모든 사람들을 궁금케 했다. 『언제 어디선가 죽어간 것이 틀림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으나 한편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천씨를 찾는 작업은 계속되었다. 최근 천씨를 치료하고 있는 담당 의사 김종해씨가 천씨의 생존을 알려줌으로써 그가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문단 동료들은 떨 듯이 기뻐했으나 그가 이미 많은 기억을 상실하고 있다는 사실에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천씨는 작년 8월 서울 성북동에서 기진맥진한 행려병자로 경찰에 발견돼 경찰의 주선으로 시립 정신병원에 입원했으나 아무도 그가 시인 천상병씨인줄을 몰랐다. 시집 『새』의 출판으로 그가 천씨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그의 병세가 호전되어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도 낙관하지 못하고 있다. 천씨는 53년 마산중학 재학 시절 『강물』로 문단 시 추천을 받아 문단에 데뷔, 수많은 문제시들을 발표했으며 동백림 사건에 연루되어 한동안 옥고를 치르기도 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2.01.13		

No.	3-28	작성자	백외준
제목	말뿐인 호화주택 증과세	키워드	성북동 호화주택
이야기 자원	개정지방세법에서 증과세를 부과기로 한 이른바 호화주택의 기준 (2천만원이상)이 너무 높게 정해지고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전국적으로 해당주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개정 지방세법의 사치성 주택을 규제기로 한 입법취지는 사실상 제 구실을 못하게 되었다. 내무부는 개정지방세법에서 호화주택의 기준을 땅값을 제외한 건물과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으로 규정했으나 현행국세청의 등록세 과세시가표준액은 최고액이 평당 9만원 안팎으로 건물값만 2천만원 이상이 되려면 건평이 최하 2백20평은 넘어야 된다. 더우기 호화주택을 가리게 될 건물과세 시가표준액은 주택의 내부시설 및 장식은 따지지 않고 골조(철근·벽돌·목조등)와 지붕(슬라브·합석·기와등) 등 객관적인 구조만을 기준으로 산출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에스컬레이터」 등 호화시설과 대리석 등 고급 내부재료를 사용한 사실상의 호화주택도 건평이 2백평 이하면 세법상의 호화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아 증과세 대상에서 제외 되도록 돼 있다. 내무부 당국자는 호화주택의 기준이 너무 높게 정해진 것을 인정하나 서울의 동빙고동·서교동·성북동 일대에 대상주택이 다소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있지만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적으로 건평 2백평이 넘는 주택은 10여 채도 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지방세법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 초과 누진세제를 적용, 건물가액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4%, 3천만원 이상 5천만원까지는 0.5%, 5천만원 이상일때는 0.6%를 초과 누진토록 돼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3.04.23		

No.	3-29	작성자	백외준
제목	검도복 차림 일본 대학생 성북동 활보	키워드	일본대사관저, 일본인 대학생
이야기 자원	9일 하오 7시45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주한 일본 대사관저에 『일본 대학생들이 검도복 차림으로 죽검을 들고 「조오리」를 신은 채 서울 고교 앞을 활보하는데 이를 못하도록 하라, 내일 또 거리를 활보하면 죽여 버리겠다』는 내용의 협박 전화가 걸려 왔다. 일본 대동문화대학 검도부 학생 45명은 친선경기를 위해 지난 7일 내한, 서울 종로2가 영일 여관에 투숙 중인데 8일 하오2시쯤 검도 연습을 위해 YMCA회관 앞에서 서울 고교까지 검도복 차림에 「조오리」를 신고 걸어가 시민들의 시선을 모으게 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3.08.10		

No.	3-30	작성자	백외준
제목	홍익북초등학교의 폐교 결정	키워드	홍익학원, 홍익북교 학부모 농성
이야기 자원	학교법인 홍익학원은 학부모들과는 한마디의 사전협의도 없이 서울 성북구 성북동 156 홍익북국민학교 (교장 신영우)를 폐교기로 결정하고 서울시교위로부터 폐교 승인 결의를 받아 75학년도부터 돌연 신입생 모집을 중지키로 했다. 홍익북국민학교는 같은 구내의 홍익 중·고교 평준화 계획에 따라 시설을 확장하고 교육환경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홍익북국민학교를 폐교할 수밖에 없다고 폐교 신청, 서울시교위는 『경영자가 못 하겠다는데는 도리 없다』고 이를 승인해 준 것이다. 이 조치로 학부모들은 『학교 재단이 학부모들과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폐교한 것은 재단욕심만 내세운 사학의 횡포』라고 주장, 23일 하오 1시 5백여 명이 동교에 몰려가 폐교조치를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그중 1백여 학부모들은 24일 하오 1시까지 철야농성을 벌였다. 학부모들은 폐교 신청을 철회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학교 측의 약속을 받고 해산했다. 홍익북국민교는 63년 성암국민교로 설립돼 70년에 홍익재단이 인수했는데 현재 18학급 1천22명이 재학하고 있다. 이 같은 사태는 문교 당국이 한때 국민학교 수용 능력 부족을 이유로 사립 국민학교의 설립을 마구 인가, 최근에 와서는 중·고교 평준화 계획에만 열을 올려 같은 구내의 학교들에 대해 시설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빚어지고 있는 부작용으로 사학 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교위 당국자는 25일 학교 측으로부터 폐교 철회를 위한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4.11.25		

No.	3-3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고지대 주민들의 식수난	키워드	식수난
이야기 자원	시내에 부설되어있는 송·배수관 시설이 낡고 모자라 변두리 관말지역과 고지대 주민 20여만 명이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다. 서울시내에 부설되어 있는 송·배수관은 모두 8천4백30km이며 10년 이상 된 낡은 관이 40%인 3천2백71km나 되고, 10~35년 된 노후관 2백10km까지 합치면 노후관이 50%선을 넘는다는 것. 이 때문에 평당 km당 10kg의 수압(통상압력)에도 견디지 못해 송·배수관의 파열사고가 잦아 생산된 물을 제대로 공급치 못하고 있으며 누수율이 30%선을 넘어서 수도물의 증산에도 불구하고 식수난이 풀려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심한 식수난을 겪고 있는 연희동 245, 294일대의 경우 2년 전부터 신흥주택가로 발전해 상수도사용량이 부쩍 늘어났는데도 직경 1백50mm의 기존 송수관을 개량치 않아 수요량을 제대로 공급치 못해 상오 2시부터 3시간 동안 조금씩 나오는 수도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고통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 영등포구 오류동 1백여 가구 주민들은 지난해 4월 가구당 7만~8만원의 가입비를 내고 상수도 시설을 했으나 근처 개봉 「아파트」 「팜프」장에서 물줄기를 끌어 수압이 낮기 때문에 올 들어 수도물을 제대로 사용치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식수난을 겪고 있는 변두리 관말지구는 관악구 상도동 2백30가구 등 7개 동 1천6백90가구를 비롯, 영등포구 오류동 등 12개 동 1천9백80가구, 서대문구 갈현동 등 9개 동 1천90가구, 성동구 천호동 등 6개 동 9백90가구, 성북구 성북동 등 4개 동 2백40가구 등 총 5천9백90가구 6만여 명이다. 또 고지대는 서대문구 갈현동(70가구)를 비롯, 불광동(90가구) 응암동(70가구) 평창동(40가구) 홍은동(50가구) 홍제동(40가구) 연희동(30가구) 성동구 옥수동(1백20가구) 성북구 돈암동(30가구) 정릉동(60가구) 등 6백 가구(6천여명) 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5.05.19		

No.	3-32	작성자	백외준
제목	화가 박래현 별세	키워드	박래현, 김기창, 성북동 55의1
이야기 자원	동양화가 우향 박래현 여사가 2일 상오 11시 서울 성북동 55의1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55세. 경성여자사범과 동경여자미술전문학교를 나온 박 여사는 56년에 국전 대통령상, 74년에 신사임당상을 받았다. 그는 64년 이래 3차례에 걸쳐 해외에 체류했는데 지난 5년 동안 「뉴욕」에서 그림 제작 중 건강을 해친 것으로 보인다. 유족은 부군 김기창 씨와 1남3녀. 영결식은 6일 상오 11시 자택, 장지 파주군 금촌읍 낙원공원 묘원.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6.01.05		

No.	3-3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서울성곽의 복원에 따른 주택 철거	키워드	성곽복원, 주택철거
이야기 자원	문공부의 국방 유적 복원 시책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시비 5억2천만원을 들여 서울 성북지구 성곽 2천60m를 복원한다. 복원에 걸리는 건물들을 보상 철거하고 산책 도로, 녹지 시설 등의 주변 정화 사업도 병행하게 될 성북지구 성곽 복원 공사는 오는 8월초 착공 예정- 성곽 복원 공사로 보상 철거될 건물은 성곽에 접해 있는 성북동 113의 1, 3, 4, 5, 8, 11의 무허가 건물 80동과 성북동 123의 2~5까지의 유허 건물 18동, 사유지 3백평 (성북동 113의 76, 123의 3) 등이다. 감사원 뒷산에서부터 혜화국민학교 뒷산을 지나 보성고교 후문 (종로구 혜화동 산 6의 1)까지 이어질 성북지구 성곽 복원 공사는 금년 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문공부 문화재 관리국이 고증 등을 후원하고 서울시가 총 40여억원의 예산을 들여 6개년계획 (74년~79년)으로 추진중인 서울 성곽 복원 공사 총 목표 길이는 성곽 1만1천4백24m와 광희문·숙정문 등 2개의 성문. 문헌 기록에 나타나 있는 서울 성곽의 총 연장 길이는 1만8천1백27m. 서울시는 이중에서 성곽의 흔적이 현존하고 있는 부분만을 복원한다. 현재까지 복원된 것은 지난해 11월 4천6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완공한 광희문뿐이다. 현재 45% 정도의 공사가 진행된 삼청 지구 성곽 1천9백94m와 목조 12평의 숙정문은 오는 7월31일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올해 착공되는 성북지구 성곽과 광희문 옆 성곽 50m가 완성되면 76년까지 복원되는 서울성곽은 약 4km. 광희지구 성곽 복원에는 광희동 109의 1, 5동의 무허가 건물 10동과 신당동 229의 46, 40동 유허 건물 20동, 사유지 2백50평이 보상 철거된다. 문공부는 이밖에도 올해 5억원의 예산을 들여 수원 성곽 (화홍문~창룡문간)을 복원하고 3억5천만원을 투입, 능역 시설 외 보수 정화 및 주차장·휴게실 등의 시설을 갖추는 세종대왕릉 역 제1차 연도 사업을 추진한다. 성곽 복원에는 찬반 양론이 맞서기도 했지만 당국은 성곽을 국난 극복의 슬기가 담긴 중요 국방 유적으로 보아 복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6.02.11		

No.	3-3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서울성곽 안팎 20m를 보호구역으로 지정	키워드	성곽주변 녹지조성
이야기 자원	서울시는 23일 복원중인 서울성곽안팎 20m를 성곽보호구역으로 정해 이곳에 녹지대를 조성, 산책로로 활용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80년까지 5년 동안 조성될 녹지 조성대상지역은 성북·장충·광희·청운·동송지구등 5개지구 3천6백60m. 녹지는 성곽주변에 들어선 불량주택의 재개발사업과 함께 추진, 주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일 방침이다. 녹지조성 대상지역은 다음과 같다. ▲성북구(보성고 뒤쪽~성북동·혜화동·와룡동 일부)=길이 1천3백m, 폭4~8 m. ▲장충지구(장충동 2가일부)= 길이 9백40m 폭4m. ▲광희지구(광희문~신당동일부)=길이 1백20m, 폭8~16m. ▲육운지구(사직 「터널」 ~행촌·부암·서운동 일부) 길이4백50m, 폭4~8m. ▲동송지구(동송시민 「아파트」 ~이대부속병원)=길이 8백50m, 폭4~8m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6.02.11		

No.	3-3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주한 서독대사관저 준공	키워드	서독대사관저
이야기 자원	주한 서독대사관저 준공식이 12일 상오 11시3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330의198 현장에서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카를·로이테리츠」 주한 서독대사 등 1백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신축된 서독 대사관저는 총 공사비 6억 원을 들여대지 2천60평에 건평 6백 평의 2층 건물로 독일연방 정부가 한국에 세우게 되는 최초의 건물이다. 본 건물 외에 대사관 직원들이 거주하는 4개의 「아파트」 식 부속 건물이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6.10.12		

No.	3-3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숙정문의 복원	키워드	숙정문 복원
이야기 자원	서울시가 문화재 보존사업의 하나로 벌이고 있는 서울 성곽복원 계획의 1차 구간인 삼청 지구(창의문~숙정문~성북동 뒷산)와 숙정문 복원공사가 21일 준공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9월15일 공사비 3억4천8백26만원을 들여 착공, 13개월 만에 완공된 삼청 지구 성곽은 총 길이 1천9백94m로 성곽복원과 함께 홍예석만 남아 있던 서울의 정북문인 숙정문도 완전 복원됐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6.10.21		

No.	3-37	작성자	백외준
제목	김광섭 시인 별세	키워드	김광섭, 성북동비둘기
이야기 자원	40여년 간의 시작활동을 통해 민족정신의 고뇌를 대변해왔던 원로시인 이산 김광섭 씨가 23일 작고했다. 72년여에 걸친 이산의 생애는 한편 다채로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파란만장한 것이었다. 1905년 9월 22일 함북 경성군 어대진 읍에서 출생한 그는 32년 일본 「와세다」 대학 영문과를 졸업 후 그 이듬해 중등학교 영어교사로 부임하면서 시작에의 꿈을 키우기 시작했다. 그 무렵의 다른 시인들이 신춘문예나 문예지의 추천을 받아 「데뷔」 했던 것과는 달리 37년 시집 『동경』을 출판함으로써 시인으로 평가받기 시작한 이산은 그 후부터 저항적인 그의 시 정신 때문에 일제로부터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무렵 그의 시 세계는 다음과 같은 그 자신의 말로 요약된다. 『내 생애의 시발은 바로 우리 민족수난의 시발이었다. 성장하면서 민족의식을 고취해주는 사람이 없었고 그리하여 그것은 자연 발생적으로 내 가슴속깊이에서 움터 나왔다. 이것이 내시의 뿌리였다.』 이 같은 그의 강렬한 민족정신은 마침내 41년 그로 하여금 3년8개월에 걸친 형무소생활을 시작하게 한다. 죄목도 조선어 과목폐지반대·동아일보 폐간반대 등을 학생들에게 선동했다는 것. 이 같은 상황 속에서 그가 맞은 8·15해방은 더할 수 없이 감격적인 것이었으나 그것이 곧 민족분단의 비극으로 이어지면서 그의 문학·사회운동은 보다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45년9월 중앙문화협회를 결성, 좌익문인에 정면으로 맞선 이산은 그후 언론인(민중일보 편집국장)관리(군정청공보국장·대통령공보비서)교수(신홍대학·이화여대)등 활동의 폭을 넓히면서도 시에 대한 강한 집념을 버리지 못해 주목받은 작품들을 연이어 발표했다. 그의 제2시집 『마음』(48년)에서 나타나는데 이 무렵 그의 시 세계는 초기의 그것보다 한결 완숙해져 삶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정취가 깊이 담겨져 있었다. 65년4월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의 갑작스러운 졸도로 회생이 불가능한 듯 보였던 그는 삶의 의지, 시에의 의지로 죽음의 그림자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의 빛을 찾았다. 그 후 10여년 동안 발표한 그의 작품들은 원로시인답게 부드러우면서도 다른 한편 강인하고 날카로움을 지닌 문제작들이었던 것이다. 그 자신 『대표작이며 가장 아끼는 작품』이라고 말한바 있는 『성북동 비둘기』(69년)는 그의 문학뿐만 아니라 한국문학에 있어서 새로운 획을 긋는 대단한 작품이었다. 외유내강의 전형인 이산은 최근까지도 시작의 정열을 식히지 않았다. 가볍게 산책하는 일 외에는 원고지와 씨름하는 것이 생활의 전부. 얼마 전 『나의 시작태도에 대한 후회는 없지만 문학외적인 일에 너무 치우치다보니 시를 깎고 다듬는데 다소 소홀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한 이산-. 그러나 그가 이룩한 문학의 업적은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정규웅 기자>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7.05.24		

No.	3-3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천변 모운숙의 집(박화성 회고담)	키워드	1920년대, 모운숙, 문인
이야기 자원	동글납작한 얼굴에 안경을 쓰고 시종 웃음을 띤 겸손한 자세의 그 청년을 춘원은 우리에게 독일에서 철학박사의 학위를 얻고 어제 귀국한 안호상씨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깡마른 체구에 어울리는 굵지 않은 음성으로 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답게 세련된 인사를 치른후에 이런저런 얘기를 주로 춘원과 주고받으며 식사와 환담을 끝내고 돌아갈 때는 안박사와 모양이 동반하여 무슨 음악회인가를 간다고 하였다. 이날밤의 만남이 인연이 되어 그들 사이에는 우정과 애정이 급하게 진전되었던 모양으로 끝내 그들은 결혼에 이르게 되었던 것인데, 그렇다면 춘원선생이 중매한 셈이 된 것 같아 훗날 내가 그에게 물어본 일이 있다. 『선생님께서 그렇게 되길 희망하시구 소개하셨던가요?』 『누가 저희들더러 결혼하라구만나게 해줬나? 그냥 알구 지내는게 좋을거 같아서 소개한거지.』 두달대는 것처럼 그런 말을 하는 그를 바라보며 나는 작가들에겐 참 솔직하고 순진한 일면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어쨌든 모운숙은 성북동 천로에 있는 자그마한 한옥집에 신접살림을 차려서 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그들은 몇사람을 저녁만찬에 초대하였다. 팔봉이 그 집을 알고 있어서 그와 동행하였더니 안박사가 새신랑답게 한복차림을 하고 주인노릇을 하느라고 상냥한 웃음으로 대청에서 손님을 맞아들이고 주부인 모여사는 부엌에서 요리를 하다가 뛰쳐나와 그의 독특한 응석조의 어투와 씩씩한(요새말로 「허스키」) 음성으로 기름묻은 손가락을 들어보이며 『아이 형님 어서 오세요. 나 이젠 이런 꼴이 되어버렸다우』 하는데 어찌된 일일까, 결혼 후에 처음 만나는 감회 탓일까, 콧잔등이 시큰하면서 눈물이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억누르던 기억이 지금도 새로운 것이다. 방안에는 개벽사의 사장인 청오 차상찬씨와 이태준씨가 아랫목에 앉아있다가 일어나서 우리를 맞이하였고 맨나중에 상허 이태준보다 훨씬 다듬어진 미남이 들어왔는데 그를 심훈씨라고 하였다. 상허는 『오몽녀』 때문에 성명도 생소하지 않았고 『천사의 분노』 『실락원의 얘기』 『구원의 여인상』 등의 소설에서 그의 탁월한 재능에 호감이 갔을뿐더러 어떤 기회에서인지 이미 지면이 되어 있었다. 차씨도 두어번인가 만난 적이 있는 숙면이지만 심씨만이 초대면이어서 누군가의 소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심씨는 들어오자마자 나를 발견하고 안경테를 한번 만지더니 이내 방바닥에 두손을 집고 꾸벅 고개를 숙이고 나서 영거주춤한 자세로 나를 쳐다보며 엄숙한 표정을 지어 말했다. 『나 심대섭입니다. 글로는 숙면인데 처음 뵈게 되어 죄송합니다.』 나는 얼떨떨해서 자리를 고쳐 앉으며 답례하는데 누군가가 심씨에게 소리쳤다. 『이 사람이 덮어놓고 자전을 하다니. 그 버릇 여전하군.』 『척 보면 몰라서 덮어놓고야? 자네들처럼 둔감한 줄 아나? 안 그래요?』 심씨는 내게 동의를 구하며, 처음부터 익살을 떨었고 남의 말끝마다에서 꼬리와 티를 잡아 묘한 말을 만들어내면 모두들 와하고 웃음을 터뜨려서 시종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웃기만 하였다. 당시에 심씨는 「조선일보」에 『동방의 애인』 이니 『불사조』 니를 심대섭이라는 본명으로 발표하였으나 1935년엔가 「동아일보」에 당선소설 『상록수』가 연재되면서떨쳐던 것이다. 어쨌거나 그날 밤의 향연은 호뭇한 추억으로 남아 있는데, 모운숙은 시만 잘 쓰는게 아니라 음식 만드는 솜씨까지가 훌륭하여서 모든 게 겸비한 여성이라고 할수 있었다. 그 무렵 서해는 조운의 누이 분려와 (1927년쯤결혼) 「매일신보」의 학예부장인 성해 이탄감씨 집 사랑채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일신보」의 기자인 서해는 내가 갔을때에도 병석에 있었다. 파란만장의 그의 일생이나마 길지 않을 듯 싶어 비참해지는 심경으로 있는 내게 성해는 「매일신보」에 집필을 강권하였다. 매월 8원씩 주겠다고 역설(그때 판신문은 2원)하는 것을 내가 끝내 거절하니 「후생이 가외로군」 하고 비꼬았으나 총독부의 기관지임을 꺼려 훗날까지 기고하지 않는 지조만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계속>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7.12.26		

No.	3-3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성곽 주변 102채 건물 철거 방침	키워드	성곽복원, 주택철거
이야기 자원	표고 70m이상 고지대 건물철거가 4월1일부터 시작된다. 이번에 철거될 고지대 건물은 동숭·옥인 「아파트」 주변등 총30개 지구 5천7백27채 16만4천3백67평이다. 이 가운데 5천3백57채의 무허가 건물에는 20만원씩의 철거보조비가 지급되고 유희가건물 3백90채에는 보상비로 모두 9억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구별 철거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숭 왕인 「아파트」 주=집74 ▲면목1, 2, 3동=1백46채 ▲답십리동산12=1백63채 ▲신당동산34, 37, 432일대=5백86채 ▲옥수동산5의102=1백16채 ▲하왕십리동890=21채 ▲행당동388의395, 산30=3백채 ▲정릉동산1=2백50채 ▲동소문동552=61채 ▲돈암동산11의209일대=1백40채 ▲안암동5가152일대=1백54채 ▲인수동산65=1백5채 ▲성북동성곽주변=1백2채 ▲동소문동616일대=2백채 ▲돈암동산80의 83일대=50채 ▲쌍문1동산2714일대=21채 ▲미아동산100, 108일대=4백67채 ▲수색동산28, 30일대=6백81채 ▲연희동산117일대=2백채 ▲홍은동산1일대=63채 ▲홍제동=1백17채 ▲사당동산17, 22일대=2백39채 ▲봉천동 산101일대=4백58채 ▲상도동 산75일대=87채 ▲시흥동산91, 100일대=5백48채 ▲치암동산1일대=1백17채 ▲녹번동산1일대=1백83채 ▲신사동산93, 105일대=27채 ▲응암동산7일대=50채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8.03.27		

No.	3-4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도로포장공사 준공	키워드	성북동 75, 도로포장
이야기 자원	성북구 성북동75 주변 도로포장공사가 13일 준공됐다. 이 공사는 폭5.5m, 길이 1백20m의 마을 안 길을 포장한 것으로 지난 7월25일 착공됐으며 공사비는 9백80만원.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8.10.13		

No.	3-4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전 성북구청 사회과장 오일용 씨(오세창의 3남) 정년퇴직	키워드	오세창, 오일용, 성북구청
이야기 자원	서울시내 일선 구청에서만 37년2개월 동안 근무해온 오일용씨(61·전 성북구청 사회과장·사진)가 지난6월말 정년퇴직 했다. 25세가 되던 해인 42년5월6일 고원(서기보)으로 경성부에 들어간 오씨는 재임 37년여 가운데 33년간을 일선 구청에서 세무공무원으로 일해왔다. 이른바 서정쇄신의 찬바람이 몰아치기 전까지만 해도 「마음만 먹으면 팔자 고치는 노른자위」에서 줄곧 근무해왔지만 오씨는 시말서 한 장 쓰지 않은 청백리(청백리). 지금도 이렇다 할 집 한간 제대로 장만하지 못했다. 오씨는 33인중의 한 분인 위창 오세창 선생의 3남 지금 그가 살고 있는 성북동 집 안방에는 위창의 휘호 10여 점이 걸려있다. 오씨가 37년여 동안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은 1천2백만 원. 앞으로 생계를 꾸려나가는 것이 조금은 걱정되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은 세월을 살아온 것이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9.07.04		

No.	3-42	작성자	백외준
제목	형제강도 수배	키워드	성북동 부촌 강도 성북동 330번지
이야기 자원	서울성북경찰서는 2일 김태환(24 주거부정 전과4범) 승환(21 주거부정 전과4범)씨등 형제를 붙잡아 상습강도 상해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임모씨(22)를 수배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 상오 1시30분쯤 서울 성북동 330의209 차영조 변호사(56)집에 들어가 길이 25cm의 과도로 가족 5명을 위협, 반항하는 차씨의 2남 도윤씨(25)의 배를 찔러 중상을 입힌 후 현금·자기앞수표·「다이어」 반지 등 모두 1천4백여만원 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었다. 이들은 또 지난 8월31일 상오 2시15분쯤에도 차씨집에서 2백m쯤 떨어진 미국인 「앨릭스·허치슨」 씨(33·한국 「웨스팅·하우스」 재무담당이사)집에 들어가 가정부 김인순씨 (33)와 「허치슨」씨를 전화줄로 묶은 뒤 한화 12만5천원·일화 3만 「엔」 등 모두 6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갔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79.10.02		

No.	3-43	작성자	백외준
제목	고 박정희 전 대통령 4주기 제사	키워드	박정희 대통령 4주기
이야기 자원	고 박정희 대통령의 4주기 기제사가 26일 저녁 서울 성북동 유족의 사저에서 친척·친지 등 약 1백 명이 참례한 가운데 엄수됐다. 4주기 제사에는 근혜·근영·지만 씨등 유자녀와 김종필 전총리·박재홍의원·한병기·육인수·장덕진씨 등 친척들과 김정엽·박광규·신직수·김치열·구자춘·김용환·최각규·김성진·임방현·유철인·조상호·신동배·이광노 씨 등 고인의 측근이 참석해 분향. 이날 제사참례자는 작년에 비해 상당히 늘어난 숫자인데 참석자들은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인지 음복을 하면서 고 박대통령의 회고담과 요즘의 근황 등 이야기의 꽃을 피웠다. 한편 25, 26일 국립묘지 고 박대통령 묘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배했는데 남덕엽, 이후락, 윤치영, 김용태, 신병창, 서금철, 구태회, 문병관, 우재현, 이조일, 박동진, 태두완, 성태우, 손수철, 최석채, 이병설, 문태갑, 구상, 유승국, 김일환, 황성지, 박경원, 문형태, 김유탁, 고재일 씨 등이 보였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3.10.27		

No.	3-4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채동선음악상 제정한 이소란 여사	키워드	채동선, 이소란, 음악상 제정, 성북동 183의17
이야기 자원	부군을 기념하기 위해 채동선음악상을 만든 이소란 여사. 신앙과 남편에 대한 책임감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한다. 『저도 세상을 뜨면 영계에서 그분부터 만날 텐데 빛진 죄인으로야, 어찌 대하나, 그동안 걱정이 많았습니다. 상 얘기는 벌써 7, 8년된 것이라 헛된 풍문만 남기는것 같아 부답스러웠습니다. 이제 아내로서 큰 빛을 가린 것 같습니다』 30~50년대에 일찌기 독일유학을 끝내고 귀국하여 바이얼리니스트로, 작곡가로 활약했던 고 채동선씨 53년 부산 피난지에서 52세로 작고한 부군을 기념하기 위해 부인 이소란여사(76)가 이번 에 2천만원의 기금으로 채동선음악상을 제정, 8일 제1회수상자 김원복씨(72) 에 대한시상식을 갖는다. 가곡 『그리워』, 합창곡 『새야새야 파랑새야』, 교풍곡 『조국』 등 1백여편의 작품을 남긴작곡가 채동선씨. 부인 이여사가 눈물로 회상하는 남편은 『말은 별로 없었지만 사랑이 깊은 사람』이다. 충북 진천 태생인 이여사가 채씨를 첫 상봉한 것은 이화여전 졸업반때. 여학교때부터의 단짝 친구 채선섭씨(성악가·전리대음대학장)의 오빠로였다. 독일 유학후 귀국길의 채씨를 서울역에서 그의 동생과 함께 만났으나 긴 여행에 지친 탓인지 8년 연상의 그는 초라하고 아파보였다. 그후 채씨는 동생면회를 빙자(?)해 자주 기숙사를 찾아왔고, 서울집(고향은 전남 보성)에 초대하여 피아노습씨가 능했던 이여사에게 반주를 부탁하기도 했다. 31년 이전졸업 직후 결혼했고, 연이어 2남4녀를 낳아 키우는 정신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종일 토크 아이들에게 시달리다 아내가 정신없이 잠에 폴아떨어지면 채씨는 밤늦도록 2층방에서 휘파람을 불며 작곡에 몰두했다. 아이 둘의 기저귀는 도맡아 갈아주었다. 그동안 채씨는 고려작곡가협회회장·서울시 문화위원·숙명여대교수를 지냈다. 피난지 부산에서 느닷없는 북막염으로 작고한 것은 53년. 맞이가 22살, 막내가 4살인 6명의 줄망줄망한 아이들과 함께 이여사는 46세때 혼자가 된 것이다. 고등교육은 받았지만, 남편의 뜻을 좇아 쪽머리를 하고 집안에만 있었던 그에게 눈앞이 캄캄하고 괴로운지, 슬픈지조차 가늠할 수 없는 날들이 계속되었다. 그때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민 사람이 당시 기독교 세계봉사회 총무였던 정동교회 정대성 장로였다. 70년대말 한국여성단체협의회부회장을 역임한 적이 있는 이여사는 6남매를 훌륭히 키워 영철(52)·영규(47) 두 아들과 두딸은 미국에서, 다른 두딸은 한국에서 산다. 이여사는 결혼직후 부군이 설계해 지은 대지 2백평 남짓, 건평 30평 정도인 서울 성북동 183의17 자택에서 50년 넘게 살고 있다. 언젠가 이 집을 부군의 기념관으로 만들 것을 구상하고 있다. 그동안 64, 80, 83년에 부군의 유고로 3권의 작곡집을 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4.02.07		

No.	3-45	작성자	백외준
제목	김광균 시인, 신작시 발표	키워드	김광균, 신작시
이야기 자원	원로 시인 김광균 씨(71)가 최근 시작을 활발히 하고 있다. 『와사등』의 시인으로 알려진 김씨는 30년대 서정주 씨 등과 「시인 부락」 등 동인을 함께 하면서 초기 모더니즘 시인으로 각광을 받았다. 김씨가 최근에 발표한 작품은 현대문학 3월호에 실린 「노시욕편」이란 큰 제목이 붙은 시들이다. 『야반』 『안성에서』 『성북동』 『소곡』 『목상』 『한려수도』란 제목의 이6편의 시로 그의 모더니즘적 특성이 아직도 살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4.03.20		

No.	3-4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심우장 서울시 기념물 지정	키워드	지방기념물, 심우장
이야기 자원	서울시는 20일 3·1독립운동 때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사람인 만해 한용운 선생이 살았던 심우장 (서울 성북동 222의1)을 사적지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 지방기념물로 지정, 보존키로 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4.06.20		

No.	3-47	작성자	백외준
제목	불교 태고종 새청사 건립 예정	키워드	태고종, 총무원
이야기 자원	불교 태고종은 서울 성북동에 총무원청사를 신축 이전한다. 종단 전종도 참여의 불사로 추진되는 청사신축은 오는 7월3일 착공, 내년 5월말 준공예정이다. 청사 규모는 대지 2천2백평, 3층 건물 2간의 연건평 6백70평-. 건축양식은 콘크리트 골조에 고유의 전통 한옥양식을 살린 기와지붕으로 하고 내부는 현대식 시설을 갖춘다. 건립부지는 미륵불사가 종단에 무상증여 한다.(짓가 10억원). 총공사비는 10억원-. 현재 2억원의 기금이 모금돼 있고 나머지는 3천불 봉안 불사를 통해 6억원, 종도들의 시주금 등으로 충당한다. 법당 3천불전에 봉안되는 목불상은 사암마다 주지와 신도회가 각각 하나씩 봉안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4.06.21		

No.	3-48	작성자	백외준
제목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 별세	키워드	최순우, 성북동126의20, 국립중앙박물관장
이야기 자원	최순우 국립중앙박물관장(67)이 15일 하오 7시1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126의20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최관장은 경기도 개성에서 출생, 송도고보를 졸업한 후 개성박물관 근무를 시작했다. 8·15광복 후부터는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에 계속 근무하면서 국립박물관을 확장·발전시켜온 우리나라 근대박물관사의 증인 역할을 해왔다. 유족은 부인과 결혼한 외동딸이 있다. 장례는 국립중앙박물관장으로 치러지며 17일 상오 9시 자택서 발인, 상오 9시 국립극장 광장에서 영결식을 갖는다. 장지는 경기도 광주군 오포면 광주공원묘지. 연락처(782)1218.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4.12.17		

No.	3-49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천 복개공사장 사고	키워드	축대 붕괴, 주택 붕괴, 사망
이야기 자원	11일 하오 4시35분쯤 서울 성북동1가 184의 84 성북천 삼선교 상류 복개공사장 옆 축대(높이 5m)가 무너지면서 축대 위에 있던 신영옥씨(57)집이 붕괴, 안방에서 잠자던 신씨의 딸 딸 혜경양(24)과 부인 이동원씨(55)가 흩더미에 깔려 병원으로 옮겼으나 혜경 양은 숨졌다. 이 사고로 신씨 집 이웃 서복순씨(61·여)집이 반쯤 부서지고 황세열씨(57)집은 심하게 금이 갔으나 집안에 있던 7~8명은 재빨리 피해 화를 면했다. 사고는 공사를 맡은 석락산업 소속 서울 02-8209호(운전사 이동철·25)포클레인이 하천바닥의 모래를 긁어내는 작업을 하면서 신씨집 축대 밑부분을 깊게 파내 높이5m, 길이 30여m의 축대가 한꺼번에 무너져 일어났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5.07.12		

No.	3-50	작성자	백외준
제목	불교 태고종 「중앙회관」 낙성식	키워드	태고종, 중앙회관, 태고사
이야기 자원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산기슭에 건립된 불교 태고종 중앙불교회관이 8일 상오 11시 낙성된다. 근래 보기 드문 한국불교 대불사의 하나인 이 회관은 전통적인 사찰건물의 외형에 현대식 내부 시설을 갖추었고 일명 태고사로 명명돼 사찰 겸 청사·교육시설로 활용토록 했다. 회관 규모는 대지 7백10평, 연건평 6백11평의 3층 건물 2동. 본관은 삼간불전(3층), 설법전(2층), 총무원 사무실(1층)등 불·법·승 3정재로, 별관은 종립 동방불 교대학 강의실, 승려연수원 기숙사로 각각 사용한다. 삼천불전은 새로운 한국불교성지개발을 겨냥, 해인사 목판 8만대장경에 버금할 높이4.5m의 목조 3천불을 봉안했고 법당의 크기를 1백8평으로 모든중생이 백팔번뇌를 여의고 구경성불할것을 서원 했다. 현재 2천5백불이 조성, 봉안된 목조 3천불은 내년 3월별도 점안될 예정. 태고사 건축설계는 신라 고건축양식을 기초로 불교 교리를 상징, 대지 지형과 경관을 활용해 불 국사와 같은 계단식 누집 형태에 6각형의 기둥들을 세워 육바라밀을 드러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5.11.07		

No.	3-51	작성자	백외준
제목	간송미술관 추사 탄생 200돌 기념특별전	키워드	김정희, 200돌, 經經緯史
이야기 자원	추사 김정희 (1786년 음력 6월3일생) 탄생 2백돌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기획전이 25일부터 6월8일까지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는 추사의 글씨, 사군자, 산수화 등 1백여 점이 출품되었다. 이 중 30여점은 처음으로 선보이는 미공개 작품. 간송미술관의 최완수씨 (한국민족미술연구소장)는 『추사가 30대 후반에 쓴 글씨로부터 71세로 작고할 때 쓴 것까지 연대순으로 진열, 추사체가 성립되는 과정과 추사의 학문적 일생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기획했다』 고 말했다 이번에 처음 공개되는 작품 가운데는 「경전은 날줄로 하고 역사를 씨줄로 한다」 는 뜻을 담은 『경경위사』 (113×32cm)를 비롯, 추사의 서예이론·화론·경학관 등이 피력된 원고본(16×42cm) 10장도 포함돼 있다. 간송미술관은 올해 안에 추사전집을 발간하고 그 일대기를 담은 『추사실록』 (최완수저)도 펴낼 예정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6.05.26		

No.	3-5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1동 가압장 시설 확장공사	키워드	성북1동, 돈암2동, 가압장
이야기 자원	성북1동 가압장 시설 확장공사가 8월 말 착공, 연말까지 완공돼 성북1동과 돈암2동 고지대의 물 사정이 좋아지게 된다. 사업비 5억4천만 원으로 1천t규모의 배수지를 신설하고 가압장 내 2백마력짜리 모터펌프 2대를 추가 설치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88.08.20		

No.	3-5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선잠단 정비	키워드	선잠단, 뽕밭, 표석
이야기 자원	조선 때 임금이 농사장려를 위해 선농단(선농단)에서 제를 올리고 친히 소를 몰았던 것처럼 왕비도 양잠을 장려하기 위해 선잠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뽕나무를 심어 매년3월 이곳에서 뽕나무를 돌보던 전통이 있었다. 성종 2년때부터 시작된 이같은 의식은 한말 때까지 계속됐으며 왕비들이 이곳의 뽕잎을 따다가 창덕궁내에서 직접 누에를 치기도 했다. 당시 선잠단에는 양잠을 처음 시작했다는 중국황후 서릉씨의 신위를 배향하기도 했는데 1908년 신위가 사직단으로 옮겨지고 일제를 거치면서 선잠단이 사라졌다. 해방후 선잠단이 있던 성북동 64의1에 댕돌과 함께 표석을 설치하고 3백여평의 뽕밭도 조성해 놓았지만 주택가 속에 있다보니 아는 이가 별로 없다. 휴일 아이들에게 뽕잎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여주면 좋을 듯하다. 단체로 갈 경우 성북구청 문화공보실(927-6864)에 미리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도 받을 수 있다. 교통편은 지하철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5분정도 걸어가거나 좌석버스 16·712·113번이나 시내버스 2·3·12·20번등을 이용하면 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0.06.16		

No.	3-54	작성자	백외준
제목	독립유공자 백매수 옹 별세	키워드	경신고보, 만세운동
이야기 자원	독립유공자 백매수 옹이 19일 오후 6시55분 서울 성북동 58의18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90세. 백옹은 1919년 3·1운동당시 경신고등보통학교 학생으로 만세운동에 참가하고 1920년 3월4일 황해도 이도면 일대에서 독립만세 시위를 주동, 이듬해 체포돼 해주지법 송화지청에서 2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유족은 4남3녀가 있으며 발인은 22일 오전9시. 장지 대전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762)8720.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1.10.22		

No.	3-5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코오롱그룹 창업주 이원만 회장 별세	키워드	코오롱그룹, 나일론
이야기 자원	코오롱그룹의 창업주 李源万 명예회장이 14일 오후 10시40분 서울 성북구 성북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90세. 慶北 迎日태생인 李明예회장은 33년 日本으로 건너가 광고용 모자 제조업체인 旭工藝(주)를 세우면서 사업에 처음 손을 댔다. 그는 57년 코오롱그룹의 전신인 한국나이론을 설립, 나일론을 국내에 처음 소개하면서 섬유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60년 民主黨 참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한 그는 5.16이후 共和黨 소속 6, 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정치활동을 하기도 했다. 유족으로는 李東燦회장등 2남4녀. 발인은 18일 오전 6시20분. 영결식은 오전 8시30분 京畿道 龍仁의 코오롱종합연수원에서 치러진다. 장지는 경북 추풍령의 금릉공원묘지. 연락처 (311)7001~4(코오롱그룹 회장비서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4.02.15		

No.	3-56	작성자	백외준
제목	요정 三清閣, 혼례식장 변신	키워드	전통혼례, 예향, 뷔페
이야기 자원	정계, 재계의 상류층 인사들이 즐겨찾던 고급요정인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三清閣)이 「예향(禮香)」이라는 전통혼례식장으로 변모해 시민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다. 개업 22년만인 지난 4월 간판을 내린 삼청각은 대지 1천여평 규모의 대연회장인 「일화당」을 대대적으로 개축해 지난10월1일부터 결혼식을 위한 뷔페 및 대규모 모임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화당 앞마당 3백평 규모의 잔디에는 전통혼례를 치를 수 있는 장소를 마련했으며 지금까지 모두 10쌍의 신혼부부가 이 야외예식장을 이용, 혼례를 치렀다. 가마, 사모관대 등 전통혼례 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성균관 유생이 직접 나와 전통혼례 예법대로 예식을 치러준다. 결혼식 장소이용료는 무료, 대신 일화당에서 피로연을 치러야 한다. 양식뷔페인 식사가격은 1인당 2만~3만5천원으로 특급호텔 수준. 일화당에서는 결혼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의 각종 모임이나 돌, 회갑잔치 장소로도 이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유하정(幽霞亭), 청천당(聽泉堂), 천추당(千秋堂), 동백헌(東白軒), 취한당(翠寒堂) 등 5개의 별채에서는 일반인들의 각종 모임이 하루 평균 5~6차례씩 치러지고 있다. 70년대까지만 해도 삼청각은 장안 최고급 요정으로 남북비밀협상이나 한일협상의 막후협상 무대(?)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여야 정치인들의 사교계 밀실로 각광을 받았었다. 그러나 80년대 후반 들어 룸살롱 등이 번성하면서 그 명성이 퇴색하기 시작했고 문민정부 출범 후 사정바람으로 고위층인사들의 발길이 뜸해지자 경영난이 악화돼 고급요정으로서의 22년 역사를 마감했던 것이다. 이곳에서 전통혼례식을 치른崔모(30)씨는『옛날 같으면 일반인들은 접근도 어려웠던 곳에서 결혼식을 치르게 돼 세월의 변화를 실감하게 된다』며『결혼식이 기억에 남는 추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4.12.11		

No.	3-57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국화가 서세옥의 집	키워드	서세옥, 대나무, 화초
이야기 자원	대자연의 푸름과 싱그러움을 대할 기회가 늘상 부족한 현대 생활에서 정원이나 실내에서 곁에 두고 즐기는 꽃 한송이, 나무 한그루가 삶의 청량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사랑과 정성이 듬뿍 담긴 손길로 화초를 가꾸고 이를 완상(玩賞)하는 각계 인사들의 화초 가꾸기에 얽힌 이야기를 시리즈로 엮는다. [편집자註] 『서울에서 대나무를 기른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30여년 전부터 마당에 대나무를 심었으나 번번이 실패하고 비로소 6~7년전야 그 비법을 알아냈습니다. 요즘은 혼자 보기가 너무 아까워 가까운 친구나 제자들에게 틈만 나면 대나무 기르는 법을 전해 이제는 대나무를 키우는 집이 꽤 늘었습니다.』 한국화 분야에서 일가(一家)를 이룬 산정(山丁)서세옥(徐世鈺.66)서울대 명예교수. 徐교수는 성북동 자택의 잔설(殘雪)이 흩어진 뜰에서 의연한 푸름을 과시하는 충절과 고고(孤高)함의 상징 대나무와 벗하는 감동을 이렇게 설명한다. 『거리에 나가면 부딪치는게 사람이지만 가까이 하고 존경할만한 대상은 드물잖습니까. 비록 대나무는 일개 식물이지만, 눈앞의 잇속이나 필요에 따라 움직이기 일쑤인 현대인들에게 지조와 강직을 말없이 훈도합니다.』 徐교수가 20여년의 시행착오를 거쳐 터득한 대나무 기르는 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바로 향일다습(向日多濕),이 네 글자로 요약됩니다. 추운 게 문제가 아니라 햇볕만 잘 들고 물만 충분히 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서울에서 대나무가 안 되는 이유는 땅에 모래 성분이 많아 비가 와도 곧장 빠져버리기 때문입니다. 대나무 뿌리는 5~10cm 정도 얕은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속성상 수분이 부족하기 십상이며, 특히 겨울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겨울철에는 20일 가량에 한번 씩 물을 충분히 준 후 뿌리 근처에 짚이나 왕겨를 덮어두면 수분증발을 막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한다. (하락)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5.01.28		

No.	3-58	작성자	백외준
제목	卍海 일대기 연극으로 본다	키워드	광복50주년, 신명예술단, 한용운 일대기, 고려대
이야기 자원	광복 5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일제치하 독립운동가인 만해(卍海) 한용운(韓龍雲, 1879~1944) 선생의 일대기가 연극으로 공연된다. 성북구는 8일 광복 50주년을 맞아 만해선생의 독립운동 활동상을 재조명하고 시민에게 애국애족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고려대 인촌기념관에서 만해선생의 일대기를 연극으로 공연하기로 했다. 성북구의 이 같은 공연계획은 만해선생이 성북구 성북동222 「심우장(尋牛莊, 서울시기념물제7호)」에서 거주하다 마지막 생애를 보낸 것을 기리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성북구는 관내 공연단체인 신명예술단(단장 박인배)과 공연협의를 마쳤다. 연극은 8일에는 한차례, 9일과 10일에는 하루 두차례씩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춤과 노래, 무용 등이 합쳐진 총체극으로 공연되며 관람은 무료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5.02.08		

No.	3-59	작성자	백외준
제목	매듭장 김은영 여사 인터뷰	키워드	김은영, 전영우, 간송미술관, 매듭작품, 김광균
이야기 자원	『이 베갯싸개에 놓인 수(繡)를 좀 보세요. 꽃마다 다 뿌리가 달렸죠? 조선왕조의 공주들은 이상하게 명(命)이 짧더라고요. 그래서 부디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공주 옷에는 꼭 뿌리까지 수를 났대요.』 꽃수도 고왔지만 수놓은 천에 매듭을 달아 베갯싸개를 만든 장본인 역시 나이를 짐작하기 힘들게 고운 모습이었다. 전영우(全映雨.61) 보성고등학교장겸 간송미술관장 부인 김은영(金銀映.53)씨. 『이건 연봉매듭, 저건 가지방석매듭』 하고 설명 에 열을 올리는 김씨는 지난달 가나화랑에서 30년 가까운 매듭작업 동안 첫 개인전을 연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했다. 『강남주부들에게 이런 우리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김씨의 매듭작품은 유난히 예스럽고 은은한 멋을 풍기는 것이 특징.서울성북동 간송미술관과 한 울타리 안에 자리잡은 단층집 거실도 그런 분위기는 마찬가지였다. 벽난로 곁에 걸 린 남편의 동양화 한 점, 빛바랜 형겁소파 옆에 놓인 오래된 토기 한 점.꾸민 데 없이 자연스레 일상에 젖어든 전통미를 느끼게 했다. 김씨는 그런 안목을 일제 때 우리 문화재를 모으는 데 돈과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시아버지(澗松 全潑弼)뿐 아니라 「모던한」 시세계와는 달리 골동품 보는 눈이 높았던 친정아버지(詩人 金光均)에게서 물려받았다고 한다.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워낙 따랐어요. 아버지 따라 인사동에 자주 가곤 했는데 이런 저런 구경을 하다 보면 매듭술 달린 노리개 같은 것도 사주시곤 했지요.』 시인과 화가는 잘 통한다고 했던가. 남편은 『장인이 좋아서 결혼했다』고 말할 정도로 서화를 보는 안목이 통했다고 한다. 친척 소개로 만난 두 사람은 서울대와 이대에서 각각 미술을 전공한 데다 이런 집안 분위기까지 비슷해 더 쉽게 가까워졌다. 1년 남짓한 약혼시절 동안 TV에서 매듭을 보고 매료된 김씨에게 무형문화재 매듭선생님을 소개시켜 준 것도 남편이었다. 『실은 대학원에 진학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만며느리이자 2남2녀의 어머니인 김씨는 번번이 남편의 반대에 부딪쳤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집안에서 할 수 있는 게 매듭밖에 없었다』는 말에는 그런 남편에 대한 원망도 은근히 묻어난 다. 김씨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마흔 일곱의 나이에야 서울여대공예과 대학원에 진학, 뒤늦게 공부욕심을 채웠다. 서울대 미대에서 강의를 하다 학교형편 때문에 교장자리를 맡은 남편도 작년에 회갑기념전을 열었으니 돌아보면 두 내외는 바라던 것을 꾸준히 이룬 셈. 『서로의 작업에 영감을 주는 동반자』라는 김씨부부는 몇 해 전부터는 이집트, 러시아로 함께 여행을 떠났던 동반자이기도 하다. 결혼 초 『가장 소질이 있는 한 아이는 그림을 시키자』 던 두 사람의 약속은 서울대 서양화과 대학원에 재학 중인 둘째 딸 덕분에 지켜졌다. 경영학을 하는 막내를 빼고 다른 두 자녀는 집안내력을 대물림이라도 하듯 각각 한국미술사, 중국사를 전공하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5.07.12		

No.	3-6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에 고급빌라 속속 들어서	키워드	풍치지구, 고급빌라 고급주택가
이야기 자원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단독주택 밀집지역인 성북구 성북동 풍치지구에 고급빌라가 속속 들어서고 있다. 이 빌라들은 고급주택가란 명성에 걸맞게 나름대로 독특한 설계에 따라 건설되다보니 성북동의 고급스러움을 더해준다. 대부분 90평형대의 대형빌라며 분양가도 최고 평당 1천2백만원선을 호가하고 있다. 남경건설은 동구여상 아래쪽에 45~1백1평형 「남경그린 빌리지」 68가구를 13일부터 분양중이다. 45~60평형 20가구, 61~80평형 42가구, 80~1백1평형 4가구로 평당분양가는 7백50만원선. 동마다 엘리베이터가 있고 1층에는 10평규모의 전용 정원이 딸려 있다. 대원각 맞은편에 민설계(대표 민영백)가 시공중인 「성북 빌하우스」는 길다란 경사지의 특성에 맞게 원형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는 설계를 도입했다. 단일평수 90평형 15가구중 6가구가 남아있으며 분양가는 평당 1천2백만원선. 입주는 내년 4월 예정이다. 신원건설이 성북2동사무소 인근에 건축한 「신원빌라」 80평형18가구도 Y자(字)형에다 1층 로비를 갖춘 이색적인 설계로 이미 완공됐다. 현재 8가구가 남아있으며 평당분양가는 최고 1천만원이다. 미덕건설은 성북동 천주교성당 옆에 90평형 「성락원 하이츠빌라」 17가구를 완공해 입주가 진행중이며 현재 일부 미분양으로 남아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6.02.14		

No.	3-6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거주 財界총수들 지역문화원 설립 나서	키워드	성북문화원, 대교단지, 진영호 구청장, 재계, 학계, 예술계
이야기 자원	「성북동 부자마을」로 불리는 대교단지에 사는 대기업체 총수들이 지역발전을 위해 문화원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성북구의 행정지원 아래 설립되는 「성북문화원(가칭)」의 발기인은 이동찬(李東燦) 코오롱그룹 회장, 조석래(趙錫來) 효성그룹 회장 등 모두 12명. 이들 외에도 변종하(卞鍾夏) 전 이대교수, 전성우(全晟雨) 간송미술관장 등 학계, 예술계 인사들도 발기인으로 참가해 5월중 첫 발기인모임을 갖고 본격적인 설립절차를 밟기로 했다. 이들 대부분이 성북구에 오랫동안 살아온 반토박이들이지만 지역사회와의 유대가 별로 없었던 것이 사실. 때문에 문화원 설립을 계기로 「동네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는 뜻에서 발기인으로 참여를 자청하고 있다는 것. 이 사업의 산파역인 진영호 성북구청장은 『대교단지에는 대기업 창업자만 50여명이 살고 있으며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문화원은 미술제, 사진전, 지역축제 등을 주관하고 지역학생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을 펼칠 계획. 성북구측은 문화원이 설립되면 그동안 지역 미술인들의 작품기증으로 적립된 3억원도 기탁할 계획이다. 성북문화원은 순수민간조직의 비영리단체로 출발해 회원 모금 등을 통해 각종 문화사업을 전개하게 된다. 성북문화원 발기인으로 참가하는 인사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재계=이동찬, 조석래, 안병균(安秉鈞.나산그룹회장), 천신일(千信一.세중대표), 김진형(金鎭炯.부국물산대표), 정관현(鄭寬鉉.삼화양행사장), 조동식(趙東植.인켈명예회장), 김해룡(金海龍.삼미화학대표), 허남각(許南珏.삼양통상회장), 박희택(朴喜宅.범양건영대표), 박정수(朴貞守.선스타미싱사장), 백성학(白聖鶴.영안모자사장) ◇학계·예술계=변종하, 서세옥(徐世鈺.서울대명예교수), 이규호(李圭皓.고려대명예교수), 조용범(趙容範.전 고대교수), 주근원(朱權源.서울대명예교수), 최만린(崔萬麟.서울대교수), 전성우(간송미술관장), 정미숙(鄭美淑.한국가구박물관장)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6.05.03		

No.	3-6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최완수 간송미술관 학예실장 인터뷰	키워드	간송미술관, 최완수, 최순우
이야기 자원	유가(儒家)에서는 문(文), 사(史), 철(哲)에 두루 능통하며 서화(書畵).풍류까지 겸비한 사람을 「통유(通儒)」라 했다.반면 특정 분야에 빠져있는 사람을 「궁유(窮儒)」라 했다. 바야흐로 궁유가 행세하는 세상이다. 궁유의 시대에 통유의 길을 고집해온 인물이 최완수(崔完秀.54) 간송미술관(한국민족미술연구소) 학예실장이다.이 시대의 마지막 선비로 꼽히는 인물중 한 사람이다.스포츠형의 짧은 머리와 일견 고집스러움이 엿보이는 동그란 동안(童顔).5 0대중반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미술사 연구를 통해 우리 역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하는 일에 생을 바쳐온 그를 그가 심혈을 바쳐 준비한 「간송미술관 개관 25주년기념 진경시대전」(2일까지)이 열리고 있는 서울 성북동간송미술관 연구실에서 만났다. 『나에게 역사연구는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고향인 충남 예산에서 초등학교를 마친뒤 서울로 올라와 경북중에 입학, 고등학교 1학년때 한문반에서 백아(白牙) 김창현(金彰顯)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운명의 시작이랄까요. 그분에게서 한학과 보학(譜學), 선비로서 지녀야 할 마음과 몸가짐을 자상하게 배우게 됐죠. 대학졸업후 국립중앙박물관 연구원 생활을 하다가 혜곡(兮谷) 최순우(崔淳雨)선생의 권유로 이곳에 와 먼지 쌓인 서가에 있던 「대정신수대장경(大正新修大藏經)」 완질을 본 것이 결정적인 계기였어요. 이 책을 본 순간 한 10년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에 두말 않고 이곳에 묻힐 생각을 굳혔고 만30년의 세월이 흘렀군요.』 서울대 입학식날 한복을 차려입고 등교,학생과 교수들 사이에 문리대 명물이 된崔씨(그는 요즘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복을 고집한다)는 곧 크게 실망하게 된다. 한학과 조선문화 전반에 대해 이미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던 그에게 대학은 『총체적인 이해 없이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려 논문이라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비춰졌고 논문 수준도 그에겐 『일본학자들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수준』이었던 것.『여기서는내 뜻을 펴지 못하겠다』는 생각에서 2학년이 된 그는 강의실 대신 동양사연구실을 찾았다. 동빈(東濱) 김상기(金庠基) 선생의 아낌을 받으며 연구실 한쪽에서 불교사 공부로 대학시절을 마칠 수 있었다. 미술사학자로 반드시 갖추어야할 문화재에 대한 감식안을 전수해준 것은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선생. 『서양식 교육이 우리 전통문화의 맥을 끊었다는 생각을 가졌으므로 처음부터 학위를 위한 공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졸업을 앞두고 국립박물관에서 연구원을 모집한다기에 응모했지요. 65년 4월부터 국립박물관에서 일하게 되면서 현장경험 을 쌓기 위해 경주.부여.공주 등 주요 지방박물관 근무를 자원했어요. 경주에 내려간 뒤 새벽부터 유물을 찾아 지역 일대를 헤매며 현장조사에 몰두하다가 저를 찾아온 혜곡선생을 처음 뵈게 됐어요.』 당시 혜곡은 감은사지 해체복원공사 때문에 내려온 김에 학계에서 칭찬이 자자했던 사학도崔씨의 재목을 가늠하기 위해 일부러 찾았던 것.밤새워 얘기를 나눈 혜곡은 주요 발굴현장에는崔씨를 동행시켜 현장경험을 쌓게 하고 자신의 학문적 지식 을 전수해 준다. 후에 혜곡이 임종을 앞두고崔씨를 불러 평생 자신의 학문적 업적과 소장한 자료가 쌓여있는 방의 열쇠를 손에 쥐어준 것은 혜곡의崔씨에 대한 각별한 사랑을 짚어보게 하는 일화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6.06.02		

No.	3-63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서울 성북동 '대원각' 도심속 山寺로 탈바꿈	키워드	대원각, 김영한, 법정, 청학, 길상사 개원
이야기 자원	서울 도심에서 경복궁을 끼고 삼청터널을 지나 성북동으로 향하는 길목에 나타나는 대원각(大苑閣). 3공시절 '밀실 정치' 의 산실로 일컬어졌던 요정 대원각이 송광사(松廣寺) 의 서울분원 길상사(吉祥寺)로 거듭나 청정도량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불사가 진행 중이다. 아직 ‘대원각’이란 간판을 달고 대중음식점 영업도 계속되고 있지만 오는 10월말까지 이사를 완료하기로 약속한 상태고 현재 주지 청학(淸鶴) 스님은 건물 입구 직원숙소에 길상사라는 임시현판을 걸고 불사를 점검하고 있다. 길상사 개원을 위한 백일 기도를 올리고 있는 청학스님은 “현재 자문위원들이 매달 한번씩 모임을 갖고 가람배치와 조형작업등을 논의하고 있다” 며 “늦어도 오는 12월에는 수행도량의 면모를 갖추고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원각은 대지 7천여평, 연건평 3천여평의 대규모 음식점. 독실한 불교신자인 김영한(金英韓.여.81) 씨가 법정 (法頂) 스님에게 불교발전을 위해 활용해 달라며 기증했고 지난달 법정스님이 위촉한 자문위원회가 가람배치와 운영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현 대원각 건물은 물론 주위의 경관과 조형도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계곡과 연못, 산책로에 늘어서 있는 나무 그리고 현 대원각을 에워싸고 있는 울창한 숲들도 자연 그대로 남겨둔다. 현판만 바꾸고 현재 출입문을 일주문으로 개축하는 한편 대원각 중앙의 신관 (금실.은실) 을 법당 (극락전) 으로 사용하고 우측 모퉁이의 송실을 설법전, 특실을 스님선방으로 활용할 예정. 시기는 미정이지만 출입문 남동쪽으로 지금의 주차장, 테니스장 자리에 연건평 2백50평 규모의 대웅전도 짓기로 했다. 40여동의 건물 중 10개 안팎의 건물만 사찰시설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개인, 가족, 청소년단체 등의 수련공간으로 꾸미겠다는 방침도 정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7.08.17		

No.	3-64	작성자	백외준
제목	만해 한용운 심우장 정비	키워드	심우장 정비, 매입
이야기 자원	만해 (卍海) 한용운 선생이 3.1운동으로 옥고를 치르고 33년 출옥한 뒤 44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머물렀던 심우장 (尋牛莊)이 시민 휴식공간으로 새롭게 정비된다. 성북구 성북동222의1, 222의2번지 대지 1백13평에 달하는 심우장은 만해를 기리는 수많은 시민들이 즐겨찾고 있지만 현재 만해의 딸 영숙 (63) 씨의 사유지로 돼있어 일반시민이 관람하려면 관람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상태다. 이에 따라 성북구는 서울시 기념물 제7호로 지정돼 있는 심우장을 한씨로부터 매입한 뒤 99년말까지 대대적으로 정비, 시민들에게 개방키로 했다. 이를 위해 3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구는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주변 건물의 땅 일부를 함께 매입, 폭 6m의 진입로와 11대 규모의 주차장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7.11.04		

No.	3-65	작성자	백외준
제목	김수환 추기경 길상사 개원법회 참석	키워드	김수환, 법정, 종교 화해
이야기 자원	고급요정 대원각 (大苑閣)에서 사찰로 탈바꿈한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길상사 (吉祥寺, 주지 淸鶴 스님)가 14일 개원법회를 가졌다. 천주교 김수환 (金壽煥) 추기경은 불상이 내려다 보는 가운데 “길상사가 도시인들의 영혼의 쉼터가 되길 바란다”고 축사했다. 이날 행사엔 대원각을 시주한 김영한 (金英韓, 81.여) 씨와 회주 법정 (法頂) 스님, 천주교 장익 (張益) 주교, 원불교 박청수 (朴淸秀) 교무 등과 일반신도 등 3천여명이 참석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7.12.15		

No.	3-66	작성자	백외준
제목	법정스님 명동성당서 강연	키워드	법정, 김수환, 종교화해
이야기 자원	법정(法頂) 스님은 지난해 12월 자신이 회주(會主) 로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길상사(吉祥寺) 의 개원법회에 김수환 추기경이 참석, 축사를 해준데 대한 보답으로 오는 2월 24일 서울 명동 대성당 에서 개최하는 특별강연에 나선다. 명동성당측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특별 강연회’를 기획, 법정 스님 외에 이정우(경북대, 경제학) 교수, 김종일 목사, 최창무 주교 등의 강연을 듣는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8.01.17		

No.	3-67	작성자	백외준
제목	성북동 배경의 연극 '혈맥' 공연	키워드	김영수, 사실주의극, 혈맥
이야기 자원	연극계 복고 바람이 토속적인 사실주의극의 당당한 부활로도 이어지고 있다. 국립극단의 '한국 연극의 재발견' 시리즈 첫번째 작품인 '혈맥' 이 그것. 김영수 작, 임영웅 연출로 12~21일 평일 오후 7시30분, 토.일요일 오후4시 국립극장 소극장 무대에 오른다. 작가 김영수 (1911~1979)는 이해랑·김동원 등과 함께 한국신극사를 개척한 1세대 연극인중 한 사람이다. 이 작품은 해방직후 서울 성북동의 달동네를 배경으로 기층민과 자본가의 갈등을 그린 그의 대표작이다. 희곡문학의 백미로 평가받는 이 작품이 국립극단에 의해 연극으로 새롭게 조명되는 것은 실로 50년만의 일. 작품발표 이듬해인 48년 제1회 전국연극대회 (극단 신청년)에서 작품상.연출상, 남녀주연상을 휩쓴 명작이지만 그동안 공연기회가 없었다. 당시 김영수는 신청년의 전속작가였고, 연출가는 한때 동양극장의 간판이었던 박진이었다. 주인공 털보 역에 국립극단장 정상철을 비롯, 백성희.김재건.최상설.전국환 등이 출연한다. 무대 박동우, 의상 최보경. 02 - 274 - 1151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8.06.08		

No.	3-68	작성자	백외준
제목	간송미술관 설립 60주년	키워드	
이야기 자원	간송 (澗松) 전형필 (全鑒弼, 1906 - 1962) 이 세운 한국 최초의 개인박물관인 보화각 (보華閣, 現 간송미술관) 이 설립 60주년을 맞았다. 간송미술관은 98년 가을 정기전시로 이를 기념하는 '보화각 설립 60주년 기념특별전' 을 지난 18일부터 11월1일까지 열고 있다. 02 - 762 - 0442. 간송은 잘 알려진대로 일제 치하에서 우리 문화재를 지켜낸 인물. 간송은 보화각 설립에 앞서 1934년 수집과 연구·보존을 할만한 장소로 서울성북동 소재 땅을 사들여 북단장 (北壇莊) 을 개설하고 서화를 보수하는 표구소까지 차려 박물관 준비작업을 벌였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미처 손대지 못하던 석물 (石物) 구입이 시작된 것도 바로 이때다. 지금도 간송미술관을 지키고 있는 석호 (石虎) 한쌍 역시 35년 경성미술구락부 경매에서 사들인 작품. 이후 38년에 들어선 보화각은 지난 66년 한국민족미술연구소 부설 간송미술관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간송의 문화재 수집은 24세 때 조선 제일의 갑부였던 아버지 형제의 10만석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시작됐지만 이번 전시는 보화각 설립 전후에 간송이 수집한 문화재 가운데 수집내력이 분명한 작품들 위주로 골랐다. 지난 91년 간송 30주기 특별전과 96년 문화인물 특별전을 통해 소개된 해원 신윤복의 풍속화집인 국보 135호 '혜원전신첩 (蕙園傳神帖)' 과 현재 심사정의 '촉잔도권 (蜀棧圖卷)', 추사 김정희의 '완당 행서대련 (阮堂 行書對聯)' 등 명품들이 한자리에 소개되고 있다. '혜원전신첩' 은 일본의 거상에게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인 작품이고, 거의 손상된 상태였던 현재의 일생일대의 대작인 길이 8m가 넘는 산수화 두루마리 '촉잔도권' 은 당시 5천원에 사들여 6천원을 들여 수리하기도 했다. 자식 공부시키고도 평생 편안히 먹고사는데 1만원도 안되는 전답 백석만 있으면 되던 시절임을 생각하면 그의 문화재 보존 열의를 짐작할만 하다. 도자기로는 37년 5천석 전답을 처분하면서까지 도쿄에 머물던 영국인 변호사 갯스비가 소유하던 세계최고 수준의 고려청자 컬렉션을 일괄 인수하면서 손에 넣은 국보 65호 청자기린형향로 (靑瓷麒麟形香爐) 등이 이번 특별전에 등장하고 있다. 비록 그가 갑부였다고는 하나 명품들은 어느것 하나 쉽게 얻은 것이 없다. 단순히 돈이 문제가 아니라 가치를 알고 내주기를 꺼려한 일본 수장가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의 결과 쟁취된 것이기에 더욱 값지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8.10.19		

No.	3-69	작성자	백외준
제목	97년 강도 침입 최순영 회장 집 5억 털려	키워드	
이야기 자원	신동아그룹 최순영 (崔淳永) 회장 집에 지난 97년 2인조 강도가 침입해 5억원어치의 금품을 털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97년 7월 3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崔회장 집에 정태윤 (鄭泰允.58).태섭 (泰燮.54) 씨 등 2인조 형제강도가 침입, 집을 지키던 가정부의 양손을 묶은 뒤 장롱에 있던 다이아몬드 등 귀금속 20여점 5억원어치와 미화.현금.자기앞수표 등 총 5억1천6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털어 달아났다. 사건 직후崔회장측은 서울 용산경찰서에 강도 당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피해 사실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도록 보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해 10월 서울성북구성북동에서 또다른 부유층 집을 털다가 형 태운씨가 경찰에 잡힌 뒤 여죄 추궁과정에서崔회장 집을 털 사실 확인됐으나 경찰은 이를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9.05.31		

No.	3-70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전 대원각 주인 김영한 씨 별세	키워드	대원각, 김영한, 무소유
이야기 자원	시가 1천억원대의 고급 요정 대원각(大苑閣)을 시주해 97년 도심 속의 수행사찰 길상사(吉祥寺)로 탈바꿈시킨 김영한(金英韓)씨가 14일 오전 서울 동부이촌동 자택에서 별세했다. 83세. 일제 때 가무(歌舞)의 명인으로 유명 시인 백석(白石)의 연인이기도 했던 金씨는 51년 서울 성북동 청암장을 인수해 3공 시절 삼청각과 함께 '밀실정치'의 요람이었던 대원각을 운영해오다 87년 법정스님의 수필집 '무소유'를 읽고 시주를 결심했다. 빈소는 서울 중앙대부속용산병원, 발인은 16일 오전. 02-794-7499.		
참고문헌	중앙일보 1999.11.15		

No.	3-7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운보 김기창의 삶과 작품세계	키워드	김기창, 박래현, 운우미술관
이야기 자원	23일 타계한 운보 김기창 화백은 왕성한 실험정신으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들며 뛰어난 작품들을 선보인 한국화단의 거목이다. 그는 7세때 장티푸스로 인한 고열로 후천성 귀머거리가 됐다. 17세때 이당 김은호 화백 문하에 들어가 그림을 배운 지 6개월만에 조선미술전람회(선전)에 '관상도무(板上跳舞)'로 입선해 일찍이 대가의 소질을 보였다. 1937년 선전에서는 '고담'으로 최고상인 창덕궁상을 수상하기도 했다.광복 이듬해 동료화가 우향 박래현과 결혼,아내로부터 입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 말문을 틔었다. 그 뒤 수차례에 걸쳐 부부전을 개최하는 등 금슬을 과시했지만 76년 아내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만년을 외롭게 지냈다. 운보는 타계한 최순우 전 국립박물관장이 "의지의 작가요, 정열의 문치"라고 불렀듯 다양한 작품을 섭렵하며 1만5천여점(삽화,태생 포함)의 작품을 남겼다. 인물, 산수 등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초기의 동양화에서부터 한국 산하의 정기를 힘차고 대담하게 그린 청록산수, 조선시대 민화의 정취와 익살을 해학적으로 표현한 바보산수, 예술정신을 자유롭게 펼친 추상작품 등 그가 다룬 주제와 표현방식에는 한계가 없었다. 특히 부인이 세상을 떠난 후 활짝 핀 '바보산수'에서 그는 과감한 생략과 강조를 통해 우리의 민화를 계승한 자유롭고 해학적인 화풍을 보여주었다. 운보는 바보산수에 대해 “나는 작가 정신이 어린이가 되지 못하면 그 예술은 결국 죽은 것이라는 예술관을 가지고 있어요.바보란 바로 덜 된 것이지요.예술도 끝이 없는 것이어서 언제나 덜돼있을 수 밖에 없지요.”라고 말했었다. 대표작으로는 ‘정청’ ‘군마도’ ‘군작도’ ‘가을’ ‘갓 쓴 예수’ ‘홍락도’ ‘문자도’ ‘점과 선 시리즈’등이 꼽힌다. 운보는 농아복지에 특히 관심이 많아 80년 8월 사단법인 한국농아복지회를 발족시켰으며 83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열린 제1회 세계 농아연맹에 최초의 한국대표로 참석해 한국을 가입시켰다. “화가가 예술만을 위해 살다보면 환쟁이로 전락하지만 봉사가 곁들여지면 정말 예술가가 되지요”라던 그는 장애인들에 용기와 신념을 심는 일에 무엇보다 힘썼다. 80년대 중반에 외가가 있던 충북 청원군 내수읍 형동리에 '운보의 집' 을 세우고 그 옆에 운향미술관과 도예전시관, 운보공방 등 문화공간을 조성한 그는 이 곳에서 농아들에게 도자기 기술을 가르쳐 자립기반을 닦도록 했다. 그러면서도 노르웨이 방문시 웅장한 자연과 폭포들을 보며 ”저 신의 소리를 한번만이라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인간적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국전쟁 때 동생들과 헤어진 그는 지난해 11월 제2차 남북이산가족상봉 때 북에서 온 동생 기만(基萬 ·72 ·공훈화가)씨를 50년만에 병상에서 만나 그간의 그리움을 아쉽게 달래야했다. 96년 5월 뇌경색으로 쓰러진 이래 긴 투병생활을 하면서 “우향이 오라고 한다”는 말을 자주 하던 그는 이제 그리던 아내 곁으로 갔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1.01.26		

No.	3-72	작성자	백외준
제목	요정정치 산실 삼청각 문화공간 탈바꿈	키워드	삼청각, 서울시
이야기 자원	‘보존 가치가 있는 문화재냐, 청산해야 할 요정 건물이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울 성북구 성북동 삼청각(사진)이 외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통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25일 “삼청각 본관격인 일화당(9백70여평)을 전통예술 공연장 겸 전통음식점으로 개조해 10월말부터 시민에게 개방하겠다” 고 밝혔다. 나머지 5개 건물 중 유하정과 청천당.천추당은 연내에 내부를 개조해 다도(茶道)체험장.판소리 전문학교 등으로 활용한다. 한옥 양식을 잘 간직하고 있는 취한당과 동백헌은 외국 귀빈들이 전통생활을 직접 체험하는 숙박시설로 운영된다. 이로써 이미 종교시설로 변한 대운각·선운각 등 과거 서울의 3대 고급 요정 모두가 면모를 달리한 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게 됐다.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한산 자락 5천8백여평에 위치한 삼청각은 1972년 건립돼 74년 남북 적십자 대표단 만찬장으로 사용됐고 한·일협상 막후 협상이 이뤄졌던 곳이기도 하다. 70~80년대 정치인들이 즐겨 찾아 ‘밀실정치의 산실’이란 애기를 들었고 한때는 일본인들이 이곳에서 기생관광을 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이 한창일 때는 외국 주요 바이어들의 단골 접대장소이기도 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1.03.26		

No.	3-73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국 최초 카톨릭 순교자상 발견	키워드	최종태,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건물
이야기 자원	한국 조각가 손으로 빚은 최초의 한국 순교자 성상이 발견됐다. 조각가 최종태(71.서울대 명예교수)씨는 최근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 옆 골목에 있는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의 '괴정의 집' 외벽에서 열두 명의 순교 성인들 성상을 찾아냈다. 1956년 이 건물이 세워질 때부터 들어서 있던 성상들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해 제대로 평가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수도원을 찾은 최씨는 "평소 이 동네를 지날 때마다 건물벽에 조각품 여러 개가 붙어있는 이 집에 저절로 눈길이 갔는데 들어와 보니 역시 한국 사람 손으로 조각한 한국인의 모습이 틀림없다"고 감격스러워 했다. 한국가톨릭미술가협회장인 최씨는 장익 주교와 이야기를 나누다 "성북동에 참한 조각들이 있는데 오래된 것은 분명하고 자꾸 마음이 쓰인다"는 말을 듣고 찾아나선 길이었다. 열두 성상은 벽돌 건물 3층 바깥 벽에 좌우 대칭으로 구성된 아치 모양 틀에 열 개, 2층 베란다 기둥에 두 개가 서 있었다. '79위 복자'로 받들어지는 한국 성인,성녀들 중 김대건 신부,조신철 가롤로,유진걸 아우구스티노,정하상 바오로,유대철 베드로,김효임 골롬바 등 열두 분을 뽑아 조각했다. 흙시멘트를 재료로 한 성상들은 보존 상태도 좋아 바로 어제 세운 듯 선명하다. 수도회를 창설한 방유룡 신부가 이 건물을 지을 당시를 지켜본 방학길 신부는 "유명한 조각가는 아니었지만 방 신부님이 평소 알고 지내던 젊은 조각가가 자원해 만들었던 기억이 난다"고 증언했다. 최종태씨는 "덩어리(매스)를 둥글둥글하게 처리한 솜씨나 겹겹의 옷주름 매무새, 단순하면서도 힘 있는 표현 등 첫 눈에 서울대 조소과 출신 선배가 만든 것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말했다. 서울대 조소과 7회로 58년에 졸업한 최씨는 김종영 선생의 지도를 받던 50년대 초 선배들이 대부분 일찍 죽어 확인해 줄 사람이 없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몇 가지 단서는 남았다. 이 성상들을 제작해 납품한 '찬미사'의 대표 최찬정씨는 "서울대 김세중씨가 관여하는 등 서울대 조소과 졸업생 누군가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확실하다"고 확인해줬다. 최종태씨의 서울대 조소과 선배인 최의순씨는 "조각 작품들이 명동성당 안에 있는 장발 전 서울대 교수의 '십사 사도' 그림의 동작과 유사한 점이 많은 걸 볼 때 서울대 조소과 출신의 장기은 선배 등 두 사람 이상이 만든 작품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 열두 순교자 성상이 한국천주교회사의 역사유물로 보존돼야 할 가치있는 작품임과 동시에 한국 조각사에서도 귀중한 작품이라고 반가워 했다. 미술평론가 김종근씨는 "윤효중,김경승의 기념비성 조각 외에는 별 작품이 없는 1950년대에 이만한 작품성을 지닌 인물상이 제작돼 이렇게 잘 보존돼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며 "작품을 만든 조각가를 발굴하는 일은 미술사 연구자들의 몫"이라고 했다. 최종태씨는 "한국 순교 성인들을 조각한 작품들이 한국의 조각가들에 의해 최초로 만들어진 점 외에 최초로 건축물에 설치된 점도 중요한 역사적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3.03.10		

No.	3-74	작성자	백외준
제목	최순우 옛집에서 열린 전시회	키워드	엽서전, 내셔널트러스트문화유산기금
이야기 자원	내셔널트러스트 문화유산기금(이사장 김인회)은 18일부터 12월 3일까지 서울 성북동 최순우 옛집에서 '최순우가 보았던 세계의 미술-혜곡 최순우 선생 소장 엽서'전을 연다. 미술사학자이자 전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지낸 혜곡 최순우(1916~84) 선생이 소장했던 엽서 200여 장과 관련 사진이 나온다. 02-3675-3401.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5.11.16		

No.	3-75	작성자	백외준
제목	코오롱 노조원 30여 명 이용렬 회장 집 점거 농성	키워드	코오롱 노조
이야기 자원	정리해고에 항의해 온 코오롱 노조 조합원 10명이 27일 오전 이용렬 코오롱그룹 회장의 자택에 침입해 점거농성을 벌이다 모두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에 따르면 경북 구미공장 소속 코오롱 노조 조합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최일배 노조위원장 등 10명이 집 뒤쪽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돌을 던져 대형 유리를 깨고 1층 거실에 진입한 뒤 회장 면담과 정리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는 것. 당시 이 회장은 가족과 함께 집안에 있었지만 조합원들의 면담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전 8시쯤 노조원 전원을 연행했으며, 주거침입 등으로 조사한 뒤 선별적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코오롱그룹은 지난해 2월 임금 15% 삭감을 전제로 509명에게 희망퇴직을 받기로 노사가 합의했으나 희망퇴직 인원이 미달하자 78명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반발한 노조는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여 왔고, 이달 6일부터 조합원 3명이 20m 높이의 구미공장 송전탑에 올라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6.03.28		

No.	3-76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한국판 비벌리힐스’ 성북동 24시	키워드	고급주택지
이야기 자원	1. 전직 대통령 부부는 성북동에 집을 사러 왔다 그 집 안주인이 완강히 거부하는 바람에 결국 집을 사지 못했다. 안주인은 함께 집을 보러 온 대통령의 딸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다며 집을 못 팔겠다고 했다. 2. 살던 집을 팔려다 작은 문제가 생겼던 J그룹 C 회장은 일이 마무리된 뒤 난데없이 운전기사를 해고해 버렸다. 그가 C 회장 집에 생긴 문제를 친구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회장의 귀에 들어갔기 때문이었다. 3. 집 주인들은 부동산에서 "원하는 가격보다 더 받아줄 테니 복비를 더 달라"고 하면 가차없이 거래를 끊는다. "돈 몇 푼 더 받자고 나더러 협잡질을 하지는 거냐"는 것이 이유다. 하늘이 낸 부자들만 산다는 동네 서울 성북구 성북동. 이곳의 대저택들은 웬만한 부자들도 소유는 커녕 구경 한 번 해보기도 힘든 집들이다. 이들 집의 주인들만큼이나 파란만장한 내력을 <월간중앙>이 공개한다. 성북동에는 없는 것이 많다. 우선 고층건물이 없다. 주민들이 스스로 제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묶어줄 것을 요청해 높은 건물은 지을 수 없다. 서울을 한눈에 내려다보는 조망권을 함께 누리자는 합의가 만들어낸 결과다. 또 택시를 빼면 대중교통이 전혀 없다. 마을버스가 다니기는 하지만 흔히 알려진 성북동과는 하늘과 땅 차이인 '변두리'까지만 운행한다. 걸어다니는 사람도 없다. 다소 가파른 언덕길 골목마다 고급 승용차들만 오갈 뿐 인적을 찾기란 어렵다. 때문에 외부인이 이 동네에 잘못 발을 들였다가는 한참을 길을 잃고 헤매기 십상이다. 집값이 높이 쌓아올린 담장과 그 위로 고개를 내민 감시 카메라들이 이곳이 '대한민국 부촌 1번지' 성북동임을 말해준다. 대부분 문패도 없는 두터운 철문 속 저택에는 이름만 대면 알 만한 대기업 회장과 저명인사들이 살고 있다. 그런데 성처럼 둘러친 담장 너머를 들여다보지 않고도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 있다. 정한술 평화부동산 대표. 그는 성북동에서 40년 넘게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동네 유지'다. 비록 성북동 초입의 사무실은 초라하기 그지없고, 대저택을 소유한 것도 아니지만 성북동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이 없다. 아니, 그가 모르는 성북동 주민이 없다고 해야 옳겠다. 그는 성북동 대저택 중 들어가 보지 않은 집이 거의 없다. 번지수를 델 필요도 없이 집 외관만 설명해도 누구 소유며 현재는 누가 사는지 훤히 다. 보통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만나기도 힘든 저명 인사들을 그는 옆집 아저씨 보듯 한다. 심지어 기자가 "저런 집들은 내부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고 하자 대뜸 자동차 열쇠를 집어들며 "갑시다" 하며 나선다. 그는 모 대기업 회장 아들의 집으로 안내했다. 정원수와 잔디를 새 단장 중인 그 집은 대문이 열려 있었다. 정 대표는 "아무 말하지말고 고개만 끄덕이시라"고 귀띔한 뒤 집안으로 불쑥 들어갔다. 남의 집, 그것도 대기업 회장의 아들네 집이라는 설명에 대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기자가 머쓱해진 순간이었다. 그는 정원사에게 인사를 건네더니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설명을 했다. "이 집은 이 동네 어떤 집보다 관리가 잘 된 집입니다. 전망도 뛰어나죠. 이 나무는 30년이 넘는 감나무인데…."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6.10.21		

No.	3-77	작성자	백외준
제목	하가 서도호의 성북동 집	키워드	서도호, 성북동 집
이야기 자원	작업 구상차 잠시 서울에 온 서도호(사진)씨를 지난주 만났다. 그는 마침 경복궁 자경전 구경을 다녀온 참이었다. 한국 고건축에 관심이 많은 그는 “한옥, 한복, 한국화를 관통하는 맥이 짙이다”며 “단순한 표면이 아니라 여러 겹이 겹쳐서 쌓여서 일궈내는 투명성”이 공통점이라고 했다. -겹이 이루는 투명성이 서도호 작품의 한 요소인가. “그렇다고 말할 수 있다. 대학에서 동양화를 공부했기에 화면 속에 들어앉은 여러 층의 물감이 이루는 성긴 구조를 볼 줄 안다. 서로 스며들며 침투해 평면이 되면서도 동시에 종이와 종이, 물감과 물감 사이 층과 층을 벌려놓으니까 숨통이 트이는 것인데 그 넉넉함이 서양화에는 없는 동양화의 특징이다. 그런 겹과 호흡의 미학이 내 설치미술작품이나 조각에 배어있다.” -‘싸이코 빌딩’이란 전시 제목처럼 헤이워드 갤러리 전시작들은 대담하고 놀랍다. “야심 찬 기획 의도가 마음에 들어 내년 6월에 끝낼 계획이던 ‘떨어진 별(Fallen Star) 1/5’을 1년 앞당겨 완성했을 정도다. 작업을 하면서 초죽음이 됐지만 너무 원했기에 몸은 힘들어도 행복했다. 특히 새빨간 ‘계단 V’는 전시 공간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 조명만으로도 관람객에게 새로운 시각 체험을 줄 수 있었다.” -한옥과 양옥이 충돌해 물건 수천 개가 쏟아져 들어간 모습은 지진이나 참사를 연상시키는데. “건물을 대각선으로 자른 것은 숨지 않고 다 드러내 보여주겠다는 절단의 몸짓이다. 한국을 떠나 회오리바람에 쓸려가듯 태평양을 건너 미국에 떨어진 나의 운명이 담겨 있다. 서울과 뉴욕을 오가는 떠도는 인생의 상황이었을까. 나는 연기설(緣起說)을 믿는다. 관람객이 내 머릿속 뇌수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으면 했다. 집을 의인화해 다른 두 문화의 충돌을 나타낸 것인데 여기서 쏟아진 물건은 낯선 곳에서 생존하기 위해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알몸이 되는 변이의 상징이다.” -집을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시키게 된 계기가 있다면. “성북동에 일찌기 전통 건축술에 맞춰 한옥을 지은 부모 덕일 것이다. 한국에 있을 때도 대문을 나설 때마다 다른 곳으로 전이되는 느낌, 격리되는 경험을 했다. ‘집속의 집’, 그 경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는 세상과 문명을 이해하는 나와 내 작품의 영원한 주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8.06.20		

No.	3-78	작성자	백외준
제목	‘바람의 화원’ 전시장을 휘감다	키워드	신윤복, 간송미술관, 미인도
이야기 자원	19일 오후 1시, 서울 성북동 간송미술관부터 도로변까지 100m 넘는 줄이 늘어섰다. ‘보화각(간송미술관의 전신) 설립 70주년 기념전’을 보러 온 관객들이다. 미술관에 들어가려면 1시간 30분 대기는 기본일 정도다. 박규택(40·회사원) 씨네도 인천광역시 부개동 집에서 일찌감치 나섰다. “가끔 혼자서만 전시를 보러 오다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두 자녀 등 온 가족이 오기로 하고 어제 인터넷으로 보고 싶은 그림을 점찍게 했다.” 전시장 진열장 앞은 말 그대로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특히 1층 전시장 벽에 걸려둔 단원의 ‘마상청앵’, 혜원의 ‘미인도’ 앞에서는 인파가 떠날 줄을 몰랐다. 김재은(29·여)씨 역시 “SBS 인기 드라마 ‘바람의 화원’이 시작된 후 원작 소설을 찾아 읽었는데, 소설 속의 그림 대부분의 소장처가 간송미술관이어서 관심을 갖고 찾아왔다”고 말했다. 미술관 측은 이날 하루 1만 5000여 명이 다녀간 것으로 추산했다. 개막일인 12일 2만여 명이 몰린 데 이어 평일에도 6000~7000명씩 왔으니 8일 만에 8만여명이 간송 소장 조선 서화의 보배들을 보고 간 셈이다. 전시가 끝나는 26일까지 20만 명쯤이 찾아올 걸로 예상된다. 2006년 봄 ‘간송 탄신 100주년 기념 특별대전’ 때와 비슷한 인파다. ‘공짜 눈호사’지만 불만과 우려의 소리도 많다. ‘드물게 나온 귀한 명작들을 보기는커녕 인파에 숨조차 쉴 수 없다’ ‘수천 명이 몰리는 미술관에 단칸 화장실이 웬 말이나’ ‘낡은 진열장 속 국보급 서화들이 몰려든 관람객들 때문에 훼손될까 우려된다’ 등이다. “70년된 미술관 건물은 간송기념관으로 활용하고, 별도의 제대로 된 상설전시공간을 마련해 개방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경원대 윤범모 교수)는 제안도 나온다. 미술관도 고민이다. 봄·가을 보름간의 정기전 기간 중에는 미술관 산하 한국민족미술연구소 연구원 5명 뿐 아니라 전시장 정비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두 명을 써 7명이 달라붙지만 역부족이다. 입장료나 후원금을 받아 관람 여건을 개선할 수는 없겠느냐는 애기도 나온다. 간송 전형필(1906~62) 선생의 삼남인 전영우 관장은 “후손이 간송의 소장품을 가지고 입장료를 받으면서 돈벌이를 하려 든다는 비난을 받게 되면 간송의 뜻을 훼손하는 일 아닌가. 당분간은 어렵지만 지금의 방식을 고수할 작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8.1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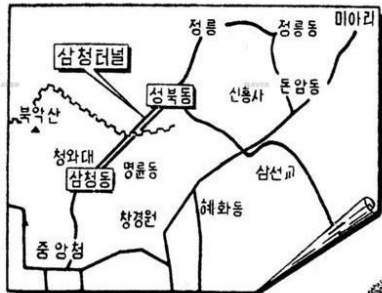
No.	3-79	작성자	백외준
제목	국내 최초 외교관 사택단지	키워드	외교관 사택단지
이야기 자원	서울 성북동에 외교관 사택단지가 들어선다. 주한 외국 경제인·외교관 등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이 곳에 전 세대가 복층으로 설계된 유럽식 타운하우스가 처음으로 들어서는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분양을 시작했다. 시행사인 서머셋빌더스의 강현석 본부장은 "이미 50~60% 정도 계약을 마쳤다"면서 "외교관 사택 단지는 비교적 작은 규모여서 성북동에서 중간 규모의 주거지를 찾는 외국인들에게 관심이 높다"고 말했다. ◇사교장소 '커뮤니티 홀' 운영=국내 최초의 외교관 사택단지인만큼 하나부터 열까지 최고의 서비스 제공에 심혈을 기울였다. 먼저 중앙에 24시간 운영되는 '커뮤니티 홀'은 국내 거주 외교관들에게 비즈니스와 사교 장소의 공간으로 이용된다. 소규모 공연 시설과 파티장, 피트니스 클럽, 스쿼시장이 함께 들어온다. 시공사측은 "외교관들과 내국인 입주민 모두 문화예술을 즐기며 관심분야를 나누게 되는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광·환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거실벽 전체를 유리로 마감했으며 주방가구와 욕실, 거실바닥에 이탈리아 본템피와 조르다노, 스페인 로카사 등 최고급 외국산 마감재를 적용했다. 이밖에 유명 호텔이나 백화점 등과 협의해 음식 및 백화점 VIP 서비스, 커뮤니티 관리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완벽한 보안을 위해 에스원의 '세콤' 서비스를 도입, 61세대 전 거주자 대상의 '1대1 안전서비스'도 운영한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09.09.15		

No.	3-80	작성자	백외준
제목	법정스님 입적	키워드	입적, 길상사
이야기 자원	산문집 ‘무소유’로 널리 알려진 법정(法頂)스님이 11일 오후 1시 52분쯤 서울 성북동 길상사에서 입적했다. 향년 78세. 법정 스님은 지난달 하순 지병이 악화돼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이날 자신이 창건한 사찰인 길상사로 몸을 옮긴 뒤 열반에 들었다. 법정 스님은 지난 3~4년 간 폐암으로 투병해왔다. 산문집 ‘무소유’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법정 스님은 1997년 12월 길상사를 세웠다. 2003년까지 길상사 회주를 맡으며 대중 법문을 해 왔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10.03.11		

No.	3-81	작성자	백외준
제목	전 대선 후보 사돈 집에 도둑 ... 다이아 등 금품 6000만원 털어	키워드	도둑, 다이아
이야기 자원	1980년대 장관을 지냈던 A씨의 서울 성북동 집에 도둑이 들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97년 서울 성북구와 용산구 한남동 등 고급 주택가 일대를 돌며 대기업 회장 등의 자택 5곳에서 잇따라 강도 행각을 벌인 정모(57)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쫓고 있다.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중순 서울 성북구 성북동 A 전 장관의 집에 침입해 현금 500만원과 다이아몬드 반지, 금붙이 등 6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당일 A 전 장관의 집 가사 도우미가 택배를 받기 위해 대문을 열어뒀다가 깜박하고 잠그지 않은 점을 이용, 정씨가 열린 대문을 통해 집에 침입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 주변 폐쇄회로TV(CCTV)에 정씨가 A 전 장관의 집으로 통하는 골목 어귀에서 맴도는 장면이 찍혔다”고 말했다. 정씨는 97년 형과 함께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의 집만 골라 수억원을 훔친 죄로 검거돼 수감됐다 석 달 전 출소했다. 정씨는 2006년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착각하고 여권 갱신을 위해 귀국했다가 붙잡혀 구속 기소됐다. A 전 장관은 전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의 사돈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중앙일보 2011.10.11		

No.	3-83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6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1)	키워드	소설가 염상섭 별세
이야기 자원	作家廉尙變씨 永眠 14日自宅에서 直腸癌으로  우리나라 문단의원로廉步(廉尙變)〔筆名〕想涉・서울성북동145의52 씨가 14일 상오9시 서울시내 성북동 자택에서 직장암(直腸癌)으로 별세했다. 향년65세. 그는 지난11일 메디컬센터」에 입원했다가 이날아침8시30분 자택으로 퇴원했다. 술하에 2남1녀를 둔廉씨는 일본경응(慶應)대학문과를 다녔다. 문단활동을 통해廉씨는『해바라기』『萬歲前』『사랑과죄』『모란꽃잎무렵』『一心』『三代』『未亡人』『취운』『夫婦』『짓지않는개』『동장편18편과 수많은 단편을 남겼다. 또廉步는 京郷신문사초대편집국장을 비롯하여 朝鮮보주필편집국장 서라벌예술대학학장등을 역임했고 서울시 문화상과 자유문화상도 받았었다. 평소 술을 좋아하여 자기의 열정음질을 따서『橫步』란 호를 지었던 그는 말년에 예술원회원으로 재직생활을 했었다. 싸움달린다고 暴行 14일상오 서울 성동서는 朴鍾大(20·유학중산12)군을 폭력행위등 처벌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朴군은 12일밤10시쯤 집앞에서 동생과싸우다가 행인 盧某(51)씨가 싸움을달리자 廉씨를높이2「미터」의 비탈로 밀어떨어뜨린후 얼굴을 무수히구타, 전치10일의 상해를입힌 혐의이다. 柳植千 증권파동사건을 수사중 씨동 10명을 육군본부서울지검에 각각송치했다 위반과 업무상 횡령죄를(最高會議財經委員) ▲千 央情報部研究室行政官(農協副會長 央情報部行政次長) 入院中(證券去來所理事)		
참고문헌	경향신문 1963. 3. 14.		

[illegible]

No.	3-85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7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1)	키워드	삼청터널, 오세창, 박명화, 호화주택
이야기 자원	서울시는 南山「터널」을 사에 뒤인 삼청동과 성북동을 잇는 3.3km의 「삼청터널」을 1억 6천만원에 80만원의 민간자본을 유치, 12일 착공, 오는 8월 15일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삼청터널」이 개통되면 지금까지 성북동에서 삼청동까지는 28.9%의 증가로 10일 10.5시간에서 7.5시간으로 단축된다. 삼청터널 12일 착공 民資1억6천만원유치8월完工목표  매일경제 1970. 2. 11. “삼청터널 2월 12일 착공” 吳世昌선생 부인 朴明華여사 별세 吳世昌선생의 부인 朴明華여사가 17일 오후 1시 서울성북구 성북동 128의 11 자택에서 노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94세. 발인은 19일 오후 11시 자택서(연락처 02-1607)다. 경향신문 1976. 1. 19 “오세창 부인 박명화 여사 별세” 호화주택 기대인으로 알려진 서울의 한 부인이 61년부터 현재까지 호화주택을 10여채 소유하고 있다. 이 부인은 K사 전무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인은 서울에서 10여채의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이 부인은 서울에서 10여채의 호화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경향신문 1976. 12. 11. “호화주택”	참고문헌	매일경제 1970. 2. 11. 경향신문 1976. 1. 19. 경향신문 1976. 12. 11.

No.	3-86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7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2)	키워드	성북천 복개, 풍치지구 해제
이야기 자원	城北川복개착공 1億3千萬원投入...年内완공 城北구 삼천동 삼천교상류 성북천 복개공사 1일차 공했다. 성북구는 총공사비 1억 그위를포장, 인도와 차도를 3천6백만원들여 폭 4m 깊이 3m 길이 1백 80m의 암 거 3개를 나란히 설치하고 청터널로가는 차량의 소용 에 큰도움을 주게된다. 구분해 도로를 확장해 오는 12월말까지 이공사가 끝나게되면 지금까지 폭 15 m이면 좁은도로가 40m로 크게 확장돼 삼천교에서 삼 천터널로가는 차량의 소용 에 큰도움을 주게된다. 경향신문 1978. 10. 4. “성북천 복개 구간”		
참고문헌	公園·風致지구 일부지역 해제 서울시는 28일 성북구성북 동 4개지구의 공원지역과 성 동구옥수동 214일대의 풍 치지구 등 2만 7천 3백 16평 을 각각 공원지역및 풍치지 구로부터 해제시켰다. 각지역별 해제지역은 다음 과같다. ◇공원지역 ▲長井공원(강 남구장지동거여동) 117천 9 백 33평 ▲新寺공원(서대문구 신사동) 115천 5백 15평 ▲北 岳산공원(성북구성북동) 116 천 3백 58평 ▲冠岳산공원(관 악구봉천동, 신평동) 112천 2 백 7평 ◇풍치지구 ▲金湖·玉水지 구(성북구옥수동 214일대) 115천 3백 3평 경향신문 1978. 10. 30. “공원·풍치지구 일부지역 해제”		
참고문헌	동아일보 1977. 9. 1. 경향신문 1978. 10. 4. 경향신문 1978. 10. 30.		

No.	3-87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1)	키워드	부자, 고급주택 강석원, 그룹가스튜디오

이야기 자원

“巨富들은 江北산다.”

「고액납세 20人」의 거주지는...

江南이 부동산 동2명이로 체면

성북2동 政財界거물 몰려
압구정동엔 단1명도 없어

서울城北洞 "그림가스튜디오" 체면

週間 주요 통계

구분	단위	지난주 (6.15~21)	전주대비
총생산	백만원	3,239,141	▲1,288
제조업	백만원	2,529,141	▲1,288
건설업	백만원	1,239,141	▲1,288
서비스업	백만원	1,470,858	▲1,288
소매업	백만원	1,239,141	▲1,288
대중교통	백만원	1,239,141	▲1,288
문화/여가	백만원	1,239,141	▲1,288
의료/보건	백만원	1,239,141	▲1,288
교육/연구	백만원	1,239,141	▲1,288
사회복지	백만원	1,239,141	▲1,288
문화/여가	백만원	1,239,141	▲1,288
의료/보건	백만원	1,239,141	▲1,288
교육/연구	백만원	1,239,141	▲1,288
사회복지	백만원	1,239,141	▲1,288

서울城北洞 "그림가스튜디오" 체면

경향신문 1992. 6. 24. “거부들은 강북 산다”

개요

- ▲위치: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330의 542
- ▲대지면적: 249평
- ▲연면적: 170평
- ▲건축규모: 지상2층 지하1층, 콘크리트구조
- ▲건설연도: 1985년

건축가 姜錫元

- ▲1938년 서울생
- ▲홍익대학교 건축과 졸업
- ▲현 그룹가건축 대표

현대 건축 산책

서울城北洞 "그림가스튜디오" 체면

담장높은 저택들속에 항거하듯 담장철고 "우뚝,"

경향신문 1993. 8. 28. “건축가 강석원의 그룹가 스튜디오”

참고문헌

경향신문 1992. 6. 24.
경향신문 1993. 8. 28.

No.	3-88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2)	키워드	선잠제 재현, 지역 행사 지원
이야기 자원	서울시 8件 새로 지정 서울시는 올해 새로 개발된 구별 향토문화축제 8건을 포함, 시내 22개 지역축제에 대해 시비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올해부터 새로 계획된 축제는 △노원 마들축제(10월) △영등포 용왕제(11월) △서초우면두레(10월) △성북 선잠제(5월) △구로 문화예술제(9월) △강남압구정축제(5월) △송파 향토축제(10월) △강동 문화제(10월) 등이다. 특히 서울시는 올해의 경우 서울 6백주년 기념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대전역 스포드 개최되는 해라는 점을 중시, 지역별 역사와 환경에 바탕을 둔 특색있는 향토문화축제가 개최되도록 각 행사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역축제 22件 市費지원 동아일보 1993. 4. 22. “서울시, 지역축제 22건 지원” 동아일보 1993. 5. 12. “선잠제 85년만에 재현”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3. 4. 22. 동아일보 1993. 5. 12.		

No.	3-89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3)	키워드	선잠제 재현, 4월 행사
이야기 자원	양잠農事 기원 선잠祭 재현 왕실이 풍요로운 양잠농사를 기원했던 선잠제(先蠶祭)가 20일 오전 서울 성북구 성북2동 64지(사적 제83호)에서 거행됐다. (金東柱)  고려와 조선조 동아일보 1995. 4. 21. “선잠제 재현행사 개최”		
참고문헌	 사진제공 성북구청 선잠제를 아십니까. 뽕잎을 많이 먹은 누에가 가늘고 보드라운 명주실을 쪽쪽 뽑아내도록 빌던 행사. 선잠제처럼 독특한 지역문화 축제가 이달부터 곳곳에서 펼쳐진다. 동아일보 1998. 4. 3. “선잠제를 아십니까”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5. 4. 21. 동아일보 1998. 4. 3.		

No.	3-90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4)	키워드	염상섭, 김광섭, 우리 문학유산
	우리 문학유산을 찾아 < 16 황보 염상섭 말년 보낸 성북동 자택 올해는 우리문단 최초의 자연주의 소설 「표본실의 침묵구름」을 쓴 황步顯(1897~1963·본명 柳慶熙)이 태어난 지 꼭 100년 되는 해. 황보는 재민식과 더불어 리얼리즘 문학의 양대 봉우리로 평가받고 있다. 1921년 「개벽」에 「표본실…」을 발표하며 문단에 데뷔한 그는 「만세전」「삼대」「아침」 등의 소설을 통해 일제 식민지하의 우리나라 상층을 가장 날카롭게 묘사했다. 황보는 민족의 수난을 정신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문학을 선택했으며 삶의 핵심에 도달하는 방법으로 리얼리즘에 착안함으로써 한국소설의 한 장을 개척했다. 그러나 그의 개인적인 삶은 술과 금연을 병행하고 싶었던 출중한 것이었다. 황보가 우리 문학사에서 차지하는 중요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그 흔한 기념비나 동상 하나 세워지지 않은 것도 안타까운 감을 더해준다. 황보는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자라고 서울에서 세상을 왔다. 그가 태어난 곳은 구한말 「옛길」이  1960년 염상섭의 모습  염상섭이 작고한 기점까지 살았던 서울 성북동 집. 이 집은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후 새 주인에 의해 완전히 축적 옛모습을 잃었다. 작고 3년뒤 개축…자취 찾을길 없어 문학사 중요한 위치 불구 기념비조차 안세워 울 탄생 100년…생애·작품세계 재조명 시급 면 황보가 사망한 해로부터 3년뒤 개축한 집이라는 예기다. 『꽃 해 전 출판사』가 방송사에서 찾아와 이 집에 염상섭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뿐 이사를 때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이집 안주인의 말이다. 황보는 150여권의 소설과 100여편의 평론, 수필 50여편 등 500여편의 글을 남겼다. 본심도 열고가 그토록 많다고 하니 실적인 면에서나 양적인 면에서나 소홀히 다룰 수 없는 문학 세계를 짐작케 한다. 원고를 숲 기력 경향신문 1996. 7. 28. “황보 염상섭 말년 보낸 성북동 저택”		
이야기 자원	우리 문학유산을 찾아 < 20 김광섭 시인의 서울 성북동 옛집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본래 삼면 성북을 비둘기만이 번지가 없어졌다/새번지부터 둘 개는 산술법에 뿔다가/가슴에 글이 갔다/그래도 성북동 비둘기는/하느님의 광장 같은 새파란 아침 하늘에/성북동 주민에게 축복의 메시지가 전해듯/성북동 하늘을 현바퀴 휘 돈다…」(『성북동 비둘기』중)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를 통해 60년대 개발과 건설의 소용돌이에 시달린 서민의 삶을 따뜻하게 그려낸 아산(怡山)金瑬燮(1905~??)의 고향은 행정북도 경서. 그러나 그에게 경서는 고양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했다.  이산 김광섭시인이 5년여간 살았던 서울 성북동 옛집. 2층의 서재에서 대표작 「성북동 비둘기」가 구성됐다.  비둘기 오지않는 「성북동 비둘기」산실 연 보 ▲1905년 함박 경성 출생 ▲17년 경성공립보통학교 졸업 ▲24년 중등학교 졸업 경향신문 1996. 9. 8. “김광섭 시인의 서울 성북동 옛집”		
참고문헌	경향신문 1996. 7. 28. 경향신문 1996. 9. 8.		

No.	3-91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5)	키워드	대저택, 부촌 부동산 매매				
이야기 자원	서울 성북동 대저택 서울 성북동 최고급 주택단지에 자리한 대저택이 매수자를 찾는다. 성북구 성북동 13-38 소재 대지 2백62평, 건평 88평, 지상 2층 주택으로 담장을 따라 소나무 회양목 등 고급정원수 수백여 그루가 포진돼 대저택의 위용을 한껏 과시한다. 도시계획상 용도는 전용주거지역, 풍치지구에 속하며 6m 환경사도로에 접해 있다. 주변지역은 「꿈의 바다」로 불리는 성북동 고급주택단지로 대지면적 2백~3백평 규모의 고급 단독주택이 대부분이다. 매일경제 1997. 6. 15. “성북동 대저택 사실 분?” 성북-평창-청담동 손꼽히는 富村 북한산 자락에 있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의 고급주택가. 서울의 부촌은 대부분 공기 맑고 조용한 산기슭에 형성돼 있다. 이종승기자 Metro Inside 메트로 인사이드 서울 부자들 어디 사나 탈옥수 신장원의 강경도 행각이 밝혀지면서 서울의 고급주택가가 새삼스레 관심을 끌었다. '서울의 베벌리힐스'로 불릴 만한 대표적 부촌(富村)으로는 서울 성북구 성북동, 용산구 현남동, 종로구 평창동 구기동, 서초구 양재동, 강남구 청 지 않는 것도 공통된 특징. 한 경비원은 "승용차로 드나들고 필요한 건 전화로 배달시키기 때문에 불편은 없다"고 말했다. ▽성북동=산자락에 있어 맑은 공기와 서울 도심에 내려다 보는 전망을 자랑하는 저택 밀집 지역. 구한말 외친왕의 별궁이었던 성낙원(城樂園·사적 378호)이 있을 정도로 좋은 터로 성대 있다. 특히 단독주택처럼 지은 집 10여채 안팎을 묶어 담을 둘러놓고 공동 경비를 앞에 세우는 방식의 '타운 하우스'가 많다. 강모씨(32)는 "나도 이 동네 주민인데 산책 나갔다가 다른 타운하우스 경비원이 '왜 얼씬거리느냐'며 신변증을 보자고 해 화가 난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다. 500여가구가 들어서 있다. ▽양재동=롯데선교회관 주변에 30개동 200여가구의 고급 빌라촌이 형성돼 있다. 전용면적 70여평 규모의 대형 빌라가 편지에 조성돼 있다. 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돼 중진 정치인과 유명 연예인, 외사 기업체 임원 등이 많이 산다. ▽청담동=신장원이 안집극을 벌였던 청담동은 80년대 중반이후 부자들이 모여든 서울의 신흥 부촌. 강남쪽을 쉽게 오갈 수 있는 요지여서 근무처 대부분 공기 맑고 전망 좋은 산기슭에 위치 성북동-기업인 청담동-전문직들 선호도 차이 <tr><td>참고문헌</td><td colspan="3">동아일보 1999. 7. 28.</td></tr>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9. 7. 28.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9. 7. 28.						

No.	3-92	작성자	백외준
제목	1990년대 성북동 신문기사(6)	키워드	조정래, 한강, 1950년대
이야기 자원	조정래 대하소설 정노강 <5> 제1부 유형시대 1. 산비탈 까치집 그림 이종구 어머니의 이 말이 싸늘하게 울리기도 했다. “어머니도 서울로?” 김선오는 자못 놀라는 기색이더니, “하긴 너희 어머니 여장부시니까 서울에서 잠살 해도 잘 해내시겠지” 하며 그 이야기를 마무리짓는 반응을 보였다. 유일민은 김 선배의 그런 빠른 대응이 고맙기까지 했다. 김 선배가 그렇게 말한 것은 자신을 도우려는 단순한 호의일 수 있었다. 그러나 자신의 집안과 강 의원과는 김 선배가 전혀 모르는		
참고문헌	한겨레신문 1998. 5. 20. “1950년대 후반 성북동 풍경 묘사”		